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미라·유해미·김문정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저 자 조미라, 유해미, 김문정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미라(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해미(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문정(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 2022-15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32-9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영유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저출생과 어린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그간의 육아정책이 기관서비스와 현금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어 양육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육아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때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조직되고 양육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운영원리로 삼는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여러 사례에서 부모들은 지역사회의 육아공동체 활동을 통해 부모가 초기에 느낄 수 있는 육아 부담과 고립감을 덜었으며, 소규모 유연한 방식의 공동체 육아를 통해 코로나 위기시의 돌봄공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한다. 또한, 육아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의 물리적 해결 뿐 아니라 부모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례들도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 차원에서의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은 부족하였다. 2017년 이후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초등돌봄 공동체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활발히 축적된 데 비해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에 대한 지원 현황과 참여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아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제도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육아공동체 지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참여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육아공동체 참여자들의 애로사항과 요구 뿐 아니라 육아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은 부모들의 요구 조사를 통해 정책지원의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참여적이고 주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참여해주신 관계자 분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자문위원 및 검토위원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

요약	1
<b>I. 서론</b>	<b>17</b>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2.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	21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23
<b>II. 연구의 배경</b>	<b>29</b>
1. 육아공동체의 개념 및 핵심원리	31
2. 육아공동체의 운영 유형	38
3. 육아공동체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 관련 이슈 검토	49
<b>III.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b>	<b>63</b>
1.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 계획의 전개	65
2.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72
3. 육아공동체 관련 유관 계획 및 사업의 검토	88
4. 소결	100
<b>IV.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b>	<b>103</b>
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105
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114
3. 제주 수놓음돌봄사업	120
4. 전북 익산시 우리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130
5. 소결	134

---

---

<b>V.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요구</b>	<b>137</b>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139
2. 육아공동체 참여경험 .....	142
3. 참여의 어려움 .....	188
4.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지원 .....	198
5. 육아공동체 참여의향 .....	204
6. 소결 .....	216
<b>VI. 육아공동체 운영의 실제: 사례분석</b>	<b>219</b>
1. 중앙정부 지원사업 사례 .....	221
2. 지방정부 지원사업 사례 .....	233
3. 소결 .....	244
<b>VII.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 방안</b>	<b>247</b>
1. 육아공동체 활성화의 접근방향 .....	249
2.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개선 방안 .....	253
3. 영역별 세부과제 .....	259
<b>참고문헌</b> .....	<b>267</b>
<b>Abstract</b> .....	<b>279</b>
<b>부록</b> .....	<b>281</b>
부록 1. 주민조사 설문지 .....	282
부록 2. 사례조사 질문지(운영자용) .....	305
부록 3. 사례조사 질문지(참여부모용) .....	313
부록 4. 사례조사 질문지(지원담당자용) .....	322

---



## 표 목차

〈요약 표 1〉 신설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요 안 .....	15
〈요약 표 2〉 신설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 ..	15
〈요약 표 3〉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 영역별 세부과제 .....	15
〈표 Ⅰ-1-1〉 육아공동체 경험의 정의 .....	23
〈표 Ⅰ-1-2〉 지역주민 설문조사의 설계 .....	25
〈표 Ⅰ-1-3〉 사례조사 대상 육아공동체 .....	26
〈표 Ⅰ-1-4〉 1,2차 콜로키움 개요 .....	27
〈표 Ⅱ-1-1〉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방식과 관료제적 방식의 비교 .....	33
〈표 Ⅱ-1-2〉 사회적 돌봄에 대한 지역성 유형 .....	35
〈표 Ⅱ-1-3〉 사회적 돌봄에 대한 참여성 유형 .....	36
〈표 Ⅱ-2-1〉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유형 .....	40
〈표 Ⅱ-2-2〉 전북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유형 .....	41
〈표 Ⅱ-2-3〉 지역사회 초등돌봄 기준별 유형 .....	43
〈표 Ⅱ-2-4〉 지역사회 초등돌봄 사회적경제 모델 .....	44
〈표 Ⅱ-2-5〉 온종일돌봄체계 운영 모델 .....	45
〈표 Ⅱ-2-6〉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 모델 .....	46
〈표 Ⅱ-2-7〉 주요 선행연구의 육아공동체 운영 유형 및 모델의 구분 .....	48
〈표 Ⅱ-3-1〉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역할 및 과제 .....	62
〈표 Ⅲ-1-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의 주요 보완내용 ..	69
〈표 Ⅲ-2-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돌봄나눔사업(공통사업)의 주요내용 .....	73
〈표 Ⅲ-2-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돌봄나눔사업(공통사업)의 참여인원/회기수(2020년) ..	74
〈표 Ⅲ-2-3〉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가족품앗이의 참여인원/회기수 추이(2011-2020년) ..	74
〈표 Ⅲ-2-4〉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 .....	75
〈표 Ⅲ-2-5〉 공동육아나눔터 연도별 운영 실적 추이(2015-2021년) .....	81
〈표 Ⅲ-2-6〉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	82
〈표 Ⅲ-2-7〉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내용(2020년) .....	84
〈표 Ⅲ-2-8〉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공동체 유형(2020년) .....	84
〈표 Ⅲ-2-9〉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현황(2020년) .....	86
〈표 Ⅲ-2-10〉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 지역 및 공동체 수(2021-2022년) ..	88
〈표 Ⅲ-3-1〉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	89

---

〈표 Ⅲ-3-2〉 여성친화도시의 육아공동체 유관 사업내용(2021년) .....	90
〈표 Ⅲ-3-3〉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2021년) .....	91
〈표 Ⅲ-3-4〉 4대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근거 .....	92
〈표 Ⅲ-3-5〉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사업 .....	95
〈표 Ⅲ-3-6〉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원문 주요내용 .....	96
〈표 Ⅲ-3-7〉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	99
〈표 Ⅲ-3-8〉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별 특징 .....	99
〈표 Ⅳ-1-1〉 서울시 육아공동체(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	113
〈표 Ⅳ-2-1〉 2019-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	118
〈표 Ⅳ-2-2〉 2019-2020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군현황 ..	118
〈표 Ⅳ-2-3〉 2019-2020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군현황 ..	119
〈표 Ⅳ-3-1〉 2016-2022년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 현황 .....	126
〈표 Ⅳ-3-2〉 수놓음돌봄공동체 현황(2022년 4월) .....	127
〈표 Ⅳ-3-3〉 수놓음돌봄공동체 지역별 분포현황(2022년 4월) .....	128
〈표 Ⅳ-3-4〉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현황(2021년) .....	128
〈표 Ⅳ-3-5〉 수놓음육아나눔터 지역별 분포현황(2020년) .....	128
〈표 Ⅳ-3-6〉 수놓음육아나눔터 지역별 분포현황(2020년: 세부지역) .....	129
〈표 Ⅳ-4-1〉 익산시 우리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연도별 설치 지역 및 공간 ..	133
〈표 Ⅴ-1-1〉 응답자 일반적 특성 .....	139
〈표 Ⅴ-1-2〉 응답자의 자녀특성 .....	140
〈표 Ⅴ-1-3〉 응답자의 지역특성 .....	141
〈표 Ⅴ-2-1〉 육아공동체 참여 여부 .....	143
〈표 Ⅴ-2-2〉 육아공동체 활동 시작 및 종료시 자녀연령 .....	144
〈표 Ⅴ-2-3〉 육아공동체 참여기간 .....	144
〈표 Ⅴ-2-4〉 참여 육아공동체의 돌봄대상 연령대 .....	144
〈표 Ⅴ-2-5〉 육아공동체 참여계기: 순위별 .....	145
〈표 Ⅴ-2-6〉 육아공동체 참여계기: 특성별 .....	146
〈표 Ⅴ-2-7〉 육아공동체 참여형태 .....	148
〈표 Ⅴ-2-8〉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경험여부 .....	149
〈표 Ⅴ-2-9〉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전체 .....	150
〈표 Ⅴ-2-10〉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내가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	151
〈표 Ⅴ-2-11〉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봄 ..	151

---

---

〈표 V-2-12〉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음	152
〈표 V-2-13〉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시간: 1순위	153
〈표 V-2-14〉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장소: 1순위	155
〈표 V-2-15〉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경험여부	156
〈표 V-2-16〉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전체	157
〈표 V-2-17〉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공동 돌봄공간에서 돌봄을 받음	158
〈표 V-2-18〉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159
〈표 V-2-19〉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159
〈표 V-2-20〉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주된 활동시간: 1순위	160
〈표 V-2-21〉 육아관련 활동 경험여부	162
〈표 V-2-22〉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전체	163
〈표 V-2-23〉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나들이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	164
〈표 V-2-24〉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육아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164
〈표 V-2-25〉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165
〈표 V-2-26〉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이유식 및 아이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나눔	166
〈표 V-2-27〉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등하원 등 육아를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가며 함	167
〈표 V-2-28〉 돌봄공간 운영 활동 경험여부	168
〈표 V-2-29〉 돌봄공간 운영 활동횟수	168
〈표 V-2-30〉 돌봄공간 건물형태 및 점유방식	169
〈표 V-2-31〉 돌봄공간 운영주체	169
〈표 V-2-32〉 돌봄공간 운영 재정	169
〈표 V-2-33〉 돌봄공간 이용 아동 수	170
〈표 V-2-34〉 돌봄공간 운영시간	171
〈표 V-2-35〉 돌봄공간 시작 및 종료시간	171
〈표 V-2-36〉 돌봄공간 상시 돌봄인력	172
〈표 V-2-37〉 돌봄공간 운영 지역주민 참여여부	172
〈표 V-2-38〉 돌봄공간 운영 활동별 지역주민 참여횟수	173
〈표 V-2-39〉 기타 활동 경험여부	175
〈표 V-2-40〉 기타 활동 참여횟수: 전체	176
〈표 V-2-41〉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전체	176

---

---

〈표 V-2-42〉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178
〈표 V-2-43〉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아이의 돌봄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180
〈표 V-2-44〉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되었다	181
〈표 V-2-45〉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이웃, 마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82
〈표 V-2-46〉 육아공동체 만족도	184
〈표 V-2-47〉 육아공동체 추천의향	185
〈표 V-2-48〉 지역사회 인식	188
〈표 V-3-1〉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	190
〈표 V-3-2〉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순위별	192
〈표 V-3-3〉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특성별	193
〈표 V-3-4〉 육아공동체 해체 이유: 순위별	195
〈표 V-3-5〉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특성별	195
〈표 V-3-6〉 육아공동체 해체 후 교류 및 활동	196
〈표 V-3-7〉 팬데믹 하의 육아공동체의 도움 정도	197
〈표 V-3-8〉 팬데믹 하의 육아공동체 도움의 내용	198
〈표 V-4-1〉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인식	199
〈표 V-4-2〉 정부/지자체의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200
〈표 V-4-3〉 참여 육아공동체의 정부/단체 지원 경험여부	201
〈표 V-4-4〉 참여 육아공동체가 받은 정부/단체 지원의 종류 및 도움정도	201
〈표 V-4-5〉 정부/단체 지원 종료 후의 활동 전망	202
〈표 V-4-6〉 정부/단체 지원 종료 후의 예상되는 어려움	203
〈표 V-4-7〉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경험	203
〈표 V-4-8〉 정부지원 종료 후의 어려움	204
〈표 V-5-1〉 육아공동체 참여를 못한 이유	205
〈표 V-5-2〉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순위	206
〈표 V-5-3〉 영유아 돌봄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207
〈표 V-5-4〉 영유아 돌봄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연령	207
〈표 V-5-5〉 영유아 돌봄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의 기관이용	208
〈표 V-5-6〉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208
〈표 V-5-7〉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연령	209
〈표 V-5-8〉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의 기관이용	209
〈표 V-5-9〉 돌봄공간 운영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210
〈표 V-5-10〉 기타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211

---

---

〈표 V-5-11〉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연령 2 .....	211
〈표 V-5-12〉 돌봄공백 발생 여부 및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해결의향: 전체, 자녀연령 2 ..	213
〈표 V-5-13〉 돌봄공백 발생 여부 및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해결의향: 자녀의 기관이용 ..	215
〈표 VI-1-1〉 홍성군 돌봄 및 지역 거버넌스 .....	229
〈표 VI-2-1〉 경기 화성시 모아사랑터 프로그램 .....	236
〈표 VI-2-2〉 제주 함덕 수놓음육아나눔터 주요 연혁 .....	240
〈표 VII-2-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257
〈표 VII-2-2〉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신설)의 개요 안 .....	258
〈표 VII-2-3〉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 ..	258

---



## 그림 목차

[그림 II-1-1]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활동의 구성요인	37
[그림 II-2-1]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유형과 국내외 운영사례	39
[그림 II-3-1] 범정부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53
[그림 II-3-2]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 및 추진체계	59
[그림 III-2-1]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내용	77
[그림 III-2-2]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추진체계	77
[그림 III-2-3]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추진체계	81
[그림 III-2-4]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체계(2020년)	85
[그림 IV-1-1]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08
[그림 IV-1-2] 2022년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	110
[그림 IV-1-3]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주체별 역할	111
[그림 IV-1-4]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체계	112
[그림 IV-2-1]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15
[그림 IV-2-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추진체계	117
[그림 IV-3-1] 수놓음돌봄공동체 주요 프로그램 영역	122
[그림 IV-3-2]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 발굴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22
[그림 IV-3-3] 제주 수놓음육아아눔터 조성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24
[그림 IV-3-4]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 운영체계	125
[그림 IV-4-1]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기관 모집공고문 내용	132
[그림 V-2-1] 육아공동체 참여계기 (1+2+3순위)	145
[그림 V-2-2]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177
[그림 V-3-1]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	189
[그림 V-3-2]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1+2순위)	192
[그림 V-4-1] 정부/지자체의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1+2순위)	200
[그림 V-4-2]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전망 (1+2순위)	202
[그림 V-4-3]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경험 (1+2순위)	204
[그림 V-5-1] 육아공동체 참여를 못한 이유	205
[그림 VII-3-1]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266

## 1. 서론

###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저출생과 육아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는 그간 정부의 지원 방향이 기관이용 및 현금지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음. 따라서 영유아 부모의 다양한 육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적 방식의 돌봄 욕구가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제도 내용과 현황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공동체적 돌봄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영유아 부모의 공동체적 육아방식의 참여실태와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나.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

#### □ 연구 내용

- 육아공동체의 개념과 핵심원리, 육아공동체의 유형 및 이슈를 검토함.
-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주요계획의 전개와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연계 가능한 유관계획 및 사업을 검토함.
-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과 관련해 4개 지역의 정책을 검토함.
-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참여의향을 조사하여 분석함.
- 사례분석을 통해 육아공동체 참여와 운영의 실재를 살펴봄.
- 영유아 중심 지역사회 육아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 개념 및 연구범위

- 육아공동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육아를 매개로 공통된 이해와 가치·문화를 공유하며 소속감을 가지고 유대성을 추구하는 참여적 조직.
- 연구범위: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로 한정하며, 시설 중심의 대안적 육아공동체는 제외함.

## 다.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 연구내용에 따른 주요 연구방법을 절차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연구내용	세부사항 / 주요 연구방법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공동체의 개념과 핵심원리, 유형 검토</li> <li>○ 육아공동체와 관련 이슈와 쟁점 파악</li> <li>⇐ 선행연구 검토, 콜로키움</li> </ul>
육아공동체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의 전개 및 현황 분석</li> <li>○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의 가족돌봄나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분석</li> </ul> </li> <li>○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사업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제주 수놓음돌봄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분석</li> </ul> </li> <li>○ 육아공동체 관련 유관 정책 및 사업의 검토</li> <li>⇐ 관련계획 및 시책, 자료 검토, 콜로키움</li> </ul>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요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조사를 통한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공동체 활동 경험자의 경우, 육아공동체 활동 참여계기, 참여활동의 내용 및 특성, 정부지원 정도 및 도움여부, 만족도, 개선필요사항 조사</li> <li>- 육아공동체 활동 무경험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이유, 참여의향, 참여시 원하는 육아공동체 활동내용, 육아공동체 활동으로 기대하는 것 조사</li> </ul> </li> <li>⇐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li> </ul>
육아공동체 참여 및 운영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공동체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육아공동체의 실제적 운영내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서울 구로구 새싹차일드', '충남 홍성군 숲친구들 협동조합' 지방정부 지원사업의 '경기 화성시 모아사랑터', '제주시 수놓음육아나눔터 20호점' 추진배경 및 참여자들의 경험, 지원내용 분석</li> </ul> </li> <li>⇐ 운영자(부모대표), 참여부모, 지원자 서면조사 등 사례조사 실시</li> </ul>
<p style="font-size: 2em;">↓</p>	
<p>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 제시</p>	

## 2. 연구의 배경

- 육아공동체의 개념을 공동체의 개념을 통해 제시함.
- 육아공동체의 핵심원리에 대해서는 지역성에 대한 고려, 자발성 및 참여성의 강조, 정부지원의 영향의 세 가지로 검토함.
- 육아공동체의 운영유형을 살펴봄. 지역특성 및 주체들의 참여정도와 특성, 정부지원의 내용에 따라 육아공동체를 유형화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검토함.
- 육아공동체 활성화의 이슈를 검토함.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의 과제, 온종일돌봄정책을 통해 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의 과제, 마을공동체사업 검토를 통한 현장중심의 거버넌스 형성의 이슈, 공동체 조직체로서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요구, 감염병 등 위기시의 긴급돌봄 대안으로서의 공동체 돌봄에 대해 살펴봄.

## 3.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

- 중앙정부의 공동체 지원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6년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온종일돌봄정책 등 유관한 주요계획의 전개를 분석함.
  - 2006~2010년의 계획에서는 다양한 육아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육아공동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강조됨. 2011~2017년 5월의 계획에서는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과 인프라 확대가 제시됨. 2017년 5월 이후는 초등대상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가 강화됨.
-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주요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가족품앗이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이 제시됨.
  - 공동육아나눔터는 그간 실질적으로는 영유아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초등돌봄을 강조하며 확대되는 추세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영유아 및 초등까지 포괄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지원을 목표로 하나 아직 초기단계로 규모가 미미하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육아공동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들로서 육아공동체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거나 연계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유관사업을 검토함.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의 적용 및 활용도가 높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육아공동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전문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뿐 아니라 주민참여와 공동체형성을 강조하기에 육아공동체의 공간이용 측면에서 연계 및 활용 가능함.

#### 4.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

- 서울시는 공동체 지원사업의 선구 지자체로 육아공동체를 대상으로 규모 있는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나 최근 년도에 큰 변화를 보여주어 선정하여 검토함.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선도적으로 마을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육아공동체를 지원해 왔음.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자조모임과 법인, 단체 대상의 공간구축비 등으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 크게 축소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모임 당 40만원의 활동비 지원방식으로 변화함. 지원조직도 기존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고 지원대상 역시 과거 12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에서 0~6세의 영유아 대상으로 바뀌었음.
-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최근 년도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어 선정하여 검토함.
  - 경기도는 2019년부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실시함.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1억~1억1천만 원 이내로 공간구축비와 사업비를 지원함. 공사비는 5천만 원 이내 단년 지원하며 사업비는 5~6천만 원으로 3년 분할 지원함. 사업대상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임. 사업의 규모나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초기사업과 비슷함.
- 제주도의 수놓음돌봄사업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하여 검토함.
  - 제주도는 2016년부터 품앗이와 유사한 제주 미풍양속인 수놓음 정신을 추구할 것을 표방하며 수놓음돌봄사업을 실시함. 이는 공간을 공유하는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과 돌봄을 나누는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으로 구분됨.

-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기본 공간을 10평 이상 확보하고 최소 5년 간 활동계획이 마련된 비영리단체/법인에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임. 수놓음육아나눔터는 2021년 기준 41개소가 운영됨. 수놓음돌봄공동체사업은 초등이하 자녀를 키우는 다섯 가족 이상의 품앗이 모임이 지원대상이며 공동체별 최대 150만 원 이내로 지원함.
- 전북 익산시는 기초지자체 사례로 지역맞춤형 사업을 펴고 있어 선정하여 검토함.
  - 익산시는 2020년 익산시마을돌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우리마을 돌봄공동체사업’을 실시함. 만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10인 이상의 비영리단체, 주민조직 등이 지원대상임. 2021년 기준으로 공동체당 최대 4천170만 원의 공간조성비와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함. 매년 2개 사업이 지원되어 2022년 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접근성이 높고 욕구가 큰 지역중심으로 운영됨.

## 5.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요구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요구 파악을 위해 만0~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분석함. 조사는 공동체 유경험자를 의도표집하여 육아공동체 유경험자 885명, 무경험자 473명의 총 1,358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함.

### 가. 육아공동체 참여경험

- 육아공동체 참여자 특성
  - 여성이 많으며, 육아공동체에 참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의 기관 이용시간이 짧고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나 휴무직 상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육아공동체 참여계기
  -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영아의 경우 ‘혼자 육아하는 것이 힘들어서’, 유아는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의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남.

□ 육아공동체를 통한 영유아돌봄 활동

- 부모 자조모임 방식의 경우 부모들과의 함께 돌봄 비중은 96.7%이며, 부모 없이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다른 집 부모가 내 아이를 돌봐주는 품앗이 돌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 조직에서의 영유아돌봄 활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 돌봄공간에서 돌봄을 받은 경험이 55.8%, 다른 부모와 함께 돌본 경험이 76.6%,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준 경험이 39.8%로 나타남.
- 자조모임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에서의 활동 모두 공통적으로 기관이용별 분석에 있어서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경우 유보육기관을 이용하거나 기관이용을 안하는 경우보다 영유아돌봄활동의 횟수가 높게 나타남.

□ 육아공동체를 통한 육아관련 활동

- 전반적으로 육아관련 활동의 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한 경험 비중은 87.8%임.
- 유아 부모는 나들이 등 체험활동을 통한 활동과 육아관련 교육 참여 등을 함께 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 부모는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횟수가 높음.
- 맞벌이의 경우 이유식, 반찬 나눔의 비중과 등하원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 아이돌보미, 시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의 경우 전반적인 육아관련 활동의 참여횟수가 높음.

□ 돌봄공간 운영활동

- 돌봄공간을 통한 공동체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간청소, 정리정돈, 급간식 지원 등 직접적인 활동을 한 경험에 있는 경우는 39.2%, 필요한 책이나 물품 등을 기증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7.4%로 높게 나타남. 운영진으로 참여한 경우는 22.5%로 다소 낮음.
- 돌봄공간에 상주하는 돌봄인력 조사 결과 부모와 자원봉사자의 비중이 각각 22.9%, 26.5% 전체의 절반 이상이며, 돌봄장소가 있고 조직을 통해 운영되는 육아공동체의 48.5%에는 지역주민이 아이돌봄, 부모교육 등 재능기부,

공간청소 및 정리정돈, 급간식 준비 등 지원, 행사준비 및 진행, 행사참여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남.

#### □ 육아공동체를 통한 기타 활동

- 독서모임,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함께 한다는 비중이 48.5%로 절반가량임.
- 기타 활동의 비중은 공동체의 돌봄대상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높아짐. 이는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들이 취미활동, 자기개발, 취업활동을 함께 하고 이를 토대로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나. 육아공동체 참여의 만족도와 애로사항

#### □ 육아공동체 참여의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01점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의 만족도가 높았고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만족도가 높음. 돌봄대상 아동의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및 초등아동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높음.

#### □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 참여기간에 비례해 참여효과 점수가 상승함.
- 육아공동체 유, 무경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이돌봄이 필요하거나 및 아플 때 이웃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육아시 이웃의 필요성 인식, 생활만족도 및 전반적인 지역만족도의 전(全) 영역에서 육아공동체 참여경험자들이 무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남.

#### □ 육아공동체 참여의 어려움

- '아이를 돌보고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와 '바빠서 충분히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 자조모임에 비해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인 경우 구성원들 참여가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는 정도가 크게 나타남.

#### □ 육아공동체 중단 및 해체

- 육아공동체 참여경험자 중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활동 중단 이유를 분석한 결과(1+2순위) '직장 등 다른 일로 바빠져서' 38.4%.

‘아이가 보육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33.2%, ‘거주지 이전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져서’ 24.1% 순으로 나타남.

- 공동체가 해체되어 중단한 이들에게 공동체 해체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1순위) ‘아이들이 보육 및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18.8%,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임이 어려워져서’ 18.8%,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되어서’ 16.7%로 나타남.

#### □ 육아공동체 해체 이후의 활동

- 참여했던 부모들이 교류하거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지낸다는 응답비중은 각각 3.08점, 3.02점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자녀성장에 따라 초등돌봄 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진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그렇다+매우그렇다) 각각 27.1%, 29.2%로 나타남.

#### □ 팬데믹 하의 육아공동체 활동

- 팬데믹 하의 육아공동체 활동 도움 정도 조사결과 ‘도움이 되었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80.2%로 높게 나타남.
- 도움내용에 대해 ‘소규모였기에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44.3%, ‘기존처럼 활동하진 못했지만 일부 구성원들과 육아품앗이를 하였다’ 41.8%, ‘비대면으로 교류하면서 정보교환 등 도움을 주고받았다’ 38.9%, ‘긴급한 돌봄 필요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31.7%의 응답률을 보임.

### 다. 정부지원의 인식 및 경험

####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필요성

- 전체의 93.1%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특성별로는 비수도권, 농어촌, 읍면 거주자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지원방안 조사결과, ‘관공서나 유희공간을 공동 돌봄 공간으로 개방’ 33.8%, ‘육아공동체의 운영비 지원’ 28.0%, ‘공동의 돌봄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12.7%의 응답률을 보여 공간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지원여부

- 지원을 받은 경우는 48.8%임. 지원내용 조사결과 예산 지원이 97.7%로 많았으며. 공간, 컨설팅, 인력지원 모두 80%를 상회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받은 내용의 도움정도는 4점 척도의 3.19~3.3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 정부지원 종료 후의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1순위) '자체 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한다' 30.6%, '활동을 일시중단하거나 해체한다' 27.8%, '다른 자생적 방법을 찾는다' 21.1% 순으로 나타남.
- 지원경험이 있으나 지원이 종료된 자에 한해 이후 활동에 대해 조사결과(1순위) '자체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생적 방안을 강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라. 육아공동체 참여의향

□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의 이유

- '육아공동체를 잘 몰라서' 60.1%, '참여 가능한 육아공동체의 정보가 없어서' 54.1%로 나타남(1+2순위).

□ 육아공동체를 통한 영유아돌봄 활동 참여의향

- '이웃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봐줌',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공동 돌봄공간에서 아이가 돌봄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음'에 참여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남.
- 자녀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반일제 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향후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남.

□ 육아공동체를 통한 육아관련 활동 참여의향

-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에 대한 참여의사가 약 4점(5점 척도)으로 높게 나타남.
- '등하원 등을 위한 이동을 해줌', '육아 관련 교육 참여, 상담활동', '이유식 등을 만들어 교환'에 대해서는 보통정도의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반일제 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경우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남.

- ‘돌봄공간 운영진으로 참여하겠다’는 경우는 다소 낮게 보통 이하로 나타남.

□ 돌봄공백 발생시 공동체를 통한 해결의사

- 공백발생시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방학 등 기관 미이용시 79.6%, 평일 늦은 오후 72.4%, 긴급상황 발생 시 70.7%로 나타남.

## 6. 육아공동체 운영의 실제: 사례분석

- 육아공동체 운영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 4개 육아공동체 운영사례를 분석함. 분석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사업을 받는 공동체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정함. 사례별 운영자(또는 참여부모 대표) 1인, 참여부모 2~3인, 지원사업 담당자 1인에 대해 실시한 서면인터뷰 결과와 각 공동체의 내부자료 등을 분석함.

### 가. 중앙정부 지원사업 사례

□ 서울 구로구 ‘새싹차일드’

- (추진배경) 서울시 구로구 가족센터는 2021년 18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며 2020~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6개 공동체를 발굴지원하고 있음. 특히 공동체 소재 지역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가 많이 있으나 돌봄시설 및 인프라가 부족함.
- (참여동기) 자녀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참여함. 부모들이 자녀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회 확보 등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도 지님.
- (운영/지원) 2~6세아 8명에게 돌봄을 제공하며 돌봄장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정이나 지역도서관 등을 이용함. 구로구 가족센터는 돌봄공동체별로 300만원 내외를 재료비, 간식비, 외부강사비, 체험료 등으로 지원하며 돌봄주체자 5인 돌봄아동 8인 이상을 충족할 때 지원함.
- (활동/효과) 기관하원 후 주2회씩 3시간(오후4시반~7시반) 가량 정기모임을 가짐. 오감활동, 자연체험, 견학 등을 진행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해 긴급돌봄과 틈새돌봄을 나눔. 주요 효과로는 감염병 등 긴급돌봄시의 대응과 정보공유와 참여기회 확보용이, 아동과 부모의 성장을 언급함.

- (요구/계획) 참여부모는 돌봄공간 확보가 어려우므로 정부시설 등에 대한 우선이용제 등을 제안함. 외부활동시 연령제한 등으로 참여제한이 있는데 지원 조건으로 활동횟수가 규정되어 있어 불편함을 호소함. 운영자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함. 지원담당자는 행정시스템의 시정을 요구하고 숲, 텃밭 등 지역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밝힘.

□ 충남 홍성군 '숲친구들 협동조합'

- (추진배경) 사례대상 공동체는 공동육아 품앗이 모임에서 시작되어 2021년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이어간 경우임. 공동체 소재 지역은 타 지역에서 홍성 내에 조성된 신도시로 이주한 이들이 많이 있음.
- (참여동기) 아이와 직접 교감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이용을 늦추고 육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였음. 현재는 자녀들이 기관이용을 하고 있어 하원 후에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참여부모들은 품앗이활동을 하며 생태놀이에 공동의 관심사를 갖게 되어 산림청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숲친구들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생태 및 자연놀이로 홍성군 문화특화지원사업 참여하는 등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운영/지원) 2019년 당시 3세의 품앗이돌봄에서 시작했기에 현재 6세가 된 아이들이 주 돌봄대상임. 8명의 돌봄주체자, 형제자매를 포함해 총 미취학 및 취학아동 20명으로 구성됨. 지원조직인 홍성군 지원센터는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계기로 홍성군 돌봄거버넌스인 '돌봄통'에 참여하고 주제별 거버넌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
- (활동/효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주2회 하원 후 1~3시간씩 정기모임을 갖고 있음. 6세아를 주축으로 형제자매들과 바깥에서의 생태놀이를 주로하며 계절별, 테마별로 기획해 돌아가며 진행하며, 일상적으로 홍성군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공유해 함께 활동함. 공동체 육아로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활동을 기획해 실천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참여자들의 사회활동도 활발해졌음. 신뢰할만한 이웃이 생긴 점을 가장 큰 효과로 인식함.
- (요구/계획) 참여부모는 정부지원사업의 행정처리의 부담과 돌봄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개선방안으로 보조금을 담은 활동지원금 카드를 발급하고 외부 돌봄장소 방문시 할인 등의 방안을 제시함. 운영자는 자녀성장과 및 공

동체 성장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 지원 영역의 확장을 제언함. 지원담당자는 육아공동체사업에 대해 실적 위주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협업을 강조함.

## 나. 지방정부 지원사업 사례

### □ 경기 화성시 ‘모아사랑터’

- (추진배경) 모아사랑터는 아파트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공동체 돌봄공간을 조성하자는 협의로 추진되었으며 모아사랑터의 운영자는 아파트의 공동체 이사를 역임하고 있음. 공동체 소재 지역은 지역 내 영유아 돌봄인프라가 부족하고 특히 유치원의 공급이 적어 공동체적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모들의 참여율이 높음.
- (참여동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꼽았으며, 기관이용을 기피하는 아동의 돌봄 대응도 제기됨.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참여하기도 함.
- (운영/지원) 모아사랑터는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주말엔 운영하지 않음. 돌봄공간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임. 공동체운영 인력은 총11명이나 통상 4명이 참여해 인력이 부족함.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통해 공간조성비로 5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 원을 3년간 20%, 40%, 40%로 분할해 지원받음. 구성원역량강화 사업도 지원받고 있음.
- (활동/효과) 오전시간에는 영유아돌봄, 오후에는 초등생 돌봄이 중심이 됨. 상시프로그램으로는 미술활동, 책놀이, 아빠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온라인프로그램도 진행함. 영아돌봄시에는 양육자 동반이 원칙이며, 유아 이상은 프로그램별로 규정이 상이함. 오전과 오후로 주요 돌봄대상을 바꾸어 공간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과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포괄하므로 긴 기간 공동체 참여가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제기함.
- (요구/계획) 참여부모는 오전은 영아 기준의 프로그램, 오후는 기관에 다니는 유아 및 초등생 기준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비되길 요구함. 운영자는 인력 부족을 주된 어려움으로 호소함. 큰 행사에만 부모참여가 있어 한계가 크고 강사구인과 인건비 책정의 애로사항이 큼. 지원담당자도 많은 공동체가 1~2인의 운영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돌봄강사의 처우문제를 제기함. 공동체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참여인력의 아동학대, 성범죄 조

회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어렵고 중복사업이 많으므로 중앙의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함.

□ 제주시 ‘수놓음육아나눔터 20호점’

- (추진배경) 지역 내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없어 부모들이 직접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가 큼. 또한 이주민이 많은 지역특성상 공동체 참여가 새로운 지역에서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기에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큼.
- (참여동기) 2017년 2월에 빌라단지의 방치된 주민자치회실을 개조해 육아나눔터를 개소함. 운영자는 지역적으로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육아나눔터사업을 시작하였음.
- (운영/지원) 수놓음육아나눔터는 주민자치형으로 운영방식이 상이하나 20호점은 3명의 자원봉사자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실버프로그램을 통해 1인의 공간청소 지원을 받고 있음. 수놓음육아나눔터 사업을 통해 5천만 원의 공간 조성 및 물품구입을 지원하고 연간 6백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함. 2021년과 2022년 활동가 양성을 통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함. 사후관리의 개념은 없으나 타 사업의 제안 등 지속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활동/효과) 지역 내 300명의 가량의 아이들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음. 초기에는 무료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지역 수요를 파악함. 이후 육아나눔터에 기반한 자조모임이 증가했으며 현재는 일상적으로 함께 육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
- (요구/계획) 운영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 부족을 지목하고 새로운 운영위원의 발굴이 시급하며 관련해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지원담당자는 도내 사업이 활성화 된 가운데 다차년도 참여자가 증가했기에 사업 공동체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운영자는 자녀가 성장해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나눔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함.

## 7.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 방안

- 육아공동체 활성화의 접근방향을 설정하고 여건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업 개선방안과 세부과제를 제시함.

### 가. 육아공동체 활성화의 접근방향

-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녀성장과 구성원들의 욕구다변화로 인한 육아공동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함.
- 육아공동체 지원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참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나.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개선 방안

-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 진입장벽이 낮은 부모 자조모임 방식의 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확대하여 영유아부모의 육아공동체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함. 이때 영유아 및 초등생까지 포괄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영유아의 이용편이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부터 시행된 여가부 돌봄공동체 사업의 경우 지원체계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요함.
-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의 강화 및 정비
  -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사업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전문성을 갖춘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제안하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도시재생사업과의 협력 및 연계를 제안함. 지역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 육아를 넘어선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녀성장과 구성원들의 욕구 다변화에 따라 온종일돌봄사업, 마을교육공동체사업, 평생교육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공동체사업은 유동적이고 반응적인 특성이 있어 사업조정과 협의의 필요성이 큼. 따라서 지역 현장에서의 협의체의 구성과 실질적인 역할이 강조됨.

□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신설 제안

- 영유아 중심의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은 부재함.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가정양육이 확대되고 육아공동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신설을 제안함.
- 신설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음.

〈요약 표 1〉 신설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요 안

구분	내용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1
지원대상	0세~만6세 영유아를 둔 5가구 이상의 모임
지원내용	-돌봄공간 지원 (돌봄인력 상주) -활동비 지원 (영유아 1인당 월2~3만원 지원) -건설팅 및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지원기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원	중앙정부

〈요약 표 2〉 신설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

구분	내용
인건비	돌봄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자조모임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설개보수비	돌봄공간 시설개보수비 (지역별 필요시 지원)

다. 영역별 세부과제

□ 육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영역별로 세부과제를 제시함.

〈요약 표 3〉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 영역별 세부과제

영역	세부 과제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공동체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온라인 모임의 활성화 지원</li> </ul>
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공동체에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의 활용</li> <li>• 거점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li> <li>• 중간지원조직 간 협의기능 강화</li> </ul>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차원의 공동체 공간 조성 강구</li> <li>•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육아공동체 공간의 마련</li> <li>• 주민 공용공간의 활용 및 관리</li> </ul>

영역	세부 과제
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인력풀의 활용 및 관리</li> <li>• 예산지원시 가용범위 확대 등 참여자 권한 강화 및 편이성 증대</li> <li>•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li> </ul>
수요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의 성숙과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차별화된 컨설팅의 제공</li> <li>• 기관이용 가구를 위한 보완모델의 마련</li> <li>• 유연한 생활패턴을 지닌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li> </ul>

# I

## 서론

- 0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02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
- 0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간 한국사회 육아정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기관과 비용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모의 다양한 돌봄 욕구와 돌봄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성과 참여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적 방식의 돌봄은 부모의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류경희, 김순옥, 2001; 마유미, 정선아, 2021; 조운경, 2011).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는 높은 접근성으로 돌봄공백을 메우는 효과가 크기에 코로나19 위기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한 일부 소규모 시설과 공동체들이 주목받기도 했으며(김송이, 황선영, 2021: 231-232, 251), 공동체 참여로 육아기 부모의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개인적 성장과 시민성의 고양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의 물리적 해결을 넘어서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이현옥, 박주희, 2019; 장수정, 2012; 조미라, 2020).

이와 같은 공동체적 돌봄의 유용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통해 육아공동체를 지원해 왔다. 즉, 2000년대 중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개별가구에 대한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지역참여 및 공동체성 회복까지 정책목표를 확대하였으며, 정책대상 또한 영유아를 둔 가정 내 양육가구 지원에서 초등생과 맞벌이가구, 지역주민으로 범위를 확장하였다.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품앗이 육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고(대한민국정부, 2009: 81) 2차 저출산 계획에서는 수요자 중심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제시되었으며(대한민국정부, 2011: 70), 3차 이후 저출산 계획에서는 맞춤형 돌봄지원 강화 차원에서의 초등이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이 강조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85). 이어 4차 계획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확대와 함께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모델개발까지 포괄하게 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 73). 또한 2017년 발표된 온종일돌봄정책은 초등돌봄의 공공 인프라 강화와 함께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생태계 구축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포함한다(관계부처 합동, 2017).

지방정부 역시 지역사회의 여건과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기반 맞춤형 육아공동체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주연, 조경욱, 최지훈, 2021: 4).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아동돌봄과 마을공동체의 확산을 목표로 2012년부터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공동육아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민선7기부터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경기도 아동돌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 차원에서는 현장밀착성을 높인 정책들을 추진한다. 기초지자체들은 지역특성과 욕구에 따라 마을공동체 수립계획의 한 영역으로 육아공동체를 포함하여 지원하거나,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시책에 시·군·구 고유의 프로그램과 예산을 더하여 보완하기도 한다. 한 예로, 전북 익산시에는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2020.1.18.)'를 근거로 아파트나 유희공간을 이용해 자생적으로 육아공동체를 이끄는 주민들에게 시설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이주연 외, 2021: 117-118), 전남 강진군은 야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준비를 추가 편성해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위라점, 2020: 26).

이처럼 공동체적 방식의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년 온종일돌봄 정책 도입에 따라 초등돌봄에 초점을 맞춘 아동돌봄 공동체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된 데 비해 영유아 중심으로 공동체적 방식의 돌봄 실태와 정책요구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영유아에 대한 돌봄지원이 기관 위주로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영유아 부모의 다양한 육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적 방식의 돌봄의 욕구가 있는지 파악해 볼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제도 내용과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공동체적 돌봄 지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영유아 부모의 공동체적 육아방식의 참여 정도와 요구를 파악하여

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

###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배경으로 육아공동체의 개념과 핵심원리, 유형과 쟁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즉, 육아공동체의 개념과 핵심원리에 대해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의 육아공동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공동체적 방식의 돌봄이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육아공동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정책적으로도 유형을 구분해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행연구 및 정책에서 제시하는 육아공동체의 유형 및 모델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육아공동체와 관련한 중앙정부 및 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방향 및 목표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계획들의 전개와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사업인 여성가족부의 가족돌봄나눔사업을 가족품앗이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중심으로 내용과 현황을 다루었다. 공동체 현장의 적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더해 지역사회에서 육아공동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인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사업은 광역단위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사업을 선정하고 기초단위로 전북익산시의 우리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총 4개 사업을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경과를 다루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체계, 추진실적을 조사하여 지역별 정책환경과 육아공동체 사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참여의향을 조사하였다. 전국단위

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0~8세 자녀를 둔 육아공동체 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참여계기, 참여횟수나 참여활동 종류 등 참여활동의 내용과 만족도, 개선필요사항 등을 조사하고, 육아공동체 무경험자에게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 참여의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팬데믹 하에서의 참여,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지원 여부 및 내용, 지원중단 경험을 조사하고 육아공동체 참여중단자에게는 중단이유와 구성원들과의 교류 등을 조사하여 육아공동체에 대한 참여실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다섯째, 사례분석을 통해 육아공동체 참여와 운영의 실재를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4개 사례를 선정해 지역환경과 구성원들의 특성을 포함해 육아공동체의 운영과 참여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운영자(또는 참여부모 대표), 참여부모, 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육아공동체 운영과 참여의 내용, 정부지원의 내용, 참여 및 지원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육아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전(全) 과정을 종합하여 육아공동체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 나. 개념 정의 및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육아공동체의 개념적 정의를 공동체의 개념과 결부해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박효종(2008)의 개념에 의하면 공동체는 공유된 이해(공통의 문화, 가치, 규범), 정체성(공통의 문화, 가치, 규범을 내재화), 소속감(공동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참여)의 속성을 가지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과 정신적 유대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박효종, 2008: 128-131, 김승보, 김민석, 김형만, 이혜숙, 2020: 33에서 재인용). 이상의 검토에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육아를 매개로 공통된 이해와 가치·문화를 공유하며 소속감을 가지고 유대성을 추구하는 참여적 조직'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의 개념을 토대로 요소별 조작적 정의를 시도한다면 아래와 같다.

〈표 I-1-1〉 육아공동체 경험의 정의

구분	내용
공유된 이해	직접 육아 또는 육아를 위한 기획, 준비, 평가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함
참여성	일정 기간 이상의 공동체 유지 및 일정 횟수 이상의 참여를 요구함
유대성과 소속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실제 적정 횟수 이상 참여함
지리적 공간	대면 활동이 가능한 지역
육아공동체 경험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닌, 육아 또는 육아를 위한 기획, 준비, 평가를 위한 활동을 여러 명이 함께 일정 횟수(또는 일정 기간) 이상 진행된 모임에 적정 횟수(또는 적정 기간) 이상 대면으로 참여한 경우 ※ 팬데믹 시기 대면모임을 대체한 비대면 모임은 포함

연구범위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로 한정하였다. 이 유인즉, 초등생 이상은 온종일돌봄사업 정책 등으로 독립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는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에서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초등돌봄을 포괄하는 경우가 있어 영유아에 더해 초등생을 포괄하는 육아공동체도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그리고 ‘영유아와 초등생’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체를 포괄한다.

또한 목적별 구분에 있어서는 시설 중심의 대안적 육아공동체는 제외하였다. 여기서 대안적 공동체는 주된 보육, 교육시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회원들끼리 공동체조직을 형성한 것으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육아와 대안학교 등이 예가 된다. 이를 포함할 경우 시설 설립과 운영 등 조직 차원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나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충분히 다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육아공동체의 개념 등의 이론 검토와 육아공동체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내용과 현황 분석에서 주로 쓰였다.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서 육아공동체의 개념과 핵심원리,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와 정부부처 발행 보도자료, 기사, 공동체

조직 문서 등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규 및 제도의 내용과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된 정부의 정책계획과 규정 및 각종 보도자료를 검토하였다.

##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참여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만0~8세 자녀를 둔 부모 1,500명이며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동 유경험자 500명을 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하여 포함하였다. 즉, 1,000명은 조사업체의 온라인패널을 활용하고 500명은 육아공동체 지원기관 협조를 유경험자를 표집하였다. 육아공동체 지원기관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았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17개 시도별 개소수 322개소(2022년 9월 기준)에 비례하여 320명 할당하였으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대표 센터 1개씩을 선정(주로 광역센터)하고 수도권 45명(3개 센터×15명), 비수도권 135명(14개 센터×10명, 이중 10개 도 지역 센터의 경우 읍면거주자 5명 포함), 제주 5명(1개 센터)을 배정해 총 180명을 할당해 표집하였다. 또한, 성별, 자녀연령, 지역규모에 따른 세부 집단별로 최소표본수를 배정하여 읍면동 거주자 15% 이상, 자녀연령 0세~만2세(영아) 15% 이상, 남성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9월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내용으로는 우선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참여활동의 계기, 공동체 활동의 내용(돌봄대상, 참여활동-영유아돌봄, 육아관련활동, 기타활동에 대한 내용, 횟수, 시간, 장소 그리고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 참여시 돌봄공간 운영활동 및 돌봄공간 특성 및 운영), 참여의 어려움 및 만족도(참여 중 어려움, 팬데믹시 공동체 참여, 현재지속여부 및 중단시 사유, 공동체 해체경험시 이유, 해체이후 어려움 정도 및 구성원과의 교류, 참여효과 및 만족도, 추천의향),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지원(정부지원 내용 및 도움 정도, 개선필요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육아공동체 활동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육아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참여의향, 참여시 원하는 육아공동체 활동내용(영유아돌봄, 육아관련 활동, 돌봄공간 운영, 기타 활동에 대한 종류별 활동의향

정도), 돌봄공백 여부 및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해결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거주지역(시도, 시·군·구), 취업상태, 배우자 유무 및 배우자 취업상태, 가구소득, 자녀연령, 자녀수, 자녀의 기관·서비스 이용실태, 지역사회 인식을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육아공동체 총 1,559명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부적합한 사례를 제외하고<sup>1)</sup> 최종적으로 육아공동체 유경험자 885명과 육아공동체 무경험자 473명의 1,358명의 사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I-1-2〉 지역주민 설문조사의 설계

구분	내 용
조사목적	○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참여의향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표본수	○ 만0~8세 자녀를 둔 부모 1,500명
표집	○ 육아공동체 활동 유경험자 500명 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 - 공동육아나눔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한 할당 ○ 성별, 자녀연령, 지역규모별 최소 표본수 배정 - 성별: 남성 50% 이하 - 자녀연령: 영아(만2세미만) 15% 이상 - 지역특성: 읍면 최소 15% 이상
조사시기	○ 2022년 9월
조사방식	○ 온라인조사
주요 조사내용	○ 육아공동체 활동 유경험자 - 참여계기 - 참여경험: 영유아돌봄, 육아관련 활동, 돌봄공간 운영(돌봄공간 특성 포함), 기타 활동에 대한 종류별 활동여부·횟수·시간·장소 - 참여의 어려움 및 만족도: 참여 중 어려움, 팬데믹시 공동체 참여, 현재 참여 지속여부 및 중단시 사유, 공동체 해체경험시 이유, 해체이후 어려움 정도 및 구성원과의 교류, 참여효과 및 만족도, 추천의향 -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지원: 정부지원 내용 및 도움 정도, 개선필요사항 ○ 육아공동체 활동 무경험자 (0세~만6세 자녀가 있는 경우) - 육아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참여의향 및 원하는 육아공동체 활동: 영유아돌봄, 육아관련 활동, 돌봄공간 운

1) 본 연구의 주민조사는 자녀연령이 0세~만6세 영유아 시기일 때 부모의 육아공동체 경험과 의향을 묻는 조사이나, 공동체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고려하고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과 이후 구성원과의 교류 등의 조사 용이성을 위해 조사당시 0세~만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시기 경험을 회고해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응답자 전원이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분석결과 육아공동체 참여시작시 활동의 주된 대상이 된 자녀연령이 만7.8세인 사례(N=201)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영유아시기 육아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둔 본 연구목적상 적합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구분	내 용
	영, 기타 활동에 대한 종류별 활동의향 정도 - 돌봄공백 여부 및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해결의향  ○ 일반사항: 거주지역(시도, 시·군·구), 취업상태, 배우자유무 및 배우자 취업상태, 가구소득, 자녀연령, 자녀수, 자녀의 기관·서비스 이용상태, 지역사회 인식

## 다. 사례조사

사례조사는 육아공동체의 실제적인 운영내용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의 기여 및 참여자들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분석 사례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사업을 받는 육아공동체의 사례를 지역특성별로 중앙정부-수도권 '서울 구로구 새싹차일드', 중앙정부-비수도권 '충남 홍성군 숲친구들 협동조합', 지방정부-수도권 '경기 화성시 모아사랑터', 지방정부-비수도권 '제주시 수눔음육아나눔터 20호점'의 총 4개의 육아공동체를 선정하였다. 사례별로 운영자(또는 참여부모 대표) 1인, 참여부모 2~3인, 지원사업 담당자 1인에 대해 서면인터뷰를 실시하고 공동체 내부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I-1-3〉 사례조사 대상 육아공동체

지역	육아공동체	돌봄대상	정부지원사업	인터뷰 대상자
서울 구로구	새싹차일드	영유아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사업	- 운영자(부모 대표) 1인 - 참여부모 3인 - 사업지원자(센터) 1인
충남 홍성군	숲친구들 협동조합	영유아 및 초등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사업	- 운영자(협동조합 대표) 1인 - 참여부모 2인 - 사업지원자(센터) 1인
경기 화성시	모아사랑터	영유아 및 초등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 운영자(부모대표) 1인 - 참여부모 3인 - 사업지원자(지자체) 1인
제주시	수눔음육아나눔터 20호점(위드숲)	유아 및 초등	제주 수눔돌봄사업	- 운영자(나눔터 운영진) 1인 - 참여부모 2인 - 사업지원자(센터) 1인

## 라. 콜로키움

연구과제의 주요개념과 과제를 공유·토론하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으로서 콜로키움을 2회 개최하였다. 1차 콜로키움에서는 ‘사회정책과 육아공동체의 전개’를 주제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전개해 왔는지, 정책과 공동체는 어떤 상호작용으로 변화를 일구어 왔는지에 대해 논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전망을 모색하며, 2차 콜로키움에서는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에서의 공동체 활동의 어려움, 중앙과 지역의 역할갈등과 충돌, 중앙과 지역의 역할 및 중앙의 보완책에 대한 쟁점과 이슈에 대해 논하였다.

〈표 I-1-4〉 1,2차 콜로키움 개요

구분	1차 콜로키움	2차 콜로키움
주제	사회정책과 육아공동체의 전개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내용	정책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전개해 왔는가, 정책과 공동체는 어떤 상호작용으로 변화를 일구어 왔는가에 대한 논의 및 앞으로의 역할과 전망 모색	지역에서의 공동체 활동의 어려움, 중앙과 지역의 역할갈등과 충돌, 중앙과 지역의 역할 및 중앙의 보완책에 대한 쟁점과 이슈 제시
일시 및 장소	- 2022. 6. 8.(수) 14:00-16:00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2022. 7. 7.(목) 14:00-16:00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마.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실무협의회

육아공동체, 지역사회 돌봄, 마을공동체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부처 관계자의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방향 설정, 연구방법 검토, 설문지 및 조사지 개발, 조사자료 검토, 조사결과 해석,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시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 제시된 주제 및 단계별 1~2회의 자문회의 또는 간담회(원내 멘토링 포함)를 실시하였다.

## 바. 연구 추진 절차

이상의 연구 내용과 연구 내용별 세부사항 또는 주요 연구방법을 절차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내용	세부사항 / 주요 연구방법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공동체의 개념과 핵심원리, 유형 검토</li> <li>○ 육아공동체와 관련 이슈와 쟁점 파악</li> <li>⇐ 선행연구 검토, 콜로키움</li> </ul>
육아공동체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의 전개 및 현황 분석</li> <li>○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의 가족돌봄나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분석</li> </ul> </li> <li>○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사업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제주 수놓음돌봄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분석</li> </ul> </li> <li>○ 육아공동체 관련 유관 정책 및 사업의 검토</li> <li>⇐ 관련계획 및 시책, 자료 검토, 콜로키움</li> </ul>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요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조사를 통한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공동체 활동 경험자의 경우, 육아공동체 활동 참여계기, 참여활동의 내용 및 특성, 정부지원 정도 및 도움여부, 만족도, 개선필요사항 조사</li> <li>- 육아공동체 활동 무경험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이유, 참여의향, 참여시 원하는 육아공동체 활동내용, 육아공동체 활동으로 기대하는 것 조사</li> </ul> </li> <li>⇐ 만8세 이하 자녀 둔 부모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li> </ul>
육아공동체 참여 및 운영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공동체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육아공동체의 실제적 운영내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서울 구로구 새싹차일드', '충남 홍성군 숲친구들 협동조합' 지방정부 지원사업의 '경기 화성시 모아사랑터. 비수도권' '제주시 수놓음육아나눔터 20호점' 추진배경 및 참여자들의 경험, 지원내용 분석</li> </ul> </li> <li>⇐ 운영자(부모대표), 참여부모, 지원자 서면조사 등 사례조사 실시</li> </ul>
<p>↓</p> <p>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 제시</p>	

# II

## 연구의 배경

- 01 육아공동체의 개념 및 핵심원리
- 02 육아공동체의 운영 유형
- 03 육아공동체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 관련 이슈 검토



## II.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 공동체와 육아공동체의 개념과 핵심원리 및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육아공동체의 유형 및 모델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육아공동체와 관련한 이슈와 쟁점, 개선과제를 살펴 육아공동체를 둘러싼 현안과 과제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 1. 육아공동체의 개념 및 핵심원리

가장 먼저 육아공동체의 개념과 핵심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육아공동체의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육아공동체의 핵심원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돌봄에 있어서 관료제적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공동체적 방식의 특성을 보여주고 핵심원리를 도출하여 검토하였다.

#### 가. 공동체와 육아공동체의 개념

공동체는 공유된 이해, 정체성, 소속감의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김승보 외, 2020: 32~33).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는 공통의 가치, 목적, 규범을 공유하는 것이며, ‘정체성(identity)’은 이러한 가치, 규범이 문화적으로 공동체들 사이에 내재화된 것을 의미하고 ‘소속감(sense of belongings)’은 공동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감각을 뜻한다(박효종, 2008: 128-131, 김승보 외, 2020: 33에서 재인용).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를 개념화할 때 이상의 세 가지 차원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과 ‘정신적 유대’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필요가 있다(박효종, 2008: 128-131, 김승보 외, 2020: 33 재인용).<sup>2)</sup> 지리적 공간 정신적 유대를

---

2) 정신적 연대의 성질 혹은 지리적 공간의 성질 하나만을 갖는 공동체도 존재할 수 있다. 예로, 정신적 연대를 강조한 공동체로는 신앙공동체,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를 예로 들 수 있으며(박호성, 2014: 572; 김승보 외, 2020: 33에서 재인용), 지리적 공간을 강조한 공동체는 과거의 전통적 개념의 공동체를 예로 들 수

모두 갖춘 경우로는 일정 공간에서 교류가 가능한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지리적 공간이 존재하나 추상적인 범주로 존재하고 정신적 유대관계가 강조되는 경우로는 국가공동체, 민족공동체 등이 있다(김승보 외, 2020: 34).

이때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는 유사하게 쓰이며 돌봄, 교육, 생산 등의 일상과 생활공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공간 내에서 지역과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현안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존재한다. 즉 특정한 공간을 공유하며 공통의 가치, 목적, 규범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과제들을 공유하고 해결해 가며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김승보 외, 2020: 34-35).

특히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의 사업의 중심에는 육아, 돌봄, 교육의 문제가 나타난다(김동택, 2014: 66-67, 김승보 외, 2020: 39에서 재인용). 장수정(2012)은 돌봄공동체를 표방한 선구적인 사례로 마포구 두레생협이 노인돌봄공동체를 연구하며, 돌봄공동체에 대해 ‘지역 내 돌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상호 호혜성과 신뢰에 기초한 돌봄을 지향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서술하였다(장수정, 2012: 39).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육아공동체를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육아를 매개로 공통된 이해와 가치·문화를 공유하며 소속감을 가지고 유대성을 추구하는 참여적 조직’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 나. 육아공동체의 핵심원리와 작동

육아공동체의 핵심원리와 작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돌봄에 있어서의 공동체적 접근의 특성을 관료주의적 접근과 비교하고 주요원리를 ‘지역성’과 ‘참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육아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서 ‘정부지원’에 대해 서술하였다.

---

있을 것이다. 튀니스는 ‘공동체’의 성질로 본원적 의지와 선택적 의지를 설명하며 본원적 의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선택적 의지는 관념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형성된 성질로 설명한다. 또한, 뒤르켐은 ‘사회분업론’에서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구분하고 전자는 전통사회의 개념이며 후자는 노동분화에 따른 개인의식이 강조된 것이라고 하였다. 튀니스의 본원적 의지, 뒤르켐의 기계적 연대는 지리적 공동체에 내재된 개념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다차원적 네트워크 상태에 놓여 있어 지역 또는 마을공동체를 지리적 특성만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정신적 특성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김승보 외, 2020: 33)

## 1) 사회적 돌봄에 있어서의 공동체적 접근의 특성

사회적 돌봄에 있어서 공동체적 방식의 접근은 2000년대 이후 유연한 서비스 공급을 중요시하는 개인화(personalization)의 경향에 따라 이용자의 독특성(heterogeneity)와 개별성(individuality) 보장이 중요해지면서 강조되었다(김은정, 2015: 156~158).<sup>3)</sup> 공동체적 방식의 돌봄은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의 특성은 관료주의적 방식과 비교할 때 명확해진다.

관료주의적 방식이 미리 만들어진 규격화, 표준화된 서비스를 수직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데 치중하는데 비해 공동체적 방식은 자발적인 방식으로 융통적인 생산을 강조한다. 또한, 관료제적 방식이 돌봄수혜자를 대상자(소비자)로 보고 돌봄공급자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데 비해 공동체적 방식은 돌봄수혜자와 공급자가 서로돌봄으로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리가 가깝다. 따라서 공동체적 방식에서 돌봄수혜자와 생산자는 분리되지 않으며 돌봄수혜자는 당사자로 규정되고 이들의 참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김은정, 2015: 159-161).

〈표 II-1-1〉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방식과 관료제적 방식의 비교

주체	공동체적 방식	관료제적 방식
공급구조	-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 - 통합적이고 융통적인 돌봄생산 강조 - 자발적 돌봄공동체 기반 (community-based)	- 수직적 전달구조 확보 - 선규격화, 표준화된 서비스전달강조 - 공식적 돌봄서비스 공급기관 기반 (social agency-based)
돌봄주체 간 관계성	- 돌봄생산/소비주체 간 공동생산강조 - 돌봄관계자간 상호수평관계성 전제	- 돌봄공급/대상자의 역할분리 강조 - 돌봄공급/대상자 간 수직관계성 전제
돌봄수혜자의 성격	- 돌봄당사자	- 돌봄대상자
돌봄생산성의 가치	- 돌봄당사자의 참여성	- 돌봄공급자의 전문성, 합리성, 정확성

출처: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p. 160-161 (표 2) 발췌.

3) 일상생활에서의 돌봄을 포함한 사회적 돌봄은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정책화되어 이 영역의 고유성격에 대해 논하게 되고, 이때 공동체주의 외에도 바우처 방식과 같은 소비자주의적 접근도 동시에 중요하게 다뤄졌으나 이는 '서비스의 파편화'를 야기하며 공동체주의적 방식의 제공을 더 강조하게 된 측면이 있다(김영중, 2012; 김형용, 2012, 김은정, 2015: 157-158에서 재인용).

## 2) 지역성에 대한 고려

이상의 사회적 돌봄에 있어서 공동체적 접근방식의 특성을 종합하여 김은정(2015)은 지역성과 참여성을 제시한다. 지역성과 관련해 가장 먼저, ‘지리적 영역의 지역성(locality)’과 ‘공동체 활동의 기반으로 공동체성(community)’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 영역의 지역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특정지역의 활동은 지역기반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회적 돌봄에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중요하며 재정 확보력과 기획력의 담보되어야 한다(김영종, 2012; Hill, 2007; 김은정, 2015: 162에서 재인용). 둘째, 지역성의 새로운 차원 또는 심화된 특성으로 지역공동체의 본질적 의미는 “통합적이고 융통적인 돌봄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반”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역사회 기관들은 돌봄서비스 공급자로 역할을 수행하기 보단 돌봄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또 다른 관점으로서 “돌봄역량을 보유한 주체(care capacity holder)”로서 지역공동체를 특징짓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질 때 지역공동체는 자체적 역량으로 돌봄생산을 상호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마을만들기, 구성원의 네트워크 만들기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김은정, 2015: 162-163).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지역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김은정(2015)은 사회적 돌봄 정책을 지역성의 차원과 고려 유무 별로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는 전국 표준적 돌봄서비스를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수직적으로 주로 개인에게 제공하게 되며 사회보험이나 바우처 방식을 활용한다. 둘째, 지리적 장소로서 지역성을 고려하는 유형이다. 지역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수직적으로 개인/집단을 대상으로 보조금이나 서비스 위탁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지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지역의 돌봄욕구와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 기반의 지역성을 고려하는 유형이다. 이는 돌봄생산에 초점을 맞춘 유형은 ‘당사자 돌봄생산 지원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며, 정부/민간의 주도 하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강조된다. 자발성을 가진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예가 된다. 넷째, 공동체 기반의 지역성을 고려하되 돌봄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 이는 ‘지역공동체 돌봄역량 강화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정

부 또는 민간이 주도하되 환경과 조건, 지역생태계를 강조한다. 지역자체를 정책대상으로 삼으며, 예로 마을만들기,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등이 있다(김은정, 2015: 164-167).

〈표 II-1-2〉 사회적 돌봄에 대한 지역성 유형

유형	내용	정책설계 방식	주요특성	
지역성 未고려	전국 표준적 돌봄서비스	-주도: 중앙정부 -공급: 수직적 구조 -대상: 주로 개인	-사회보험, 바우처활용	
지리적 장소로 지역성 고려	지역별 돌봄서비스	-주도: 지방정부 -공급: 수직적 구조 -대상: 개인/집단	-보조금, 서비스위탁구매, 바우처활용 -해당 지역 돌봄욕구 크기, 특성 고려	
공동체 기반으로 지역성 고려	돌봄생산 기반	당사자 돌봄생산 지원서비스	-주도: 정부/민간 -강조: 중간지원 -대상: 자발조직	-행재정적 중간지원 강조 -구성원 돌봄모임 조직화 및 지원 서비스 등 예) 지역 돌봄공동체 형성 지원
	돌봄역량 기반	지역공동체 돌봄역량 강화서비스	-주도: 정부/민간 -강조: 환경기반 -대상: 지역(공동체)	-공동체 네트워킹 강화 등 -예) 마을 만들기, 장 만들기

출처: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p. 165 〈표 3〉 발췌.

### 3) 자발성 및 참여성의 강조

자발성은 공동체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로, “지역공동체의 돌봄역량을 강화시키는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는 핵심요소로 공동체적 방식의 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김은정, 2015: 163). 이때 참여성의 유형은 자발성 수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에 참여성과 자발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돌봄에 있어 돌봄당사자 뿐 아니라 보호자도 핵심 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 등으로 지역주민도 참여자가 될 수 있다(김은정, 2015: 164).<sup>4)</sup>

전지훈(2020)은 공동체적 돌봄에서 주체들의 참여성과 관련해 주체성과 관계성, 그리고 공동생산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주체성은 소극적인 복지 수혜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스스로가 욕구의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적극성이 강조됨을 의미한다.

4) 사회서비스 참여에 대해 김영중(2012)는 ‘주체성격’에 따라 시민, 주민, 당사자로, ‘참여내용’에 따라 운영, 감시, 평가, 협의로, 대상에 따라 서비스생산, 재정공급부담, 공동체으로 구분하였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 이소영(2014)은 선도형, 협력형, 지지형으로 참여형태를 유형화한다(김은정, 2015: 163에서 재인용).

관계성은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공동체적 돌봄은 제공자와 수혜자의 분리를 지양하며 이러한 특성은 공유된 관심의 도출과 합의, 신뢰, 상호보완과 응답성으로 드러남을 뜻한다. 그렇기에 공동체적 돌봄은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생산의 특성을 띤다(전지훈, 2020: 310-311).

참여성의 유형과 자발성 수준에 따라 김은정(2015)은 네 가지로 사회적 돌봄을 유형화하였다. 첫째, ‘제도 내에서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절차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사업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예가 된다. 둘째, ‘제도 내에서 중간정도의 자발성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서비스 제도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감시적으로 참여하거나, 돌봄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감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품질감시와 옹호 등을 통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돌봄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와 제도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도의 프로그램 돌봄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돌봄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예가 되며 이 경우 참여 지속성을 유지하고 자발성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제도에서는 공간(장)만을 제공하고 안의 내용은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채워가는 방식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밖에서 완전한 자발성에 기초한 유형이 있다. 이는 돌봄당사자들이 돌봄공동체를 생성하고 규범을 만들어가며, 돌봄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허물고 참여하는 유형이다(김은정, 2015: 168-169).

〈표 II-1-3〉 사회적 돌봄에 대한 참여성 유형

참여성 유형	자발성 수준	이용자 성격	주요내용	대표 사례
제도 내 비자발 참여	저	대상자	공식적 절차로 서비스 공동생산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제도 내 중간자발 참여	중	대상자 또는 당사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감시적 참여	- 품질감시자 역할 - 옹호자로 의사 개진 등
			프로그램 내 돌봄당사자 참여	- 품앗이 돌봄 - 두레 프로그램 참여 등
			제도적 장 활용 돌봄당사자 참여	- 공동육아나눔터 참여 - 마을사랑방 참여 등
제도 밖 완전 자발 참여	고	당사자	돌봄생산/소비 전과정 자발적 기반	- 자발적 육아공동체 - 돌봄 자조모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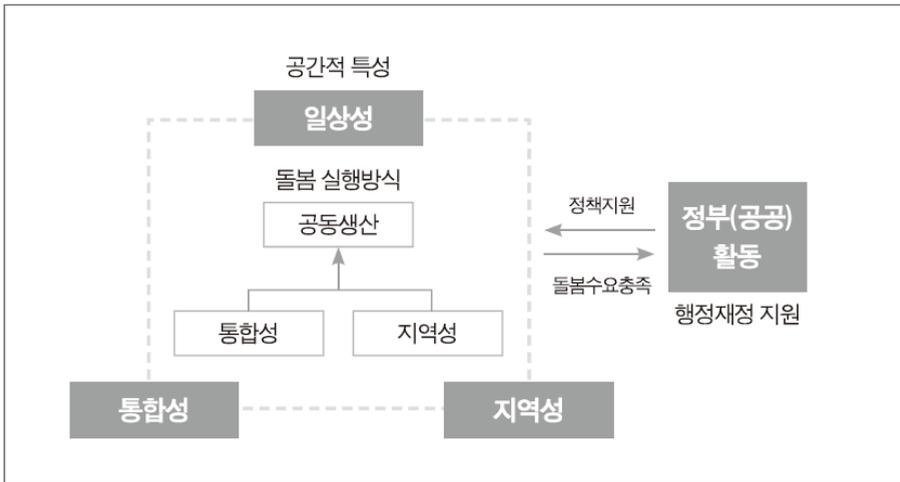
출처: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p. 168 〈표 4〉 발췌.

4) 정부지원의 정도와 영향

전지훈(2020: 307)은 돌봄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지원의 정도와 영향’을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주도성이 강한 사회적 맥락에서 지역공동체는 정부와의 다양한 관계를 가지며(하현상 외, 2017, 전지훈, 2020: 312에서 재인용),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은 민주주의의 참여와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권장되어 정부지원이 확대되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돌봄공동체에 대한 정부 개입의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지출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조직과 거버넌스 형태로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온 과정의 하나로 해석되기도 하며, 정부담당자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처의 분절적 추진, 과도한 성과중심성과 경직성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전지훈, 2020: 312-313).

[그림 II-1-1]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활동의 구성요인



출처: 전지훈(2020).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방향. 도시연구, 18, p. 313 발췌

## 2. 육아공동체의 운영 유형

본 절에서는 육아공동체의 핵심원리에 따른 운영 유형에 대해 검토하였다. 즉, 지역특성과 주체들의 참여정도와 성격, 그리고 정부지원의 내용에 따라 육아공동체를 유형화하여 현재의 운영 양상이나 지원하고자 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초등돌봄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의 운영 유형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최근 많이 축적되었는데, 본 연구가 초등생을 포함하는 영유아 공동체를 포괄하고 자녀성장에 따른 초등돌봄 공동체와의 연계에도 함의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분리해 검토하였다.

### 가.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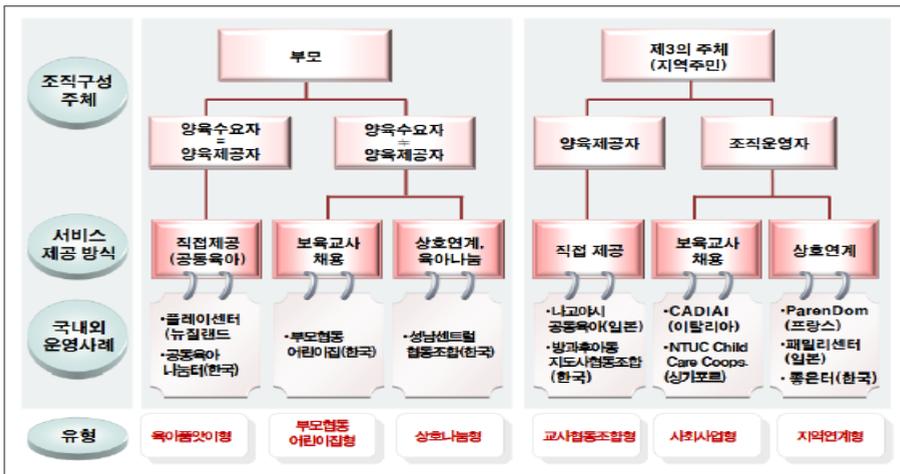
#### 1) 경기도형 마을육아공동체 모델<sup>5)</sup>

남승연, 최윤선, 김미정, 조은별(2015)은 경기도형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에서 육아공동체 유형화의 기준으로 조직구성의 주체와 서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하였다. 조직구성의 주체별로는 부모가 주체인 경우와 제3자가 주체인 경우로 구분하고 다시 부모가 주체인 경우는 양육수요자와 제공자가 모두 부모가 되는 경우와 양육수요자와 제공자가 다른 경우로 구분하였다. 제3자가 주체인 경우도 보육교사나 방과후 교사 등 돌봄전문가들이 육아공동체를 조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지역사회활동가 등 조직운영자들이 육아공동체를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서는 우선, 주체가 부모임 경우 육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육아품앗이를 실현하는 공동육아 형태, 협동어린이집과 같이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형태,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sup>6)</sup>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주체가 제3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직접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형태, 제3자의 입장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제공인력을 연계해 주는 형태로 구분가능하다(남승연 외, 2015: 39-41).

5) 남승연 외(2015)의 연구를 참고로 작성함.

이와 같이 남승연 등(2015)은 조직구성의 주체와 서비스 제공방식의 조합에 따라 아래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6개의 유형에 대해 육아품앗이형, 부모협동 어린이집형, 상호나눔형, 교사협동조합형, 사회사업형, 지역연계형이라 명명하였다(남승연 외, 2015: 42). 즉, 육아품앗이형은 부모들이 공동육아를 통해 양육하는 것으로 뉴질랜드의 플레이센터와 여가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예로 들었으며(남승연 외, 2015: 42-45), 상호나눔형은 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육아공동체를 설립 운영하되, 돌봄방식에 있어 역할을 분리하는 형태로 맞벌이가구가 주체가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전업주부들과 네트워크하여 육아를 해결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남승연 외, 2015: 47-49). 교사협동조합형은 서비스 공급자들이 설립했다는 점에서 제도권의 돌봄기관과 비슷하나 의식과 운영방식에 있어 차별성이 있으며, 해외 운영사례로 일본의 나고야시 공동육아 공동체인 하모니를 예로 들었다(남승연 외, 2015: 49-50). 사회사업형은 사회사업실천가 등의 지역활동가들이 지역사회 공헌에 뜻을 가지고 육아공동체를 설립하고 전문교사를 채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국내에서는 YMCA아가야,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체인 CADIAl을 예로 제시하였다. 지역연계형은 지역활동가들이 설립한다는 점에서 사회사업형과 동일하지만 서비스제공자와 수요자가 상호원조할 수 있도록 연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로는 돌봄이 가능한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연계하는(워킹맘과 재택맘 연계) (㈜좋은터를 제시하였다(남승연 외, 2015: 51-54).

[그림 II-2-1]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유형과 국내외 운영사례



출처: 남승연 외(2015), 경기도형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p. 42 발췌

## 2)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모델<sup>6)</sup>

진미정, 노신애, 그리고 심아영(2018)은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모델비교와 가족정책적 시사점의 연구에서 아동돌봄공동체를 추진주체별, 공동체의 대상과 공동체의 목적별로 유형화하였다.

추진주체별로는 주민주도형과 행정주도형으로 구분했으며, 이중 행정주도형은 다시 중앙정부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교육청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주민주도형은 이웃 간 비공식적으로 행해졌던 품앗이 육아를 비롯해 정부의 보육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때부터 시작된 공동육아 사업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조직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예가 된다. 행정주도형 공동체는 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부 주도형으로는 여성가족부의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대표적인 중앙부처의 사업이며, 2018년부터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돌봄사업이 포함된다. 지자체 주도형은 서울시와 세종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육아지원사업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교육청 주도형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예가 된다. 또한, 공동체 대상자별로는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미취학과 취학통합형으로 구분하고, 공동체 목적별로는 기존의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형성된 보완적 공동체와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비판하며 회원들끼리 대안가치를 공유하며 형성된 대안적 돌봄공동체로 구분가능하다(진미정 외, 2018: 211).

〈표 II-2-1〉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유형

기준	추진주체별			대상자별	목적별	
	주민주도형	행정주도형				
		중앙정부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교육청 주도형
유형/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앗이육아:이웃사이에 비공식적 진행</li> <li>- 공동육아-조직적인 차원</li> <li>- 협동조합어린이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사업</li> <li>- 저고위: 온종일돌봄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공동육아 활성화지원사업</li> <li>- 세종시: 마을공동체사업의 공동육아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교육공동체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취학 아동</li> <li>- 취학아동</li> <li>- 통합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완적 공동체</li> <li>- 대안적 공동체</li> </ul>

출처: 진미정 외(2018).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모델 비교와 가족정책적 시사점.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 211-212의 내용으로 연구진 구성.

6) 진미정 외(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함.

3)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sup>7)</sup>

코로나19 이후 전북의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를 시행한 이주연 외(2021: 192-195)은 전북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수요자의 돌봄수요(맞벌이, 한부모 가구의 돌봄수요와 욕구)에 따라 1)자조모임 형태의 돌봄유형, 2) 공동체 형태의 돌봄유형, 3)코로나19 상황시 돌봄공동체 대안형으로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돌봄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전 단계의 자조모임으로 지역 사회내 근거리의 자녀연령이 비슷한 부모들의 소규모 모임으로 전업부모들이 평일에 주로 참여하는 품앗이형 공동육아와 주말형 모임으로 나눌 수 있다(이주연 외, 2021: 192-193). 두 번째 유형은 공동체 형태를 완전하게 갖춘 유형으로 방과 후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비교적 긴 시간동안(학기 중 4시간 이상, 방학 중 8시간 이상)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놀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이나 유희공간 등의 돌봄공간을 마련해 활동하며 돌봄시기에 따라 상시형 공동체와 방학 중 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이주연 외, 2021: 193-194). 세 번째는 2020년 코로나19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전북지역에서 가까운 세 가정 정도의 3~6명의 소규모 아동들이 돌봄활동을 함께 한 활동공동체로 대안형 공동체로 명명하였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 형성된 대안형 공동체는 오전시간은 각자 집에서 보내고 점심식사가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점심때부터 한집에 모여 식사를 제공받고 지역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아이돌보미 등의 돌봄활동가에게 오후돌봄을 제공받았다(이주연 외, 2021: 194).

〈표 II-2-2〉 전북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유형

구분	자조모임		공동체		대안형 (코로나19상황)
	공동육아(전업)	주말형(전업·직장)	상시형	방학형	
돌봄 내용	가족단위 활동 월1회이상	가족단위활동 월1 회이상	식사·간식제공 놀이, 체험프로 그램 운영	식사·간식제공 놀이, 체험프로 그램 운영	식사·간식제공 놀이, 체험프로 그램 운영 온라인학습지도
수요 연령	영유아	영유아 및 취학아동	취학아동	취학아동	영유아 및 취학아동

7) 이주연 외(2021)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함.

구분	자조모임		공동체		대안형 (코로나19상황)
	공동육아(전업)	주말형(전업·직장)	상시형	방학형	
장소	구성원의 집 등 다양한 공간	구성원의 집 등 다양한 공간	일정 돌봄공간 마련(유희공간, 작은도서관 등)	일정 돌봄공간 마련(유희공간, 작은도서관 등)	구성원의 집

출처: 이주연 외(2021).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전북연구원, p.195의 표내용 중 일부 발췌하여 연구진 구성.

## 나. 초등중심 돌봄 운영 유형

### 1)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sup>8)</sup>

김은정, 홍진주, 정세미, 그리고 김현진(2019)은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은 ‘운영주체 및 주도성’, ‘이용자 욕구 및 수준’, ‘지역사회 특성 및 여건’, ‘운영방식’의 4가지 요소로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선, 운영 및 참여의 주체와 주도성에 따라서는 당사자 중심모델, 주민공동체중심 모델, 민간기관·시민사회 중심 모델,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모델로 구분하였다(김은정 외, 2019: 179-180).

둘째, 이용자 욕구에 따라서는 드롭인 센터 모델, 기본 돌봄센터 모델, 돌봄+교육형 모델, 마을공동체학교 모델, 틈새 개별 맞춤형 모델로 구분하였다. 이중 ‘드롭인 센터모델’은 초등학교 인근 지역사회 공간을 통해 기본적 안전을 확인하고 활동간의 이동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이며, ‘기본 돌봄센터 모델’은 기초생활과 숙제지도, 급간식지원, 체험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돌봄+교육형 모델’은 기본적인 돌봄에 더해 교과심화학습, 예체능특기교육, 특화교육 등 사교육대체활동을 추가로 제공한다. ‘마을공동체학교 모델’은 돌봄, 기초생활 및 학습지도외에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공동체참여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델이며, ‘틈새 개별 맞춤형 모델’은 거점공간 중심의 돌봄센터 운영과 별개로 등하원 전후의 이동지원, 방학 및 특정기간 이용, 신학기 지원, 아픈 아이 지원 등 개별 아동별 수요에 대응한다(김은정 외, 2019: 181-182).

셋째, 지역사회 특성 및 여건에 따라서는 우선 생활 및 산업특성에 따라 ‘공동주택단지형’, ‘일반주택형(구도심, 저층주거지)’, ‘도심제조업 밀집지역형’, ‘산업단지

8) 김은정 외(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함.

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돌봄네트워크 및 거버넌스에 따라 '지역돌봄생태계 기반조성지역'과 '지역돌봄생태계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은정 외, 2019: 182-183).

넷째,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공공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직영형, 공공이 설립하고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민간위탁형,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민간설립운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은정 외, 2019: 183-184).

〈표 II-2-3〉 지역사회 초등돌봄 기준별 유형

기준	운영주도성	이용자욕구 수준	지역특성		운영방식
			생활·산업	돌봄네트워크·거버넌스	
유형/모델	1. 당사자중심형 2. 주민공동체중심형 3. 민간/시민단체중심형 4. 사회적경제조직중심형	1. 드롭인센터모델 2. 기존돌봄센터모델 3. 돌봄+교육형모델 4. 마을공동체학교형 5. 틈새개별화맞춤형	1. 공공주택단지형 2. 일반주택형 3. 도심제조업밀집형 4. 산업단지형	1. 돌봄생태계기반조성형 2. 돌봄생태계활성화형	1. 공공직영형 2. 민간위탁형 3. 민간설립운영형

출처: 김은정 외(2019).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p. 180. 발췌.

김은정 등(2019)은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요소 중 '운영 및 참여의 주체와 주도성'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추동력이 좌우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초등돌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최종모델을 도출하였다. 1) 당사자중심 사회적경제 주체형성 모델: (부모)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주체를 형성하고 돌봄활동을 전개하는 유형, 2) 주민공동체 중심 사회적경제 주체형성 모델: 마을공동체, 주민활동가,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등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초등돌봄을 전개하는 유형, 3) 사회적경제 조직 단독 돌봄센터 운영 모델: 돌봄관련 특화된 사회적경제 조직이 돌봄센터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유형, 4) 사회적경제 조직 서비스공급형 모델: 사회적경제 조직이 초등돌봄시스템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 5) 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생산형 모델: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컨소시엄 형태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모형이다(김은정 외, 2019: 184-193).

〈표 II-2-4〉 지역사회 초등돌봄 사회적경제 모델

구분	주민중심 주체형성 모델	사회적경제조직 참여형 모델
유형/모델	1.당사자 중심 사회적경제 주체형성 모델 2.주민공동체 중심 사회적경제 주체형성 모델	3.사회적경제 조직 단독 돌봄센터 운영 모델 4.사회적경제 조직 서비스공급형 모델 5.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생산형 모델

출처: 김은정 외(2019).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p. 184. 발체.

## 2) 온종일돌봄체계 운영 모델<sup>9)</sup>

이희현 등(2019)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의 사례분석 연구’에서 돌봄수요와 활용공간을 고려한 ‘지역의 특성’과 돌봄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는 ‘주체의 특성’을 고려해 표와 같은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이희현 외, 2019: 30). 그리고 각 유형별로 2~3개의 지역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후 유형별 각 1개의 6개 지역(경기도 광명시,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완주군)을 대표사례로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다(이희현 외, 2019: 30-31).

‘경기도 광명시’는 도시계획으로 설계된 도시로 초등돌봄의 수요가 많으나 과밀학습으로 학교공간 활용이 어려워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 안심돌봄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광명시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며, 퇴직교사, 경찰관,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평일 오후5시부터 9시까지 일상돌봄, 간식지원, 정서발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이희현 외, 2019: 요약2) ‘서울특별시 중구’는 업무지구로 주거기능은 약하지만 맞벌이가 많고 초등생 비율이 높아 돌봄수요가 많다. 흥인초등학교 내에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운영시간 연장. 특기적성프로그램 도입, 돌봄교실 리모델링 등 질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이희현 외, 2019: 요약2).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도농복합지역이며 다문화, 맞벌이가구 비율이 높아 초등돌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다. 언양초등학교는 위탁운영협약을 통해 민간의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 학교와 교육청, 군청의 협의로 공간용도를 변경해 교내에서 운영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군청에서 지원한다(이희현 외, 2019: 요약3).

9) 이희현 외(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함.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돌봄수요가 많다. 교육청이 학교 내 공간(도서관)을 제공하고 구청에서 시설보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어울초등학교에서 마을결합형 학교를 운영하며, 지역의 공간을 발굴해 종교단체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은평착한배움터)을 제공하고 있다(이희현 외, 2019: 요약3). ‘강원도 원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 내에서도 돌봄수요의 차이가 큰 편이다. 지역 내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민간단체(원주아동청소년교육네트워크 물꼬)가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인 서곡네트워크가 서곡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해 방학 중 돌봄을 운영하며, 마을활동가 중심으로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방과후 돌봄을 제공한다(이희현 외, 2019: 요약3). ‘전라북도 완주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풀뿌리 자생단체들과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와 소양풀뿌리교육지원센터에서 인근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위탁운영하고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자조모임인 손가락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지역 초등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희현 외, 2019: 요약3).

〈표 II-2-5〉 온종일돌봄체계 운영 모델

구분	도시형A(과밀학교형)	도시형B(학교활용형)	농산어촌형
관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규모가 크고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li> <li>- 과밀학급으로 학교공간(학교 시설 및 부지)활용불가능 지역</li> <li>- 지역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약한 지역</li> <li>- 대표사례: 경기도 광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규모가 크고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li> <li>- 학교공간(학교시설 및 부지) 활용가능 지역</li> <li>- 지역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약한 지역</li> <li>- 대표사례: 서울특별시 중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규모가 작고 돌봄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은 은 지역</li> <li>- 학교공간(학교시설 및 부지) 활용가능 지역</li> <li>- 지역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약한 지역</li> <li>- 대표사례: 울산광역시 울주군</li> </ul>
민주도형 (관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규모가 크고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li> <li>- 과밀학급으로 학교공간(학교 시설 및 부지)활용불가능 지역</li> <li>- 지역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강한지역</li> <li>- 대표사례: 서울특별시 은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규모가 크고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li> <li>- 학교공간(학교시설 및 부지) 활용가능 지역</li> <li>- 지역인프라가 풍부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강한 지역</li> <li>- 대표사례: 강원도 원주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규모가 작고 돌봄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은 은 지역</li> <li>- 학교공간(학교시설 및 부지) 활용가능 지역</li> <li>- 지역인프라가 풍부하거나 민간의 자생적 활동이 강한 지역</li> <li>- 대표사례: 전라북도 완주군</li> </ul>

출처: 이희현 외(2019).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p. 30. 발췌 후 대표사례지역 추가

### 3) 지자체 학교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sup>10)</sup>

김민희, 박소영, 이지혜, 그리고 이희현(2020)은 ‘지자체 학교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연구’에서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 모델을 ‘협업내용과 공간’,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김민희 외, 2020: 97). 즉, 협업내용과 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 안 돌봄전용 교실을 운영하는 형태와 기존 시설을 이용해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2가지 유형과 학교 밖 지역시설 등을 통해 학교(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김민희 외, 2020: 98).

김민희 등(2020)은 이상의 기준별 유형을 통해 ‘학교 안 돌봄시설 활용모델’, ‘학교 안 틈새돌봄 모델’, ‘학교 밖 돌봄운영모델’과 아래와 같은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모델을 도출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II-2-6〉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 모델

기준		내용
공간 및 협업내용	운영주체	
1. 학교 안 돌봄시설 활용모델	1.1. 지자체 직영형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청)와의 협약을 통해 구축한 학교 안 활용가능한 돌봄전용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형태 - 사례: 서울 중구청 관내 6개 초등학교, 충남 홍성군 2개 초등학교, 경기 오산시 고현초등학교, 경기 성남시 청솔초(지역아동센터 위탁) 등
	1.2. 지자체-학교 연계형	- 학교 안 돌봄전용시설에 대해 학교(교육청) 운영 초등돌봄교실과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이 공존하는 형태 - 사례: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초
2. 학교 안 틈새돌봄 모델	2.1. 지자체 직영형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기존의 학교 안 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을 운영하는 방식. 등교 전 아침, 초등돌봄교실 이후 저녁시간, 방학 중, 휴일 등 틈새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 - 사례: 경기도 오산시 고현초등학교, 울산시 남구 중앙초등학교
	2.2. 지자체-학교 연계형	- 학교 안 틈새돌봄 운영시, 지자체와 학교(교육청)가 협업해 운영. 예로, 지자체는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공간 및 교구교재 등 제공
3. 학교 밖 돌봄운영 모델	3.1. 지자체 직영형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대해 지자체가 주도(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 - 사례: 대전시 서구 한우리 아이행복돌봄센터

10) 김민희 외(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함.

기준		내용
공간 및 협업내용	운영주체	
	3.2.지자체-학교 연계형	- 학교 밖 돌봄에 교육청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으로 참여하는 형태 - 사례: 부산시교육청 우리동네자람터

출처: 김민희 외(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대구대 산학협력단. pp. 99, 106, 110의 표를 연구자가 결합하여 재구성.

#### 4) 돌봄 및 방과후 학교 마을협력 모델<sup>11)</sup>

강현주(2017)는 돌봄 및 방과후 학교 마을협력 연계방안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마을협력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인적자원, 지역인프라, 공동체 문화, 학교 개방성,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의 5개 요소를 도출하고, 이의 구성요소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중심 모델(기관 중심 모델), 마을 중심 모델, 학교 중심 모델의 3개의 모델을 제안하였다(강현주, 2017: 12-17).

우선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중심 모델은 지역 내 교육공동체, 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등이 주도해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돌봄 및 방과후 활동을 교육청과 지자체 지원하에 진행하는 경우이다. 진안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를 예로 제시하였다(강현주, 2017: 12). 둘째, 마을 중심 모델은 인적자원이 지역 내 공공성과 주민활동과 연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부모, 교사 등의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기획하여 돌봄 활동과 연계하는 경우이다(강현주, 2017: 14-15). 셋째, 학교 중심 모델은 학교에서 공간이나 콘텐츠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돌봄 및 방과후 학교와 마을 연계를 학교에서 주도하는 모델로,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 주로 학부모의 활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이다(강현주, 2017: 16-17).

11) 강현주(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함.

## 다. 종합

이상에서는 육아공동체를 유형화하여 운영 양상을 보여주거나 지원모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II-4-1>와 같다.

<표 II-2-7> 주요 선행연구의 육아공동체 운영 유형 및 모델의 구분

연구명	대상	기준	유형구분
남승연 외 (2015)	경기도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조직구성의 주체 -서비스 제공방식	1.육아풀앗이형 2.협동어린이집형 3.상호나눔형 4.교사협동조합형 5.사회사업형 6.지역연계형
진미정 외 (2018)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모델	-추진주체	1.주민주도형 2.행정주도형(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대상자	1.미취학 2.취학 3.통합형
		-목적	1.보완적 공동체 2.대안적 공동체
이주연 외 (2021)	전북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돌봄수요	1.자조모임-공동육아(전업주부) 2.자조모임-주말형(전업주부/직장) 3.공동체-상시형 4.공동체-방학형 5.대안형(코로나19상황)
김은정 외 (2019)	초등돌봄 유형	-운영주도성	1.당사자중심형 2.주민공동체중심형 3.민간/시민단체중심형 4.사회적경제조직중심형
		-이용자 욕구	1.드롭인센터모델 2.기존돌봄센터모델 3.돌봄+교육형모델 4.마을공동체학교형 5.틈새개별화맞춤형
		-지역특성:생활산업	1.공공주택단지형 2.일반주택형 3.도심제조업밀집형 4.산업단지형
		-지역특성:돌봄네트워크/거버넌스	1.돌봄생태계기반조성형 2.돌봄생태계활성화형
		-운영방식	1.공공직영형 2.민간위탁형 3.민간설립운영형
김은정 외 (2019)	초등돌봄의 사회적경제 모델	-운영 및 참여의 주체와 주도성	1.당사자 중심 사회적경제 주체형성 모델 2.주민공동체 중심 사회적경제 주체형성 모델 3.사회적경제 조직 단독 돌봄센터 운영 모델 4.사회적경제 조직 서비스공급형 모델 5.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생산형 모델
이희현 외 (2019)	초등돌봄 우수사례	-지역 특성(돌봄수요 및 활용공간) -주체 특성(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의 주도세력)	1.과밀학교 도시형/관주도형(경기 광명시) 2.학교활용 도시형/관주도형(서울 중구) 3.도농복합형/관주도형(울산 울주군) 4.과밀학교 도시형/민주도형(서울 은평구) 5.학교활용 도시형/민주도형(강원 원주시) 6.도농복합형/민주도형(전북 완주군)
김민희 외 (2020)	공간 및 협업내용	-공간 및 협업내용 -운영주체	1.학교안 돌봄시설활용 모델 (지자체직영형/지자체학교연계형)

연구명	대상	기준	유형구분
			2. 학교안 틈새돌봄 모델 (지자체직영형/지자체학교연계형) 3. 학교밖 돌봄운영 모델 (지자체직영형/지자체학교연계형)
강현주 (2017)	돌봄 및 방과후 학교 마을협력 모델	-인적자원, 지역인프라, 공동체문화, 학교 개방성, 지자체 지원·협력수준	1. 사회적조직 및 비영리기관 중심 모델 2. 마을 중심 모델 3. 학교 중심 모델

자료: 남승연 외(2015). 경기도형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진미정 외(2018).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모델 비교와 가족정책적 시사점.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이주연 외(2021).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전북연구원.  
김은정 외(2019).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희현 외(2019).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김민희 외(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대구대 산학협력단.  
강현주(2017). 돌봄 및 방과후 학교 마을협력 연계방안. 희망이슈, 제32호. 희망제작소.

### 3. 육아공동체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 관련 이슈 검토

본 절에서는 육아공동체 및 관련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와 과제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육아공동체의 활성화의 과제로 제시되는 이슈와 유관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초등중심의 온종일돌봄 사업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어 육아공동체의 운영조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제도적 이슈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시 대두된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들의 활동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 가. 공동체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의 과제

육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동육아 공동체의 요소로는 강한 내적동기를 지닌 공동체, 안정적인 공간, 공동체 재생산을 위한 운영구조를 들고, 세 영역의 체계적인 지원이 언급된다(조막래, 김한별, 2015: 121-122). 구체적으로는 첫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관계가 공동체 활동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주제적인 역량을 지닌 공동체로 성장시킬 수 있으므로 공동체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한 공간은 안정적인 활동은 물론, 재정적 독립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다각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조막래, 김한별, 2015: 122). 셋째,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해 컨설팅 다각화, 재정자립도 강화, 공동육아 콘텐츠 보급 및 강사풀 구축, 마을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가에 대한 보상 및 경력 인정, 통합지향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사후관리체계 구축, 행정지원체계 개선, 안전관리체계 강화, 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조막래, 김한별, 2015: 131-144). 특히 컨설팅 지원은 공동체의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모사업 등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간접지원서비스를 지속하는 사후컨설팅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이라고 본다(조막래, 김한별, 2015: 141). 이상을 참조하면, 육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요소는 육아공동체의 주체 및 운영구조 등에 따른 유형별로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주연과 황미진(2021)의 연구에서는 초등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이나, 서비스 인프라의 공급 부족이 여전하고, 부처별 돌봄대상 및 지원 대상이 중복되며, 상이한 전달체계의 연계 미흡 등으로 돌봄 공백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이주연, 황미진, 2021: 70). 또한, 중앙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공적 돌봄정책에서 간과하는 다각적인 돌봄 수요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돌봄지원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를 강조한다(이미영, 2017; 이연화, 2017; 이주연, 황미진, 2021: 70에서 재인용).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를 지역사회가 아동돌봄을 매개로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가족), 주민 또는 이웃간의 상호돌봄과 돌봄지원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돌봄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이주연, 황미진, 2021: 71). 즉, 공동육아와 품앗이 방식 위주인 취학 전 아동과 더불어 초등자녀에 대한 방과후 돌봄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이주연, 황미진, 2021: 70).

취학 전부터 초등자녀 까지 각 부처의 돌봄공동체를 모두 포괄하여 전북 지역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와 돌봄공동체 이용자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저해 요인과 활성화 요인을 도출한 바는 다음과 같다(이주연, 황미진, 2021). 우선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요인은 크게 ‘돌봄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 환경의 미

흡'과 '돌봄공동체의 동력 부족'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반 및 환경의 측면에서 돌봄공동체는 아동돌봄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학교와의 근접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의 지속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이주연, 황미진, 2021: 76). 또한 공동체 운영의 조직화와 체계화가 어렵고, 인적자원이 부족하며, 구성원의 공동체성이 미흡하고,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이 불안정한 점도 거론된다(이주연, 황미진, 2021: 77).

이로써 지역 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는 물리적 기반으로서 공간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비 지원과 돌봄공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강조한다(이주연, 황미진, 2021: 79). 또한 보조인력 지원, 돌봄공동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컨설팅 지원 등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및 그 역할의 확대, 돌봄공동체 운영자와 활동가 대상의 교육지원, 운영자에 대한 처우(경력 인정, 교통비, 활동비 등 보상 지급) 개선, 돌봄공동체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통한 공동체 운영 정보와 사례공유,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등을 들고 있다(이주연, 황미진, 2021: 80-81).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지역 기반의 육아공동체는 그 핵심 원리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초등자녀, 그리고 각 주체별로 상이하게 돌봄공동체 사업을 포괄하여 접근하되, 활성화 방안은 물리적, 인적자원과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를 구분하여 차별적 요소에 따라 보다 정교화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지자체 중심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체계 구축: 온종일돌봄정책

초등방과후 돌봄정책을 다룬 이희현과 권택환(2021)의 연구에서는 우선 그 한계점으로 첫째, 부처별 초등돌봄서비스의 분절적 추진으로 인한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으로, 중앙의 관리가 부재하여 돌봄서비스 간 연계 및 협력에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의 질적 격차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이희현, 권택환, 2021: 6). 초등방과후 돌봄사업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이들 서비스 유형별로 전담인력,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질적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이희현, 권택환, 2021: 6).

둘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돌봄서비스 확대가 미흡하였다. 즉, 초등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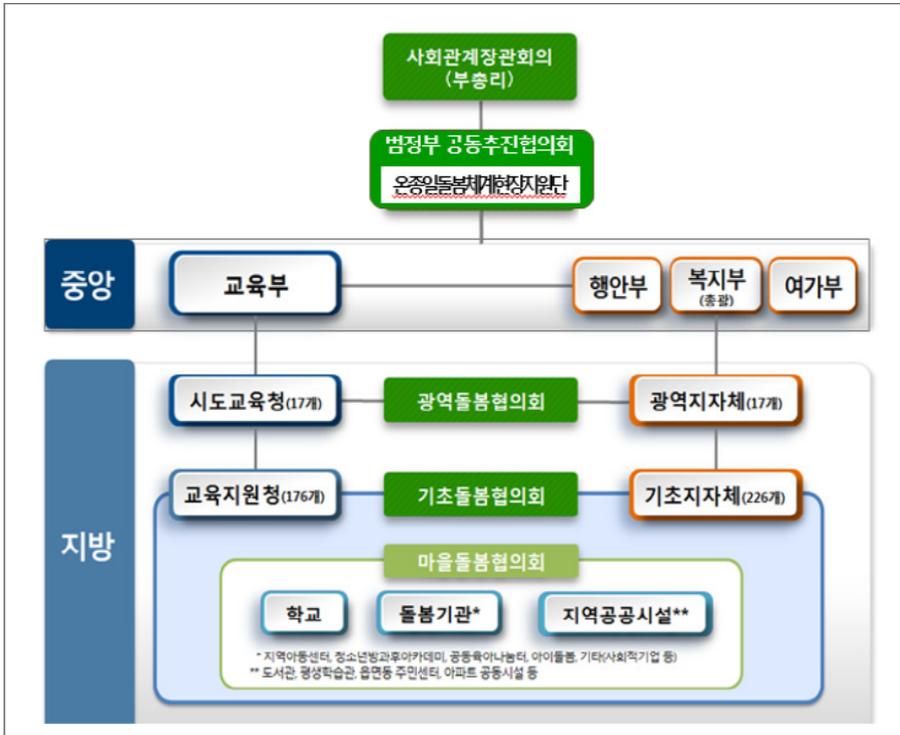
후 돌봄서비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나,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초등돌봄교실은 공간 확보가 어렵고, 마을돌봄기관은 높은 임대료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여서 지역 내 공급 격차가 우려된다(이희현, 권택환, 2021: 6).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돌봄체계 구축의 한계점을 들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은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나 관심, 재정자립도, 지역의 교육감(장) 또는 지자체장의 결합도 등 지역 특성이 서비스 공급의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이희현, 권택환, 2021: 7). 또한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 마을은 기초(광역)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행정전달체계의 경로의존성이 명확하여 학교와 마을의 연계 및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된다.

다음으로 같은 연구에서 초등돌봄 관련 이슈 쟁점으로는 1)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확대, 2) 돌봄 수요 지역과 공급 가능 지역의 불일치, 3) 초등돌봄서비스의 내실화와 질 관리, 4) 부처간 서비스 연계 협력과 추진체계 개편, 5) 지역 단위 돌봄체계 구축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들고 있다(이희현, 권택환, 2021: 18-24).

이들 중에서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봄서비스의 지역적 격차와 지역돌봄협의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중간조직의 역할이 부각된다(이희현, 권택환, 2021: 24-25). 구체적으로 초등돌봄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나,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지역적 공급 격차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돌봄협의체가 수요 파악 및 수급 조정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예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또한 이원화된 행정전달체계의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된다(이희현, 권택환, 2021: 25).

[그림 II-3-1] 범정부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자료: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2020).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p. 23.

한편 온종일돌봄 관련 법제화 추진 노력으로는 20대 국회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권칠승 의원 등 11인, 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되었으나, 교원단체와 돌봄노조 등의 참여한 입장 차이와 갈등으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희현, 권택환, 2021: 26). 이들 법률안에서는 온종일돌봄정책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역할과 범 정부 차원의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돌봄의 개념화, ‘온종일돌봄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도·감독, 실태조사, 지원체계(온종일돌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추진체계(온종일돌봄 특별위원회,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단, 양 법률안의 차이점은 온종일돌봄정책 실행의 주체를 교육부 장관(권칠승 위원 대표발의) 또는 국무총리(강민정의원 대표발의)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이희현, 권택환, 2021: 27).

이들 법률안에 대해 교육 및 교육단체의 입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온종일돌봄의 계획 수립 및 주체가 되는 것에는 찬성하나, 초등돌봄교실은 교육과 분리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담당할 것을 요구하며, ‘온종일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희현, 황준성, 임소현, 김효정, 도재우, 김성기, 2021: 136; 이희현, 권택환, 2021: 28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 돌봄노조는 돌봄전담사 신분의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우려로 초등돌봄교실의 자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온종일돌봄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하며, 초등돌봄교실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국·공유재산 사용 규정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희현 외, 2021: 136; 이희현, 권택환, 2021: 28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를 통해 초등방과후 돌봄의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부합하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아동 중심의 통합적 돌봄(교육과 복지적 관점,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과 아동의 생활권역인 마을, 동 단위의 돌봄체계 구축을 강조한다(이희현, 권택환, 2021: 29).

마지막으로 온종일돌봄체계 운영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선과제와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1) 돌봄체계의 기반 조성,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전략을 활용한 여건 마련, 3)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기제 등을 제안하였다(이희현 외, 2019).

여기서는 먼저 온종일돌봄체계 운영 사례분석을 위해 운영 모델을 관주도-과밀학급 도시형, 관주도-학교활용 도시형, 관주도-농어촌형, 민주도-도시형, 민주도-학교활용형, 민주도-농산어촌형의 6개로 유형화하고, 사례는 과거 관련 시범지역, 언론에 우수한 사례로 소개된 지역 등을 1차 분석대상 풀로 구성하여 선정기준을 근거로 유형별로 지역을 선정하였다(이희현 외, 2019: 30-31). 이때 선정기준은 관-민 및 학교-지역간 연계 협력의 활성화 정도(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내·외 공간 활용 정도), 돌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정도(자생적 생태계 조성 및 지원가능한 전담조직 확보, 법령 정비 여부 등), 지자체장의 의지(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정도 등), 수요자(지역주민)의 만족도(돌봄 수요 만족도, 돌봄기관의 이용 만족도 등), 사례의 일반화 가능성으로 삼았다(이희현 외, 2019: 31). 또한 분석 영역으로는 1) 지역 환경, 2) 돌봄 인프라(수요 및 공급 특성 등), 3) 운영 현황 및 특성(주도세력, 중간조직 규모 및 활성화 정도, 등), 4) 운영 결과 등으로 설정하였다(이희현 외, 2019: 32).

이러한 지역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지역기반의 초등돌봄체계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이희현 외, 2019: 247-259). 온종일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는 중앙 및 지방간의 권한을 명료하게 구분하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은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이희현 외, 2019: 247). 학교·교육청 및 지자체간의 권한을 명료화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돌봄체계를 전환하되, 학교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이희현 외, 2019: 248). 또한 돌봄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가 담당해야 하며, 시·군·구의 특성(아파트 단지, 도농복합 등)에 따른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이희현 외, 2019: 249).

다음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으로서 충분한 예산, 전담팀의 구성 및 적정인력 배치, 관련 조례의 정비하고, 학교 공간의 안정적 확보 와 안전사고 관련 관리책임 면책 등 학교 부담의 최소화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 학교와 지역의 연계 협력을 가로막은 요소를 파악하여 해소한다(이희현 외, 2019: 252-253). 주민대상의 공모사업 등으로 돌봄 관련 활동가를 새롭게 양성하고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 까지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마을학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민간 주도 돌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갖추고 이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등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이희현 외, 2019: 253-255).

온종일돌봄체계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기제로서는 중앙부처 내에 각 부처의 돌봄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돌봄공동대응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표준메뉴얼 제작 배포 등과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개선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주민 등 다양한 활동주체들이 공동출연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는 중간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과 인적자원의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희현 외, 2019: 257-259).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학교가 포함되는 초등방과후 돌봄의 경우는 학교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가 핵심사항이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총괄·조정 기능이 선결과제이고, 지역간 인프라 공급 격차와 서비스 기관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현장중심의 거버넌스 형성: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교육부에서는 미래형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협력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제고를 추진해왔다(교육부, 2019: 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이 6개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김승보 외, 2020: 61). 이 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교육공동체를 추구하며, 각 시·도교육청과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간의 ‘혁신교육지구’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김승보 외, 2020: 3). 한마디로 말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수단이며(김승보 외, 2020: 70),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적이 곧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김승보 외, 2020: 83).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20년부터 동 사업을 공모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교육지구 우수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2019: 1). 학교교육 변화의 필요성과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확장가능성은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승보 외, 2020: 3).

한편 미래교육지구는 이들 혁신교육지구를 심화한 모델로서,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모형(모델) 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지정·운영된다(교육부, 2022: 4). 미래교육지구는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22년에는 기존 21개 지구와 신규 12개 지구를 포함하여 총 33개 지구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교육부, 2022: 1). 동 사업에서는 지역교육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협력센터’와 더불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교육부, 2022: 4). 그 밖에도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마을교육과정을 공동개발·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모델을 개발하며, 학교돌봄터 등 교육사업 들 간의 연계는 물론, 타부처 사업(도시재생사업, 마을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의 연계 및 개발을 추진한다(교육부, 2022: 4).

김승보 등(2020)의 연구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지역의 연계방식 및

운영원리상의 강조점에 따라 세 가지 맥락을 강조한다. 첫째, '교육'공동체를 강조하여 시장 또는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까지 제한하는 문제의식에 바탕하며, 이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참여가 전제되며, 특히 학부모의 참여가 부각된다(김승보 외, 2020: 44). 둘째, '마을'공동체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학교와 마을이 하나의 학습생태계가 되어 학생의 배움을 지원하는 것이 강조된다(김승보 외, 2020: 45). 셋째, '사회적경제'를 강조하는 맥락이다(김승보 외, 2020: 48).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은 비영리성 또는 공동체성이 강조되므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접근과도 부합한다(김승보 외, 2020: 48).

같은 연구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요 이슈 및 과제로서 1) 풀뿌리 공동체의 발굴과 육성, 2)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3) 공동체 지속과 일자리가 제기된다(김승보 외, 2020: 93-111). 첫째, 발굴 및 육성의 측면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마을공동체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 자산과 잠재력, 그리고 이들의 경험 및 네트워크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김승보 외, 2020: 95). 이들 조직은 단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비영리 민간단체, 주민조직, 학부모조직, 그리고 조직화되지 않는 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승보 외, 2020: 95-96).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단위와 기초자치단체의 실행력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므로, 양 기관이 모두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김승보 외, 2020: 100).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와 광역시·도의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조례를 비교하여 실행체계(협의조직, 실행조직 등)을 비교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승보 외, 2020: 101).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동체 참여주민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므로 공동체의 수준과 특성, 지역적 특성 및 맥락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과 모형이 요구된다(김승보 외, 2020: 107-111).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주체가 되는 교육 거버넌스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서 나아가 학교와 마을이 주체가 되는 현장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추진체계로 [그림 II-3-2]를 제시하였다(김승보 외, 2020: 177).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세부과제로는 다음을 제안하였다. 즉,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로서 전문인력과 공동체 발굴, 중간지원조직 및 플랫폼, 지역학습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수 및 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통한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공익사업 정보의 통합적 제공 등을 통한 실행을 지원하고, 마을 단위의 협의체 구성과 진흥법 및 지자체 자치제 조례 제정, 콘텐츠 평가, 마을교사제 도입 등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김승보 외, 2020: 178). 특히 법적 기반의 측면에서 동 사업은 대부분 지역에서 광역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김승보 외, 2020: 63).<sup>12)</sup>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 정책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되나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미비하여(김승보 외, 2020: 61),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입법<sup>13)</sup>이 추진되어 왔다(김승보 외, 2020: 6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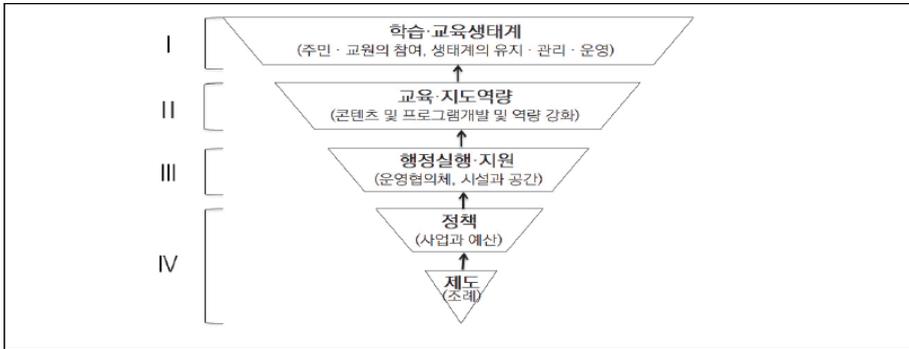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육아공동체의 확장을 위한 자원동원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목해야 하며, 이외에 비영리 단체와 주민조직 등 제도화되지 않은 자발적 영역의 활동도 포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세부방안은 지원 및 추진체계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되,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기 위해 해당 공동체의 수준 및 특성, 지역특성별로 차별화된 접근 및 모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2)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혁신교육지구 지원 조례」를 동시에 제정·운영하고 있다(김승보 외, 2020: 63).

13) 20대 국회에서는 유민봉 의원이 마을공동체 기본법, 진선미 위원이 지역공동체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시만료로 자동 소멸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 이해식 의원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김승보 외, 2020: 62).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73~75쪽에서 검토하였다.

[그림 II-3-2]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 및 추진체계



출처: 김승보 외(2020).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177.

### 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제도 개선요구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생태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들어 이들 중에서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제도화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장수정, 류선정, 2018: 303).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한 장수정과 류선정(2018)의 연구에서는 세부 방안으로 다음이 제기된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은 민주적 돌봄을 지역사회 내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는 장으로 공익적 목적을 지니므로 이들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장수정, 류선정, 2018: 335).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협동어린이집의 규정에는 협동조합에 입각한 법 해석과 배치되는 사항, 즉 부모와 교사 이외에 졸업조합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장수정, 류선정, 2018: 330-331). 졸업조합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외연을 확장하여 돌봄생태계 확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강조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장수정, 류선정, 2018: 331).

또한 협동조합은 정보공시 및 회계를 위한 행정업무가 수반되며, 매년 이사장과 이사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이 과중하며,

출자금이 증가로 인한 세금 부과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장수정, 류선정, 2018: 332). 게다가 출자금 증액에 따른 과제 부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방과후 돌봄은 교육부 소관여서 부처 간 이해도가 다르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기관과 담당자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장수정, 류선정, 2018: 332).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창기 국가지원금의 단계적 지원이나 세금감면, 잉여자금의 일부를 내부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간 또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출자금을 낮추어 부모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며(김은남, 2014; 장수정·류선정, 2018: 336에서 재인용), 부처간과 중앙정부-지자체간의 동일한 이해 및 적용, 그리고 담당자의 배치 및 교육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장수정, 류선정, 2018: 336).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육아공동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방식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체성과 유관 법률이 충돌하는 지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육아지원 전반의 틀에서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수준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대안적 돌봄의 모색: 감염병 등 위기시의 긴급돌봄

육아공동체는 집단감염 시기에 어린이집 등 돌봄서비스 기관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아동의 놀이권 등을 보장하는 등 지속가능한 대안적 돌봄으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기된다.

우선 김송이와 황선영(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등 팬데믹 시기에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기반의 돌봄체계를 구축이 새롭게 강조되며, 이를 위한 마을돌봄의 역할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지속가능한 돌봄으로 지역사회돌봄체계의 구축이 강조되므로 대표적인 마을돌봄 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는 마을돌봄이 돌봄윤리의 관점에서 공적 돌봄기관과 상보적 역할을 수행하며(김송이, 황선영, 2021: 231) 서비스 접근성, 소규모의 공동체적 돌봄, 틈새돌봄 제공 등에서 장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우리동네키움의 운영 현황 및 한계,

개선점을 다루고 있다. 해당 사례는 자치구 및 운영 형태(직영/위탁), 개원 시기, 규모 등을 고려하고,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추진단'의 추천을 받아 4개소를 선정하였다(김송이, 황선영, 2021: 233).

이들 4개소의 센터장, 이용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에 의하면, 긍정적인 역할로는 다음이 제기된다(김송이, 황선영, 2021: 249).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하기 힘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대면돌봄 활동을 제공하고, 놀이·쉽 위주로 운영하여 코로나19 시기에 현저하게 줄어든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놀이시간을 보장하는 등 아동권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김송이, 황선영, 2021: 249). 그러나 당면과제로는 돌봄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및 업무 부담과 본인 및 이용아동의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역할의 공백을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메꾸는 과정에서 고유한 기능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 돌봄서비스 기관별로 그 역할과 서비스 연계 및 협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김송이, 황선영, 2021: 250).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소규모 마을돌봄을 활성화하되, 다양한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김송이, 황선영, 2021: 251-252).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지역기반의 소규모 돌봄 인프라 공간을 확충하고, 아동 1인당 면적 기준을 늘려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지역 내 자원 이를테면 숲 체험장, 공공 도서관,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한 상황에서 돌봄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향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이외에 추가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그 밖의 다양한 돌봄자원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마을돌봄은 아동들이 또래관계와 놀이, 쉽 등을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송이, 황선영, 2021: 251-253).

〈표 II-3-1〉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역할 및 과제

구분	내용
역할	- 긴급돌봄 운영을 통한 (여성) 양육자 돌봄 부담 완화 - 대면돌봄을 통한 관계회복: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과 놀이권 보장
과제	- 돌봄노동자의 소진,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한 해결과제 - 온라인 수업 지원, 학교 및 돌봄기관 간의 기능 분화와 연계 필요

출처: 김송이·황선영(2021).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의 역할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68(2), p. 238 일부내용.

다음으로 정성훈(2021)의 연구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어린이집의 경험을 통해 돌봄공동체가 집단감염 시기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어린이집 대응 지침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다. 어린이집에는 가정돌봄 권고와 등원 제한 및 휴원 등 긴급보육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긴급보육사유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해당 지침이 폐지된 이후로도 어린이집의 등원 비율을 낮추라는 압력이 가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정성훈, 2021: 5-6). 또한 부모참여가 적극적인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방역 지침과 상충되고, 작은도서관 또는 동네책방 등에서 밀집도를 낮추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도를 하는 데에도 현행 방역 지침과 충돌한 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정성훈, 2021: 6).

그 밖에 코로나19 이후 돌봄공동체는 마을도서관(느티나무)에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서로 돌봄’의 공간으로 기능하였고(김연정, 2021: 31-40), 동네책방(코이노니아)은 책방의 기능을 넘어 낮은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아동돌봄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권현지, 2021: 41-46).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감염병 시기에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동네책방 지원사업 등에서 돌봄 공간을 연계할 수 있다(정성훈, 2021: 7)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관련 방역 지침과의 충돌로 인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육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는 집단감염 시기에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명료화와 특례적용 방식으로 공동체성에 부합하면서도 대안적 돌봄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사항과 적절한 지원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II

##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

- 01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 계획의 전개
- 02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 03 육아공동체 관련 유관 계획 및 사업의 검토
- 04 소결



### Ⅲ.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

이 장에서는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한다. 가장 먼저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분석하고,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주요한 사업인 여성가족부의 가족품앗이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관사업으로는 지역의 공동체 활동의 적용 및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 하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여성·가족 분야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다루었다. 이에 더해 육아공동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 1.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 계획의 전개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유관 주요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시기별 정책 변화의 함의를 모색하였다. 이때 주요계획의 순차적 발표시기와 정책 전개의 내용을 고려하여 2006~2010년, 2011~2017년 5월, 2017년 5월 이후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 가. 2006년~2010년: 다양한 육아서비스의 확대

2006년에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계획)”에서 육아공동체 지원은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관련 과제는 2009년에 발표된 “저출산계획(2006~2010)(보완판)”에서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으로 제시된다. 동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의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품앗이 육아’가 포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9). 해당 과제는

부모의 육아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적, 민간 가구의 돌봄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형태를 모색하여 양육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9: 81-82). 세부과제로는 가족봉사단, 자원봉사자 등 풀뿌리 자조모임을 활용하여 품앗이 육아망을 구축하고, 3개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대한민국정부, 2009: 82).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육아망 코치로 양성하고, 온-오프라인상 품앗이를 희망하는 가정을 연결하여 관리하며, 돌봄이 필요한 5~10가구를 1개 체계로 구성하여 1개 지역에 10~20개소, 50~100가구를 운영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9: 82). 이처럼 2009년 보완책에서 아동돌봄에는 기존의 시간연장형보육의 확대에 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와 품앗이 육아가 새롭게 포함되어(대한민국정부, 2009: 81-82) 그 지원방식이 보다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계획에 맞추어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건가계획) 역시 2006년 최초 수립에 이어 2009년에 보완판을 통해 수정되었다. 제1차 건가계획에서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아동돌봄의 공백이 심각하나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부과제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양육지원서비스 다양화’의 차원에서 돌봄공동체 관련 과제가 마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 62-63). 구체적으로 ‘육아휴게소 운영 확대’는 전업주부, 가정내 아이돌보미에게 아이양육 상담, 교육, 정보 등 육아관련 서비스 제공 및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06: 63). 즉,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육아휴게소로 활용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육아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아동양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나. 2011년~2017년 5월: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과 인프라 확대

품앗이 육아는 “제2차 저출산계획(2011~2015)”에서 그 제도적 기반 하에 활성화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69-70). 2011년에 수립된 동 계획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서는 기존의 맞벌이가구의 근로특성에 따른 시간연장형보육 활성화와 더불어 가정내 양육 부모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가

대두된다. ‘이웃간 돌봄사업 활성화’는 육아정보, 부모교육, 체험·놀이공간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즉, 가족돌봄에 대한 품 나눔과 이웃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품앗이 그룹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69-70).

지역사회의 육아와 공동체성은 2011년 수립된 “제2차 건가계획”에서 자녀돌봄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된다(관계부처합동, 2011: 61). 이때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망 구축은 다양한 생활양식과 욕구를 반영하는 유연한 돌봄지원과 지역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된다(관계부처합동, 2011: 61). 이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가족-지역사회-국가 모두가 중요한 주체임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 제기되고, 돌봄의 주체와 서비스 내용의 측면에서 돌봄지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족과 사회의 육아 역량 강화가 그 기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1: 62). 여기서는 보육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녀돌봄의 다양화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망의 확충이 가정내돌봄 지원과 더불어 강조된다(관계부처합동, 2011: 64-65).

해당 세부과제로는 이웃간 돌봄 나눔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와 가족품앗이 활성화가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1: 71-72).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지역사회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의 제공과 부모 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 나눔의 기회 제공, 장난감 교구 등을 비치하여 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가족품앗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가칭: 육아맘 코치)를 통해 가정 간 품앗이를 연계하고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하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품앗이 조직을 구성하여 자녀돌봄에 대한 품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 계획에서 가족품앗이는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즉, 가족커뮤니티와 품앗이 등을 통해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양육자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공간 나눔), 자녀돌봄에 대한 가족간 품앗이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간 연계를 통해 자녀의 사회성 훈련을 지원하여 전업주부 등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며(돌봄 나눔), 양육관련 정보자원 나눔, 중고물품 나눔장터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네트워크 지원(자원 나눔)이 강조된다(관계부처합동, 2011: 72).

“제3차 저출산계획”에서는 맞춤형 돌봄지원의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의 확충이 세부과제로 설정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85). 여기서는 기존의 영유아 이외에도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이 포함된다. 또한 영유아 부모를 위해서는 제2차 저출산계획에서 제기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한 가정내 양육여건의 개선이 포함되어 그 목표치<sup>14)</sup>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85).

제3차 건가계획에서는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이 정책과제로 설정되었는데, 그 세부과제로서 ‘돌봄 부담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마련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54). 해당 과제는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와 더불어 가족, 지역사회의 돌봄 분담과 연계를 강화하여 돌봄지원의 다각화를 모색되었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공동체와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웃 간 돌봄을 활성화 하고,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추구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54-56). 세부적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시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62). 공동육아나눔터의 확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유한 시설 중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62). 공동육아(육아품앗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육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62). 그 밖에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지도로 작성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관련 앱(일·가정 톡톡)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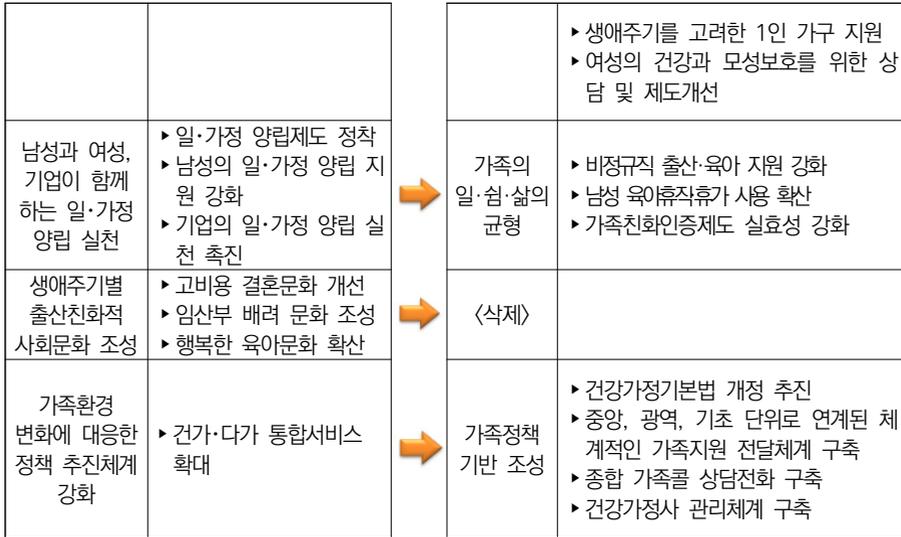
## 다. 2017년 5월 이후: 초등대상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및 공동체성의 강조

1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수: ('15) 22.3만명 → ('20) 25.8만명(대한민국정부, 2016: 85).

정권 교체로 인해 2018년에 발표된 “제3차 건가계획(보완판)”에서도 국가,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강조된다(관계부처합동, 2018: 5). 그러나 세부과제는 그 방향성이 변화하여 이전 계획에서 주체별 역할 분담과 연계가 강조되었다면, 동 계획에서는 보완사항으로 ‘돌봄공동체 회복’이 부각된다. 이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명시된다(관계부처합동, 2018: 21). 구체적으로는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는 지역돌봄공동체의 형성을 지원하고, 독박육아로 인한 산후 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또래 자녀 중심의 이웃 간 육아지원 관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21).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는 앞서 제3차 건가계획에서와 같이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시·군·구 단위에서 마을 생활권 단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8: 21).

〈표 III-1-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의 주요 보완내용

기 존		보 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 가족교육 지원</li> <li>▶가족상담 활성화</li> <li>▶가족여가활동 확대</li> </ul>	<p>민주적 가족문화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노동을 가치화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li> <li>▶평등한 가사노동 분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평등지수 개발 추진</li> <li>▶평등한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자녀의 성과 분 결정 방식 개선 연구 및 검토</li> <li>▶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강화</li> <li>▶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li> </ul>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li> <li>▶맞춤형 보육·돌봄 서비스 개편</li> <li>▶자녀돌봄 지역인프라 확대</li> <li>▶노인돌봄 지원체계 구축</li> </ul>	<p>함께 돌봄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공동체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복 및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li> <li>▶학교 안팎 초등 돌봄 확대</li> <li>▶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li> </ul>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족 지원</li> </ul>	<p>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li> <li>▶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li> <li>▶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li> </ul>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 p. 7.

특히 정권교체 이후 초등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강조되었다.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초등방과후 돌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 중심의 돌봄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면서 2017년 이후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7: 3).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는 맞벌이가정 초등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가시화하였다(여성가족부, 2018a: 2). 즉,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해 이웃 간에 자녀를 함께 돌보고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을 추구하였다(여성가족부, 2018b: 2). 이로써 공동육아나눔터는 맞벌이가구의 초등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지자체의 돌봄공간의 확보, 기업의 공간 리모델링 지원, 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계획 등도 모색되었다.

다시 말해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의 비맞벌이가구와 영유아 중심에서 맞벌이가구 초등자녀의 돌봄 기능을 추가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므로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공간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

는 공동체의 회복이 그 목표로서 새롭게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18a: 19).

지역사회 돌봄의 확충은 “제4차 저출산계획(2021~2025)”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과 더불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1: 73). 이때 공동육아 나눔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보완적 서비스에 포함되어 지역맞춤형 돌봄과 동시에 참여형 돌봄 문화의 조성 차원에서 그 확대가 제시된다. 또한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의 추진도 제시되어 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직형 등 다양한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하여 2020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인 확산을 추구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1: 73). 동 계획에서 초등돌봄은 수요 대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령기 아동교육과 돌봄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학교돌봄 및 자원과 지역사회 내 돌봄과 자원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더욱 부각된다(관계부처합동, 2021: 70).

2021년에 발표된 “제4차 건가계획(2021~2025)”에서는 제3차 건가계획의 성과로서 돌봄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와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의 대안적 돌봄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고(여성가족부, 2021f: 9), 관련 과제로는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가 제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21f: 61).

세부과제로는 1인 가구에 대한 돌봄지원과 더불어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확산’이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21f: 69). 구체적으로는 우선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단 구성·운영, 돌봄 코디네이터 양성 및 중간지원조직 관리 등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과 공동체 구성원, 아동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공동체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계획이 담겨있다(여성가족부, 2021f: 69). 또한 마을내 돌봄이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고, 지역의 돌봄 수요를 발굴하며, 지역돌봄공동체 발굴·네트워크 및 지역돌봄협의회 활동 등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21f: 69). 그 밖에도 지역사회 돌봄 활동을 지원하고, 코디네이터 양성 등 돌봄공동체 활동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계획도 수립하였다(여성가족부, 2021f: 69).

한편 이 계획에서 지역사회 돌봄에 관한 과제는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공간의 확충과 운영 모델의 확산이 추가적으로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21f: 66-67).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서로 연계·협력하여 집과 인접한 곳에서 틈새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가족센터(SOC)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f: 67). 초등학교는 방과후 돌봄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센터 SOC 다목적 가족소통교류 공간 등을 활용하여 틈새돌봄을 지원하고자 계획하였다(여성가족부, 2021f: 67).

## 2.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앞서 살펴본 주요계획에 의하면, 대표적인 육아공동체 관련 사업은 이웃간 자녀 돌봄의 연계를 위한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를 들 수 있으며, 특히 공동육아나눔터는 그 역할이 보다 확장되는 추세이다.

### 가. 가족돌봄나눔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가족품앗이 등

####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돌봄나눔사업 운영 현황

##### 가)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건강가정지원센터<sup>15)</sup>에서는 가족의 일시적인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의 돌봄 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족돌봄나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31). 가족돌봄나눔사업은 전국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사업으로 1) 모두가족봉사단(‘가족 함께 돌보기’를 위한 지역봉사단), 2) 모두가족품앗이, 3) 아버지-자녀가 함께 하는 돌봄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이들 중에서 2개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a: 232-239). 육아공동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모두가족 봉사단’과 ‘모두가족 품앗이’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함께 돌보기’가 강조된다. ‘모두가족 품앗이’

15)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제35조)에 의거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지역주민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2013년에 전국 151개소에 설치되었으며, 2016년 부터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a: 218).

에서는 2022년부터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내용을 ‘돌봄’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모두가족 품앗이’에서는 그 운영방식을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와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으로 보다 다양화하는 것이 강조된다(여성가족부, 2022a: 234). 관련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하와 같다.

우선 ‘모두가족 봉사단’은 센터 내 또는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운영하고, 2인 이상의 가족이 돌봄봉사활동에 참여하되, 돌봄 목표시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녀돌봄에서 출발하여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활동내용에는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과 자조모임도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22a: 232).

다음으로 ‘모두가족 품앗이’는 기존 구성원의 재능 나눔, 돌봄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와 타 공동체로 돌봄 품앗이를 확대하고, 품앗이 이외에도 품앗이 활동을 위한 전체가족 예비교육, 전체가족회의 등도 활동내용에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22a: 233).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은 유아나 초등학생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아이돌봄, 품앗이,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a: 233). 이들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는 가족지원통합시스템의 입력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사업 수행 후에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추후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a: 235).

〈표 III-2-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돌봄나눔사업(공통사업)의 주요내용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모두가족 봉사단	기존의 가족봉사단 활동내용을 ‘돌봄’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모두가족 품앗이	전업주부와 맞벌이 가구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1). p. 234.

한편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 센터

의 사업 담당자와 가족봉사단 및 품앗이 리더, 강사, 자원활동가 등 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며, 유관기관의 발굴과 사업 연계,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여성가족부, 2022a: 236-238). 특히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센터의 직원과 활동가(강사, 상담자원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연간 5과목 또는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a: 236).

나) 추진 실적

2020년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모두가족품앗이’는 참여인원이 40,410 명이고 총 4,209 회기를 운영하여 해당 부문의 주요 사업으로 파악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32). 그런데 동 사업은 나눔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월등히 많아서 여성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돌봄나눔사업(공통사업)의 참여인원/회기수(2020년)

단위: 명, 회기

프로그램	참여인원수				진행 회기수
	남	여	비구분	합계	
모두가족봉사단	1,862	3,121	3,013	7,996	286
모두가족품앗이	11,657	24,511	4,242	40,410	4,209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3,900	1,959	3,473	9,332	249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 32. 재구성.

한편 ‘모두가족품앗이’ 참여자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87,115명(센터수: 129개소)였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7개 센터에서 40,410명에 그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48). 해당 시기가 초등방과후 돌봄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그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2-3〉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가족품앗이의 참여인원/회기수 추이(2011-2020년)

단위: 명, 회기

연도	센터수	총 참여인원	평균 참여인원	실시 회기수	평균 회기수
2011	129	87,115	675	7,650	59.3
2012	104	81,614	787	7,681	73.8
2013	117	148,334	1,267	6,720	75.5

연도	센터수	총 참여인원	평균 참여인원	실시 회기수	평균 회기수
2014	111	190,299	1,714	9,232	108.6
2015	113	212,418	1,880	21,215	188
2016	66	124,957	1,893	13,496	204.5
2017	46	120,449	2,618	12,888	280.2
2018	22	71,996	3,273	7,727	351
2019	18	65,164	3,620	6,710	373
2020	17	40,410	2,377	4,209	248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 48.

## 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간 자녀돌봄의 품앗이 구성 확산을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010년에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본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2012. 2.1)에 따라 그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동법 제9조)(여성가족부, 2022b: 7). 이후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 공간의 리모델링과 신규 개소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사업 규모를 확대해왔다(여성가족부, 2018a: 7).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별도예산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22a: 239).

### 〈표 III-2-4〉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

<p><b>[아이돌봄 지원법]</b>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20. 10. 20.&gt;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0. 5. 19.&gt;</p>
<p><b>[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b>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                      2.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                      4. 벽 및 천장의 마감재로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커튼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p>

-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1. 4.]
- 〈부칙〉  
제2조(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_지원법\(2022. 6. 7. 인출\)](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_지원법(2022.6.7.인출))

2022년에는 사업의 운영원칙으로 제시된 ‘공동체성’의 내용에 부모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중심이 되는 대상으로 확장하였다(여성가족부, 2022b: 3). 또한 공간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대상시설은 기존의 주민공동시설 및 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 대우건설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에 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을 추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2b: 3).

### 1)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공동육아나눔터는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가 이용하며, 그 운영 원칙으로 보편적인 이용과 더불어 주민자치와 공동체성이 요구된다. 즉, 참여하는 부모는 돌봄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돌봄의 주체이며, 사업 수행기관은 부모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고, 돌봄 방식과 내용은 부모공동체(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공동체 방식(품앗이 돌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여성가족부, 2022b: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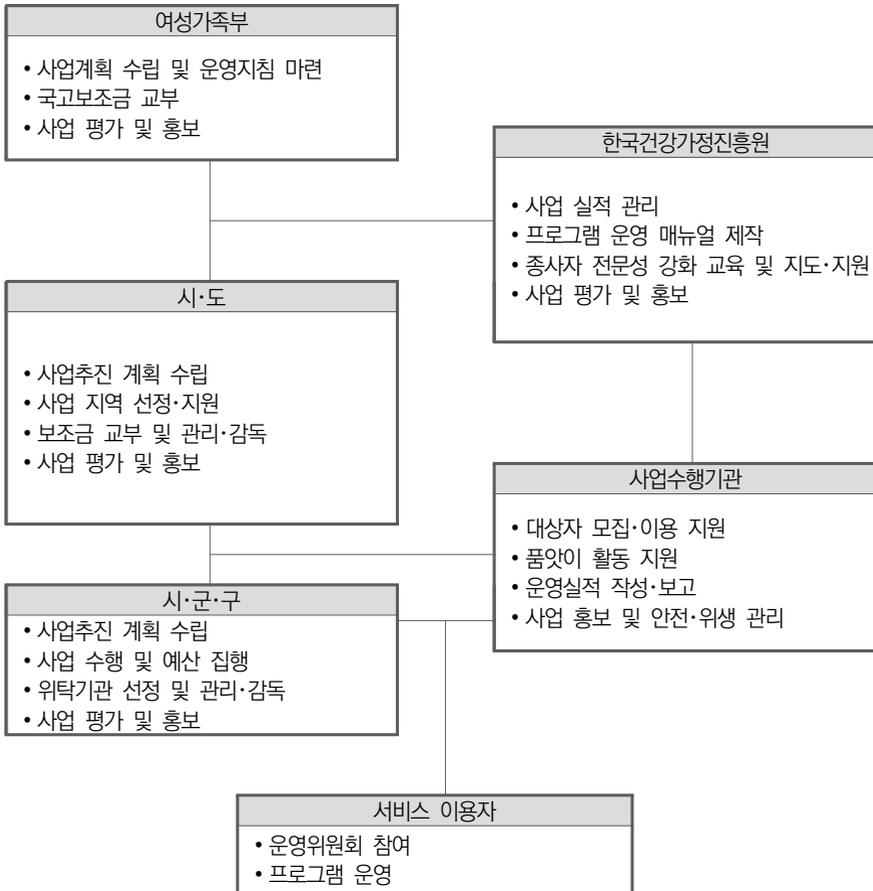
주요사업은 1) 공간 제공, 2) 프로그램 운영, 3) 공동육아 지원, 4) 놀이활동 지원 이다(여성가족부, 2022b: 7). 즉,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4) 아이들이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2b: 7).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만족도는 2012년에 90%로 나타나고, 이후 만족도가 점차 제고되어 2018년에는 93.8%로 보고된다(여성가족부, 2018a: 7).

[그림 III-2-1]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내용

공간 나눔	자녀돌봄 나눔	정보·자원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놀이 공간</li> <li>- 부모의 소통 공간</li> <li>- 프로그램 운영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품앗이 연계</li> <li>- 가족 상담, 부모 교육</li> <li>- 품앗이 리더 교육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양육 정보 나눔</li> <li>- 장난감, 도서, 육아 물품</li> <li>- 봉사 나눔, 지역활동 연계</li> </ul>

자료: 여성가족부(2022a).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올해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30개소 추가설치. p. 6.

[그림 III-2-2]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가족사업안내(II). p. 8.

한편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참여 수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다음의 예시를 들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b: 9).

- (초기정착) 신규 시설의 경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 지역 내 활용 자원 발굴' 등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 (안정화) '품앗이 수 확대, 결속력 제고, 공동체 이해 심화' 등을 통해 부모 주도의 안정적인 공동체돌봄 안착
- (확산) 부모 중심 돌봄공동체의 외연을 주민을 포함한 마을공동체로 확장((수단: 마을 축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 2) 공간 발굴 및 조성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소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민간시설 등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시설유지 계약 체결)이 요구된다(여성가족부, 2022b: 10). 또한 활용가능한 공간은 주민센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공공 민간 유휴시설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여성가족부, 2022b: 12).

공간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하고, 비치물품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b: 12).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인근 주민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거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b: 11).

## 3) 담당인력 배치 및 교육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사업을 전담하는 종사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2인 이상 배치 시에 교대 근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2b: 10). 2021년에는 전담인력에 대한 채용기준이 신설되어 사업수행 담당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여성가족부, 2022b: 10). 또한 주간,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에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고용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2021년 부터 10개월로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22b: 10).

그 밖에도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존에 참여했었던 부모들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근 자원봉사자 센터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b: 10)

#### 4) 운영관리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용부모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시간, 이용요금, 프로그램 운영, 놀이활동을 위한 교구 및 도서관리, 이용자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b: 16-18).

이용시간은 당초에는 월~금요일에 오전 10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이며, 여건에 따라 평일 저녁 및 토요일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여성가족부, 2018a: 7), 이후 맞벌이가구 등을 위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과 야간 등 지역사정에 따라 월 60시간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3).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 자녀 돌봄시설은 맞벌이가구 자녀를 우선모집하고(70%까지), 정원 대비 70% 미달 시에 다른 아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b: 15). 단, 일시돌봄 또는 긴급돌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원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근 초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어린이도서관 등에 홍보 방안도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22b: 15).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2021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품앗이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여성가족부, 2021b: 4).

프로그램은 구성·운영의 주체는 참여 부모이며, 사업담당자는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부모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권장한다(여성가족부, 2022b: 17). 관련 지침에서 프로그램 운영횟수는 주 2회 이상으로 제시되고, 단 강사 섭외가 어렵거나 이용자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 1회 운영이 허용된다(여성가족부, 2022b: 17).

한편 자녀돌봄 품앗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식관리, 운영절차, 구성, 운영관리, 품앗이 교육 등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e: 19-21).

#### 5) 설치 현황

공동육아나눔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을 기점으로 그 역할을 확대 또는 다양화 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후 확충 노력도 가속화 되었다. 여성가족부에

서는 2018년에 일·생활 균형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기존의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 2018a: 2). 이로써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의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홀벌이가구 위주 이외에도 맞벌이가정을 포괄하여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운영방식이 다양화되었다(여성가족부, 2018a: 2). 이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녀 돌봄에 이웃과 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18a: 3).

또한 국비지원 지역을 전국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기준으로 160개소에서 2018년에 100개소가 증가한 26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여성가족부, 2018a: 2). 이 같은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었다(여성가족부, 2018a: 2). 대표적으로 2018년에는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으로 전국 50개소, 30억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 리모델링 및 신규 개소를 지원하였다(여성가족부, 2018a: 2). 2022년 5월 기준으로 총 391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 중에서 123개소가 신한금융그룹이 민관협력으로 설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성가족부, 2022d: 1).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초등돌봄 특화형(꿈도담터)으로,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민관 협력으로 신규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여 초등자녀 돌봄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지닌다(여성가족부, 2022d: 4). 세부적으로 초등 저학년 대상 신규 공동육아나눔터에 연간 30억 원을 지원하며, 개소당 6~8천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여성가족부, 2022d: 4). 이들 예산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돌봄 프로그램, 공간 시공에 소요되는 데, 1) 공간 시공(사무공간, 상담실, 프로그램실, 활동 공간 등), 2) 기자재 지원(냉·난방기, 매트, 책상, PC, 블록완구 및 교구재 등), 3) 돌봄 프로그램(금융 교육, 사회성 발달 교육, IT 교육 등), 4) 노후 공동육아나눔터 개보수에 활용된다(여성가족부, 2022d: 4).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총 101개소 지원하였으며(74억 원 상당),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한금융그룹 재원을 기부 형식으로 모금회에 위탁하여(90억 원 상당) 3자 협약을 검토한다고 계획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2d: 4).

[그림 III-2-3]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22a).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올해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30개소 추가설치. p. 4.

그 밖에도 대우건설,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민간 공공 건설사와 협력해 아파트 단지 내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여성가족부, 2018a: 2).

이로써 공동육아나눔터는 2011년에는 60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이후 100개소를 초과하였으며, 2018년 이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2d: 5).

<표 III-2-5> 공동육아나눔터 연도별 운영 실적 추이(2015-2021년)

단위: 백만 원, 개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648	1,296	1,688	2,956	4,431	6,336	8,548
개소 수	109	120	160	205	279	331	391

자료: 여성가족부(2022a).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올해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30개소 추가설치. p. 6.

### 다.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학교나 시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돌봄을 책임지는 마을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여성가족부, 2020b: 1). 즉, 동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돌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놀이, 체험 활동 등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20a: 2).

### 1) 사업 주요내용

#### 가)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응모 자격은 돌봄공동체 육성에 관심 있는 지역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당 4개 내외의 돌봄공동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할 수 있으며, 단 법인이나 사업자인 민간주도형 돌봄공동체인 경우에 단독으로 공모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a: 3). 또한 공동체는 3명 이상의 돌봄 주체자와 5명 이상의 아동으로 구성해야 하고,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0a: 5).

지원대상은 서류(기본요건, 자격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며, 심사기준은 기관수행능력(30점), 공동체의 운영 능력(60점), 발전가능성(10점)으로 공동체의 운영 능력이 가장 강조되며, 최대 5점이 부여되는 가점에는 여성친화 도시 주무부서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평가기준으로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20a: 8).

〈표 III-2-6〉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내용
기관 사업수행 능력 (30점)	①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의 이해, 유사사업 운영 경험</li> <li>• 돌봄공동체 지원계획 구체성</li> <li>• 예산계획의 적정성</li> </ul>
	② 사업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가능한 담당인력 규모 (업무분장)</li> <li>• 홍보계획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방안</li> <li>• 네트워크 연계단체 수, 연계방안의 구체성, 지자체 협력방안</li> </ul>
공동체의 운영 능력 (60점)	③ 구성원의 규모와 모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 구성원인 돌봄주체자 3인, 돌봄아동 5인 이상</li> <li>- 최소 주 2회 돌봄활동, 돌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li> </ul>
	④ 운영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틈새 돌봄 시간 운영 여부</li> <li>• 지역연계 프로그램 연계 여부</li> <li>• 일상적인 돌봄공동체 활동 여부</li> <li>• 돌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정성</li> </ul>
	⑤ 공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활동 공간의 위치, 환경, 시설의 적합성</li> <li>• 다양한 활동 공간 활용 여부</li> </ul>

심사항목	세부내용
발전 가능성(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동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주민참여 확대 등)</li> <li>• 지속방안,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 여부</li> </ul>
가점(최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우수사례 수상 돌봄공동체</li> <li>•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여성친화도시 담당)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협의회 참석,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현장방문 등 협업실적 증빙)</li> </ul>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보도자료: 돌봄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이 함께 자녀를 돌봐요. p. 8.

### 나) 지원내용 및 방식

다양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돌봄공동체가 지역맞춤형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돌봄 활동비, 전문가 자문(컨설팅), 프로그램 연계, 교육 등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0a: 3). 또한 사업 총괄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돌봄 활동비, 교육, 전문 인력(코디네이터) 등을 지원하며,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자문 등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0b: 2).

선정된 지역에는 센터 운영비(인건비, 회의비, 홍보비, 소모성용품 구입비 등), 돌봄 공동체 월별 활동비, 센터 및 돌봄공동체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는 데, 지원액은 돌봄공동체의 규모와 돌봄 아동수 등에 따라 다르다(여성가족부, 2020a: 3). 2021년 공모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소요예산은 총 690백만 원이며, 이중 총괄관리 운영기관은 240백만 원(민간경상보조),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 원(지역 당 75백만 원, 국비보조 50%)이고, 지역 당 예산은 센터 운영비 및 공동체 활동비를 포함하여 7천5백만 원 내외이다(여성가족부, 2020c: 2).

지원은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돌봄공동체 운영기관과 돌봄공동체가 협업하는 방식이다(여성가족부, 2020c: 4). 2020년 사업공모 안내서에 의하면,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설명회 및 교육(2회), 현장 및 집단컨설팅 실시, 돌봄공동체 워크숍 개최(1회), 운영체계 간 소통 간담회(3회), 돌봄공동체 성과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회)로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20a: 9).

### 다) 사업범위

돌봄대상은 만 0세~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등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0a: 6). 기본 수칙으로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생태계의 구축이 요구된다(여성가족부, 2020a: 6).

돌봄 장소는 공동육아나눔터, 마을 카페, 마을 농장, 작은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희 공간, 체험학습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등을 발굴해야 한다. 이들 기관의 운영시간은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과 주말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a: 6).

〈표 III-2-7〉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내용(2020년)

<input type="checkbox"/> 돌봄대상 : 만 0세 ~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input type="checkbox"/> 운영 시간
-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 지역 특성, 모임 구성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틈새 돌봄시간 반드시 포함
<input type="checkbox"/> 돌봄 장소
- 공동육아나눔터, 마을 카페, 마을 농장, 작은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희 공간, 체험 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공간 발굴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 부모 적극 참여, 아동 주체적 활동, 지역 생태계 구축 등 기본 수칙 반영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 기관 운영비(인건비, 회의비,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등)
- 돌봄 공동체 월별 활동비
- 기관 및 돌봄공동체 대상 컨설팅 및 교육
* 돌봄 공간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자원 적극 활용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보도자료: 돌봄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이 함께 자녀를 돌봐요. p. 5-6.

〈표 III-2-8〉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공동체 유형(2020년)

유형	세부 내용
① 품앗이형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돌봄 활동을 하는 부모 자조 모임 및 품앗이 그룹 등
② 마을공동체형	부모 및 지역 주민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 등 * 북카페, 마을카페, 마을밥상, 마을농장, 쉼터, 녹색가게 등

유형	세부 내용
③ 주민경제조직형	돌봄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 협동 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보도자료: 돌봄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이 함께 자녀를 돌봐요. p. 2.

한편 이들 사업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총괄관리하며, 지자체에서 돌봄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지역 내 돌봄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0c: 4)(그림 III-2-4 참조).

[그림 III-2-4]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체계(2020년)

여성가족부	•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기관 (現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 사업 운영·집행·정산 •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 돌봄활동 운영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 지역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 돌봄공동체 운영 및 돌봄활동 실시

자료: 여성가족부(2020c). 보도자료: 우리 마을 아이들, 주민 공동체가 책임지고 돌봐요. p. 4.

## 2) 추진 현황

2020년에는 총 10개 시·군·구가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공동체 유형별로 서울(구로구·마포구), 강원(원주시), 대전, 세종, 전북(전주시·완주시), 광주(동구, 서구, 남구) 등 품앗이형 4개, 마을공동체형 4개, 주민경제조직형 2개 등으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20b: 1). 각 유형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품앗이형은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한 돌봄 활동 부모 자조 모임으로 ‘꿈꾸는 아이들’(광주 서구), ‘다함께 키움’(광주 동구), ‘동글동글 통통’(전북 전주), ‘개개맘’(서울 구로구) 등은 아빠참여 체험 활동, 독서 지도 등을 실시

한다(여성가족부, 2020b: 1). 특히 서울 구로구 지역의 ‘개개맘’은 다양한 가족(다문화가족 4명, 장애가족 4명, 맞벌이가족 12명, 홀벌이가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된다(여성가족부, 2020d: 4).

마을공동체형은 마을공동체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로 ‘소통과 화합의 한밭 자이’(대전), ‘방젯골’(광주 남구), ‘새샘마을 입주자 대표 회의’(세종), ‘완주 손가락 공동육아’(전북 완주) 등으로 경로당 봉사 활동, 숲속 체험 활동 등을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20b: 2).

주민경제조직형은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또보자 마을학교’(서울 마포구), ‘라운 돌봄’(강원 원주) 등이 속제 지도, 목공 교실, 동네 시장 탐방 등을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20b: 2).

한편 이들 공동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돌봄대상은 주로 유아부터 초등자녀 이나, 영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분포를 보이나, 운영 프로그램은 대상 아동의 연령 등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단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에서 자격증 과정과 돌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성가족부, 2020c: 5).

〈표 III-2-9〉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현황(2020년)

유형	구분	지역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돌봄 대상
품앗이	대도시형	서울 구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함크</li> <li>■ 행복모임</li> <li>■ 개개맘</li> </ul>	영어책놀이, 보드게임, 주말프로그램, 놀이학습, 체험활동, 현장학습, 요리, 공예, 다문화이해, 아빠참여, 체험활동 등	5세 ~11세
	대도시형	광주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꾸는 아이들</li> <li>■ 큰나무 공동체</li> <li>■ 한누리꽃담</li> </ul>	오감놀이, 중국어, 가베, 체험활동, 정서코칭, 독서코칭, 마을생태체험, 플라워체험, 월드푸드체험 등	5세 ~12세
	대도시형	광주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음&amp;지음</li> <li>■ 동구&amp;동아'S</li> <li>■ 다함께 키움</li> </ul>	수영장프로그램, 이중어어 동화책만들기, 아시아 음식/문화/놀이/체험, 요리, 나눔, 미술, 체험활동 등	2세 ~12세
	중소 도시형	전북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눠드림</li> <li>■ 사랑방교육문화 복지공동체</li> <li>■ 호크마</li> <li>■ 동글동글통통</li> </ul>	우리동네 계절반상, 주말동네여행, 야간 자율놀이터, 돌봄교육 그림책만들기, 봉사활동, 마을소식지, 텃밭일구기, 뮤지컬, 마을영화제, 체험활동, 책과 함께하는 오감놀이 활동, 지역탐방 등	5세 ~12세

유형	구분	지역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돌봄 대상
마을공동체	대도시형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두의 에너지 자립마을학교</li> <li>마루도서관</li> <li>소통과 화합의 한밭자이</li> <li>우리마을 공동육아</li> </ul>	돌봄놀이터, 물놀이, 전통놀이, 오카리나, 공예, 연극, 미술, 마술, 요리, 마을밥상, 상자덧밭, 숲놀이, 과학교실 등	6세 ~13세
	중소도시형	세종시 (새샘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담소담 작은 도서관</li> <li>채움</li> <li>세종공감 활동가 모임 함께</li> <li>새샘마을6단지 경로당</li> </ul>	공감소통놀이, 아동미술심리치유프로그램, 독서장려프로그램, 평화로운 놀이방법, 숲속산책, 과학교실, 애착놀이프로그램, 공감산책, 공감대화워크숍, 농촌체험학습, 아빠와 숲속밭 놀이, 노년층 자원봉사 등	유아 ~초등
	대도시형	광주광역시 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숲속작은 도서관</li> <li>십시일반 나눔 마을학교</li> <li>방젓골</li> <li>남부주민회의</li> </ul>	마을 이해하기, 그림책 읽어주기, 국수봉사, 가족 문화 프로그램, 문화예술 플그램, 지역체험 프로그램, 공유주방 등	0세 ~12세
	농산어촌형	전북 완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주손가락공동육아</li> <li>품앗이놀이터</li> </ul>	육아공부모임, 소모임(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춤, 그림), 책놀이, 벽화놀이길 그리기, 실버 책놀이, 가족캠핑 등	0세 ~13세
주민경제조직	대도시형	서울 마포구 (또보자마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동이네 문화놀이터</li> <li>도토리마을 병과 후</li> <li>성미산 청소년교 육활동 연구회</li> <li>마을공부방 토끼똥</li> </ul>	요일별 문화 프로그램, 목공교실, 요리동아리, 피어나는 손끝활동, 채움시간, 자유놀이, 그날의 배움 등	7세 ~12세
	중소도시형	강원 원주시 (큰나무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잡스돌봄</li> <li>플레이돌봄</li> </ul>	전문 자격증 과정 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내 돌봄교육	13세 미만

자료: 여성가족부(2020c). 보도자료: 우리 마을 아이들, 주민 공동체가 책임지고 돌봐요. p.5.

또한 2021년과 2022년에는 아래의 <표 III-2-10>과 같이 총 12개 시·군·구가 선정되어 지원되었다. 2021년과 2022년의 운영지역은 동일하며 지원 공동체는 변동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표 III-2-10〉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 지역 및 공동체 수(2021-2022년)

지원대상 지역	지역 운영기관	지원공동체 수
서울 구로구	구로구 건가다가센터	3
서울 마포구	또보자 마을학교	4
광주 남구	광주남구 건가다가센터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건가다가센터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건가다가센터	4
경기 의왕시	의왕시 건가다가센터	4
충북 괴산시	괴산시 건가다가센터	3
충남 당진시	당진시 건가센터	4
충남 홍성군	홍성군 건가다가센터	4
전북 완주군	완주군 건가다가센터	3
전북 전주시	전주시 건가센터	4
전남 광양시	광양시 건가다가센터	4
총 12개 지역		45개

자료: 여성가족부(2021c). '2022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총괄 관리기관 공모' p.4

### 3. 육아공동체 관련 유관 계획 및 사업의 검토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관 계획 및 사업을 검토하였다. 이 사업들은 육아 또는 영유아, 아동돌봄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진 않으나 육아공동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들로서 육아공동체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거나 연계될 여지가 있다.

#### 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지역 기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그 확장 및 내실화의 기반으로 앞서 다른 공동육아니눔터와 더불어 여성친화도시에 주목할 만하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지자체를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므로(여성가족부, 2020a: 2), 해당 지역에서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여성가족부, 2020a: 1). 즉,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 이외에도 돌봄지원의 확대와 안전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추진하는 시·군·구를 말한다(여성가족부, 2022c: 1).

이처럼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사회 기반의 육아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5대 목표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하 <표 III-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 중에서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돌봄 인프라의 접근성 확대와 마을 단위 돌봄의 확대(4-2)와 지역사회 내 여성활동의 확산을 위한 마을 여성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확대(5-1), 단체 및 자원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5-2) 등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는 돌봄공동체의 기반으로 인식된다.

<표 III-3-1>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5대 목표	내 용
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1-1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설치 - 양성평등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 - 지역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2-1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 활동 촉진 2-2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여성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목표 공시 및 지속 모니터링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3-1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3-2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④ 가족친화환경 조성	4-1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대 4-2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 마을 단위 돌봄 확대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5-1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 다양한 분야의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5대 목표	내 용
	5-2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 단체 및 자원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참여 확대

자료: 여성가족부(2022f), 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소 지정. p. 7.

이 같은 여성친화도시의 목표에 따라 재지정된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돌봄 관련 공동체의 형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sup>16)</sup>, 육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판단되는 돌봄네트워크 및 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활동 리더의 발굴과 양성과 도시재생사업 등 유관 사업과의 네트워크 또는 협의체 운영, 이외 시민참여 활동 활성화<sup>17)</sup>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여성가족부, 2022f: 8-10). 구체적으로 2021년 여성친화도시 최우수 사례로서 선정된 충남 아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후 10년이 지난 대표도시로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센터가 그 주요사업에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2f: 2). 또한 이 지역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여성친화적인 관점이 반영되도록 도시재생과와 여성가족과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표 III-3-2〉 여성친화도시의 육아공동체 유관 사업내용(2021년)**

구분	지자체	육아공동체 관련 사업내용
신규	경기 오산시	- 사회적협동조합 연계 주민참여형 돌봄생태계 구축
	강원 홍천군	- 도시재생지 내 아이돌봄센터 조성 및 여성 창업 지원
	경남 남해군	- 마을안전지킴이, 지역사회 지도자 대상 양성평등교육
2단계 재지정	서울 성동구	- 돌봄 복합 커뮤니티 공간 마더센터 운영
	서울 송파구	-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 시민참여단 활동 다양화(코로나19로 변화된 여성의 경제활동, 돌봄 부담 홍보 등)
	서울 은평구	- 안전 분야 민·관·경 협의체, 돌봄네트워크 등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성평등마을지기 양성과정 및 은평여성네트워크 지역 성평등 활동 활성화 지원
	부산 북구	- 여성특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돌봄활동가 양성
	대전 동구	-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TF팀(주무부서 총괄) 구성·운영

16) 2단계 재지정(인천 미추홀구, 세종시 등), 3단계 재지정(광주 동구, 광주 북구)

17) 2단계 재지정(서울 송파구, 서울 은평구, 충북 증평군, 전남 순천시 등), 3단계 재지정(광주 동구, 광주 북구, 경남 양산시 등)

구분	지자체	육아공동체 관련 사업내용
3단계 재지정		- 여성일자리협약체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친화일자리 사업 발굴 - 시민참여단 주도 공모사업(우리동네바로알기, 여성안심밤길, 여성안심마을 등)
	세종시	- 민관협력체(일자리위원회 여성분과, 여성친화적 도시재생 연구팀 등) 구성·운영 - 여성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남 순천시	- 시민참여단 활동 활성화(자녀돌봄지도 제작, 도시재생사업 주민제한 사업 등) -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젠더전문가 양성, 여성자생단체 발굴, 양성 명예읍면동장제 등)
	광주 동구	- 마을 여성 사회참여 거점 공간 마을사랑채(돌봄), 공감수다방(취창업) 설치·운영 - 온리동구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동네방넷) 구축
	광주 북구	-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여성친화주민공동체 네트워크,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여성친화마을 조성(세대공감 커뮤니티, 마을기업, 다가치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 - 마을 돌봄공동체 형성·운영 지원
	충남 청주시	- 꿈지락 마을 돌봄사업
	충남 아산시	-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양성평등거리, WCL 등) - 양성평등 리더활동가 양성 및 찾아가는 양성평등 시민교육

자료: 여성가족부(2022f), 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소 지정. pp. 8-10.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에 2개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으로 95개 까지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22f: 1).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 강원 태백시 등 8개 지자체가 신규지정 되었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협약기간(5년)이 지난 충북 증평군 등 16개 지자체가 재지정되어 향후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22f: 2).

〈표 III-3-3〉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2021년)

구분	지방자치단체	
신규지정 <sup>1)</sup> (8)	서울 용산구,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 강원 태백시·홍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남해군	
재지정	2단계 <sup>2)</sup> (16)	서울 서초구·성동구·송파구·은평구, 부산 북구·수영구, 인천 미추홀구·동구, 대전 유성구·동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성남시, 강원 횡성군, 충북 증평군,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3단계 <sup>3)</sup> (5)	광주 동구·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 주: 1) (1단계)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도시,  
 2) (2단계) 1단계 사업 추진 후 민관협력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조성목표간 연계통합사업 추진 가능한 도시  
 3) (3단계) 2단계 사업 추진 후 조성목표별 민관협력 체계 등 심화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성과관리에 기반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도시  
 자료: 여성가족부(2022c). 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소 지정. p.2.

## 나. 여성·가족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는 본래적으로 시장경제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회서비스 개선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이다현, 2021: 13), 육아공동체의 운영체로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연계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한국사회 사회적경제의 4대 주체는 아래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제시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7.3. 인출)<sup>18)</sup> 한국사회의 사회적경제는 1970년대 빈민운동, 협동조합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1997년 외환위기사 빈곤과 실업에 대한 제3섹터형 정책 대안으로 확립되게 된다(김정원·황덕순, 2016; 이다현, 2021: 13-14에서 재인용). 이후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1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법을 제정·시행하며 사회적경제 주체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이다현, 2021: 14).

〈표 III-3-4〉 4대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근거

구분		내용
사회적기업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년)
	소관부서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개념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18) 2017년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개념이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현황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 2022.7.3. 인출)

구분	내용	
마을기업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2012년)
	소관부서	기획재정부
마을기업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근거법령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11년)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개념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2년)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자료: 4대 사회적경제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 (2022.7.3. 인출)

최근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관련 지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1년 6월에 관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21c: 1).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다양한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가치 확산의 4개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제시하며, 이중 돌봄 영역에 대해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사업을 활용하는 육아 사회적경제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하고 육아공동체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d: 2). 육아 분야 사회적경제모델의 형태로 온종일돌봄 수탁운영 모델, 돌봄공동체와 유관기관의 연계모델,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 등을 제시하며(여성가족부, 2021d: 2), 우수모델을 발굴해 확산을 꾀하고 조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 2021d: 3). 관련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가족분야의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조직화를 지원하고 우수모델의 경우 프랜차이징 모델 등을 개발해 확산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d: 3).

관련 사업으로 여성가족부는 돌봄·가족지원 등 여성·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총 150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하였으며, 그중 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e: 2). 여성가족부는 이들 기업에 사업운영을 위한 기초진단, 경쟁력 강화 자문(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 기업 간 교류기회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지원 등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1e: 2).

이들 예비사회적기업에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근로자 인건비, 전문인력, 판로 지원 등)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컨설팅) 등 추가적으로 지원된다(여성가족부, 2022e: 1).

## 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사업

상당수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한 영역으로 정책화되어 지원되고 있기에 아래에서는 정부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국사회의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은 1950년~70년대 전후의 재건과 산업화를 배경으로 한 지역사회개발의 한 영역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으며, 1980년~90년대에는 도시발달로 인한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정책화되어 지원되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운동과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마을만들기 등으로 명명되는 마을공동체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점차적으로 주민참여에 근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민간단체들과 주민들이 차없는 거리 조성, 골목가꾸기, 담장 허물기 등의 마을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지자체들과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게 시작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2017: 133~135).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김홍주·한상현·안용준·윤설민·남영식·이재민·박치형·김강현, 2021: 23), 주무부처로서 행정안전부는 2007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이후 아래와 같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김홍주 외, 2021: 25).

〈표 III-3-5〉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시행시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고품격 생활공간,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2007 ~ 2009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취약주민 주거지역 내 동네마당 조성사업(2008)이 2010년 본 사업으로 전환,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포함,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마을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	2008 ~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2010)으로 시작해 2011년부터 지역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으로 전화	2010 ~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평화생태마을조성)과 도서지역(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011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생활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지역복지형, 안전마을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다문화어울림형 등의 모형이 제시됨	2013 ~
마을공방 육성사업	마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회복 거점으로서 마을공방 활동 지원	2015 ~
지역희망브리딩 지원사업	비도시권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청장년층 지역활성화 참여 및 지역정책 지원	2017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통합지원 사업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2017 ~
청소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소년 공동체를 발굴, 확산, 공동체 활동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마련, 지역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사업추진	2017 ~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도시 원도심 밀집지역, 농촌주거 취약지역 등 기초적인 거주를 위해 거점시설 구축, 생활편의, 주택관리, 공공편의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추진	2021~

자료: 김홍주 외(2021),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세종특별자치시·대전세종연구원, p.25 발췌

특히 행정안전부는 업무추진계획 발표 시 ‘자치분권 2.0의 내실 있는 추진’을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세부 이행계획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3법<sup>19)</sup>」 제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행정안전부, 2021: 7, 13). 3법 안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20년 9월 23일 이해식 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법으로 해당법 제정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입법정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입법진행현황, 2022.6.7. 인출)<sup>20)</sup>.

19)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행정안전부, 2021: 13).

20)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입법정보, <https://www.lawmaking.g>

해당 법안 원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III-3-4>와 같다. 이 외에도 2021년 1월 19일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해 11월 18일 서영교 의원 등 14인이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마을공동체 관련 입법진행현황, 2022.6.7. 인출)<sup>21)</sup>.

<표 III-3-6>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원문 주요내용

조항	내용
제1조	가. 이 법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	나. 마을공동체활동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마을공동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마을공동체활동을 할 때에는 해당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고,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3년 단위의 지역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11조 및 제12조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함.
제14조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마을공동체진흥원을 설립함.
제15조	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과 수익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넷째 주 목요일을 마을공동체의 날로 정하도록 함.

자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입법정보,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입법진행현황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4140/detailR> (2022.6.7. 인출)

o.kr/mob/nsmLmSts/out/2104140/detailR / 국민참여입법센터\_마을공동체 관련 입법진행현황 [http://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1&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RsltNmL=&rsRsltNmR=&scCptPpostCmt=&scPpsUsr=&stDtFmt=&edDtFmt=&scBlNm=scBlNm\\_blnm&scBlNmSct=%EB%A7%88%EC%9D%84%EA%B3%B5%EB%8F%99%EC%B2%B4](http://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1&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RsltNmL=&rsRsltNmR=&scCptPpostCmt=&scPpsUsr=&stDtFmt=&edDtFmt=&scBlNm=scBlNm_blnm&scBlNmSct=%EB%A7%88%EC%9D%84%EA%B3%B5%EB%8F%99%EC%B2%B4) (2022.6.7. 인출)

21)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마을공동체 관련 입법진행현황.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1&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RsltNmL=&rsRsltNmR=&scCptPpostCmt=&scPpsUsr=&stDtFmt=&edDtFmt=&scBlNm=scBlNm\\_blnm&scBlNmSct=%EB%A7%88%EC%9D%84%EA%B3%B5%EB%8F%99%EC%B2%B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1&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RsltNmL=&rsRsltNmR=&scCptPpostCmt=&scPpsUsr=&stDtFmt=&edDtFmt=&scBlNm=scBlNm_blnm&scBlNmSct=%EB%A7%88%EC%9D%84%EA%B3%B5%EB%8F%99%EC%B2%B4) (2022.6.7. 인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기본법으로서 현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률과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사업들을 진행하여 온 것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전대욱, 2021: 1). 구체적으로는 기본법으로서 마을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자발성, 자립성, 공동체성, 민주성, 지역성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제3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시도 시·군·구의 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의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지원체계 구축을 포괄하고 있다(제7조부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또한 중간지원조직으로 한국마을공동체진흥원(중앙지원센터)과 지역별 지원센터를 제시하고 있으며(제15조), 국유 공유재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조된다(제17조). 한편,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목적 하에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sup>22)</sup>와 개념 및 범위상의 중첩으로 인해 충돌이 생길 수 있으며(전대욱, 2021: 2),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결합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통제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문효근, 2022: 24).

## 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에 있어 공동체의 형성은 중요하게 취급되므로(행정안전부, 2018: 178)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 사업은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및 연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용어 그대로 ‘도시를 다시(再) 살려낸다(生)’는 뜻으로 이에는 도시의 쇠퇴에 대응한 계획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채종현·최호진, 2019: 36). 오늘날의 도시재생은 도시 재건, 도시 활성화, 도시 재정비, 도시 재개발의 흐름 속에서 변모해온 개념이다<sup>23)</sup>(채종현·최호진,

22)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로 한정하지 않고 통·리 단위의 주민모임 또는 인접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포괄하여 정의하지만,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정의하는 데에 있어 현재 행정구역상의 통리 또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전대욱 2021: 2).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3,500개 읍면동 중 1,013개에 설치되어 있다(문효근, 2022: 24).

23) ‘도시 재건’은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는 작업으로 산업화 이후 급격히 확대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물리적 보수에 주목한 개념이다. ‘도시 활성화’는 이의 도시재건의 개념과 범주에 더해 주변지역으로의 확장과 사회 및 복지분야의 개선을 추가한 개념이다. ‘도시 재정비’는 세분화된 지역단위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재개발’은 선도적 개발 전략에 다른 대주택개발 방식과 같은 대규모

2019: 36~37). 특히,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 이후의 도시 재개발은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낮고 기존의 공동체와 장소가 붕괴되며 원래의 상권과 문화가 기형적으로 변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낙후 지역의 재개발과정에서 보여준 철거와 원주민의 이탈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이다현, 2021: 11). 이처럼 기존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도시개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경제와 사회, 문화적 영역을 고려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존 거주자의 삶과 관계의 유지와 주민들의 참여가 강조되면서(이다현, 2021: 12) 도시재생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교집합을 갖게 되었다.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해 인구 및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이 선정되게 되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또한 도시재생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는데, 이 방침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비전으로 삼고 목표 중 하나로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역할로 ‘지역자원 발굴, 아이디어 제안, 사업의 시행·운영·유지·관리에의 참여, 주민협의체의 구성, 지자체 및 정부,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기구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어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을 증진하며 도시재생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2022.7.3. 인출)<sup>24)</sup>. 2022년 7월 기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에 425개 설치되어 있다(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내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2022.7.3. 인출)<sup>25)</sup>.

이러한 지원법과 방침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행되어 진행되었으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

개발방식을 의미한다(채종현, 최호진, 2019: 37).

24) 출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2/link.do> (2022.7.3. 인출)

25) 출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https://www.city.go.kr/portal/notice/notice/view.do?ntfId=5615> (2022.7.3. 인출)

사업'로 명명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김창휘, 2022: 5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지역특성과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5가지로 구분된다.

〈표 III-3-7〉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유형	내용
우리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 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엔카시스실 구축 등 新경제 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2022.7.3. 인출)

사업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지원형은 주거지역, 일반근린형은 준주거지역이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하고, 중심시가지형은 상업과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기반형은 산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3년간 50억원을 지원하고 주거지원형은 4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며,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우리동네 살리기형은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지만 도시재생법에 포함할 계획에 있다(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2.7.3. 인출)<sup>26)</sup>.

〈표 III-3-8〉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법정유형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26) 출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https://www.city.go.kr/portal/notice/notice/view.do?nttlid=5615> (2022.7.3. 인출)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sup>1)</sup>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규모 (권장면적)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 (5만~10만㎡ 내외)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한도 및 집행기간	50억 원/3년	100억 원/4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도입가능한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공동 이용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2022.7.3. 인출)

####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제도 및 정책 현황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06년 이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유관계획을 검토하여 육아공동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향을 살펴본 결과 2006년 수립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육아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품앗이 돌봄이 제시된 이래 2011년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과 인프라 확대’가 강조되었으며, 2017년 이후 ‘초등돌봄’에 주목해 이를 포괄하는 경향을 띄었다. 이러한 가운데 영유아에 초점을 맞춘 육아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영유아의 형제자매 돌봄의 수요와 생애주기상 영유아돌봄이 초등돌봄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돌봄과 초등돌봄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개소수가 증가하고 기존의 영유아 중심 돌봄에서 초등돌봄까지 포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16년 160개소에서 2018년 26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추진해 2018년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으로 공간리모델링 및 신규 개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확대에 주시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앞서의 논의들과 결부해 영유아와 초등아동이 공간을 공유하는 데에서 오는 장단점을 파악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돌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되어 현재 3년차를 맞고 있다. 돌봄공동체 사업은 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직형의 3개 유형을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동체를 통한 육아해결에서 나아가 사업확대와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를 두고 2020년 10개 시·군·구의 33개 돌봄공동체가 지원받기 시작해 2022년에는 12개 시·군·구의 45개 돌봄공동체가 지원받았다. 이는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가능성을 전제한 사업이라는 점이 주목되는 한편, 중앙정부사업으로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사업으로서의 적합한 사업 방향과 내용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IV

##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

- 0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 0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 03 제주 수놓음돌봄사업
- 04 전북 익산시 우리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 05 소결



## IV.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

이 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을 살펴본 데 이어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사업은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그리고 전북 익산시의 4개 사업을 선정해 분석하였다. 서울시는 공동체지원사업의 선구 지자체로 육아공동체를 대상으로 규모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왔고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그 함의에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최근 년도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어 선정하였다. 제주도의 수놓음돌봄사업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북 익산시는 기초지자체 사례로 지역맞춤형 사업을 펴고 있어 선정하였다.

### 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은 공적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2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계망과 공유공간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돌봄’, ‘문화’, ‘경제’, ‘주거’의 네 가지 분야에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조막래·김한별, 2015:38). 특히 ‘돌봄’ 분야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으로서 지역적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아이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서울특별시, 2012: 1). 서울시의 공동육아지원사업은 명칭의 변경과 조례근거 및 운영주체의 변경과정을 거치며 크게 세 단계의 변화를 거쳐왔다.<sup>27)</sup>

첫 단계는 시작단계로 사업명은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으로 제안되었으며 2013년부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식화 되었다. 조례의 근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하였다.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주민 3인 이상이 제안하거나,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의 이용자는 0-12세 이하 아동이었다. 지원하는 사업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부모의 자조모임형, 공공기관 연계형, 민간기관 연계형, 지역거점형으로 나뉘며, 주요 돌봄 내용은 부모의 공동육아와 놀이지원, 육아상담, 보육인적자원 연계등을 포함하였다. 점차 부모의 자조모임형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013년부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2018년까지 278개의 주민,단체,조직의 운영과 재정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였다(서울특별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두 번째 단계는 2019년부터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추진근거에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기본 근거로 포함되며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시기로 설명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되었고 사업의 운영주체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돌봄 공간에 대한 인프라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감소하고 운영과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예산이 운영되었다(서울특별시, 2019; 2020; 2021).

세 번째 단계는 2022년부터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서비스 운영주체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된 시기로 설명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따라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규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새롭게 알리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 심사 및 선정하였다. 서울시의 ‘공동육아지원사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고립 육아로부터 벗어나 함께 키우자는 취지를 알리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돌봄 아동 만 6세 이하 영유아와 부모로 구성된 총 200개 모임을 선정하였다. 지원예산은 40만원의 활동비(클린카드)와 육아 전문 상담서비스가 실시된다. 제공되는 활동비는 자

27)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단계별 변화에 대해서는 2012-2022년의 각 년도 서울시 육아공동체지원사업(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작성함. 연도별 자료의 상세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울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공동육아 관련 온·오프라인 활동에 필요한 차값, 간식비, 도서비, 재료비, 강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와 부모에게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방'을 활용한다.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육아 관련 정보제공과 맞춤형 육아교육 및 자조모임 구성원 간의 결속력 증진 등 양육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심리·양육 전문가의 육아 상담을 통한 전문서비스도 제공된다(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10.4. 인출).<sup>28)</sup>

이러한 변화과정을 예산 지원의 변화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시작 초기인 2012년에는 필요한 예산과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급하여 예산규모가 큰 편으로 단체 당 지원규모가 연 8천만 원 이내(공간구축과 운영비, 자부담10%)로 지원되었고 2013-17년은 300-4000만원이내(성장단계별 지원, 재지원시 지원비율 축소)로 지원의 범위가 다양하였다. 2018년부터는 시설구축비 부분이 줄거나 없어져 예산지원이 1000만원이내(이용인원 별)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은 후반기에 모집이 시작되어 450만원 이내로 예산이 지원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업 운영과 지원의 제한이 있게 됨에 따라 2020년은 1,000만원 이내, 2021년은 최대 450만원 이내로 예산 지원이 변경되었다(서울특별시, 2012~2021).<sup>29)</sup>

##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주민 3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제안하거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17년에는 주민 5인 이상의 제안,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변화되기도 하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3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육아공동체의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2012년 사업부터 2020년 사업까지 0-12세의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으로 대상자의 50% 이상이 영유아로 구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28) 출처: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cccf/community/notice/NoticeSl.jsp?BBSGB=47&BID=180291&flag=Sl> (2022.10.4. 인출)

29)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예산 변화에 대해서는 2012-2021년의 각 년도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작성함. 연도별 자료의 상세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2022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이용 대상 연령은 0~6세까지 영유아로 재규정 되었다.<sup>30)</sup>

육아공동체의 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도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 초기에는 사업 유형을 민간기관연계, 공공기관연계, 자조모임, 지역거점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각 사업유형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긴급·일시돌봄”, “부모 품앗이”, “돌봄인적자원 양성 및 능력개발”, “부모교육” 등은 공통 사업내용으로 포함되었다. 2014년부터는 컨설팅센터 참여 지원 (공동육아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조직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는 육아공동체의 대부분이 주민조직 및 부모자조모임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증가하여 부모자조모임 중심의 사업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설명되었다. 즉, 공동육아(함께돌봄, 품앗이돌봄)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외 생태프로그램, 발달·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잔치,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기타 육아공동체 활동을 포함 하도록 하였다. 2019년부터는 돌봄공간으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기 보다는 공동육아나눔터(열린육아방)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필수활동으로 함께돌봄, 품앗이돌봄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부모교육, 아이와 활동 등 주민 참여 교육 또는 활동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육아공동체 사업의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3년까지 심사를 통해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sup>31)</sup>

#### [그림 IV-1-1]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사업명칭 : 2019년 육아공동체 지원사업</li><li>2. 신청자격 : 육아공동체 활성화 기 지원받은 대상 중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li><li>3. 지원공동체 운영 기준</li></ol> |
|---|

3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2012-2022년의 각 년도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작성함. 연도별 자료의 상세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3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내용 및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해서는 2012-2022년의 각 년도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작성함. 연도별 자료의 상세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 신청 기본 조건 】

- 주민모임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 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함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 최소 인원 : 돌봄아동 5명 이상(0~12세)
- 돌봄 공간 : 인근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적극 사용을 권장하나 공원, 숲 등 제한 없음
- 필수활동
  - 함께돌봄, 품앗이돌봄: 주1회 이상
  - 부모교육, 아이와 활동 등 주민 참여 교육 또는 활동 1회 이상
- 권장활동
  - 아빠 참여 및 직장맘 참여
  - 나들이 및 놀이 중심 활동 및 생태 친화 활동
  - 지역 축제 참여, 장터 등 지역 연계 활동

4. 지원대상 사업

- **공동육아(함께돌봄, 품앗이돌봄) : 필수사업**
- 아빠육아 참여, 직장맘·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지원
- 생태 관련 활동, 다양한 놀이 활동
- 부모교육, 운동회, 마을잔치, 육아용품 나눔 등
- 기타 마을활동(지역사회 연계활동)

5. 지원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비 등

6. 지원금 : 공동체 규모별 차등지원(연간 4.5백만 원 이내)

인원수	5~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b>'19년 지원 한도액</b>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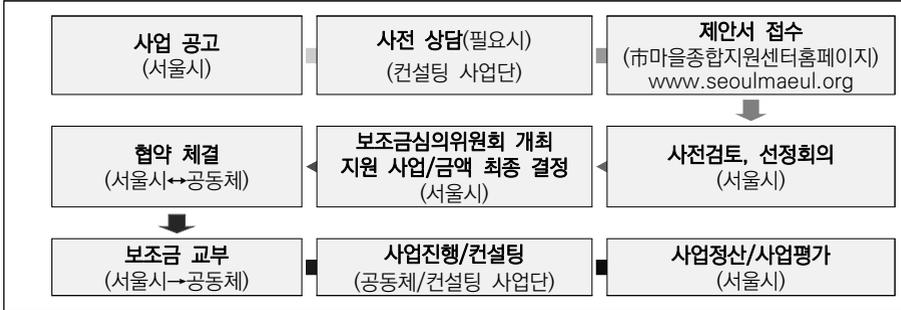
※ 단, 학습이나 예체능 교육은 보조금으로 진행 불가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7. 지원기간 : 2019. 9월 ~ 11월

8. 지원대상 선정방법 : 전문가 사전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전문가 사전검토 : 전문가 심의 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업 검토의견서 작성

9. 지원절차



자료: 서울특별시(2019). 2019년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1221&category=&searchVal=%C0%B0%BE%C6%B0%F8%B5%BF%C3%BC&pageno=1&listsize=10&fromDt=&toDt=>  
(2022.10.2. 인출)

2022년부터 실시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월 1회 이상 공동육아 관련 온·오프라인 활동시 연 4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필수 참여활동수를 줄이되 보다 많은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공동육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사업의 방향이 변화되었다(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2022.10.4. 인출).<sup>32)</sup>

[그림 IV-1-2] 2022년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

## 2022년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 부모 자조모임 모집

혼자 하는 육아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든든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과 함께라면  
육아의 어려움도 문제없어요!

서울시 공동육아지원 사업이란?

독박육아, 고립육아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부모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

**모집대상**

공동육아 관련 부모 자조모임 200개

**① 모임구성**

- 5가정 이상(서울시 거주 연 6세 이하 영유아 및 양육자)
- 형제 자매인 경우 초등 1학년 포함 가능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양육자도 참여 가능 (단, 활동비 지급 기준 인원은 제외)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도 참여 가능

**② 모임내용**

육아 노하우 및 양육 경험 공유, 육아 품앗이 활동 등 육아와 관련된 모든 주제 가능

**지원내용**

부모 자조모임 맞춤형 지원

- 부모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
- 5가정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당 40만원 지원(클럽카드 제공 제외)
- 영유아 발달 및 부모 자조모임 관련 다양한 맞춤형 교육 제공
- 구성원 간 결속력 증진 및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활동요건**

월 1회 이상 모임(온·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임 수 있는 공간 어디서든 진행)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2년 3월 2일(수) ~ 3월 20일(일)

**접수방법** 자조모임 활동 지원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seoul-center3@naver.com)으로 제출

**선정방법** 홈페이지 공지 및 메일 통한 개별 공지  
2022년 3월 23일(수) 발표

**문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02-772-98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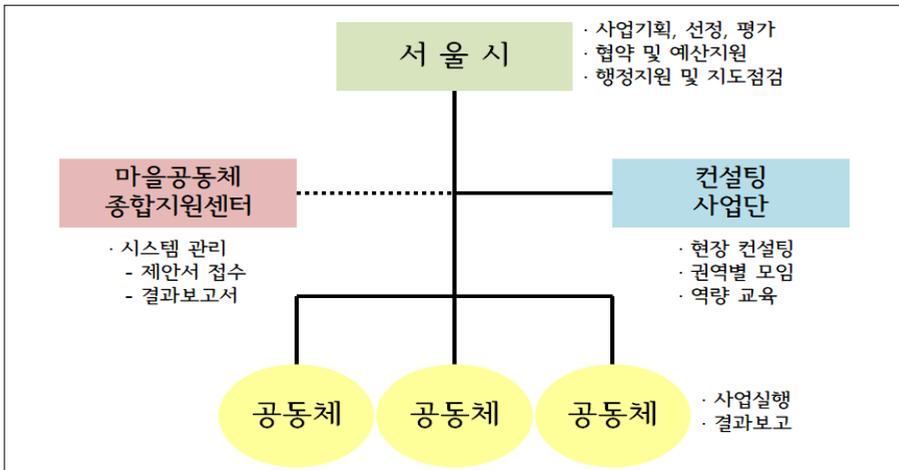
32) 출처: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http://seoul.childcare.go.kr/cccf/community/notice/NoticeSl.jsp?BBSGB=47&BID=180291&flag=Sl> (2022.10.4. 인출)

자료: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http://seoul.childcare.go.kr/cccf/community/notice/NoticeSl.jsp?BBSGB=47&BID=180291&flag=SI>  
 (2022.10.4. 인출)

#### 다. 지원체계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원체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서울시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및 컨설팅 사업단을 통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공고하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신청 및 제안서를 접수하는 과정을 맡게 된다. 제안서에 대한 사전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컨설팅 사업단을 통해 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지원과 재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의 마을 중간지원단의 상담이 제공되고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신규일 경우 면접심사, 재지원일 경우 서면검토와 선정 회의를 실시한다. 서울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지원 사업과 금액을 결정하면 각 공동체 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진행 및 컨설팅을 지원받고 정산 및 보고를 통해 사업이 완료된다(조막래·김한별, 2015: 39-44).<sup>33)</sup>

[그림 IV-1-3]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주체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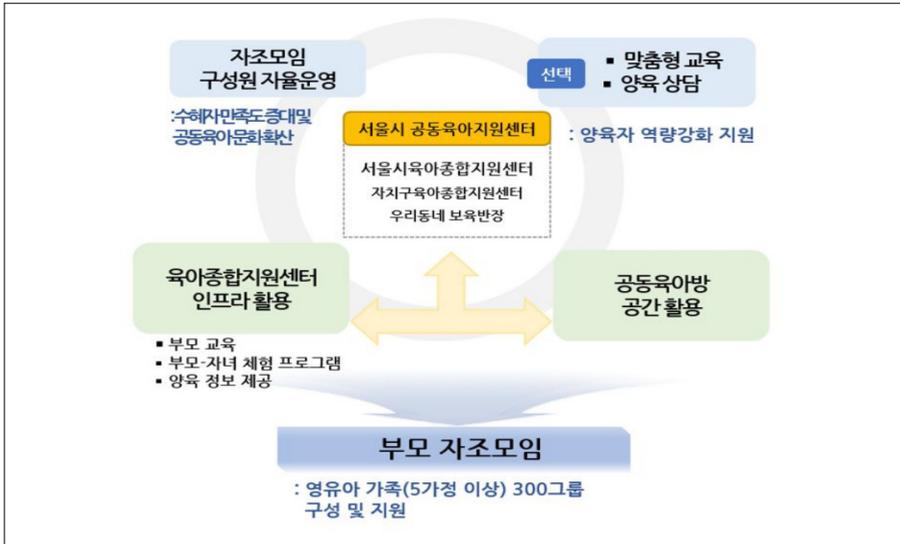


자료: 조막래, 김한별(20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 p. 43 의 내용으로 연구진이 재작성

33)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지원체계는 2012-2021년의 각 년도 서울시 육아공동체지원사업(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작성함. 연도별 자료의 상세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주체별 담당업무의 요약은 조막래·김한별(2015)을 참고.

2022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육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이 진행되므로 지원체계도 이전과 달라졌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각 자치구별로 신청과 접수를 받아, 심사 및 선정과정을 주관하는 체계를 가진다(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소개, 2022.10.4. 인출).

[그림 IV-1-4]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소개  
[https://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200411/d2-200412.jsp](https://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200411/d2-200412.jsp) (2022.10.4. 인출)

## 라. 추진실적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은 2012년도 하반기 15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26개 공동체, 2014년 31개 공동체, 2015년 42개 공동체가 참여하였으며 2016년 이후 2017년 54개 공동체가 참여하기까지 빠르게 증가하였고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조유성·한창근, 2019: 64). 나아가 2018년에는 61개 공동체가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되었으나 2019년 운영의 근거조례가 변경되고, 사업의 지원내용이 간략화 되면서 부모의 자조모임 형태를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육아공동체 신규모집은 이뤄지지 않고 하반기 기존 공동체 중심으로 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육아공

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예산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전체 지원예산도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IV-1-1〉 서울시 육아공동체(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개소, 원

연도	지원 공동체 수			예산	
	기존	신규	합계	전체예산	공동체당 평균지원액
2012	-	15	15	1억1300만	700만
2013	14	12	26	4억5900만	1800만
2014	17	14	31	5억2800만	1700만
2015	18	24	42	4억400만	1000만
2016	24	25	49	3억5600만	700만
2017	28	26	54	2억8000만	500만
2018	28	33	61	3억2800만	500만
2019	41	-	41	1억2000만	300만
2020	20	16	36	1억4500만	400만
2021	22	8	30	1억700만	400만

- 주: 1) 서울특별시(2012-2021). 각년도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모집 계획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20). 2020 마을공동체사업 통합설명회 자료집, p. 1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21). 2021 마을공동체사업 통합설명회 자료집, p. 16; 서울특별시(2022). 2019-2021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기관 정보공개 자료. 내부자료. (2022.10.17. 통보) 참고하여 재작성.
- 2) 2015년 합계수는 설명회 자료에는 43개 공동체이나 서울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42개 공동체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됨(서울시 정보공개자료: 2015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및 재지원 사업비 지급자료,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4508071>,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4232640>).

2022년부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표방하며 기존에 부모교육 및 상담, 가정양육 지원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서울시 육아종합센터에서는 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육아지원사업으로 운영되어 부모자조모임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5가정 이상 모이는 자조모임당 연 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개의 자조모임을 1차에서 모집하였고 2차에서 100개의 자조모임을 추가로 모집하였다.<sup>34)</sup>

34) 출처: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소개  
[https://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200411/d2-200412.jsp](https://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200411/d2-200412.jsp) (2022.10.4. 인출)

## 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sup>35)</sup>

### 가. 추진배경 및 경과

경기도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에 따르면<sup>36)</sup>, 보육과 돌봄 및 공공의료서비스 책임 공약 내에 아동 돌봄공동체를 70개소 확대하는 내용이 하위공약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동안 아동돌봄 정책 확대를 통해 관 주도의 공적 돌봄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 입소 대기나, 질병·사고발생, 등교 전·방과후, 방학 중, 주말·야간 등 돌봄의 사각시간이 발생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지역적 상황 및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하여 마을 돌봄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 마련된 것이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2015년 개정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2019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 2020년 사업은 2019년 11월 개정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에는 이 법과 함께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경기도조례 제7051호), 2021. 5.20.」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5조에는 도지사가 돌봄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돌봄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기도의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유사하다. 경기도에서도 시와 군 지역 단위로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진행할 공동체를 선정하였는데, 서울시의 초기 육아공동체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시작 단계에서는 주민 공동체에 돌봄공간에 대한 시설 마련비를 지원해준다. 경기도는 공간조성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을 배정하여 최대 3년간 지속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35) 2019-2022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고문(경기도, 2019b;2020b;2021b;2022b) 참고하여 재구성함.

36) 경기도 공약관리 홈페이지 참조. 민선 7기 공약실천 계획서\_2019.6.30.기준

(<https://governor.gg.go.kr/policy/manage/>)(2022.10.4. 인출)

사업은 2019년 11월에 전부개정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청 공동체지원과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공모 및 선정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9년 11곳 선정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역 중 2020년 20곳, 2021년 25곳, 2022년 22곳이 선정 및 운영되었다.

##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신청자격은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으로 이뤄진 공동체이다. 지원내용은 매년 공고 시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공동체 1곳 당 1억에서 1억천 이내로 돌봄공간의 시설 공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돌봄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는 5천만 원 이내에서 단년도 지원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5-6천만 원은 프로그램 사업비로 3년간 분할하여 지원된다. 돌봄사업의 대상은 만12세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공간확보가 주요 관건인데, 우선적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예산지원액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돌봄사업의 주요내용은 긴급일시돌봄과, 육아пом앗이, 등하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급식 및 간식 제공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서비스 제공 인력은 공동체 구성원 등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 [그림 IV-2-1]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 사업명칭 : 2021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2. 신청자격 : 아동돌봄공동체(10명 이상 주민모임)

#### 【 신청 기본 조건 】

- 경기도내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 \*
  - \*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순수 주민모임 / 선정 이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단체 \*와 협업 가능(의무는 아님)
  - \* 주민자치위원회, 시니어클럽,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아동돌봄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3. 지원금액 및 기간 : 개소당 1억원 이내, 3년간 분할 지원
- 돌봄공간 시설공사비 : 5천만 원 이내(단년도 지원)
  - 프로그램사업비 : 5천만 원 이내(3년간 분할 지원, 1+2+2천만 원)
  - ※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사업비는 신청금액 5천만 원 범위 내 자율 신청 단, 시설공사비 금액보다 프로그램사업비 금액이 커야 함
  - (예시) 8천만 원 : 시설공사비 3천만 원, 프로그램사업비 5천만 원
  - 1억원 : 시설공사비 5천만 원, 프로그램사업비 5천만 원
4. 지원내용
- 돌봄공간 시설공사비 지원('21년 단년도 지원)
    - 돌봄공간 :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되 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확보
    - \* 유휴공간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 지원내용 :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대상연령, 서비스내용 및 안전 등을 고려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방역물품 필수)
    - 지원원칙 : 지속성(준공 후 3년 이상 유지), 안전성, 개방성(돌봄 없는 공백 시간에 한해 다른 용도로 일시적 사용 가능)
    - 지원액 : 개소당 5천만 원 이내 지원
      - 안전한 돌봄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비 등(산증축 불가)
      - 아동의 안전 및 돌봄에 필요한 자산취득 가능(돌봄공간 시설공사비 보조금의 20% 이내)
      - \* 시설공사 후 자산취득 가능
      - \* 사업포기 및 사업종료 시 자산취득물품 반환 및 매각 관련하여 시·군 사전승인 필요
    - 공사기간 :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 후 공사일정 확정
  - 프로그램사업비 지원('21~'23년간 3년 분할 지원)
    - 돌봄사업 : 일사간급돌봄, 공동육아 및 육아품앗이, 등하원서비스, 문화독서스포츠 등 프로그램, 상담 및 부모교육, 식사·간식제공 등
    - ※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다양한 돌봄특화서비스 등 운영 가능
    - 돌봄대상 : 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강사비,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체험비, 임차료, 식사·간식비 등
    - ※ 보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지원 불가
    - 지원액 : 개소당 5천만 원 이내 3년간 분할지원
    - ※ '21년 1천만 원(20%), '22년 2천만 원(40%), '23년 2천만 원(40%)
    - 집행기한 : '21. 12월까지 사업추진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시·군과 협의)
5. 지원대상 선정방법 :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컨설팅, 현장점검 실시 : 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최종 선정 : 경기도
6. 심사기준
- 사업추진 의지 및 주민참여도 : 주민참여도, 추진주체 역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적정성 : 공간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운영의 적정성</li> <li>○ 지속발전 가능성 :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li> <li>○ 가점 : 공동체 구성원 중 남성(아빠) 참여율 20% 초과 시(3점), 필수)와 아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추진 시 가점(3점) 부여</li> </ul> <p>7. 선정이후 지원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돌봄공동체 역량강화교육</li> <li>○ 사업추진, 공간조성 준공 및 집행, 회계교육, 정산교육, 현장점검 등</li> </ul>
--

자료: 경기도(2021b). 2021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고문 참고하여 재작성

### 다. 지원체계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의 지원체계는 경기도와 각 시·군 지역에 설치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모집, 선정 지원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2019년 사업부터 2022년 사업의 추진체계는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와 선정 및 사업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을 공고하면 각 시·군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를 위해 역량강화워크숍을 열고 돌봄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및 네트워크를 연계 지원한다.

[그림 IV-2-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추진체계

<b>경기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총괄</li> <li>- 사업계획 수립, 공모 및 선정, 사업 평가 및 홍보 등</li> </ul>
<b>역량 강화 보조사업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워크숍, 돌봄공동체 컨설팅·교육 지원, 모니터링</li> <li>- 네트워크 연계 지원(권역별 간담회), 활동 공유회, 홍보 등</li> </ul>
<b>시·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운영·집행·정산</li> <li>- 아동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li> </ul>
<b>시·군 중간지원조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돌봄공동체 발굴·육성</li> <li>- 돌봄 활동 운영 지원, 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li> </ul>
<b>아동돌봄 공동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li> </ul>

자료: 경기도(2022b).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 안내

## 라. 추진실적

2019년부터 22년 현재까지 선정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수는 총 77개 이며 매년 공동체 1개소 당 약 5-6천만 원의 사업지원비가 최대 3년간 분할 지원되었고, 돌봄공간 조성비는 최대 5천만 원 이내 단년도 지원되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역 가운데 29개 지역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 26곳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8곳인 84%가량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맞벌이 가정 위해 돌봄공간을 오픈한 공동체의 사례, 중국·베트남·몽골·캄보디아 등 이주여성 30여 명으로 구성된 아동돌봄공동체에서 초등 교과과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등이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경기도 뉴스포털 기사, 2021.1.29.).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 선정결과와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IV-2-1〉 2019-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연도	참여 시·군(수)	지원 공동체 수	지원예산(최대 3년간 분할 지원)
2019	시(9), 군(1)	11개	1개소당 1억이내
2020	시(12), 군(2)	20개	1개소당 1억 1천만 원이내
2021	시(15), 군(1)	25개	1개소당 1억이내
2022	시(12), 군(1)	22개	1개소당 1억 1천만 원이내

자료: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고문(경기도, 2019b; 2020b; 2021b; 2022b; 2022d) 및 사업 선정결과 자료(경기도, 2019a; 2020a; 2021a; 2022a) 참고 재작성.

〈표 IV-2-2〉 2019-2020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군현황

2019년 선정결과			2020년 선정결과		
연번	시·군	공동체명	연번	시·군	공동체명
1	가평군	아이티(撼)	1	고양시	사다리 아동돌봄 공동체
2	고양시	나(I) 너(YOU) 우리(WITH)	2	고양시	아이코칭 연구모임
3	동두천	모두가족품앗이	3	성남시	위레센트럴자이 공동육아
4	부천시	여월2단지 커뮤니티봉사단	4	화성시	한우물마을봉사단
5	성남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5	시흥시	뎃골마을학교
6	수원시	서수원 교육문화 공동체	6	파주시	도담 작은 도서관
7	의정부시	민락엘리트 공동아이돌봄 공동체	7	파주시	함께 신나게 키우미
8	이천시	증포작은도서관	8	김포시	오늘 엄마 공동육아 (Oh!날 dja/오늘,엄마/오늘맘)
9	파주시	돌봄 공동체 '모두가 옳지'	9	광주시	역동마을 아동돌봄공동체

2019년 선정결과			2020년 선정결과		
연번	시·군	공동체명	연번	시·군	공동체명
10	파주시	술이홀 즐겨찾기	10	군포시	대야미 캥거루 주머니
11	평택시	효성백년가약 작은도서관	11	하남시	동동(동화책 공동육아 동아리)
			12	양주시	육아돌봄공동체 모락모락
			13	양주시	함께 자라는 사람들
			14	양주시	해동마을 쉼터 마실
			15	양주시	희소식(희망나눔을 소리없이 전하는 식구들의 모임)
			16	이천시	따이랑
			17	양평군	강하행복쉼터
			18	양평군	휴먼빌 아사모
			19	과천시	과천 두근두근방과후 교육공동체
			20	연천군	엄마표 돌봄교실

자료: 2019-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표 IV-2-3〉 2019-2020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군현황

2021년 선정결과			2022년 선정결과		
연번	시·군	공동체명	연번	시·군	공동체명
1	수원시	벌터온(ON)	1	수원시	도담어린이작은도서관
2	고양시	동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람들	2	고양시	숲속의 정원
3	용인시	광도사랑모임	3	고양시	화전마을학교
4	화성시	모아사랑터	4	성남시	가온다온
5	화성시	풍경채 작은도서관	5	성남시	킹덤스쿨
6	화성시	글로벌리더클럽	6	부천시	산방과후
7	안산시	행복한 우리집	7	남양주시	돌봄공동체 날.개
8	남양주시	푸르지오 마을교육 공동체	8	남양주시	달미놀이터
9	평택시	소중한 사람들	9	남양주시	에듀케어 인 수동
10	평택시	다인숲다함께 돌봄센터	10	의정부시	ATM - at the moment
11	시흥시	흥부네책놀이터	11	광명시	공동육아 방과후놀이터 '마법숲'
12	파주시	놀.잇다	12	구리시	경계선지능지원네트워크
13	파주시	법원읍 마을교육공동체	13	안성시	두린아이 꿈터
14	김포시	회복적 돌봄공동체	14	안성시	코아루 간부 사랑방
15	양주시	행복한 마을 돌봄교실	15	포천시	나누리
16	양주시	레인보우꿈나무키움	16	포천시	신북마을 작은 도서관
17	이천시	피아체볼레	17	포천시	포맘터
18	이천시	우리동네작은도서관	18	양평군	나무숲세움터
19	안성시	노리마중(놀이로 마음이 가는 중)	19	양평군	말꽃 아이돌봄 공동체
20	포천시	포천일동마을교육공동체	20	여주시	국경없는 청소년교실
21	포천시	THE 공감	21	평택시	포송이돌봄센터
22	양평군	옥천면 우리동네 예술놀이터	22	이천시	더이븐(모든아이는 동등하다)
23	양평군	서종에서 아이키우기			
24	여주시	산북 작은 놀이터			
25	여주시	세종마을학교			

자료: 경기도(2019-202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 3. 제주 수놓음돌봄사업<sup>37)</sup>

####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제주도는 여성의 일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품앗이와 유사한 제주 전통 미풍양속인 ‘수놓음 정신’을 접목한 돌봄정책으로 수놓음돌봄사업을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이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1) 가족친화인증사업과, 2) 수놓음돌봄사업, 3) 가족친화캠페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수놓음돌봄사업은 다시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와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은 제주형 돌봄공동체사업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이 마을공동체 조례 등을 추진근거로 하지는 않고 있다. 주요 추진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이주연 외, 2021: 39). 현재 수놓음돌봄공동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형 돌봄공동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놓음돌봄이란 자녀 돌봄이라는 품을 부모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마을 사람들과 일상에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활동을 의미한다. 수놓음돌봄 사업은 공간을 공유하는 1)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사업과 돌봄을 나누는 2) 수놓음돌봄공동체 발굴·지원 사업으로 구분이 된다.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자발적 돌봄나눔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으며, 수놓음돌봄공동체 발굴·지원 사업은 품앗이 육아와 비슷한 돌봄 방식으로 돌봄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양육자들의 모임으로 조성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돌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육아나눔터 사업이 여가부사업으로 분류되고 육아공동체사업만 지자체에서 담당하나 제주시의 경우 가족친화센터에서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사업과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공동체 사업을 지자체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sup>38)</sup>

37) 제주시 가족친화센터 홈페이지(<https://jffsc.kr/index.php>, 2022.10.7. 인출) 센터소개 및 사업소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수눔음돌봄공동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 모집을 시작으로 2017년 37개, 2018년 55개, 2019년 62개, 2020년 68개, 2021년 75개, 2022년 78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시작시 공동체수에 비해 2022년 약 4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sup>39)</sup> 수눔음육아나눔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모를 통해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사회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33㎡(10평)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육아나눔터로 활용한다. 2016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20개소, 2018년에는 29개소, 2019년에는 36개소, 2020년 42개소가 제주 전지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sup>40)</sup>

##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 수눔음돌봄공동체<sup>41)</sup>

수눔음돌봄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기준은 0-12세까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다섯 가족 이상으로 구성된 품앗이 모임이 지원 할 수 있다. 단 아동이 발달장애아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지원금액은 공동체별 최대 150만원 이내로 아동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 1인당 월 3만원이 지원된다. 주요 활동내용은 ‘품앗이육아활동’과 ‘함께 육아활동’이 필수 활동으로 포함되어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품앗이 육아활동은 하원/하교 픽업지원, 아이들 급식 간식지원, 긴급돌봄, 코로나19 학습지원 등이 포함되며, 함께하는 육아활동은 문화체험 및 생태 환경 지킴이 활동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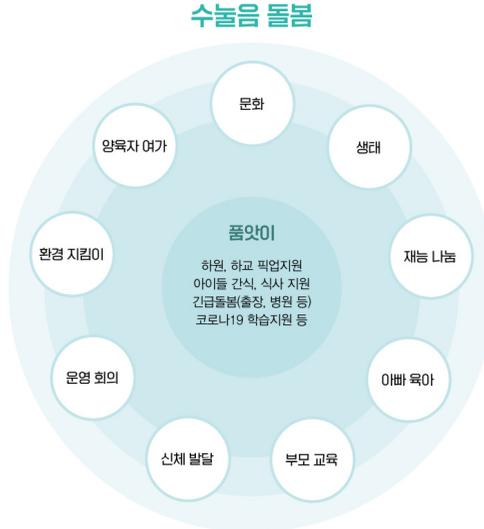
38) 이 중 일부분은 여가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비로 운영되기도 하나 수눔음육아나눔터와 운영방식이 다르며 상시 관리자가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3\\_6\\_1\\_1&page=2](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3_6_1_1&page=2), 2022.10.2. 인출).

39)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2.2.24.), 2022년 제주수눔음돌봄공동체 사업 설명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8yW18cN75k> (2022.10.8. 검색)

40)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_수눔음돌봄공동체 사업안내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 (2022.10.5 인출).

41)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2). 2022 수눔음돌봄공동체 발굴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참고 재작성.

[그림 IV-3-1] 수놓음돌봄공동체 주요 프로그램 영역



자료: 제주시·제주시여성가족연구원·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1). 수놓음돌봄\_탐나는 공동육아: 2021 제주가족친화센터 수놓음돌봄사업 홍보 미니북, p.19.

온라인 활동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활동관리를 진행하고 활동에 대한 종료보고 및 연간 공동체 활동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진행절차는 5가족 이상의 공동체 모임이 구성되면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신청해야 한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는 수놓음돌봄공동체 지원서를 접수하고, 이후 제주시의 심사 및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공동체가 주요 필수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동체돌봄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체의 활동이 종료되면 돌봄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공동체의 활동 실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연간활동 전반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기준은 사업의 참여도, 계획 이행도, 사업비 집행률, 서류 제출 기한 준수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한다.

[그림 IV-3-2]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 발굴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 사업명칭 : 2022년 수놓음돌봄공동체 발굴사업
2. 신청자격 : 0세-초등 6학년까지 돌봄 아동을 둔 5가구 이상 모임  
※ 발달 장애 등 장애아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지원금액 및 기간 : 공동체별 최대 150만원 이내  
※ 아동 1인당 2만원/월, 장애아동 1인당 3만원/월 기준

4. 지원내용

- 활동기간: 2011년 4월=10월(7개월)
- 활동주기: 최소 월 4회진행(필수 활동 포함)
- 활동내용: 함께 돌봄을 나누는 다양한 수놓음돌봄사업활동(필수 활동포함)

다양한 수놓음 돌봄활동	활동 상세내용 수놓음돌봄활동: 다양한 품앗이 육아(필수), 함께하는 육아활동 공동체운영활동: 정기운영회의(월1회필수), 양육자 교육, 아바 활동 등
--------------	--

5. 지원절차

```

    graph LR
      A[공동체 모임구성] --> B[활동계획 수립]
      B --> C[공모신청]
      C --> D[접수 및 심사/공모 선정]
      D --> E[공동체활동]
      E --> F[결과보고 및 평가]
  
```

6. 심사방법:

- 신규지원 공동체 : 서면 및 면접 심사(22년 활동 계획)
- 연속지원 공동체 : 서면 심사(21년 활동평가점수+22년 활동 계획)

6. 심사기준(신규)

- 사업목적: 공동체 참여 목적 및 활동방향
- 운영역량 : 구성원 역할분담, 교육 행사 참여도 등
- 활동역량 : 활동장소 확보, 활동의 적합성, 아바 참여 정도
- 효과성 : 육아분담 및 공동체 활동 파급, 변화 정도, 기대 효과 공

7. 선정이후 지원절차

- 공동체 등록, 공동체 오리엔테이션, 공동체 활동 및 결과보고
- 공동체 연간활동 전반에 대한 서면 평가

자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2). 2022 수놓음돌봄공동체 발굴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pp.1-4. 참고하여 재작성

## 2) 수놓음육아나눔터<sup>42)</sup>

수놓음육아나눔터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주도하에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수놓음육아나눔터에는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으며, 나눔터별로 운영시간, 이용방법 등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인 지원은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인데, 1개소당

42)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수놓음육아나눔터 소개 참조하여 재작성  
[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3\\_6\\_1\\_1&page=2](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3_6_1_1&page=2), (2022.10.2. 인출)

50백만 원 이내로 공간조성비를 지원하며 마을회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비영리단체/법인에서 기본공간 33㎡(10평)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간조성 후 최소 5년간 운영 수놓음육아나눔터로 운영 유지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2016년 조성된 공간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여 육아나눔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 IV-3-3]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p>☐ 사업명칭 : 2020년 제주형 수놓음 육아나눔터 조성·운영 계획</p> <p>가.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 및 기능보강 도입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350백만 원(민간자본사업보조)</li> <li>○ 사업량: 7개소(2020년 신규지원)</li> <li>○ 지원대상: 기본공간을 확보하여 나눔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회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비영리단체/법인, 기본공간 33㎡(10평)이상 공간확보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공간조성 후 최소 5년간 운영 유지 담보.</li> <li>○ 지원대금액: 1개소당 50백만 원 이내</li> <li>○ 지원내용: 공간 내부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li> </ul> <p>나.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및 인센티브 도입</p> <p>☞ 나눔터 기본 운영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250백만 원(민간경상사업보조)</li> <li>○ 사업량: 33개소+2020년 신규조성된 나눔터</li> <li>○ 지원대상: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자(공모사업 제외)</li> <li>○ 지원금액: 개소당 연간 6백만 원 내</li> <li>○ 지원내용: 나눔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지원</li> <li>○ 이용방법과 연령: 나눔터별 상이</li> <li>○ 프로그램: 오감놀이, 플리마켓, 마을밥상, 부모특강 등</li> </ul> <p>☞ 나눔터 인센티브 운영비 지원(2020년 신규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100백만 원(민간경상사업보조)</li> <li>○ 지원대상: 2019년 12월 기준 6개월 이상 나눔터 운영자</li> <li>○ 지원금액: 개소당 기본운영비외 연간 1백만 원~6백만 원 차등지원(정액지원)</li> </ul>
---

자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0). 2020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계획서. pp.1-4. 참고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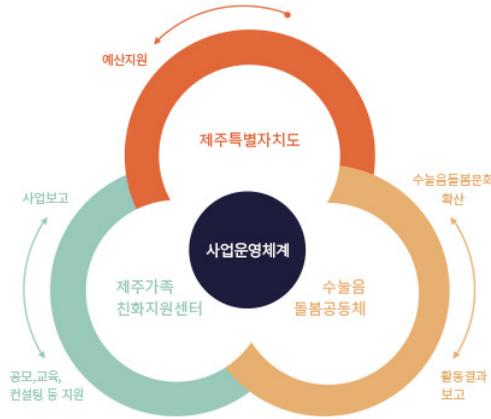
**다. 지원체계**

1) 수놓음돌봄공동체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사업으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및 행정시(읍면동)가 추진주체가 된다(이주연 외, 2021: 40). 아래 그림과 같이(그림 IV-3-4 참조) 제주도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수탁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 예산을 지방보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체계는 흐름도와 함께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 공모사업 안내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sup>43)</sup>. 즉 제주도는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을 공모하고 모집된 공동체에 대한 역량강화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며 사업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놓음돌봄공동체는 부모의 품앗이 모임을 통해 구성되며 활동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지역 내 수놓음돌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IV-3-4]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 운영체계



자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_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안내.  
[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 (2022.10.5 인출)

43)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2). 2022 수놓음돌봄공동체 발굴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https://jffsc.kr/m/bbs/board.php?bo\\_table=5\\_1\\_1\\_1&wr\\_id=305](https://jffsc.kr/m/bbs/board.php?bo_table=5_1_1_1&wr_id=305) (2022.10.2. 인출).

## 2) 수놓음육아나눔터<sup>44)</sup>

수놓음육아나눔터 역시 제주시의 자체사업이므로 예산지원도 제주시를 통해 이뤄진다. 수놓음육아나눔터의 사업운영체계는 마을회, 아파트입주자협의회,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는 수놓음 육아나눔터 운영진이 있어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와 함께 수놓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한다. 제주가족지원센터에서는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과 교육, 컨설팅 및 관련 지원을 담당한다. 제주시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 수놓음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요청하여 수놓음육아나눔터운영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운영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보고를 받는다.

## 라. 추진실적

### 1) 수놓음돌봄공동체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 설명회자료에 따르면<sup>45)</sup>, 2016년부터 진행된 수놓음돌봄공동체 발굴·지원사업은 매년 다양한 가족의 참여를 통해 돌봄공동체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 18개의 공동체로 시작하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78개의 공동체에서 1752명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2020 코로나19상황에서 공동체 활동이 도움되었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이 96.8%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양육자 마음의 위로(76.3%), 온라인 학습지원과 정보공유(52.7%), 일상의 긴급 돌봄(37.8%)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주요 활동장소는 가정집과, 놀이터, 수놓음 육아나눔터 및 제주의 숲과 오름 등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V-3-1〉 2016-2022년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 현황

연도	지원 공동체 수	참여가족수	총참여 인원	지원예산
2016	18개	95가족	319명	공동체별 최대 150만원 이내,

44)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수놓음육아나눔터 소개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3\\_6\\_1\\_1&page=2](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3_6_1_1&page=2), (2022.10.2. 인출).

45)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2.2.24.), 2022년 제주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 설명회 영상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https://www.youtube.com/watch?v=H8yW18cN75k> (2022.10.8. 인출).

연도	지원 공동체 수	참여가족수	총참여 인원	지원예산
2017	37개	257가족	881명	아동 1인당2만원/월 장애아동 1인당 3만원/월
2018	55개	365가족	1,111명	
2019	62개	399가족	1,493명	
2020	68개	419가족	1,583명	
2021	75개	474가족	1,763명	
2022	78개	474가족	1,752명	

자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2.2.24.), 2022년 제주수눔음돌봄공동체 사업 설명회 영상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H8yW18cN75k> (2022.10.8. 인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_수눔음돌봄공동체 사업안내. [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 (2022.10.5 인출)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나아가 제주가족친화센터 홈페이지에는 2022년 4월 현재기준으로 제주 수눔음 돌봄공동체의 주요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sup>46)</sup>. 우선 2022년 선정된 공동체 수는 최종 78개로 당초 선정계획인 77개보다 1개가 증가하였다. 돌봄아동의 유형은 일반과 통합아동으로 구분되며 전체 아동의 약 20%가 통합 가족(장애아, 한부모, 다문화 등)이 포함되었다. 전체 78개 공동체중 52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신규 공동체는 26곳이 선정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각 동과 읍면지역에서 공동체를 모집하였으며, 제주시에 51개, 서귀포시에 27개의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어 제주시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모두 주로 동 지역에서 공동체가 더 많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IV-3-2〉 수눔음돌봄공동체 현황(2022년 4월)

단위: 개, 가구, 명

공동체 소개	유형		참여형태		가구수	참여자수
	일반	통합 <sup>1)</sup>	연속지원	신규지원 <sup>2)</sup>		
78 (100%)	63 (81%)	15 (19%)	52 (67%)	26 (33%)	474	1,752

주: 1) 통합은 발달장애아 등 장애아 가족이 포함된 수눔음돌봄공동체를 의미.

2) 신규지원은 공동체 참여 구성원의 60% 이상이 21년도 수눔음돌봄공모사업에 참여하지않은 공동체.

자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_수눔음돌봄공동체 사업안내. [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  
 (2022.10.5 인출)

46)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_수눔음돌봄공동체 사업안내.  
[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 (2022.10.5 인출)

〈표 IV-3-3〉 수놓음돌봄공동체 지역별 분포현황(2022년 4월)

단위: 개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동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소계	동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78 (100%)	51 (65%)	37	2	1	1	7	3	27 (35%)	18	4	-	2	3	-

자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_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안내. [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 (2022.10.5 인출)

## 2) 수놓음육아나눔터

수놓음육아나눔터 사업계획 및 홍보자료에 따르면, 수놓음육아나눔터 역시 2016년 11월 제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동을 활용하여 1호점을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7-8곳이 추가로 개소하여 2020년 기준 총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2년 현재 1호점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21년 기준으로 4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sup>47)</sup> 지역별로는 제주시에 25개소, 서귀포시에 17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세부지역별 위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V-3-4〉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현황(2021년)

단위: 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sup>48)</sup>
10	20(신규10)	29(신규9)	36(신규7)	42(신규6)	41

자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0). 2020년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계획서. p. 2;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1). 수놓음돌봄\_탐나는 공동육아: 2021 제주가족친화센터 수놓음돌봄사업 홍보 미니북, p. 12.

〈표 IV-3-5〉 수놓음육아나눔터 지역별 분포현황(2020년)

단위: 개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42개소	25	17

자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3\\_6\\_1\\_1](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3_6_1_1)(2022.10.7. 인출)자료의 주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47)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0). 2020년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계획서와 제주시·제주시여성가족연구원·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1). 수놓음돌봄\_탐나는 공동육아: 2021 제주가족친화센터 수놓음돌봄사업 홍보 미니북 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48) 공동데이터포털\_제주특별자치도 수놓음육아나눔터 현황 자료에는 41개소로 제시되어있어 최신자료반영함 <https://www.data.go.kr/data/15045346/fileData.do> (2022.10.7. 인출)

〈표 IV-3-6〉 수놓음육아나눔터 지역별 분포현황(2020년: 세부지역)

2020년 선정결과				
구분	명칭	시	읍면동	비고
1호점	삼화2차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주시	화북동	
2호점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제주시	연동	
3호점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일도2동	
4호점	제주시가족센터	제주시	삼도2동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	서귀포시	성산읍	
6호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성산읍	
7호점	제주YWCA	제주시	연동	
8호점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건입동	
9호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한림읍	
10호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구좌읍	
11호점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대정읍	
12호점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아라동	
13호점	서귀포 동홍20아파트 관리사무소	서귀포시	동홍동	
14호점	서귀포시 혁신LH2단지 청년회	서귀포시	서흥동	
15호점	조수1리 마을회	제주시	한경면	
16호점	대륜교회	서귀포시	대륜동	
17호점	제주시가족센터	제주시	삼양동	공동육아나눔터
18호점	희망새마을작은도서관	서귀포시	동홍동	
19호점	참꽃작은도서관	제주시	오라동	
20호점	함덕에덴빌리지2차주민자치회	제주시	조천읍	
21호점	서귀포시 강정상록아파트 관리사무소	서귀포시	대천동	
22호점	송당리새마을회	제주시	구좌읍	
23호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영천동	
24호점	남원내새마을작은도서관	서귀포시	남원읍	
25호점	귀덕1리새마을회	제주시	한림읍	
26호점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	제주시	구좌읍	
27호점	우성아파트1단지입주자대표회의	제주시	일도2동	
28호점	서귀포시공동육아나눔터	서귀포시	안덕면	공동육아나눔터
29호점	유수암리상동마을회	제주시	애월읍	
30호점	서귀포강정중흥S클래스	서귀포시	대천동	
31호점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제주시	일도2동	
32호점	장전리새마을작은도서관	제주시	애월읍	
33호점	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	서귀포시	표선면	
34호점	키움학교	제주시	노형동	

2020년 선정결과				
구분	명칭	시	읍면동	비고
35호점	더드림수놓음센터	제주시	조천읍	
36호점	루온토빌리지입주자협의회	제주시	오라동	
37호점	헤르시아아파트자치위원회	제주시	오라동	
38호점	꿈의교회	서귀포시	신효동	
39호점	위미2리 마을회	서귀포시	남원읍	
40호점	제주성은교회	서귀포시	중흥동	
41호점	하모2리 새마을작은도서관	서귀포시	대정읍	
42호점	이든빌입주자대표회의	제주시	오라동	

주: 비고란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 지원을 받으며, 상주직원이 있는 경우임.  
 자료: 공공데이터포털\_제주특별자치도 수놓음육아나눔터 현황 자료.  
<https://www.data.go.kr/data/15045346/fileData.do> (2022.10.7. 인출)

## 4. 전북 익산시 우리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전북 익산시는 2020년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2020.01.08.)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익산형 돌봄사업을 펴고 있다<sup>49)</sup>.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 가정 여부, 다자녀 가구 여부, 한부모 가정 및 그 밖에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제6조). 또한, 익산시는 돌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제7조),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5조).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으로 익산시는 2020년부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아동을 직접 돌보며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9)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2020.01.08.)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2022.10.8. 인출)

즉,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마을 또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동을 직접 돌보며 구성원들이 재능기부, 식사 및 간식제공,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돌봄사업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공간이 마련된 공동체가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이주연, 조경옥, 최지훈, 2021: 118).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등생을 주 대상으로 하되 미취학 아이들은 공동육아방으로 개방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육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전북일보 기사, 2022.4.2.).

## 나. 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의 신청대상은 돌봄수행으로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10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나 비영리 민간단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선정된 돌봄공동체에는 시설 리모델링과 운영비(돌봄관리자 1인의 인건비 포함)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2021년 기준 최대 4천170만 원으로,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을 위한 기능보강비 2천만 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지출 등을 위한 운영비를 21,700원(2021년 10개월간 지급)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사자로 개소당 관리자 1명과 자원봉사 인력 2인의 3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개소당 33㎡(아동1인당 전용면적 3.3㎡으로 10인 아동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시간은 1일 5시간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간식의 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서비스 외 다양한 특화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익산시, 2021: 1~2). 이처럼 익산시의 경우 돌봄공동체를 하나의 기관시설로 조성하여 돌봄을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모집 공고도 '운영기관' 공모로 제안된다.

돌봄공동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되어 대표를 포함해 10 이상이어야 하며 이용아동 10명 기준으로 1명의 돌봄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공동체 구성원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부강사 초청도 가능하다. 시설 운영비는 돌봄 관리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홍보비, 소모품비, 프로그램운영(강사료) 등으로 사용가능하나 식비, 자산취득

비 등 돌봄서비스와 관련 없는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불가능하다. 이때 돌봄 관리자에 대한 수당은 전체 운영비의 75%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아동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인 미만일시 돌봄인력 1인의 돌봄수당을 반납해야 한다(익산시, 2021: 1~3).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4-1]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기관 모집공고문 내용**

1. 사업명칭 : 2021년「우리마을 돌봄공동체」운영기관 공모
2. 신청자격 : 주민공동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주민공동체(10인 이상, 돌봄 수행으로 비영리 고유번호증 발급),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비영리 민간단체(돌봄 수행으로 고유번호증 등록)
3. 선정대상: 2개소
4. 사업기간: 2021.4.1.-2024.3.31.(3년)
5. 지원내용 : 시설 리모델링, 운영비(인건비1인 포함) 지원
6.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41,700천원(기능보강 20,000, 운영비 21,700/21년 10개월)
  - ※ 개소일, 이용인원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 기능보강비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 운영비 : 관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7.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8. 시설기준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 돌봄공간(화장실은 공동공간 사용 가능)
9.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세 ~ 만 12세 아동(만0~5세 공동육아방 활용)
10. 장 소 :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유 공간(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
11. 운영시간 : 1일 5시간 이상 자율 운영
  - ※ (예시) 14:00 ~ 19:00 / 13:00 ~ 19:00 등
12. 주요 돌봄서비스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간식의 제공
  -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다양한 특화서비스 등 운영 가능
13. 선정 및 심사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현장심사(돌봄공동체 면담 병행) + 선정심사위원회
    - 선정심사(사업 발표) 실시 후 선정, 10분 이내 발표, 제안 설명 후 질의응답
  - 심사항목 : 사업대상지 적정성,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등
    - 위탁단체 기본요건 : 사업 취지,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 등
    - 사업수행 능력 : 사업 추진 경력 및 사업수행 능력, 성과, 추진의지

- 단체 자격 요건 : 기관의 신뢰성, 수행인력 전문성
  - 예산운용능력 : 예산책정의 합리성
- ※ 추천 순위 결정 시 적격심사 기준 미달(60점 이하)은 추천 순위에서 제외

자료: 익산시(2021). 2021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기관 공모문 pp.1-3. 참고하여 재작성.

### 다. 지원체계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사업에 대한 공고를 올리고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공동체를 선정한다. 수탁자의 자격, 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 능력 등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후 익산시와 선정된 공동체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3년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익산시, 2021:1-3 참고하여 재작성).

### 라. 추진실적

〈표 IV-4-1〉의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아동돌봄공동체는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매년 2개 사업이 지원되어 총 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45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 아파트 및 마을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초등학교 및 자율방범대, 지역 복지관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들 공간들은 모두 마을 내에서 접근성이 높고 아동과 부모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거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4-1〉 익산시 우리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연도별 설치 지역 및 공간

지정연도	지역(동)	사용 공간
2020	모현동	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문고
	황동	자율방범대 2층
2021	부송동	어양초 옆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 옆
2022	신동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모현동	오투프리미어 아파트 옆

자료: 익산신문기사(2022.4.1.). "익산시-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신규 2개소 위·수탁협약"; 익산 열린신문 기사 (2020.7.22.) "익산형 돌봄서비스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 5. 소결

이상의 서울시, 경기도 제주시, 전북 익산시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내용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부터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펼쳐온 서울시는 시기별 지원대상과 내용에 있어 큰 변화가 있어 그 함의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자조모임 뿐 아니라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구축비를 비롯해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시설구축비 부문이 줄거나 아예 없어져 지원비가 1천만 원 이내로 축소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모임 당 40만원의 활동비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사업지원 및 관리기관이 2012년 사업시작부터 2021년까지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였으나 2022년에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으며 지원대상도 2021년까지는 0~12세까지 학령기를 포함한 데 비해 2022년부터는 0~6세의 영유아로 한정되었다.

즉, 기존에는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육아기 부모들을 위한 자조모임과 육아목적의 공동체 조직을 대상으로 활동비와 운영비, 공간구축비까지 유형 및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면 2022년부터는 영유아 부모의 자조모임을 위한 소규모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변화의 이유로는 초등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 많아지고 영유아의 기관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책수요가 변화되었다는 점과 지역의 특수성으로 돌봄공간의 확보와 적절한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2019년부터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통해 서울시 초기모델과 비슷한 방식으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는 점과 비교해 정책결정집단의 역동과 관심도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제시하는 데 있어 정책 환경의 변화와 수요자들의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앞서의 논의와 결부하여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 적절한 지원조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다가 2022년부터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교육과 컨설팅 등의 지원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사업의 경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지역의 인프라와 조건에 맞는 지원조직이 활용될 것이며 각 지역 사업의 특수한 목적과 전망에 따라라도 지원조직의 선정과 역할은 달라질 것이나, 육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된다.

셋째,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다양한 법적 근거를 두고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사업의 강점은 지역의 환경과 요구에 맞는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법적 기반을 달리한다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충분성과 적정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201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돌봄, 문화, 경제, 주거의 마을사업의 영역 중 하나로 지원되다가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기본근거로 변경되었으며, 경기도는 2015년 개정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2019년 시작된 이래 2020년 사업은 2019년 11월에 개정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2022년에는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제주 수놓음돌봄공동체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를 근거로 추진되며 제주시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한편, 전북익산시는 2020년 '익산시 마을돌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기반의 충분성을 파악해 중앙차원에서의 법적지원의 필요를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는 육아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에 있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구축비를 포함하였으나 그 이후사업에서는 시설구축비를 대폭 축소해 2022년에는 활동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경기도는 5천만 원 이내의 시설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 수놓음돌봄사업의 경우 육아나눔터 공간조성사업을 따로 두고 적극적으로 공간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례로 확인되었다. 걱정할 활동공

간의 확보는 공동체 운영자 및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존재해 왔다.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과 관련된 정부지원의 적절성과 충분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과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할 것이다.

V

---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요구

---

- 01 조사대상자의 특성
- 02 육아공동체 참여경험
- 03 참여의 어려움
- 04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지원
- 05 육아공동체 참여의향
- 06 소결



## V.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요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아공동체 유경험자 대상 조사를 통해서는 육아공동체의 참여경험 내용과 만족도 및 애로사항,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지원 사항 등을 파악하고 육아공동체 무경험자를 대상으로는 육아공동체 참여의향을 파악하였다.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분석결과 제시에 앞서 본 연구의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에 참여한 1,358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70.5%로 2/3이상이었고, 평균연령은 37.6세이었고 30대 67.6%, 40대 29.2%로 3~40대가 대부분이었다. 유배우자는 98.1%이며 맞벌이 가구는 52.9%였다. 응답자 본인의 취업상태는 전일제가 51.2%, 시간제·농어민이 14.4%이었고,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전일제가 76.9%, 시간제·농어민이 9.1%이었다. 가구소득은 300~500만원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0~700만원 미만이 26.5%로 많았다.

〈표 V-1-1〉 응답자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계	100.0	(1,358)			
성별			배우자 유무		
남성	29.5	(400)	유배우자	98.1	(1,332)
여성	70.5	(958)	무배우자	1.9	(26)
연령			맞벌이 가구		
20대	2.6	(35)	맞벌이	52.9	(705)
30대	67.6	(918)	외벌이	45.6	(607)
40대	29.2	(397)	부부 모두 휴무직	1.5	(20)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50대 평균 연령	0.6	(8)	본인 취업상태		
		37.6세	전일제	51.2	(695)
			시간제·농어민	14.4	(195)
			휴무직	34.5	(468)
가구소득			배우자취업상태		
300만원 미만	11.5	(156)	전일제	76.9	(1,024)
300-500만원 미만	45.4	(617)	시간제·농어민	9.1	(121)
500-700만원 미만	26.5	(360)	휴무직	14.0	(187)
700만원 이상	16.6	(225)			

조사대상자의 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자녀수는 1.6명으로 1명인 경우가 49.0%, 2명인 경우가 43.2%로 1~2명이 대부분이었고, 자녀연령은 0~2세인 경우가 47.8%, 3~6세인 경우가 52.2%로 영아와 유아가 유사하게 분포하였다. 막내자녀의 낮 시간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75.1%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반일제 학원·아이돌보미·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8.6%, 둘 다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16.3% 있었다.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6.4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 V-1-2〉 응답자의 자녀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1,358)			
자녀수			자녀의 육아서비스이용		
1명	49.0	(666)	어린이집·유치원	75.1	(1,020)
2명	43.2	(587)	반일제학원·아이돌보미·	8.6	(117)
3명	7.3	(99)	민간베이비시터		
4명 이상	0.4	(6)	이용안함	16.3	(221)
평균자녀수		1.6명			
자녀연령1			자녀의 서비스이용시간(일)		
0세	11.3	(153)	2시간 미만	1.6	(18)
1세	19.1	(259)	2~4시간 미만	13.6	(155)
2세	17.5	(237)	4~6시간 미만	11.3	(128)
3세	14.2	(193)	6~8시간 미만	46.5	(529)
4세	13.7	(186)	8시간 이상	27.0	(307)
5세	13.0	(177)	평균시간	6.4시간	
6세	11.3	(153)			
자녀연령2					
영아(0~2세)	47.8	(649)			
유아(3~6세)	52.2	(709)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45.8%, 비수도권이 54.2%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40.5%, 중소도시 41.7%, 농어촌 17.8%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 V-1-3〉 응답자의 지역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1,358)			
시도			거주지역		
서울	17.0	(231)	수도권	45.8	(622)
부산	6.6	(89)	비수도권	54.2	(736)
대구	5.2	(71)			
인천	5.8	(79)	지역규모1		
광주	3.3	(45)	대도시	40.5	(550)
대전	2.2	(30)	중소도시	41.7	(566)
울산	2.1	(28)	농어촌	17.8	(242)
세종	1.8	(24)			
경기	23.0	(312)	지역규모2		
강원	3.4	(46)	동	82.2	(1,166)
충북	3.9	(53)	읍면	17.8	(242)
충남	5.3	(72)			
전북	3.7	(50)			
전남	4.1	(56)			
경북	4.3	(59)			
경남	7.3	(99)			
제주	1.0	(14)			



## 2. 육아공동체 참여경험

### 가. 참여여부 및 계기

육아공동체에 참여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집단과 무경험자 집단을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21.4%, 여성 78.6%로 여성의 비중이 57.2%p 높아 육아공동체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의 남녀 차이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육아공동체 유경험자 집단에 여성 비중이 높은 것이 확인된다.

자녀연령을 살펴보면 유경험자의 경우 자녀가 1세 일 때의 참여경험의 비중이 21.0%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낮아져 6세 일 때 8.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의 기관이용 형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보육기관 이용 비중이 72.1%로 가장 높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 16.3%, 학원, 아이돌보미, 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1.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기관이용 시간은 6~8시간 미만의 비중이 42.5%, 8시간 이상이 25.6%로 나타나 6시간 이상인 경우가 6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집단의 자녀의 기관 이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육아공동체 참여집단 전체 중 83.7%가 어린이집 등 기관이용 또는 학원, 돌보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의 취업상태는 전일제의 비중이 46.0%로 가장 많았고 휴무직이 36.9%, 시간제·농어민이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공동체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나 휴무직 상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를 살펴보면 맞벌이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고 외벌이 43.6%, 부모 모두 휴무직이 1.6%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육아공동체 참여집단의 경우 비수도권의 비중이 55.0%, 수도권이 45.0%로 비수도권이 많았다. 지역특성의 경우 동단위의 비중이 82.0%, 읍면단위가 18.0%로 나타났다.

〈표 V-2-1〉 육아공동체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분		참여경험 있음		참여경험 없음	
전체		100.0	(885)	100.0	(473)
성별	남성	21.4	(189)	44.6	(211)
	여성	78.6	(696)	55.4	(262)
자녀연령 1	0세	12.3	(109)	9.3	( 44)
	1세	21.0	(186)	15.4	( 73)
	2세	16.9	(150)	18.4	( 87)
	3세	13.9	(123)	14.8	( 70)
	4세	14.9	(132)	11.4	( 54)
	5세	12.2	(108)	14.6	( 69)
	6세	8.7	( 77)	16.1	( 76)
자녀연령 2	영아(0~2세)	50.3	(445)	43.1	(204)
	유아(3~6세)	49.7	(440)	56.9	(269)
자녀의 기관 이용	어린이집 등	72.1	(638)	80.8	(1,020)
	학원·돌보미 등	11.6	(103)	3.0	(117)
	이용안함	16.3	(144)	16.3	(221)
자녀의 기관 이용 시간	2시간 미만	2.4	( 18)	0.0	( 0)
	2~4시간 미만	17.1	(127)	7.1	( 28)
	4~6시간 미만	12.3	( 91)	9.3	( 37)
	6~8시간 미만	42.5	(315)	54.0	(214)
	8시간 이상	25.6	(190)	29.5	(117)
취업상태	전일제	46.0	(407)	60.9	(288)
	시간제+농어민	17.1	(151)	9.3	( 44)
	휴직+무직	36.9	(327)	29.8	(141)
맞벌이 가구	맞벌이	54.8	(475)	49.5	(230)
	외벌이	43.6	(378)	49.2	(229)
	부부 모두 휴무직	1.6	( 14)	1.3	( 6)
거주지역	수도권	45.0	(398)	47.4	(224)
	비수도권	55.0	(487)	52.6	(249)
지역특성	동	82.0	(726)	82.5	(390)
	읍면	18.0	(159)	17.5	( 83)

주: 전체사례수 1,358명. 맞벌이 가구는 유배우자 집단 1,332명에서 구분하였으며, 자녀의 기관이용시간은 기관 및 서비스이용자(어린이집 등+학원,돌보미 등) 집단 1,137명에서 구분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다음으로 육아공동체 활동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1세가 21.0%로 가장 많았고 6세가 8.7%로 가장 적었다. 육아공동체 활동 시작 시의 자녀의 평균연령은 2.7세로 나타났다. 육아공동체 활동 종료 시의 자녀 연령을 살펴보면 6세가 17.6%로 가장 많았고 3세, 4세, 5세가 각 15%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종료 시의 자녀의 평균연령은 4.0세로 나타났다.

〈표 V-2-2〉 육아공동체 활동 시작 및 종료시 자녀연령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시작 시 자녀연령	123	21.0	16.9	13.9	14.9	12.2	8.7	-	-	-	100.0 (885)	2.7	1.86
종료 시 자녀연령	23	11.4	13.0	15.0	15.0	15.3	17.6	7.2	2.0	1.3	100.0 (307)	4.0	2.06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하였으며, 이중 종료 시 자녀연령은 현재 활동 중단자에 한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2.7년이었다. 범주별로는 1년 미만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 장기간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그 외 1년~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사례는 범주별 약 20% 정도로 고르게 나타났다.

〈표 V-2-3〉 육아공동체 참여기간

단위: %(명)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계(수)	평균(년)
육아공동체 참여기간	26.1	21.7	20.0	21.0	11.2	100.0 (885)	2.7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현재 활동중단자는 시작년월에서 종료년월로 산정. 현재 활동중인 경우는 시작년월에서 조사년월로 산정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참여 육아공동체의 돌봄대상 연령대를 보면 영유아 및 초등아동을 모두 포괄하는 경우가 39.0%로 가장 많았고 24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 대상이 35.3%, 영유아 대상이 15.4%, 영아 대상이 1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4〉 참여 육아공동체의 돌봄대상 연령대

단위: %(명)

구분	영아 (24개월 미만)	유아 (24개월 이상 ~ 취학 전)	영유아	영유아 및 초등아동 모두	계(수)
육아공동체 대상연령	10.4	35.3	15.4	39.0	100.0 (885)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육아공동체 참여계기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중복응답을 고려해 조사한 결과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72.8%)’가 가장 높았고 ‘돌봄에 필요한 정보습득을 위해서(45.4%)’, ‘혼자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39.2%)’, ‘아이의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33.7%)’, ‘부모의 즐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5〉 육아공동체 참여계기: 순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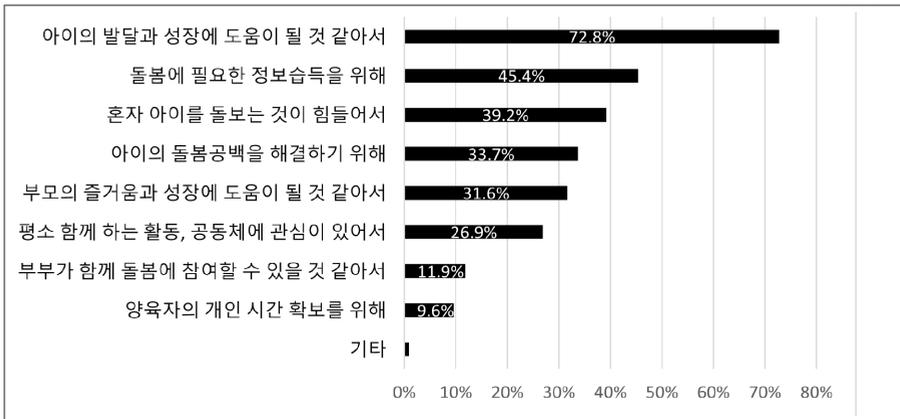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1+2+3순위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6.3(410)	62.1(550)	72.8(644)
돌봄에 필요한 정보습득을 위해	10.1( 89)	34.4(305)	45.4(402)
아이의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17.6(156)	25.5(226)	33.7(298)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14.1(125)	29.6(262)	39.2(347)
양육자의 개인 시간 확보를 위해	1.6( 14)	5.6( 50)	9.6( 85)
부모의 즐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2( 37)	16.4(145)	31.6(280)
부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7( 15)	7.3( 65)	11.9(105)
평소 함께 하는 활동,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4.1( 36)	12.5(111)	26.9(238)
기타	0.3( 3)	0.3( 3)	1.0( 8)
(사례수)	100.0(885)	(885)	(885)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그림 V-2-1〕 육아공동체 참여계기 (1+2+3순위)

단위: %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육아공동체 참여계기를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다음으로는 영아 부모의 경우 ‘혼자 양육하는 것이 힘들어서’의 응답 비중이 18.4%로 나타난 데 비해 유아 부모의 경우 ‘아이의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의 응답 비중이 20.5%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녀연령별 공동체 참여의 계기가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기관이용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와 학원, 아이돌보미, 시터 등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서 육아공동체의 참여계기를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의 응답 비중이 각각 19.3%, 24.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의 돌봄이 충분치 않으며 육아공동체 활동이 기관과 서비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2-6〉 육아공동체 참여계기: 특성별

단위: %(명)

구분	아이의 성장에 도움 될 것 같아서	돌봄에 필요한 정보 습득을 위해	아이의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 육아하는 것이 힘들어서	양육자 개인시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즐거움, 성장에 도움 될 것 같아서	부부 함께 돌봄 참여가 가능해 보여서	평소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기타	계(수)
전체	46.3	10.1	17.6	14.1	1.6	4.2	1.7	4.1	0.3	100.0(885)
자녀연령1										
0세	45.9	11.9	17.4	19.3	0.9	2.8	0.0	1.8	0.0	100.0(109)
1세	47.3	10.8	10.8	18.3	2.2	4.3	1.6	4.3	0.5	100.0(186)
2세	47.3	6.0	18.0	18.0	0.0	3.3	2.0	5.3	0.0	100.0(150)
3세	48.8	8.9	18.7	10.6	3.3	3.3	3.3	3.3	0.0	100.0(123)
4세	40.9	11.4	26.5	9.1	0.8	4.5	2.3	4.5	0.0	100.0(132)
5세	46.3	13.0	16.7	8.3	1.9	8.3	0.9	3.7	0.9	100.0(108)
6세	48.1	9.1	18.2	11.7	2.6	2.6	1.3	5.2	1.3	100.0(77)
$\chi^2$ (df)	53.141(54)									
자녀연령2										
영아(0-2세)	47.0	9.4	14.8	18.4	1.1	3.6	1.3	4.0	0.2	100.0(445)
유아(3-6세)	45.7	10.7	20.5	9.8	2.0	4.8	2.0	4.1	0.5	100.0(440)
$\chi^2$ (df)	19.022(9)*									
기관이용										

구분	아이의 성장에 도움될 것 같아서	돌봄에 필요한 정보 습득을 위해	아이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 육아하는 것이 힘들어서	양육자 개인시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즐거움, 성장에 도움될 것 같아서	부부 함께 돌봄 참여가 가능해 보여서	평소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기타	계(수)
어린이집 등 학원·돌보미 등 이용안함	45.9 32.0 58.3	10.2 14.6 6.3	19.3 24.3 5.6	13.8 12.6 16.7	1.4 3.9 0.7	4.2 3.9 4.2	1.6 3.9 0.7	3.4 4.9 6.3	0.2 0.0 1.4	100.0(638) 100.0(103) 100.0(144)
$\chi^2$ (df)	45.787(18)***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 1순위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  $p < .001$ .

## 나. 참여활동의 내용

육아공동체의 활동은 장소운영이나 조직체계에 따라 활동내용과 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돌봄 활동에 대해 육아공동체의 주된 활동이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자조모임(이하 '부모 자조모임')의 형태를 띠는지 혹은 일정한 돌봄장소가 있고 조직(단체, 기관, 센터 등)을 통해 운영되는 모임(이하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인지 묻고, 활동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파악하였다. 즉, 영유아돌봄 활동에 대해서는 내용을 달리 구성하고 부모 자조모임의 경우 돌봄공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된 돌봄장소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또한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에 대해서는 공간 및 상주 인력 등 운영에 대한 내용과 참여자들의 돌봄공간 운영에 대한 참여활동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우선, 참여 육아공동체의 형태에 대해 부모 자조모임이라 응답한 비중은 전체 중 61.4%였으며 일정한 돌봄장소가 있고 조직(기관, 센터)을 통해 운영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38.6%로 나타나, 자조모임의 비중이 22.8%p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2-7〉 육아공동체 참여형태

단위: %(명)

구분	부모 자조모임	일정한 돌봄장소가 있고 조직(기관,센터)을 통해 운영되는 모임	계(수)
육아공동체 참여형태	61.4(543)	38.6(342)	100.0 (885)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1) 영유아돌봄 활동

#### 가) 부모 자조모임의 영유아돌봄 활동

부모 자조모임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 활동 경험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 함께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96.7%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준 경험이 73.1%,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은 경우가 64.5%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없이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다른 집 아이가 내 아이를 돌봐주는 품앗이 돌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 연령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내가 다른 집 아이를 돌봐준 경험은 자녀 연령이 영아일 때보다 유아일 때 10.6%p 높았고,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 경우도 자녀연령이 영아일 때보다 유아일 때 8.9%p 높았다.

기관이용별로는 학원, 돌보미 등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집 아이를 돌봄,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은 경우의 응답 비중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기관이용을 안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참여계기에서 학원, 돌보미 등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돌봄공백 해결을 위해 육아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다는 것을 상기할 때 유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평소 학원,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육아공동체를 통한 돌봄과 연계해 돌봄공백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업상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전일제인 경우가 98.3%로 휴무직 또는 시간제·농어민의 경우보다 부모 자조모임의 영유아 활동을 경험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

부터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7%로 외벌이인 경우(59.1%)보다 10.6%p, 부모 모두 휴무직인 경우(42.9%)보다 26.8%p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봄		내가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 줌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음		계(수)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	96.7	3.3	73.1	26.9	64.5	35.5	100.0(543)
자녀연령1							
0세	95.6	4.4	70.6	29.4	64.7	35.3	100.0( 68)
1세	96.2	3.8	67.3	32.7	59.6	40.4	100.0(104)
2세	100.0	.0	66.3	33.7	57.1	42.9	100.0( 98)
3세	96.1	3.9	76.6	23.4	68.8	31.2	100.0( 77)
4세	97.7	2.3	79.3	20.7	69.0	31.0	100.0( 87)
5세	95.4	4.6	76.9	23.1	64.6	35.4	100.0( 65)
6세	93.2	6.8	81.8	18.2	75.0	25.0	100.0( 44)
$\chi^2$ (df)	6.096(12)		8.658(12)		6.905(12)		
자녀연령2							
영아(0-2세)	97.4	2.6	67.8	32.2	60.0	40.0	100.0(270)
유아(3-6세)	96.0	4.0	78.4	21.6	68.9	31.1	100.0(273)
$\chi^2$ (df)	0.874(2)		7.774(2)**		4.656(2)*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97.5	2.5	73.5	26.5	65.4	34.6	100.0(393)
학원·돌보미 등	100.0	.0	82.8	17.2	69.0	31.0	100.0( 58)
이용안함	91.3	8.7	65.2	34.8	57.6	42.4	100.0( 92)
$\chi^2$ (df)	11.027(4)**		5.698(4)†		2.549(4)		
취업상태							
전일제	98.3	1.7	75.1	24.9	68.0	32.0	(241)
시간제·농어민	95.0	5.0	73.0	27.0	65.0	35.0	(100)
휴무직	95.5	4.5	70.8	29.2	59.9	40.1	(202)
$\chi^2$ (df)	3.766(4)		1.040(4)		3.201(4)		
맞벌이가구							
맞벌이	97.6	2.4	76.9	23.1	69.7	30.3	(290)
외벌이	95.7	4.3	69.8	30.2	59.1	40.9	(235)
부부 모두 휴무직	100.0	.0	57.1	42.9	42.9	57.1	( 7)
$\chi^2$ (df)	1.657(4)		4.342(4)		7.746(4)*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부모 자조모임'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1, \* p < 0.05, \*\* p < 0.01.

부모 자조모임을 통해 영유아 돌봄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가 다른 집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한 횟수를 살펴보면 월 1회 정도가 30.2%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미만이 29.2%로 나타나 최소 월 1회 이상인 경우가 70.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본 횟수를 살펴보면 월 2회 정도가 30.1%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미만이 8.6%로 나타나 최소 월 1회인 경우가 9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은 경우는 월 1회 미만이 35.1%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정도가 28.6%로 나타나 최소 월 1회 이상인 경우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전체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내가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1.0	6.8	14.4	18.4	30.2	29.2	100.0(397)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봄	3.2	10.5	29.7	30.1	17.9	8.6	100.0(525)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음	1.4	3.4	15.1	16.3	28.6	35.1	100.0(350)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부모 자조모임'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돌봄 활동별로 부모 자조모임을 통해 영유아 돌봄에 참여한 횟수를 자녀연령, 기관이용형태, 취업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본인이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준 활동의 횟수는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영아 자녀인 경우 월1회 미만의 비율이 34.4%로 가장 많아 유아 자녀인 경우보다 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10〉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내가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1.0	6.8	14.4	18.4	30.2	29.2	100.0(397)
자녀연령2							
영아(0-2세)	1.6	7.1	13.7	12.6	30.6	34.4	100.0(183)
유아(3-6세)	0.5	6.5	15.0	23.4	29.9	24.8	100.0(214)
$\chi^2$ (df)			10.924(5)†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1.0	7.3	14.9	16.3	29.4	31.1	100.0(289)
학원·돌보미 등	0.0	6.2	14.6	31.2	31.2	16.7	100.0( 48)
이용안함	1.7	5.0	11.7	18.3	33.3	30.0	100.0( 60)
$\chi^2$ (df)			NA				
취업상태							
전일제	0.6	7.2	12.7	21.0	32.0	26.5	100.0(181)
시간제·농어민	0.0	11.0	16.4	20.5	28.8	23.3	100.0( 73)
휴무직	2.1	4.2	15.4	14.0	28.7	35.7	100.0(143)
$\chi^2$ (df)			NA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부모 자조모임'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1$ .

부모들과 함께 돌보는 활동 횟수는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시간제·농어민이거나 휴무직 경우 주1회 정도 함께 돌보는 경우가 각각 37.9%, 33.2%로 가장 빈도가 높아 전일제의 경우보다 더 잦은 참여횟수를 보였다.

〈표 V-2-11〉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봄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3.2	10.5	29.7	30.1	17.9	8.6	100.0(525)
자녀연령2							
영아(0-2세)	4.9	11.0	29.3	28.1	17.1	9.5	100.0(263)
유아(3-6세)	1.5	9.9	30.2	32.1	18.7	7.6	100.0(262)
$\chi^2$ (df)			6.311(5)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3.4	11.2	26.4	29.8	19.8	9.4	100.0(383)
학원·돌보미 등	5.2	12.1	39.7	25.9	12.1	5.2	100.0( 58)
이용안함	1.2	6.0	38.1	34.5	13.1	7.1	100.0( 84)
$\chi^2$ (df)			14.317(10)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취업상태							
전일제	3.4	11.0	23.6	31.6	19.0	11.4	100.0(237)
시간제·농어민	3.2	11.6	37.9	20.0	22.1	5.3	100.0( 95)
휴무직	3.1	9.3	33.2	33.2	14.5	6.7	100.0(193)
$\chi^2$ (df)			16.816(10)†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부모 자조모임'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1$ .

다른 부모가 내 아이를 돌보는 활동의 횟수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본인이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준 활동의 횟수와 유사하게 영아 자녀인 경우 월1회 미만의 비율이 38.9%로 유아 자녀인 경우 31.9% 보다 크게 나타나 활동 빈도가 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12〉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음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1.4	3.4	15.1	16.3	28.6	35.1	100.0(350)
자녀연령2							
영아(0-2세)	3.1	2.5	13.0	13.6	29.0	38.9	100.0(162)
유아(3-6세)	0.0	4.3	17.0	18.6	28.2	31.9	100.0(188)
$\chi^2$ (df)			10.139(5)†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1.2	3.1	17.1	14.4	28.4	35.8	100.0(257)
학원·돌보미 등	5.0	2.5	12.5	32.5	35.0	12.5	100.0( 40)
이용안함	0.0	5.7	7.5	13.2	24.5	49.1	100.0( 53)
$\chi^2$ (df)			NA				
취업상태							
전일제	3.0	2.4	15.2	19.5	31.1	28.7	100.0(164)
시간제·농어민	0.0	7.7	18.5	16.9	30.8	26.2	100.0( 65)
휴무직	0.0	2.5	13.2	11.6	24.0	48.8	100.0(121)
$\chi^2$ (df)			NA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부모 자조모임'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1$ .

부모 자조모임을 통한 영유아 돌봄의 참여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 유형과 무관하게 오후 4시 이후가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주말에 자조모임을 활용한 돌봄 참여 비율이 높았다.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유형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참여시간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영아인 경우 평일 오전(20.5%), 낮(20.9%), 오후(20.5%), 주말(21.7%)의 비중을 보인데 비해 유아의 경우 평일 오후(25.2%), 주말(34.7%), 평일 낮(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는 영아의 경우 평일 오전, 낮, 오후의 비중이 높고 유아의 경우는 평일 오후, 주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관이용 특성에 따라서도 부모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유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에서 돌아오는 평일 오후 시간에 참여하는 비중이 25.6%로 가장 높았고, 학원, 돌보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오전이 비중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일 낮의 비중이 26.2%로 가장 높았다.

〈표 V-2-13〉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시간: 1순위

단위: %(명)

구분	평일 아침	평일 오전 (정오 전)	평일 낮 (4시 이전)	평일 오후 (4시 이후)	평일 저녁	주말	방학 등 기관 미이용시	경조사 등 긴급 상황	계(수)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봄	5.0	15.0	16.6	22.9	5.1	28.2	5.9	1.3	100.0(525)
자녀연령1									
0세	7.7	23.1	18.5	13.8	6.2	18.5	10.8	1.5	100.0( 65)
1세	5.0	17.0	30.0	20.0	0.0	21.0	4.0	3.0	100.0(100)
2세	4.1	22.4	13.3	25.5	4.1	24.5	5.1	1.0	100.0( 98)
3세	1.4	17.6	12.2	27.0	5.4	25.7	10.8	0.0	100.0( 74)
4세	2.4	9.4	12.9	17.6	8.2	41.2	5.9	2.4	100.0( 85)
5세	8.1	4.8	11.3	29.0	9.7	35.5	1.6	0.0	100.0( 62)
6세	9.8	2.4	12.2	31.7	4.9	36.6	2.4	0.0	100.0( 41)
$\chi^2$ (df)				82.213(48)***					
자녀연령2									
영아(0-2세)	5.3	20.5	20.9	20.5	3.0	21.7	6.1	1.9	100.0(263)
유아(3-6세)	4.6	9.5	12.2	25.2	7.3	34.7	5.7	0.8	100.0(262)
$\chi^2$ (df)				31.688(8)***					
기관이용									

구분	평일 아침	평일 오전 (정오 전)	평일 낮 (4시 이전)	평일 오후 (4시 이후)	평일 저녁	주말	방학 등 기관 미이용시	경조사 등 긴급 상황	계(수)
어린이집 등	6.0	12.8	15.4	25.6	5.2	27.4	6.3	1.3	100.0(383)
학원·돌보미 등	1.7	22.4	10.3	19.0	5.2	32.8	5.2	3.4	100.0( 58)
이용안함	2.4	20.2	26.2	13.1	4.8	28.6	4.8	0.0	100.0( 84)
$\chi^2(df)$				23.520(16)†					
내가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5.0	8.6	13.1	28.7	9.8	23.7	7.1	4.0	100.0(397)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음	4.9	9.7	13.4	25.1	12.0	19.4	7.7	7.7	100.0(350)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부모 자조모임'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3) 활동시간은 1순위 자료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1$ , \*\*\*  $p < .001$ .

부모 자조모임의 영유아돌봄 참여장소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경우 모임원의 집에서 돌봄 활동을 하는 비중이 45.5%로 가장 높고 놀이터, 동네공원 등이 28.0%, 육아나눔터 등 돌봄 공용기관이 1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아의 경우 모임원의 집에서 돌봄을 하는 비중이 53.6%이나 유아의 경우 37.4%로 나타났다. 유아는 영아에 비해 놀이터나 공원, 지역 내 공용공간 등의 외부 장소를 활용하는 비중이 16.1%p 높았으며 6세의 경우 돌봄의 70.7%가 집이 아닌 외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이용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육아 나눔터 등 전용돌봄 기관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내가 다른 집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로는 놀이터, 동네공원 등의 비중이 가장 38.4%로 높았고 키즈카페 등 사설 놀이공간 23.5%, 모임원의 집 14.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집 외의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 경우 장소로는 모임원의 집이 67.4%로 비중이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놀이터, 동네공원 등이 14.6%, 육아 나눔터 등 전용돌봄 기관이 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4〉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장소: 1순위

단위: %(명)

구분	모임 원의 집	놀이 터, 동네 공원 등	육아나 눔터 등 돌봄전 용공용 공간	지역 도서관 등 기타 공용 공간	키즈 카페 등 사설 놀이 공간	식당, 카페 등	기타 야외 공간	기타	계(수)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봄	45.5	28.0	11.8	3.6	6.9	1.0	2.9	0.4	100.0(525)
자녀연령1									
0세	60.0	15.4	13.8	4.6	4.6	1.5	.0	0.0	100.0( 65)
1세	52.0	20.0	12.0	5.0	9.0	0.0	2.0	0.0	100.0(100)
2세	51.0	23.5	10.2	3.1	8.2	1.0	3.1	0.0	100.0( 98)
3세	32.4	36.5	17.6	1.4	8.1	2.7	1.4	0.0	100.0( 74)
4세	45.9	27.1	5.9	3.5	8.2	0.0	7.1	2.4	100.0( 85)
5세	37.1	38.7	11.3	4.8	4.8	0.0	3.2	0.0	100.0( 62)
6세	29.3	48.8	14.6	2.4	0.0	2.4	2.4	0.0	100.0( 41)
$\chi^2$ (df)					65.062(48)*				
자녀연령2									
영아(0-2세)	53.6	20.2	11.8	4.2	7.6	0.8	1.9	0.0	100.0(263)
유아(3-6세)	37.4	35.9	11.8	3.1	6.1	1.1	3.8	0.8	100.0(262)
$\chi^2$ (df)					23.955(8)**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47.0	29.0	10.2	2.9	7.8	0.5	2.3	0.3	100.0(383)
학원·돌보미 등	37.9	24.1	19.0	8.6	3.4	5.2	1.7	0.0	100.0( 58)
이용안함	44.0	26.2	14.3	3.6	4.8	0.0	6.0	1.2	100.0( 84)
$\chi^2$ (df)					29.581(16)*				
내가 다른 집 아이들을 돌 봐줌	14.0	38.4	10.1	8.1	23.5	2.3	3.6	0.0	100.0(307)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 부터 돌봄을 받음	67.4	14.6	7.4	3.4	4.9	1.1	1.1	0.0	100.0(350)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부모 자조모임'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3) 활동장소는 1순위 자료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  $p < 0.01$ .

### 나)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의 영유아돌봄 활동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 조직에서 아이를 돌본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 돌봄공간에서 돌봄을 받은 경험이 55.8%, 다른 부모와 함께 돌본 경험이 76.6%,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준 경험이 39.8%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영아의 경우 부모에 의한 돌봄의 비중이 유아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용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 의한 돌봄 비중이 가장 높았고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에 의한 돌봄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와 맞벌이의 상태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가구의 경우 시간제·농어민, 휴무직에 비해 공동돌봄 공간에서 타인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경험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모와 함께 돌봄을 제공한 경험은 가장 낮았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외벌이나 부모 모두 휴직한 가구에 비해 공동 돌봄공간에서 타인에 의해 돌봄을 받은 비중이 높았다.

〈표 V-2-15〉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공동 돌봄공간에서 돌봄을 받음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계(수)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	55.8	44.2	76.6	23.4	39.8	60.2	100.0(342)
자녀연령1							
0세	61.0	39.0	80.5	19.5	41.5	58.5	100.0( 41)
1세	36.6	63.4	86.6	13.4	45.1	54.9	100.0( 82)
2세	59.6	40.4	76.9	23.1	26.9	73.1	100.0( 52)
3세	56.5	43.5	73.9	26.1	43.5	56.5	100.0( 46)
4세	75.6	24.4	68.9	31.1	51.1	48.9	100.0( 45)
5세	53.5	46.5	79.1	20.9	34.9	65.1	100.0( 43)
6세	66.7	33.3	57.6	42.4	30.3	69.7	100.0( 33)
$\chi^2(df)$	21.836(6)**		13.401(6)*		8.957(6)		
자녀연령2							
영아(0-2세)	49.1	50.9	82.3	17.7	30.3	69.7	100.0(175)
유아(3-6세)	62.9	37.1	70.7	29.3	38.9	61.1	100.0(167)
$\chi^2(df)$	6.534(2)*		6.447(2)*		0.124(2)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57.6	42.4	78.0	22.0	42.0	58.0	100.0(245)
학원·돌보미 등	71.1	28.9	53.3	46.7	35.6	64.4	100.0( 45)
이용안함	34.6	65.4	90.4	9.6	32.7	67.3	100.0( 52)
$\chi^2(df)$	14.047(4)***		19.360(4)***		1.949(4)		
취업상태							
전일제	69.3	30.7	69.3	30.7	38.6	61.4	100.0(166)
시간제·농어민	51.0	49.0	80.4	19.6	49.0	51.0	100.0( 51)
휴무직	40.0	60.0	84.8	15.2	37.6	62.4	100.0(125)
$\chi^2(df)$	25.363(4)***		10.067(4)**		2.170(4)		

구분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공동 돌봄공간에서 돌봄을 받음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계(수)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맞벌이가구							
맞벌이	64.9	35.1	74.6	25.4	43.2	56.8	100.0(185)
외벌이	44.1	55.9	81.1	18.9	36.4	63.6	100.0(143)
부부모두휴무직	42.9	57.1	71.4	28.6	14.3	85.7	100.0( 7)
$\chi^2$ (df)	14.607(4)***		2.099(4)		3.524(4)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p < 0.01, \*\*\* p < .001.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 조직에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돌봄을 받는 횟수는 주 3회 정도가 25.7%, 주 1회 정도가 23.0%, 거의 매일이 15.7%로 주 1회 이상 공동체 돌봄장소에서 타인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경우가 64.4%로 나타났다.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와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횟수는 주 1회 정도가 29.4%로 가장 높았고, 거의매일이 3.4%로 가장 낮았으며 월 1회 미만은 16%로 나타났다.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아이들을 돌봐준 경험은 월 1회 정도가 27.9%로 가장 높았고, 거의 매일이 1.5%로 가장 낮았으며 월 1회 미만이 23.5%로 나타났다.

〈표 V-2-16〉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전체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공동 돌봄공간에서 돌봄을 받음	15.7	25.7	23.0	8.4	16.2	11.0	100.0(191)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3.4	7.3	29.4	18.3	25.6	16.0	100.0(262)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1.5	11.0	19.1	16.9	27.9	23.5	100.0(136)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영유아 돌봄 활동 중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공동 돌봄 공간에서 돌봄을 받는 활동의 경우 자녀연령, 기관이용, 취업상태에 따라 빈도를 살펴보면 자녀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기관이용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즉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9%로 월등히 높았다.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집단에서도 주1회 정도 이용 비율이 37.5%로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표 V-2-17〉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공동 돌봄공간에서 돌봄을 받음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15.7	25.7	23.0	8.4	16.2	11.0	100.0(191)
자녀연령2							
영아(0-2세)	19.8	27.9	19.8	5.8	15.1	11.6	100.0( 86)
유아(3-6세)	12.4	23.8	25.7	10.5	17.1	10.5	100.0(105)
$\chi^2$ (df)	4.081(5)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13.5	25.5	21.3	8.5	19.1	12.1	100.0(141)
학원·돌보미 등	12.5	31.2	37.5	6.2	9.4	3.1	100.0( 32)
이용안함	38.9	16.7	11.1	11.1	5.6	16.7	100.0( 18)
$\chi^2$ (df)	NA						
취업상태							
전일제	19.1	28.7	20.9	8.7	14.8	7.8	100.0(115)
시간제·농어민	19.2	30.8	30.8	3.8	11.5	3.8	100.0( 26)
휴무직	6.0	16.0	24.0	10.0	22.0	22.0	100.0( 50)
$\chi^2$ (df)	NA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영유아 돌봄 활동 중 공동 돌봄 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자녀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기관이용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즉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주1회 정도 이용 비율이 45.8%로 이용 빈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V-2-18〉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3.4	7.3	29.4	18.3	25.6	16.0	100.0(262)
자녀연령2							
영아(0-2세)	3.5	9.0	30.6	18.8	24.3	13.9	100.0(144)
유아(3-6세)	3.4	5.1	28.0	17.8	27.1	18.6	100.0(118)
$\chi^2$ (df)	2.687(5)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3.1	7.3	26.7	18.3	28.3	16.2	100.0(191)
학원·돌보미 등	0.0	4.2	45.8	16.7	16.7	16.7	100.0(24)
이용안함	6.4	8.5	31.9	19.1	19.1	14.9	100.0(47)
$\chi^2$ (df)	NA						
취업상태							
전일제	4.3	6.1	25.2	19.1	26.1	19.1	100.0(115)
시간제·농어민	2.4	14.6	29.3	9.8	34.1	9.8	100.0( 41)
휴무직	2.8	5.7	34.0	20.8	21.7	15.1	100.0(106)
$\chi^2$ (df)	NA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횟수와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주는 횟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시간제·농어민 유형이 다른 취업상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9〉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1.5	11.0	19.1	16.9	27.9	23.5	100.0(136)
자녀연령2							
영아(0-2세)	2.9	11.8	17.6	14.7	26.5	26.5	100.0(68)
유아(3-6세)	0.0	10.3	20.6	19.1	29.4	20.6	100.0(68)
$\chi^2$ (df)	NA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1.0	7.8	18.4	17.5	30.1	25.2	100.0(103)
학원·돌보미 등	0.0	31.2	25.0	12.5	25.0	6.2	100.0( 16)
이용안함	5.9	11.8	17.6	17.6	17.6	29.4	100.0( 17)
$\chi^2$ (df)	NA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취업상태							
전일제	1.6	12.5	15.6	20.3	32.8	17.2	100.0(64)
시간제·농어민	4.0	16.0	28.0	12.0	20.0	20.0	100.0(25)
휴무직	0.0	6.4	19.1	14.9	25.5	34.0	100.0(47)
$\chi^2$ (df)	NA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 조직에서 영유아 돌봄을 할 경우 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녀가 돌봄을 받는 시간은 평일 오전이 28.3%로 가장 많았고, 평일 낮 19.4%, 평일 오후 1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 취업상태,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평일 오전시간이 비중이 36.0%로 가장 높은 반면, 유아의 경우 평일 오후 시간의 비중이 25.7%로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의 경우 전일제에 비해 시간제·농어민의 평일 공동 돌봄공간의 이용 시간이 골고루 비중 있게 분포되어 있었다.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신중할 필요는 있으나 시간제·농어민이 근무형태에 따른 상황별 돌봄공백 해결을 위해 공동 돌봄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 V-2-20〉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주된 활동시간: 1순위

단위: %(명)

구분	평일 아침	평일 오전 (정오 전)	평일 낮 (4시 이전)	평일 오후 (4시 이후)	평일 저녁	주말	방학 등 기관 미이용시	경조사 등 긴급 상황	계(수)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공동 돌봄공간에서 돌봄을 받음	11.5	28.3	19.4	17.8	5.2	8.4	7.3	2.1	100.0(191)
자녀연령2									
영아(0-2세)	14.0	36.0	15.1	8.1	5.8	9.3	9.3	2.3	100.0( 86)
유아(3-6세)	9.5	21.9	22.9	25.7	4.8	7.6	5.7	1.9	100.0(105)
$\chi^2$ (df)	14.946(8)*								
취업상태									
전일제	13.0	33.0	21.7	11.3	6.1	7.0	7.0	0.9	100.0(115)

구분	평일 아침	평일 오전 (정오 전)	평일 낮 (4시 이전)	평일 오후 (4시 이후)	평일 저녁	주말	방학 등 기관 미이용시	경조사 등 긴급 상황	계(수)
시간제·농어민 휴무직	15.4 6.0	11.5 26.0	19.2 14.0	34.6 24.0	11.5 0.0	3.8 14.0	3.8 10.0	0.0 6.0	100.0( 26) 100.0( 50)
$\chi^2$ (df)									27.997(16)*
맞벌이여부									
맞벌이	10.0	29.2	21.7	16.7	8.3	6.7	6.7	0.8	100.0(120)
외벌이	11.1	30.2	15.9	17.5	0.0	12.7	7.9	4.8	100.0( 63)
부부모두휴무직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3)
$\chi^2$ (df)									24.570(16)*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7.3	21.8	14.1	22.1	3.4	20.2	11.1	0.0	100.0(262)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9.6	16.9	9.6	24.3	8.8	21.3	8.1	1.5	100.0(136)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3) 활동시간은 1순위 자료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 2) 육아관련 활동

육아관련 활동 경험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자가 나들이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을 한 경험은 70.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아(67.2%)보다 유아(73.0%)인 경우, 취업상태가 시간제·농어민(76.8%)인 경우 전일제(67.1%), 휴무직(70.6%)에 비해 나들이 등 체험활동 등과 같은 육아관련 활동을 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의 경우 육아 공동체 참여자의 58.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54.4%)보다 유아(62.7%)인 경우, 취업상태가 시간제·농어민(65.6%)의 경우 전일제(55.3%), 휴무직(59.3%)에 비해 육아관련 교육참여와 상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한 경험은 8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관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93.1%)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87.5%)나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82.5%) 보다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취업상태가 휴무직인 경우(91.7%)가 전일제(85.7%), 시간제·농어민(84.8%)보다 해당 활동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 및 아이 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나누는 경험이 있는 경우는 44.6%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유아인 경우(40.5%)보다 영아인 경우(48.8%), 맞벌이인 경우(45.7%)가 외벌이(44.2%) 혹은 부모모두 휴직상태인 경우(14.3%)보다 이유식이나 반찬을 만들어 공유하는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하원 등 육아를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 가면서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0.1%로 나타났다. 자녀가 영아(45.2%)에 비해 유아인 경우(55.0%) 해당 경험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52.0%)가 학원, 아이돌보미, 시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49.5%)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41.7%)보다 등하원 등 이동을 위한 활동을 해주거나 함께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1〉 육아관련 활동 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나들이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		육아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이유식 및 아이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나눔		등하원 등 육아를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가며 함		계(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70.1	29.9	58.5	41.5	87.8	12.2	44.6	55.4	50.1	49.9	100.0(885)
자녀연령2											
영아(0-2세)	67.2	32.8	54.4	45.6	87.4	12.6	48.8	51.2	45.2	54.8	100.0(445)
유아(3-6세)	73.0	27.0	62.7	37.3	88.2	11.8	40.5	59.5	55.0	45.0	100.0(440)
$\chi^2(df)$	3.503(2) <sup>†</sup>		6.348(2) <sup>*</sup>		0.121(2)		6.182(2) <sup>*</sup>		8.554(2) <sup>**</sup>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70.5	29.5	57.5	42.5	87.5	12.5	46.7	53.3	52.0	48.0	100.0(638)
학원·돌보미 등	70.9	29.1	64.1	35.9	82.5	17.5	41.7	58.3	49.5	50.5	100.0(103)
이용안함	67.4	32.6	59.0	41.0	93.1	6.9	39.5	62.5	41.7	58.3	100.0(144)
$\chi^2(df)$	0.601(4)		1.587(4)		6.457(4) <sup>*</sup>		4.424(4)		5.068(4) <sup>†</sup>		
취업상태											
전일제	67.1	32.9	55.3	44.7	85.7	14.3	45.7	54.3	51.8	48.2	100.0(407)
시간제·농어민	76.8	23.2	65.6	34.4	84.8	15.2	43.7	56.3	51.7	48.3	100.0(151)
휴무직	70.6	29.4	59.3	40.7	91.7	8.3	43.7	56.3	47.1	52.9	100.0(327)
$\chi^2(df)$	5.071(4) <sup>†</sup>		4.931(4) <sup>†</sup>		7.638(4) <sup>*</sup>		0.347(4)		1.821(4)		
맞벌이여부											
맞벌이	71.2	28.8	59.6	40.4	86.7	13.3	45.7	54.3	52.6	47.4	100.0(475)

구분	나들이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		육아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이유식 및 아이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나눔		등하원 등 육아를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가며 함		계(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외별이	70.1	29.9	57.1	42.9	89.9	10.1	44.2	55.8	47.9	52.1	100.0(378)
부부 모두 휴무	57.1	42.9	42.9	57.1	78.6	21.4	14.3	85.7	28.6	71.4	100.0(14)
$\chi^2(df)$	1.327(4)		1.899(4)		3.254(4)		5.460(4) <sup>†</sup>		4.554(4)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1, \* p < 0.05, \*\* p < 0.01.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를 살펴본 결과, 나들이 등 체험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해 활동한 횟수는 월 1회 정도가 38.7%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미만인 18.2%로 나타났다. 육아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한 횟수는 월 1회 미만이 36.9%로 가장 높고 주 3회 정도가 33.3%로 나타났다.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은 월 1회 정도 29.0%로, 월 1회 미만이 15.3%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이나 아이 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나누는 활동은 월 1회 정도가 27.6%로 가장 높고 월 1회 미만이 24.3%로 나타났다. 등하원 등 육아를 위한 이동을 하거나 번갈아가며 하는 활동은 주 1회 정도가 가장 많았고 월 1회 미만은 15.3%에 해당되었다.

〈표 V-2-22〉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전체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나들이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	0.5	3.7	17.3	21.6	38.7	18.2	100.0(620)
육아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1.4	33.3	12.7	13.3	32.4	36.9	100.0(518)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5.3	8.8	23.6	18.1	29.0	15.3	100.0(777)
이유식 및 아이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나눔	1.0	5.1	19.2	22.8	27.6	24.3	100.0(395)
등하원 등 육아를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가며 함	4.7	9.7	26.0	23.7	20.5	15.3	100.0(443)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육아관련 활동 중 나들이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의 빈도를 자녀연령, 기관이용, 취업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3〉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나들이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0.5	3.7	17.3	21.6	38.7	18.2	100.0(620)
자녀연령2							
영아(0-2세)	1.0	3.7	19.7	22.4	34.8	18.4	100.0(299)
유아(3-6세)	0.0	3.7	15.0	20.9	42.4	18.1	100.0(321)
$\chi^2$ (df)			7.750(5)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0.4	2.9	16.9	20.2	40.0	19.6	100.0(450)
학원·돌보미 등	0.0	11.0	16.4	31.5	30.1	11.0	100.0( 73)
이용안함	1.0	2.1	19.6	20.6	39.2	17.5	100.0( 97)
$\chi^2$ (df)			NA				
취업상태							
전일제	0.4	5.5	16.8	23.1	36.3	17.9	100.0(273)
시간제·농어민	0.0	4.3	14.7	14.7	50.0	16.4	100.0(116)
휴무직	0.9	1.3	19.0	23.4	35.9	19.5	100.0(231)
$\chi^2$ (df)			NA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3) 평균은 6점척도(1: 월1회미만~6:거의 매일)로 산정한 것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육아 관련 교육 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기관이용에 따라 경향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1회 미만 비율이 44.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빈도가 낮았다.

〈표 V-2-24〉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육아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1.4	33.3	12.7	13.3	32.4	36.9	100.0(518)
자녀연령2							
영아(0-2세)	2.5	3.3	14.0	12.4	30.6	37.2	100.0(242)
유아(3-6세)	0.4	3.3	11.6	14.1	34.1	36.6	100.0(276)
$\chi^2$ (df)			5.672(5)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0.8	3.3	12.3	12.3	33.0	38.4	100.0(367)
학원·돌보미 등	3.0	6.1	16.7	24.2	31.8	18.2	100.0( 66)
이용안함	2.4	1.2	11.8	9.4	30.6	44.7	100.0( 85)
$\chi^2$ (df)			NA				
취업상태							
전일제	1.3	3.6	12.0	15.1	37.3	30.7	100.0(225)
시간제·농어민	0.0	7.1	15.2	14.1	30.3	33.3	100.0( 99)
휴무직	2.1	1.0	12.4	10.8	27.8	45.9	100.0(194)
$\chi^2$ (df)			NA				

-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3) 평균은 6점척도(1: 월1회미만~6:거의 매일)로 산정한 것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의 참여횟수는 자녀연령과 기관이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영아인 경우가 주 1회 정도 참여 비율이 25.2%로 유아인 경우 21.9%보다 많았고,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 1회 정도 참여 비율이 29.9%로 다른 집단보다 빈도가 높았다. 한편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V-2-25〉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5.3	8.8	23.6	18.1	29.0	15.3	100.0(777)
자녀연령2							
영아(0-2세)	7.7	9.8	25.2	17.5	27.8	12.1	100.0(389)
유아(3-6세)	2.8	7.7	21.9	18.8	30.2	18.6	100.0(388)
$\chi^2$ (df)			16.458(5)*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5.7	10.0	21.7	17.6	31.2	13.8	100.0(558)
학원·돌보미 등	3.5	10.6	25.9	17.6	29.4	12.9	100.0( 85)
이용안함	4.5	2.2	29.9	20.9	19.4	23.1	100.0(134)
$\chi^2$ (df)			24.388(10)*				
취업상태							
전일제	4.3	7.4	20.9	18.6	33.0	15.8	100.0(349)
시간제·농어민	3.9	11.7	29.7	12.5	28.9	13.3	100.0(128)
휴무직	7.0	9.0	24.0	20.0	24.3	15.7	100.0(300)
$\chi^2$ (df)			15.276(10)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이유식 및 아이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나누는 활동에 있어서는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기관이용과 취업상태에 따른 경향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1회 미만 빈도 비율이 35.2%로 다른 집단에 비해 적었고, 시간제·농어민인 경우 월 2회 정도 빈도 비율이 33.3%, 휴무직인 경우 주 1회 정도 빈도 비율이 22.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6〉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이유식 및 아이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나눔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1.0	5.1	19.2	22.8	27.6	24.3	100.0(395)
자녀연령2							
영아(0-2세)	1.4	6.5	20.7	20.7	26.7	24.0	100.0(217)
유아(3-6세)	0.6	3.4	17.4	25.3	28.7	24.7	100.0(178)
$\chi^2$ (df)			4.084(5)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0.0	4.4	18.8	23.5	29.9	23.5	100.0(298)
학원·돌보미 등	4.7	14.0	25.6	18.6	20.9	16.3	100.0( 43)
이용안함	3.7	1.9	16.7	22.2	20.4	35.2	100.0( 54)
$\chi^2$ (df)			NA				
취업상태							
전일제	1.1	7.0	18.8	23.1	29.6	20.4	100.0(186)
시간제·농어민	0.0	6.1	13.6	33.3	25.8	21.2	100.0( 66)
휴무직	1.4	2.1	22.4	17.5	25.9	30.8	100.0(143)
$\chi^2$ (df)			NA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등하원 등 육아를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가며 하는 활동은 자녀연령, 기관 이용,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V-2-27〉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등하원 등 육아를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가며 함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전체	4.7	9.7	26.0	23.7	20.5	15.3	100.0(443)
자녀연령2							
영아(0-2세)	4.5	10.9	29.4	20.9	16.9	17.4	100.0(201)
유아(3-6세)	5.0	8.7	23.1	26.0	23.6	13.6	100.0(242)
$\chi^2$ (df)			6.866(5)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4.8	9.6	25.6	23.2	19.3	17.5	100.0(332)
학원·돌보미 등	5.9	15.7	25.5	25.5	21.6	5.9	100.0( 51)
이용안함	3.3	5.0	28.3	25.0	26.7	11.7	100.0( 60)
$\chi^2$ (df)			9.804(10)				
취업상태							
전일제	6.2	10.0	24.6	25.6	20.4	13.3	100.0(211)
시간제·농어민	3.8	14.1	29.5	24.4	9.0	19.2	100.0( 78)
휴무직	3.2	7.1	26.0	20.8	26.6	16.2	100.0(154)
$\chi^2$ (df)			15.060(10)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3) 평균은 6점척도(1: 월1회미만~6:거의 매일)로 산정한 것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3) 돌봄공간 운영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돌봄공간에 정보와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운영 관련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 가) 돌봄공간 운영 활동: 참여자 경험

돌봄공간의 운영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공동 돌봄공간의 청소, 정리 정돈, 급간식 지원 등 직접적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2%로 나타났다. 특히 필요한 책이나 물품 등을 기증한 경험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 진으로 참여한 경우는 22.5%로 낮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른 운영활동 경험에 대한 차이는 영아보다 유아일 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표 V-2-28〉 돌봄공간 운영 활동 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공동 돌봄공간의 청소, 정리정돈, 급간식을 지원함		공동 돌봄공간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기증함		공동 돌봄공간의 운영진으로 참여함		계(수)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	39.2	60.8	47.4	52.6	22.5	77.5	100.0(342)
자녀연령2							
영아(0-2세)	36.0	64.0	44.0	56.0	19.4	80.6	100.0(175)
유아(3-6세)	42.5	57.5	50.9	49.1	25.7	74.3	100.0(167)
$\chi^2$ (df)	1.522(2)		1.631(2)		1.956(2)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공동 돌봄공간의 청소, 정리정돈,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기관 운영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본 결과 월 1회 정도가 30.6%로 가장 많았고 주 1회 정도가 23.1%, 월 1회 미만이 22.4%로 나타났다.

〈표 V-2-29〉 돌봄공간 운영 활동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공동 돌봄공간의 청소, 정리정돈, 급간식을 지원함	2.2	6.7	23.1	14.9	30.6	22.4	100(134)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해당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나) 돌봄공간의 특성

돌봄공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건물형태의 경우 아파트 공간(공동주택)이 3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건물 23.4%, 단독 건물 15.8%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방식의 경우 잘 모름이 52.6%로 가장 많았고 자가 19.6%, 유상임대 14.3%, 무상임대 1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0〉 돌봄공간 건물형태 및 점유방식

단위: %(명)

건물형태	단독건물	복합	아파트공간 (공동주택)	상가	공공건물	계(수)
전체	15.8	12.3	39.5	9.1	23.4	100.0(342)
점유방식	자가	유상임대	무상임대	기타	잘 모름	계(수)
전체	19.6	14.3	11.4	2.0	52.6	100.0(342)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돌봄공간 운영주체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육아 커뮤니티 모임이 87.7%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29.8%, 주민자치회,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회의 등의 주민자치 조직이 28.9%, 비영리 단체는 9.6%로 나타났다.

〈표 V-2-31〉 돌봄공간 운영주체

단위: %, (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등의 육아커뮤니티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자치회,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회의 등의 주민자치조직	비영리단체	(수)
87.7	29.8	28.9	9.6	(342)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돌봄공간 운영재정을 복수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56.4%로 가장 높았고 회비 33.0%, 이용료 27.2%, 관련단체에 대한 후원 24.6%, 기타 3.5%, 수익사업 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2〉 돌봄공간 운영 재정

단위: %, (명)

구분	회비	이용료	관련 단체에 대한 후원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	수익사업	기타	(수)
전체	33.0	27.2	24.6	56.4	1.5	3.5	(342)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돌봄공간 이용아동 수를 살펴본 결과 4~6명이 41.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10~19명 24.3%, 1~3명이 15.2%, 7~9명이 11.7%, 20명이상이 7.6%로 나타났다. 돌봄공간 이용아동 수의 평균은 약 7.7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V-2-33〉 돌봄공간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명

구분	1~3명	4~6명	7~9명	10~19명	20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5.2	41.2	11.7	24.3	7.6	100.0(342)	7.7
거주지역							
수도권	12.2	40.1	12.9	25.2	9.5	100.0(147)	8.2
비수도권	17.4	42.1	10.8	23.6	6.2	100.0(195)	7.3
t			1.647				
지역특성							
동	15.9	39.9	12.7	24.0	7.4	100.0(283)	7.6
읍면	11.9	47.5	6.8	25.4	8.5	100.0(59)	7.9
t			-0.389				
공동체의 돌봄대상연령대							
영아	28.1	40.6	9.4	15.6	6.3	100.0(32)	6.4
유아	17.1	41.9	14.3	17.1	9.5	100.0(105)	7.5
영유아	9.1	49.1	10.9	21.8	9.1	100.0(55)	7.9
영유아+초등	13.3	38.0	10.7	32.0	6.0	100.0(150)	8.0
F			0.903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이용 아동 수는 응답자가 주로 활동(이용)하는 시간대에 있는 평균 아동수로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돌봄공간의 운영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일에는 돌봄공간의 92.1%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공간이 57.1%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공간의 47.4%가 주말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공간이 43.2%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말 평균 운영시간은 6.5시간으로 평일 운영시간에 비해 다소 짧았다.

〈표 V-2-34〉 돌봄공간 운영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운영여부			운영시간						평균	표준편차
	운영함	운영안함	계(수)	2시간 미만	2~4시간	4~6시간	6~8시간	8시간 이상	계(수)		
평일	92.1	7.9	100.0 (342)	3.5	18.1	10.8	10.5	57.1	100.0 (315)	7.0	3.04
주말	47.4	52.6	100.0 (342)	1.2	18.5	16.7	20.4	43.2	100.0 (162)	6.5	2.88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돌봄공간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작시간의 경우 평일은 오전 7시 30분~오전 9:30에 시작하는 비중이 55.9%로 가장 높았고 주말은 오전 9:30~ 오전 11:30에 시작하는 비중이 46.3%로 가장 높았다.

종료시간의 경우 평일은 오후 5시 30분~오후 7시 30분에 종료하는 비중이 50.2%로 가장 높았고 주말 또한 오후 5시 30분~오후 7시 30분에 종료하는 비중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2-35〉 돌봄공간 시작 및 종료시간

단위: %(명)

시작시간	오전 7:30 이전	오전 7:30~오전 9:30	오전 9:30~오전 11:30	오전 11:30~오후 1:30	오후 1:30~오후 3:30	오후 3:30~오후 5:30	오후 5:30~오후 7:30	계(수)
	평일	2.2	55.9	26.7	3.8	4.1	7.0	
주말	6.2	38.9	46.3	8.0	0.6	0.0	0.0	100.0(162)
종료시간	오전 9:30~오전 11:30	오전 11:30~오후 1:30	오후 1:30~오후 3:30	오후 3:30~오후 5:30	오후 5:30~오후 7:30	오후 7:30~오후 9:30	오후 9:30 이후	계(수)
	평일	3.2	12.7	1.6	22.2	50.2	9.5	
주말	5.6	15.4	10.5	26.5	34.0	6.8	1.2	100.0(162)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돌봄공간의 상시 돌봄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시인력이 있는 돌봄공간의 비중이 6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돌봄인력 수는 2명이 47.1%로 가장 많았고

1명 21.1%, 3명 17.5%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인력 수는 2.6명으로 분석되었다. 상시돌봄인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행정/운영 인력이 6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가 36.8%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22.9%, 자원봉사자 26.5%로 부모당사자와 자원봉사자 등 자원활동가 그룹이 상시인력으로 활동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이 된다는 것도 확인된다.

〈표 V-2-36〉 돌봄공간 상시 돌봄인력

단위: %(명), 명

상시인력이 있는 돌봄공간비중	상시 돌봄인력 수						계(수)	평균 인력수	표준 편차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65.2 (223)	21.1	47.1	17.5	2.2	5.8	6.3	100.0 (223)	2.6	1.98
	상시 돌봄인력 구성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행정/운영인력					
	22.9	36.8	26.5	63.2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상시인력수는 응답자가 주로 활동(이용)하는 시간대에 있는 평균 인력수로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돌봄공간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여부를 살펴본 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48.5%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2-37〉 돌봄공간 운영 지역주민 참여여부

단위: %(명)

구분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잘 모름	계(수)
전체	48.5	17.5	33.9	100.0(342)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돌봄공간 운영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이돌봄이나 부모교육 등의 재능기부가 71.1%로 가장 높았고 행사참여 69.9%, 공간청소 및 정리정돈 62.0% 순으로 나타났다. 급간식 준비 및 지원 활동 비중은 34.3%로 가장 낮았다. 돌봄공간 운영 활동별 지역주민 참여횟수를 살펴보면 아이돌봄이나 부모교육 등의 재능기부 활동의 경우 주 1회 정도가 27.1%로 가장 높았고 월 1회 정도가 23.7%, 월 1회 미만이 16.9%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청소 및 정리정돈의 경우 주 1회 정도 참여하는 경우가 23.3%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정도 21.4%, 월 1회 미만

14.6% 순으로 나타났다. 급간식 준비 등 지원의 경우 월 2회 정도 혹은 주 1회 정도 참여하는 경우가 각각 2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월 1회 정도가 19.3%로 나타났다. 행사준비 및 진행 등의 지원의 경우 월 1회 정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주 1회 정도, 월 1회 미만은 각 15.1%로 나타났다. 행사참여의 경우 모름을 제외하고 월 1회 정도가 41.4%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미만 15.5% 주 1회 정도 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8〉 돌봄공간 운영 활동별 지역주민 참여횟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중 참여 비중	지역주민 참여횟수							계(수)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모름	
아이돌봄, 부모교육 등 생애주기	71.1	1.7	5.9	27.1	11.0	23.7	16.9	13.6	100.0(118)
공간청소 및 정리정돈	62.0	6.8	9.7	23.3	12.6	21.4	14.6	11.7	100.0(103)
급간식 준비 등 지원	34.3	3.5	17.5	26.3	26.3	19.3	5.3	1.8	100.0( 57)
행사준비 및 진행 등의 지원	44.0	2.7	6.8	15.1	12.3	37.0	15.1	11.0	100.0( 73)
행사참여	69.9	3.4	4.3	10.3	6.0	41.4	15.5	19.0	100.0(116)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참여공동체 형태를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4) 기타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기타 활동에 함께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타활동 중 독서모임,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한다는 비중은 48.5%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동체 돌봄대상연령,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동체 돌봄대상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비중이 높아져 영유아일 경우 22.8%만이 취미활동을 같이하는 것에 비해 영유아와 초등아동일 경우 57.7%가 취미활동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수록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동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4.2%만이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년 이상일 경우 70.7%가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활동 등의 경험을 한 비중은 32.0%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관이용 형태와 공동체 돌봄대상연령,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가 차이가 있었다. 기관이용 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원, 아이돌보미, 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40.8%)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보육 기관을 이용(32.4%)하거나 기관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23.6%)에 비해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활동 등의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공동체 돌봄대상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활동 등의 경험한 비중이 영아의 경우 18.5%인데 비해 영유아와 초등아동일 경우 37.7%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활동 등의 경험한 비중이 높아져 1년 미만일 경우 16.9%에 비해 5년 이상일 경우 51.5%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제작판매나 동네장터 참여 등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한 경험의 비중은 19.7%로 이는 기관이용여부, 공동체 돌봄대상연령,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이용 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원, 아이돌보미, 시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32.0%)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보육 기관을 이용(18.3%)하거나 기관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16.7%)에 수익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다. 공동체 돌봄대상연령의 경우 유아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익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참여기간의 경우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수록 수익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져 1년 미만일 경우 10.4%에 비해 5년 이상일 경우 37.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유사활동을 하는 모임과 교류한 경험의 비중은 32.2%로 이는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수록 지역 내 유사활동을 하는 모임과 교류하는 비중이 높아져 1년 미만인 경우 21.6%에 비해 5년 이상인 경우 52.5%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9〉 기타 활동 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독서모임,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함께 함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활동 등의 활동을 함께 함		상품제작판매, 동네장터 참여 등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함		지역 내 유사활동을 하는 모임(조직, 기관)과 교류함 (장터공동개최 등)		계(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48.5	51.5	32.0	68.0	19.7	80.3	32.2	67.8	100.0(885)
자녀연령2									
영아(0-2세)	46.3	53.7	30.3	69.7	20.2	79.8	33.5	66.5	100.0(445)
유아(3-6세)	50.7	49.3	33.6	66.4	19.1	80.9	30.9	69.1	100.0(440)
$\chi^2$ (df)	1.707(2)		1.107(2)		0.180(2)		0.671(2)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48.0	52.0	32.4	67.6	18.3	81.7	31.8	68.2	100.0(638)
학원·돌보미 등	54.4	45.6	40.8	59.2	32.0	68.0	36.9	63.1	100.0(103)
이용안함	46.5	53.5	23.6	76.4	16.7	83.3	30.6	69.4	100.0(144)
$\chi^2$ (df)	1.718(4)		8.364(4)*		11.514(4)**		1.260(4)		
공동체 돌봄 대상 연령									
영아	22.8	77.2	18.5	81.5	12.0	88.0	26.1	73.9	100.0( 92)
유아	49.7	50.3	33.7	66.3	24.0	76.0	34.0	66.0	100.0(312)
영유아	39.7	60.3	22.8	77.2	16.2	83.8	27.9	72.1	100.0(136)
영유아+초등아동	57.7	42.3	37.7	62.3	19.1	80.9	33.9	66.1	100.0(345)
$\chi^2$ (df)	40.307(6)***		18.543(6)***		8.349(6)*		3.618(6)		
공동체 참여기간									
1년미만	24.2	75.8	16.9	83.1	10.4	89.6	21.6	78.4	100.0(231)
1년~2년미만	45.3	54.7	27.6	72.4	12.5	87.5	27.6	72.4	100.0(192)
2년~3년미만	57.1	42.9	33.9	66.1	20.9	79.1	32.8	67.2	100.0(177)
3년~5년미만	61.8	38.2	43.0	57.0	28.0	72.0	38.7	61.3	100.0(186)
5년이상	70.7	29.3	51.5	48.5	37.4	62.6	52.5	47.5	100.0( 99)
$\chi^2$ (df)	93.173(8)***		53.967(8)***		46.746(8)***		36.014(8)***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p < 0.01, \*\*\* p < .001.

기타 활동 참여횟수를 살펴보면 독서모임,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참여횟수는 월 1회 정도가 32.6%로 가장 많았고 주 1회 정도가 25.9%, 월 2회 정도가 18.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활동 등의 활동을 함께 참여한 횟수는 월 1회 정도가 33.2%로 가장 많았고 주 1회 정도가 20.5%, 월 2회 정도가 17.0%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40〉 기타 활동 참여횟수: 전체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3회 정도	주1회 정도	월2회 정도	월1회 정도	월1회 미만	계(수)
독서모임,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함께 함	2.3	5.8	25.9	18.4	32.6	14.9	100.0(429)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활동 등의 활동을 함께 함	3.2	4.9	20.5	17.0	33.2	21.2	100.0(283)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다. 참여효과 및 만족도

### 1) 참여효과

육아공동체 경험자를 대상으로 육아공동체 참여의 주요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항목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점대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육아공동체 참여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육아공동체 참여 효과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낸 부분은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되었다'는 응답이 평균 4.0, '아이의 돌봄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와 '이웃, 마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응답이 평균 3.7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41〉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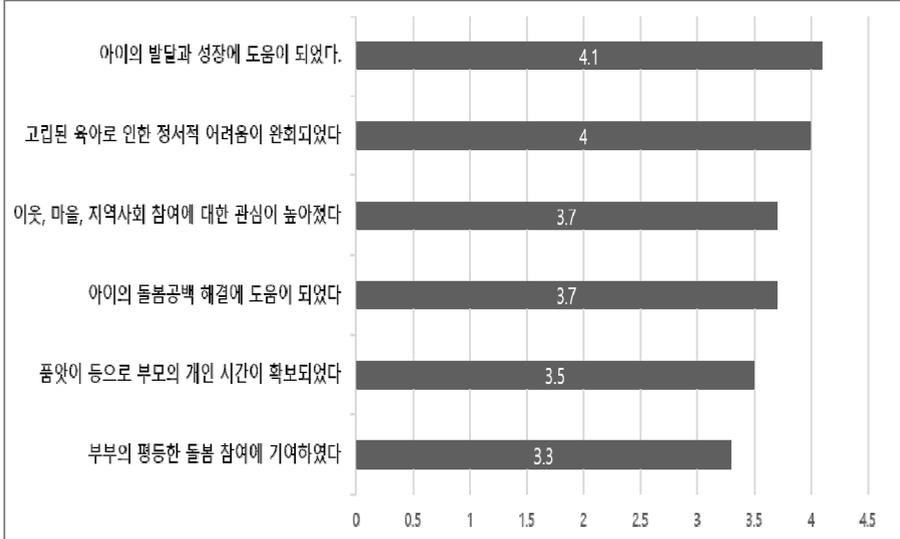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4.1	0.727
아이의 돌봄공백(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3.7	1.067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되었다	4.0	0.846
품앗이 등으로 부모의 개인 시간이 확보되었다	3.5	1.056
부부의 평등한 돌봄 참여에 기여하였다	3.3	1.083
이웃, 마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3.7	0.857
(사례수)	(885)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각 문항에 대해 1.전혀그렇지 않다~5.매우그렇다의 5점척도를 평균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그림 V-2-2]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단위: 점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각 문항에 대해 1.전혀그렇지 않다~5.매우그렇다의 5점 척도를 평균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구체적으로 1-3순위까지의 각 항목별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정도가 연령, 기관 이용, 공동체 참여기간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 연령, 기관이용,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우선 자녀연령을 0세에서 6세까지 연령별로 구분하여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다른지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을 영아(0-2세), 유아(3-6세) 집단으로 구분하여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육아공동체 경험자들은 자녀의 연령별 차이와 상관없이 육아공동체가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이용에 따라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서비스를 받는 집단(평균 3.9점)에 비해 어린이집만 이용하거나(평균 4.1점)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평균 4.2점), 아이의 발달과 성장 부분에서 육아공동체 참여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효과 점수에도 차이가 있었다. 즉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1년미만(평균 4.0점), 1년~2년미만(평균4.0점), 2년~3년 미만인 집단(평균 4.0점)보다, 참여기간이 3년~5년(평균 4.3점), 5년 이상인 집단(평균 4.2점)에서 참여효과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수록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2-42〉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단위: %(명), 점

구분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정도					계(수)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1	1.1	18.8	51.0	29.0	100.0(885)	4.1
자녀연령1							
0세	0.9	0.9	22.9	45.9	29.4	100.0(109)	4.0
1세	0.0	1.1	19.9	52.7	26.3	100.0(186)	4.0
2세	0.0	1.3	18.7	48.0	48	100.0(150)	4.1
3세	0.0	0.8	20.3	53.7	25.2	100.0(123)	4.0
4세	0.0	1.5	12.1	59.1	27.3	100.0(132)	4.1
5세	0.0	1.9	18.5	49.1	30.6	100.0(108)	4.1
6세	0.0	0.0	19.5	44.2	36.4	100.0( 77)	4.2
F			0.591				
자녀연령2							
영아(0-2세)	0.2	1.1	20.2	49.4	29.0	100.0(445)	4.1
유아(3-6세)	0.0	1.1	17.3	52.5	29.1	100.0(440)	4.1
t			0.574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0.2	1.1	18.3	51.3	29.2	100.0(638)	4.1
학원·돌보미 등	0.0	1.9	24.3	53.4	20.4	100.0(103)	3.9
이용안함	0.0	0.7	16.7	47.9	34.7	100.0(144)	4.2
F			3.461*				
공동체 참여기간							
1년미만	0.0	0.9	26.0	49.8	23.4	100.0(231)	4.0
1년~2년미만	0.5	2.1	21.4	47.9	28.1	100.0(191)	4.0
2년~3년미만	0.0	2.3	14.7	60.5	22.6	100.0(177)	4.0
3년~5년미만	0.0	0.0	10.8	51.1	38.2	100.0(186)	4.3
5년이상	0.0	0.0	19.2	42.4	38.4	100.0( 99)	4.2
F			6.334***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p < .001.

‘아이의 돌봄공백 해결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 연령, 기관이용, 취업상태, 맞벌이여부,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자녀연령을 영아(0-2세), 유아(3-6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돌봄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평균 3.6점)보다 유아(평균 3.8점)를 돌보고 있는 육아공동체 경험자가 돌봄공백 해결 부문에서 육아공동체 참여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기관이용에 따라 돌봄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평균 3.4점)보다 학원이나 돌보미 서비스를 받거나(평균 3.8점)와 어린이집만 이용하는(평균 3.8점) 경우, 돌봄 공백 해결 부문에서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다니거나 학원, 돌보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공백이 생기며 이의 해결에 육아공동체 참여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육아공동체 경험자의 취업상태에 따른 참여효과 점수에도 차이가 있었다. 즉 육아공동체 경험자의 취업상태가 전일제(평균 3.9)인 경우, 시간제·농어민(평균 3.7점)인 경우와 휴무직(평균 3.5)인 경우보다 돌봄 공백 해결 부문에서 육아공동체 참여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맞벌이여부 형태에 따라서도 참여효과에 차이가 있었는데, 맞벌이인 경우(평균 3.9)가 외벌이(평균 3.6)와 부부 모두 휴무직(평균 3.4)인 경우 보다 돌봄 공백 해결 부문에서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점수가 더 높았다. 즉 근로상태인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공동체 참여가 돌봄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라 돌봄공백 해결 부분의 참여효과 역시 차이가 있었다. 즉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평균 3.5점)에서, 1년-2년 미만(평균 3.6점), 2년-3년 미만(평균 3.8점), 3년-5년 미만(평균 3.9점), 5년 이상인 집단(평균 4.0점)으로 갈수록 돌봄공백 해결 부분의 참여효과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2-43〉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아이의 돌봄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단위: %(명), 점

구분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정도					계(수)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6	7.6	24.6	38.0	25.2	100.0(885)	3.7
자녀연령2							
영아(0-2세)	4.3	8.8	28.3	35.5	23.1	100.0(445)	3.6
유아(3-6세)	5.0	6.4	20.9	40.5	27.3	100.0(440)	3.8
t			3.900*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3.6	7.5	23.5	38.7	26.6	100.0(638)	3.8
학원·돌보미 등	4.9	3.9	24.3	35.9	31.1	100.0(103)	3.8
이용안함	9.0	10.4	29.9	36.1	14.6	100.0(144)	3.4
F			9.487***				
취업상태							
전일제	2.5	4.7	22.1	42.8	28.0	100.0(407)	3.9
시간제·농어민	6.0	9.3	24.5	30.5	29.8	100.0(151)	3.7
휴무직	6.7	10.4	27.8	35.5	19.6	100.0(327)	3.5
F			12.113***				
맞벌이여부							
맞벌이	3.4	5.9	22.7	38.7	29.3	100.0(475)	3.9
외벌이	6.1	9.5	27.0	37.6	19.8	100.0(378)	3.6
부부 모두 휴무직	7.1	7.1	35.7	35.7	14.3	100.0( 14)	3.4
F			8.520***				
공동체 참여기간							
1년미만	5.6	10.0	29.9	37.7	16.9	100.0(231)	3.5
1년~2년미만	7.3	8.9	24.5	34.4	25.0	100.0(192)	3.6
2년~3년미만	2.3	7.9	26.6	39.0	24.3	100.0(177)	3.8
3년~5년미만	4.8	4.8	18.3	41.4	30.6	100.0(186)	3.9
5년이상	1.0	4.0	21.2	37.4	36.4	100.0( 99)	4.0
F			6.411***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완화'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육아공동체 경험자의 성별에 따라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완화에 육아공동체 참여효과가 다른지 확인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경험자가(평균 4.1점) 남성 경험자(평균 3.9점)보다 참여효과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여성에게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완화 효

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과 기관이용 형태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동체 참여 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평균 3.9점)에서, 1년-2년 미만(평균 4.0점), 2년-3년 미만(평균 3.9점), 3년-5년 미만(평균 4.2점), 5년 이상인 집단(평균 4.2점)으로 갈수록 돌봄공백 해결 부분의 참여효과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충분히 확보될수록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완화 부분에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2-44〉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되었다

단위: %(명), 점

구분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정도					계(수)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1	2.9	19.1	46.3	30.5	100.0(885)	4.0
성별							
남성	0.5	2.6	27.5	50.3	19.0	100.0(189)	3.9
여성	1.3	3.0	16.8	45.3	33.6	100.0(696)	4.1
t			10.383**				
자녀연령2							
영아(0-2세)	1.3	3.4	18.4	43.1	33.7	100.0(445)	4.04
유아(3-6세)	0.9	2.5	19.8	49.5	27.3	100.0(440)	4.00
t			0.689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0.5	3.1	18.8	46.1	31.5	100.0(638)	4.0
학원·돌보미 등	2.9	1.9	25.2	45.6	24.3	100.0(103)	3.9
이용안함	2.8	2.8	16.0	47.9	30.6	100.0(144)	4.0
F			2.177				
공동체 참여기간							
1년미만	1.3	3.0	22.5	49.4	23.8	100.0(231)	3.9
1년~2년미만	0.0	3.6	23.4	42.7	30.2	100.0(192)	4.0
2년~3년미만	3.4	4.5	18.6	47.5	26.0	100.0(177)	3.9
3년~5년미만	0.5	1.6	11.8	49.5	36.6	100.0(186)	4.2
5년이상	0.0	1.0	17.2	38.4	43.4	100.0( 99)	4.2
F			6.075***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1, \*\*\* p < .001.

마지막으로 '이웃, 마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 정도에 대해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이웃, 마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 부분의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점수가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평균 3.6점)에서, 1년~2년 미만(평균 3.7점), 2년~3년 미만(평균 3.6점), 3년~5년 미만(평균 3.9점), 5년 이상인 집단(평균 3.9점)으로 갈수록 이웃, 마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 부분의 참여효과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수록 육아공동체 참여효과의 여러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효과성과 연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연적으로 효과성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동체 참여기간과 효과성에 상당한 연관성이 보이므로 공동체 참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2-45〉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이웃, 마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단위: %(명), 점

구분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정도					계(수)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2	5.4	30.4	45.3	17.6	100.0(885)	3.7
공동체 참여기간							
1년미만	1.3	6.1	33.8	45.0	13.9	100.0(231)	3.6
1년~2년미만	2.1	5.7	31.3	43.8	17.2	100.0(192)	3.7
2년~3년미만	1.1	6.2	29.9	52.5	10.2	100.0(177)	3.6
3년~5년미만	0.5	4.3	26.3	44.1	24.7	100.0(186)	3.9
5년이상	1.0	4.0	29.3	38.4	27.3	100.0( 99)	3.9
F			2.358 <sup>†</sup>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1.

## 2) 만족도 및 추천의향

육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경험자의 성별, 자녀연령, 기관이용형태, 거주지역, 공동체 돌봄대상 연령 및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5점 척도

로 조사한 결과 평균 4.0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육아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는 경험자의 성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평균 4.07점)이 남성(평균 3.78점)보다 육아공동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자녀의 연령 구분에 따른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기관이용 형태에 따른 만족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평균 4.17점)의 만족도가 학원과 돌보미 등을 이용하는 경우(평균 3.97점) 및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평균 3.98점)의 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및 돌보미 등 기관과 유료 서비스이용을 하기 어려운 경우 육아공동체가 하나의 돌봄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비수도권 경험자의 만족도가 (평균 4.05점) 수도권 경험자의 만족도(평균 3.96)보다 높았다. 공동체의 돌봄대상 아동연령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즉 영아만 대상으로 하거나(평균 3.83점)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평균 3.98점)의 만족도가 영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평균 3.98점)와 초등이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평균 4.10점)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육아공동체의 아동연령은 세분화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영유아 및 초등이하의 구분은 보다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즉 앞선 결과들과 유사하게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평균 3.87점)에서, 1년-2년 미만(평균 3.96점), 2년-3년 미만(평균 3.96점), 3년-5년 미만(평균 4.17점), 5년 이상인 집단(평균 4.22점)으로 갈수록 육아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표 V-2-46〉 육아공동체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육아공동체 만족도					계(수)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한 다		
전체	0.1	0.7	21.1	54.2	23.8	100.0(885)	4.01
성별							
남성	0.5	0	30.7	58.7	10.1	100.0(189)	3.78
여성	0.0	0.9	18.5	53.0	27.6	100.0(696)	4.07
t			-5.237***				
자녀연령2							
영아(0-2세)	0.2	0.4	21.8	53.7	23.8	100.0(445)	4.00
유아(3-6세)	0.0	0.9	20.5	54.8	23.9	100.0(440)	4.02
t			-0.243				
기관이용							
어린이집 등	0.2	0.6	22.6	54.4	22.3	100.0(638)	3.98
학원·돌보미 등	0.0	1.0	22.3	55.3	21.4	100.0(103)	3.97
이용안함	0.0	0.7	13.9	52.8	32.6	100.0(144)	4.17
F			4.760**				
거주지역							
수도권	0.3	0.8	22.9	55.0	21.1	100.0(398)	3.96
비수도권	0.0	0.6	19.7	53.6	26.1	100.0(487)	4.05
t			-1.943 <sup>†</sup>				
공동체 돌봄대상연령							
영아	0	1.1	29.3	55.4	14.1	100.0( 92)	3.83
유아	0	0.3	22.8	55.8	21.2	100.0(312)	3.98
영유아	0	0.7	22.1	55.9	21.3	100.0(136)	3.98
영유아+초등아동	0.3	0.9	17.1	51.9	29.9	100.0(345)	4.10
F			4.473				
공동체 참여기간							
1년미만	0	0.9	29.0	52.4	17.7	100.0(231)	3.87
1년~2년미만	0	0.5	24.5	53.6	21.4	100.0(192)	3.96
2년~3년미만	0	1.7	19.2	60.5	18.6	100.0(177)	3.96
3년~5년미만	0.5	0	12.4	55.9	31.2	100.0(186)	4.17
5년이상	0	0	16.2	45.5	38.4	100.0( 99)	4.22
F			7.830***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 .1, \*\* p < 0.01, \*\*\* p < .001.

육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 추천의향 및 경험자의 성별, 자녀연령, 기관이용, 거주지역, 공동체 돌봄대상 연령 및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 추천의향은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06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성별 및 자녀가 영유아인지 여부에 따른 육아공동체에 대한 추천의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관이용 형태에 따른 추천의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평균 4.27점)의 추천의향이 학원과 돌보미 등을 이용하는 경우(평균 3.99점) 및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평균 4.02점)의 추천의향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추천의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돌봄대상 아동연령에 따라서도 추천의향에 차이가 있었다. 즉 영아만 대상으로 하거나(평균 3.91점)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평균 4.01점)의 만족도가 영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평균 4.07점)와 초등이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평균 4.13점)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른 추천의향 역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앞선 결과들과 유사하게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평균 3.89점)에서, 1년-2년 미만(평균 4.01점), 2년-3년 미만(평균 4.03점), 3년-5년 미만(평균 4.28점), 5년 이상인 집단(평균 4.16점)으로 갈수록 육아공동체에 대한 추천의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2-47〉 육아공동체 추천의향

단위: %(명), 점

구분	육아공동체 추천의향 정도					계(수)	평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체	0.2	1.9	19.2	49.3	29.4	100.0(885)	4.06
성별							
남성	0.5	4.2	28.6	54.5	12.2	100.0(189)	3.74
여성	0.1	1.3	16.7	47.8	34.1	100.0(696)	4.14
t			0.727				
자녀연령 <sup>2</sup>							
영아(0-2세)	0.4	0.9	21.8	47.9	29.0	100.0(445)	4.04
유아(3-6세)	0.0	3.0	16.6	50.7	29.8	100.0(440)	4.07
t			-0.630				
기관이용							

구분	육아공동체 추천의향 정도					계(수)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린이집 등 학원·돌보미 등 이용안함 F	0.3 0.0 0.0	2.2 1.9 0.7	20.4 22.3 11.8 6.960**	49.5 50.5 47.2	27.6 25.2 40.3	100.0(638) 100.0(103) 100.0(144)	4.02 3.99 4.27
거주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t	0.5 0.0	3.0 1.0	21.4 17.5 0.140	50.3 48.5	24.9 33.1	100.0(398) 100.0(487)	3.96 4.14
공동체 돌봄대상연령 영아 유아 영유아 영유아+초등아동 F	1.1 0.0 0.0 0.3	0.0 2.6 1.5 2.0	26.1 20.8 19.1 15.9 2.532†	52.2 49.4 50.7 47.8	20.7 27.2 28.7 33.9	100.0( 92) 100.0(312) 100.0(136) 100.0(345)	3.91 4.01 4.07 4.13
공동체 참여기간 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 F	0.4 0.0 0.0 0.5 0.0	2.6 2.1 2.8 0.5 1.0	26.0 23.4 16.9 9.1 18.2 7.744***	49.8 45.8 54.2 50.0 44.4	21.2 28.6 26.0 39.8 36.4	100.0(231) 100.0(192) 100.0(177) 100.0(186) 100.0(99)	3.89 4.01 4.03 4.28 4.16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 .1, \*\* p < 0.01, \*\*\* p < .001.

### 3) 지역사회 인식

육아공동체 경험의 효과에 이어 육아공동체 경험자들의 지역사회 인식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교를 위해 육아공동체 무경험자들의 지역사회 인식 정도도 함께 분석하였다. 다만, 본 조사와 분석으로는 공동체경험과 지역사회 인식을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으며 연관성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공동체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의 평균점수를 보면 지역사회 인식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나는 평소 아이를 키울 때 이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평균 3.77점), '나는 우리 지역(동네, 마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평균 3.62점), '내가 사는 지역(동네, 마을)은 사람들이 살기 좋다'(평균 3.61점)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내가 아플 때 나는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평균 2.75점), ‘내가 아플 때 이웃은 나의 아이들을 몇 시간 정도 돌봐줄 수 있다’(평균 2.90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어 육아공동체 참여여부와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른 지역사회 인식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인식도의 다섯 영역 모두의 평균 점수는 육아 공동체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지역사회 인식도의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이는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정도와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인식도가 낮은 두 영역에서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 즉 ‘내가 아플 때 이웃은 나의 아이들을 몇 시간 정도 돌봐줄 수 있다’에 대한 인식에서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자(평균 3.20점)가 비 경험자(평균 2.34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내가 아플 때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에 대한 인식 역시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자(평균 3.04점)가 비경험자(평균 2.20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육아공동체 경험자를 대상으로 공동체 참여기간에 따라 지역사회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한 결과, 지역사회 인식도의 세 영역에서 참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가 아플 때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참여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평균 2.87점)에서, 1년-2년 미만(평균 3.05점), 2년-3년 미만(평균 2.97점), 3년-5년 미만(평균 3.22점), 5년 이상인 집단(평균 3.22점)으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내가 아플 때 이웃은 나의 아이들을 몇 시간 정도 돌봐줄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참여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역시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평균 2.97점)에서, 1년-2년 미만(평균 3.17점), 2년-3년 미만(평균 3.20점), 3년-5년 미만(평균 3.40점), 5년 이상인 집단(평균 3.43점)으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나는 평소 아이를 키울 때 이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인식을 참여기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육아공동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평균 3.81점)에서, 1년-2년 미만(평균 3.90점), 2년-3년 미만(평균 3.97점), 3년-5년 미만(평균 4.13점), 5년 이상인 집단(평균 4.10점)으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내가 사는 지역

(동네, 마을)은 사람들이 살기 좋다'와 '나는 우리 지역(동네, 마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에 대한 부분은 육아공동체 참여기간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공동체에 지속적 참여를 통한 경험이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식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반영한다.

〈표 V-2-48〉 지역사회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내가 아플 때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내가 아플 때 이웃은 나의 아이들을 몇 시간 정도 돌봐줄 수 있다	나는 평소 아이를 키울 때 이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는 지역(동네, 마을)은 사람들이 살기 좋다	나는 우리 지역(동네, 마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수)
전체	2.75	2.90	3.77	3.61	3.62	(1,358)
공동체 경험여부						
있음	3.04	3.20	3.96	3.75	3.75	(885)
없음	2.20	2.34	3.42	3.35	3.37	(473)
t	13.856***	13.500***	10.270***	8.494***	8.048***	
공동체 참여기간						
1년미만	2.87	2.97	3.81	3.68	3.68	(231)
1년~2년미만	3.05	3.17	3.90	3.73	3.75	(192)
2년~3년미만	2.97	3.20	3.97	3.77	3.76	(177)
3년~5년미만	3.22	3.40	4.13	3.81	3.84	(186)
5년이상	3.22	3.43	4.10	3.81	3.74	( 99)
F	3.624**	4.980***	4.696***	0.797	1.025	

주: 1) 전체 대상자 분석 결과임.

2) 공동체참여기간별 비중은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1, \*\*\* p < .001.

### 3. 참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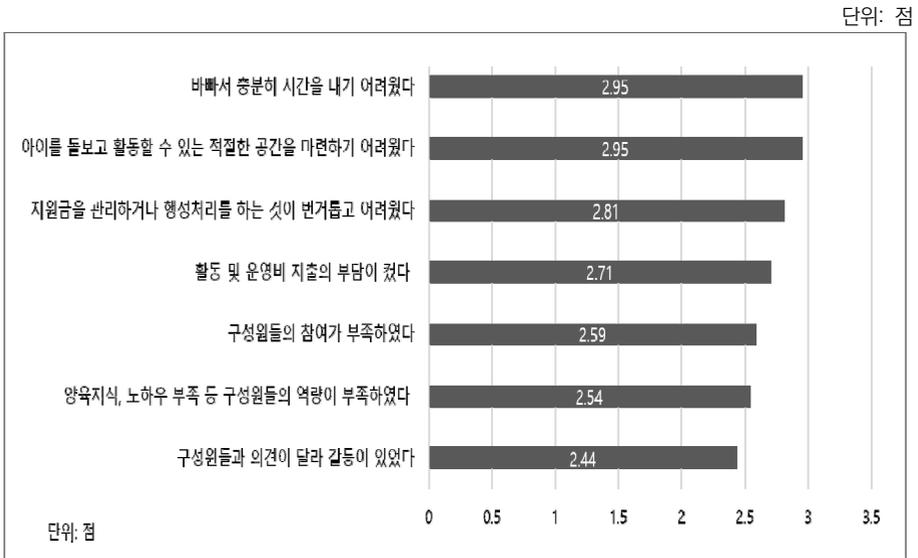
#### 가. 참여 중 어려움

##### 1) 육아공동체 참여시 전반적 어려움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에 대해 7개 항목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아이를 돌보고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평균 2.95점)와 '바빠서 충분히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평균 2.95점)이

며, 그 다음으로 ‘지원금을 관리하거나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웠다’(평균 2.81점), ‘활동 및 운영비 지출의 부담이 컸다’(평균 2.71점), ‘구성원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평균 2.59점), ‘양육지식, 노하우 부족 등 구성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였다’(평균 2.54점), ‘구성원들과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었다’(평균 2.44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3-1]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각 문항에 대해 1.전혀그렇지 않다~5.매우그렇다의 5점 척도를 평균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2) 특성별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

다음으로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이 육아공동체 경험자의 취업상태, 거주지역, 참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취업상태에 따라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구성원과 갈등 영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시간제·농어민, 휴무직 상태보다 어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바빠서 충분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전일제; 평균 3.19점, 시간제·농어민; 평균 2.81점, 휴무직; 평균 2.72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수도권 경험자가 비수도권 경험자보다 어려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지식, 노하우 부족 등 구성원 역량이 부족하였다’(수도권: 평균 2.68점, 비수도권: 평균 2.42점), ‘구성원들과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었다’(수도권: 평균 2.68점, 비수도권: 평균 2.42점), ‘활동 및 운영비 지출의 부담이 컸다’(수도권: 평균 2.82점, 비수도권: 평균 2.61점), ‘구성원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수도권: 평균 2.68점, 비수도권: 평균 2.51점)의 영역에서 수도권 경험자가 비수도권 경험자보다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육아공동체 참여형태가 자조모임으로만 구성된 경우와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 조직으로 구분하여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돌봄공간이 없이 자조모임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조모임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아이를 돌보고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 조직과의 어려움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조모임: 평균 3.07점,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 평균 2.77점). 한편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 조직의 경우 어려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평균 3.0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공동체 참여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 지원 등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3-1〉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

단위: 점, (명)

구분	구성원들과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었다	바빠서 충분히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구성원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	아이를 돌보고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지원금을 관리하거나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웠다	양육지식, 노하우 부족 등 구성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였다	활동 및 운영비 지출의 부담이 컸다	(수)
전체	2.44	2.95	2.59	2.95	2.81	2.54	2.71	(885)
취업상태								
전일제	2.52	3.19	2.67	3.05	2.89	2.68	2.84	(407)
시간제·농어민	2.33	2.81	2.63	2.98	2.88	2.51	2.71	(151)

구분	구성원들과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었다	바빠서 충분히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구성원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	아이를 돌보고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지원금을 관리하거나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웠다	양육지식, 노하우 부족 등 구성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였다	활동 및 운영비 지출의 부담이 컸다	(수)
휴무직	2.38	2.72	2.46	2.82	2.69	2.39	2.54	(327)
F	1.006	22.632***	4.806**	4.258*	3.472*	7.671***	6.965***	
거주지역								
수도권	2.55	2.95	2.68	3.00	2.87	2.68	2.82	(398)
비수도권	2.34	2.95	2.51	2.91	2.76	2.42	2.61	(487)
t	2.957**	0.059	2.744**	1.187	1.427	3.841***	2.893**	
참여형태								
자조모임	2.48	2.90	2.53	3.07	2.84	2.55	2.80	(543)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	2.36	3.03	2.68	2.77	2.76	2.53	2.56	(342)
F	1.770†	-1.795†	-2.280*	3.908***	1.038	0.254	3.256**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각 문항에 대해 1.전혀그렇지 않다~5.매우그렇다의 5점 척도를 평균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 .1, \* p < 0.05, \*\* p < 0.01, \*\*\* p < .001.

## 나. 참여중단 및 공동체의 해체

### 1) 참여중단 및 이유

본 조사에서 육아공동체 경험자는 0세~만8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취학 전의 영유아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 경험이 있는 자'이며, 이 중에는 '현재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육아공동체 유경험자 885명 중 578명으로 65.3%이며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307명으로 34.7%로 조사되었다. 이하에서는 육아공동체 유경험자 중 활동 중단자 307명을 대상으로 활동 중단의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를 순위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순위로 는 '직장 등 다른 일로 바빠져서'가 2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이가 보육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17.3%, '거주지 이전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져서' 17.3%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한편 1, 2순위를 합하면 1순위는 ‘직장 등 다른 일로 바빠져서’(38.4%)동일하나 2순위는 ‘아이가 보육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33.2%)가 ‘거주지 이전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져서’(24.1%)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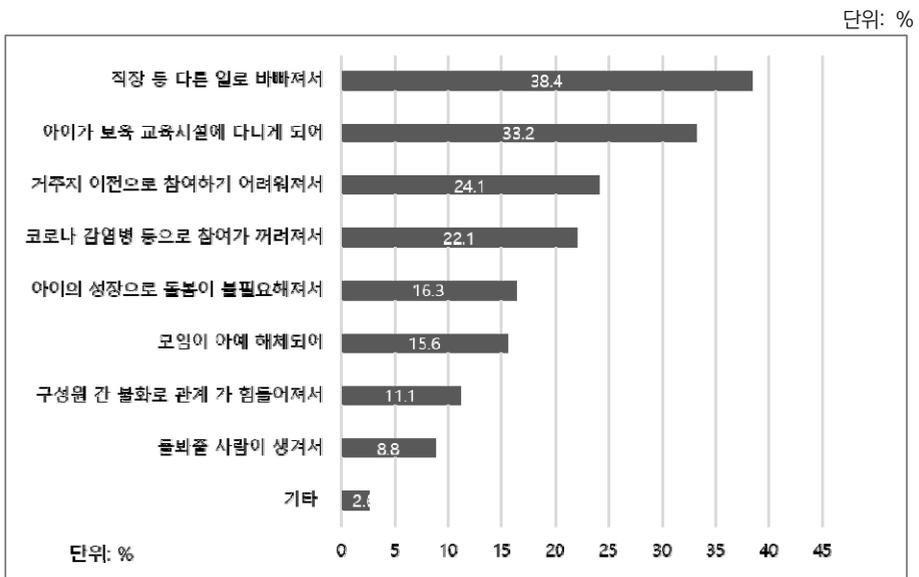
〈표 V-3-2〉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순위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모임이 아예 해체되어	11.1	6.3	15.6
거주지 이전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져서	17.3	9.5	24.1
구성원 간 불화로 관계가 힘들어져서	5.9	7.2	11.1
직장 등 다른 일로 바빠져서	23.8	20.3	38.4
돌보줄 사람이 생겨서	3.6	7.2	8.8
아이가 보육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17.3	22.1	33.2
아이의 성장으로 돌봄이 불필요해져서	8.1	11.3	16.3
코로나 감염병 등으로 참여가 꺼려져서	11.4	14.9	22.1
기타	1.6	1.4	2.6
(수)	100.0(307)	100.0(222)	(307)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현재 활동 중단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그림 V-3-2〉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1+2순위)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현재 활동 중단자(N=307)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를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우선 자녀연령에 따라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비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세 아동의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참여가 어려워져서’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세 아동의 경우 ‘아이가 보육교육 시설에 다니게 되어’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별로는 전일제와 시간제·농어민의 경우 ‘직장 등 다른 일로 바빠서’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고 휴무직인 경우는 ‘아이가 보육 교육 시설에 다니게 되어’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외의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참여가 어려워져서’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직장 등 다른 일로 바빠서’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V-3-3〉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특성별

단위: %(명)

구분	모임이 해체되 어	거주지 이전으 로 참여가 어려워 져서	구성원 간 관계 가 힘들어 져서	직장 등 다른 일로 바빠서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	아이가 보육 교육 시설에 다니게 되어	아이의 성장으로 돌봄이 불필요해 져서	코로나 감염병 등으로 참여가 꺼려져 서	기타	계(수)
전체	11.1	17.3	5.9	23.8	3.6	17.3	8.1	11.4	1.6	100.0(307)
자녀연령1										
0세	14.6	12.2	4.9	36.6	0.0	17.1	0.0	14.6	0.0	100.0(41)
1세	8.7	13.0	4.3	29.0	4.3	24.6	7.2	5.8	2.9	100.0(69)
2세	8.5	32.2	5.1	16.9	0.0	20.3	8.5	6.8	1.7	100.0(59)
3세	11.4	18.2	13.6	20.5	2.3	9.1	11.4	13.6	0.0	100.0(44)
4세	11.9	16.7	7.1	16.7	9.5	4.8	16.7	14.3	2.4	100.0(42)
5세	15.2	15.2	3.0	15.2	3.0	21.2	9.1	15.2	3.0	100.0(33)
6세	10.5	0.0	0.0	36.8	10.5	21.1	0.0	21.1	0.0	100.0(19)
$\chi^2$ (df)						66.095(54)*				
자녀연령2										
영아(0-2세)	10.1	19.5	4.7	26.6	1.8	21.3	5.9	8.3	1.8	100.0(169)
유아(3-6세)	12.3	14.5	7.2	20.3	5.8	12.3	10.9	15.2	1.4	100.0(138)
$\chi^2$ (df)						16.088(9)*				
취업상태										
전일제	10.9	19.9	6.4	26.9	5.8	9.6	6.4	12.8	1.3	100.0(156)
시간제·농어민	4.4	17.8	6.7	28.9	4.4	24.4	2.2	11.1	0.0	100.0(45)

구분	모임이 아예 해체되 어	거주지 이전으 로 참여가 어려워 져서	구성원 간 관계 가 힘들어 져서	직장 등 다른 일로 바빠서	돌보줄 사람이 생겨서	아이가 보육 교육 시설에 다니게 되어	아이의 성장으로 돌보미 불필요해 져서	코로나 감염병 등으로 참여가 꺼려져 서	기타	계(수)
휴무직	14.2	13.2	4.7	17.0	0.0	25.5	13.2	9.4	2.8	100.0(106)
$\chi^2$ (df)	32.914(18)**									
거주지역										
수도권	11.6	20.6	6.5	20.0	4.5	14.2	11.6	11.0	0.0	100.0(155)
비수도권	10.5	13.8	5.3	27.6	2.6	20.4	4.6	11.8	3.3	100.0(152)
$\chi^2$ (df)	16.468(9)*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현재 활동 중단자에 한해 조사함.

2) 1순위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  $p < 0.01$ .

## 2) 공동체의 해체

앞서 육아공동체의 활동 중단의 이유를 묻는 문항에 '모임이 아예 해체되어'라고 응답한 경우(1+2순위 응답자 N=48)에 한해 육아공동체의 해체 이유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였다.

육아공동체의 해체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의 경우 '아이들이 보육 및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18.8%, '코로나 감염병으로 모임이 어려워져서' 18.8%,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16.7%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의 경우는 '아이들이 보육 및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31.3%, '구성원들의 활동이 저조해져서' 31.3%, '코로나 감염병으로 모임이 어려워져서' 2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육아비중이 낮아지거나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해서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도 큼을 시사한다.

〈표 V-3-4〉 육아공동체 해체 이유: 순위별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16.7	11.1	25.0
아이들이 보육 및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18.8	16.7	31.3
구성원들의 거주지 이전으로 모이기 힘들어서	8.3	11.1	16.7
구성원들 간 불화로	12.5	2.8	14.6
구성원들의 활동이 저조해져서	12.5	25.0	31.3
운영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4.2	2.8	6.3
사업비 등 운영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4.2	8.3	10.4
공간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4.2	11.1	12.5
코로나 감염병으로 모임이 어려워져서	18.8	11.1	27.1
(수)	(48)	(36)	(48)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공동체 해체로 활동 중단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또한 사례수가 많지 않아 집단별 해석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공동체 시작 시기 자녀연령에 따라 구분해 보면, 영아시기에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경우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유보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해체되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아의 경우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모임이 해체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생이 되어 해체되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V-3-5〉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특성별

단위: %(명)

구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아이들이 유보육 시설에 다니게 되어	구성원 들의 거주지 이전으로	구성원 간 불화로	구성원 들의 활동이 저조 해져서	운영인력 수급의 어려움 으로	사업비 등 비용 어려움 으로	공간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 으로	코로나 감염병 으로 인해	계(수)
전체	16.7	18.8	8.3	12.5	12.5	4.2	4.2	4.2	18.8	100.0(48)
자녀연령2										
영아(0-2세)	12.5	33.3	8.3	4.2	20.8	8.3	0.0	0.0	12.5	100.0(24)
유아(3-6세)	20.8	4.2	8.3	20.8	4.2	0.0	8.3	8.3	25.0	100.0(24)
$\chi^2$ (df)	18.278(9)*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공동체 해체로 활동 중단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2) 1순위 응답자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한편 육아공동체 ‘부모들이 교류’하거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지낸다’는 응답은 각각 3.08점과 3.02점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평균점수는 낮지만 ‘자녀성장에 따라 초등돌봄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응답에 ‘그렇다’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27.1%를 보였으며, ‘마을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함께 함’과 같이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진다는 응답에 ‘그렇다’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도 29.2%로 조사되었다.

〈표 V-3-6〉 육아공동체 해체 후 교류 및 활동

단위: %, 점, (명)

구분	공동체 해체 후 교류 및 활동 정도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류하며 친목 모임을 가짐	10.4	18.8	33.3	27.1	10.4	3.08
자녀가 구성원들의 아이들과 어울려 지냄	12.5	16.7	33.3	31.3	6.3	3.02
자녀성장에 따라 초등방과후 돌봄 등 아동돌봄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졌음	14.6	25.0	33.3	18.8	8.3	2.81
취미,자기개발 등을 함께 함	12.5	22.9	43.8	14.6	6.3	2.79
마을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함께 함	14.6	18.8	37.5	25.0	4.2	2.85
(수)	(48)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공동체 해체로 활동 중단한 경우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다. 팬데믹 하의 활동

### 1) 팬데믹 상황에서 육아공동체 활동 도움 정도

다음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육아공동체 활동을 경험한 692명에게 육아공동체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팬데믹 하의 육아공동체 활동 도움 정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03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움이 되었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중은 전체의 80.2%로 높게 나타났다.

팬데믹 하 육아공동체의 도움 정도가 육아공동체 경험자의 자녀연령과 거주지역,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자녀연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영아와 유아 모두 평균 3.01과 3.04점으로 도

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팬데믹 하 육아공동체의 도움 정도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수도권 지역의 육아공동체 경험자(평균 3.12점)가 비수도권 지역의 경험자(평균 2.96점)보다 도움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한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동 지역의 육아공동체 경험자(평균 3.06점)가 읍면 지역의 경험자(평균 2.90점)보다 도움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7〉 팬데믹 하의 육아공동체의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팬데믹 하 육아공동체의 도움 정도						계(수)	평균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①+②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⑤ ③+④			
전체	0.06	13.4	19.8	51.0	29.2	80.2	100.0(692)	3.03
자녀연령2								
영아(0-2세)	7.4	13.7	21.1	48.8	30.1	78.9	100.0(336)	3.01
유아(3-6세)	5.3	13.2	18.5	53.1	28.4	81.5	100.0(356)	3.04
t			-0.479					
거주지역								
수도권	6.0	9.3	15.3	51.3	33.4	84.7	100.0(302)	3.12
비수도권	6.7	16.7	23.4	50.8	25.9	76.7	100.0(390)	2.96
t			2.597**					
지역특성								
동	6.3	12.3	18.6	50.4	30.9	81.3	100.0(559)	3.06
읍면	6.8	18.0	24.8	53.4	21.8	75.2	100.0(133)	2.90
t			1.996*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2) '해당없음(팬데믹 이전에 육아공동체 활동을 한 경우 등)' 응답자(N=193)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p < 0.01.

## 2) 팬데믹 상황에서 육아공동체 활동 도움 내용

팬데믹 상황에서도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험자들의 구체적인 도움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도움 내용 1순위는 '소규모였기에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로 전체의 44.3%가 응답하였다. 2순위는 '기존처럼 활동하진 못했지만 일부 구성원들과 육

아픔앓이를 하였다'로 전체의 41.8%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비대면으로 교류하면서 정보교환 등 도움을 주고받았다'가 38.9%, '긴급한 돌봄 필요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가 31.7%의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자들에게는 팬데믹 상황이라는 사회적 위기 가운데서도 육아공동체가 소규모의 운영을 통해, 육아픔앓이, 긴급 돌봄 및 비대면 정보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자원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3-8〉 팬데믹 하의 육아공동체 도움의 내용

단위: %, (명)

구분	전체 중 응답비중
소규모였기에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44.3
기존처럼 활동하진 못했지만 일부 구성원들과 육아픔앓이를 하였다	41.8
긴급한 돌봄 필요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31.7
비대면으로 교류하면서 정보교환 등 도움을 주고 받았다	38.9
기타	1.1
(수)	(555)

주: 1)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코로나19 상황에서 육아공동체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에 한해 조사함.

2)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4.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지원

### 가. 정부지원의 필요성 인식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93.1%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에 비하여 비수도권 거주자인 경우, 대도시/중소도시보다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영유아 시기 육아공동체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공동체 참여 기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참여기간이 길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인식

단위: %(명)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수)
전체		93.1	6.9	100.0(1,358)
거주 지역	수도권	91.3	8.7	100.0( 622)
	비수도권	94.6	5.4	100.0( 736)
		$\chi^2(df)$		5.516(2)*
지역 규모	대도시	92.7	7.3	100.0( 550)
	중소도시	92.4	7.6	100.0( 566)
	농어촌	95.5	4.5	100.0( 242)
		$\chi^2(df)$		2.627(4)
지역 특성	동	92.6	7.4	100.0(1,116)
	읍면	95.5	4.5	100.0( 242)
		$\chi^2(df)$		2.803(2) <sup>†</sup>
공동체 참여 여부	참여경험 있음	94.8	5.2	100.0( 885)
	참여경험 없음	89.9	10.1	100.0( 473)
		$\chi^2(df)$		11.724(2)***
공동체 참여 기간	1년 미만	92.6	7.4	100.0( 231)
	1~2년 미만	93.2	6.8	100.0( 192)
	2~3년 미만	96.6	3.4	100.0( 177)
	3~5년 미만	96.2	3.8	100.0( 186)
	5년 이상	97.3	3.0	100.0( 99)
		$\chi^2(df)$		6.049(8)

주: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공동체참여기간 문항은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 .1, \* p < 0.05, \*\*\* p < .001.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으로는 '관공서나 유희공간을 공동 돌봄 공간으로 개방' 33.8%, '육아공동체의 운영비 지원' 28.0%, '공동의 돌봄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12.7%로 나타났다. 1, 2순위 응답을 합한 분석에서도 '육아공동체의 운영비 지원'과 '관공서나 유희공간을 공동 돌봄 공간으로 개방'의 응답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4-2〉 정부/지자체의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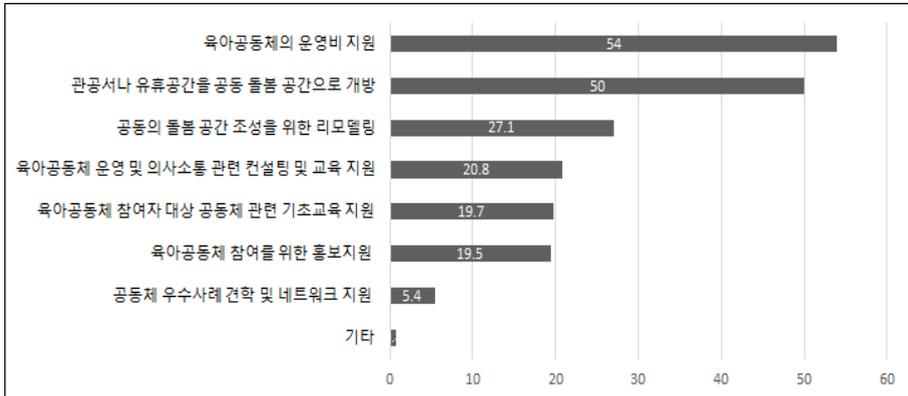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관공서나 유휴공간을 공동 돌봄 공간으로 개방	33.8( 427)	16.7( 205)	50.0(632)
육아공동체의 운영비 지원	28.0( 354)	26.7( 329)	54.0(683)
공동의 돌봄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12.7( 160)	14.9( 49)	27.1(343)
육아공동체 참여를 위한 홍보지원	9.2( 116)	10.6( 130)	19.5(246)
육아공동체 참여자 대상 공동체 관련 기초교육 지원	8.4( 106)	11.6( 143)	19.7(249)
육아공동체 운영 및 의사소통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6( 83)	14.6( 180)	20.8(263)
공동체 우수사례 견학 및 네트워크 지원	1.2( 15)	4.3( 53)	5.4( 68)
기타	0.2( 3)	0.6( 7)	0.8( 10)
(수)	100.0(1,264)	100.0(1,230)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그림 V-4-1〉 정부/지자체의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1+2순위)

단위: %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나. 정부지원의 경험

### 1) 정부지원 경험 및 도움정도

육아공동체 경험자에게 정부나 단체의 지원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3〉 참여 육아공동체의 정부/단체 지원 경험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48.8	51.2	100.0(885)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내용과 도움정도를 조사한 결과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가 97.7%로 대부분은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공간 지원 85.2%, 컨설팅 및 교육 지원 83.3%, 인력 지원 82.2%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받은 내용의 도움정도는 3.19~3.38점(4점 척도)으로 모든 지원이 다소 도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4〉 참여 육아공동체가 받은 정부/단체 지원의 종류 및 도움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의 도움정도				4점 평균
		①	②	③	④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다소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예산 지원	97.7 (422)	1.9	5.0	46.2	46.9	3.38
공간 지원(공간확보 및 설비수리 등)	85.2 (368)	5.2	11.4	42.1	41.3	3.20
컨설팅 및 교육 지원	83.3 (360)	3.6	8.9	48.9	38.6	3.23
인력 지원(강사, 돌봄인력 등)	82.2 (355)	5.4	11.5	41.7	41.4	3.19
(수) (정부지원 유형별 사례수)	(432)					

주: 육아공동체 경험자 중 정부지원 유형별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2) 정부지원 종료 후의 경험

현재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추후 지원이 종료된 이후 공동체 활동의 향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자체 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한다' 30.6%, '활동을 일시중단하거나 해체한다' 27.8%, '다른 자생적 방법을 찾는다' 21.1%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한편 1, 2순위를 합하면 일시중단하거나 해체한다보다 '자생적 방법을 찾는다' 45.4%, '자체 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한다'가 42.6%로 높아져 공동체 유지 방안이 높게 나타났다.

〈표 V-4-5〉 정부/단체 지원 종료 후의 활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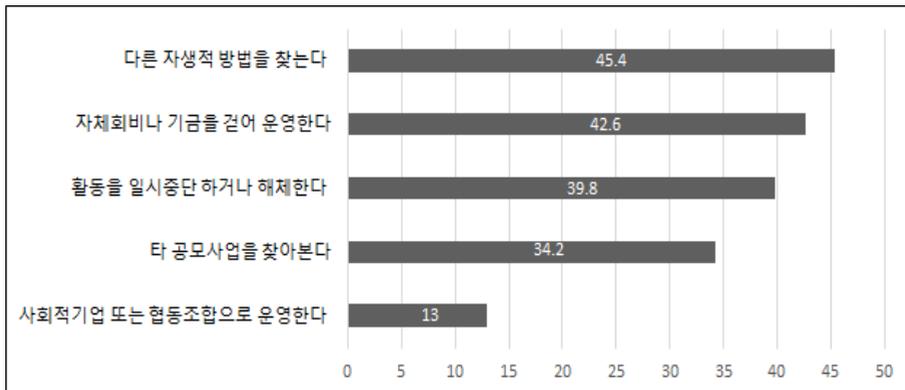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자체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한다	30.6( 87)	16.0( 34)	42.6(121)
활동을 일시중단 하거나 해체한다	27.8( 78)	16.4( 35)	39.8(113)
다른 자생적 방법을 찾는다	21.1( 60)	32.4( 69)	45.4(129)
타 공모사업을 찾아본다	15.5( 44)	24.9( 53)	34.2( 97)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	5.3( 15)	10.3( 22)	13.0( 37)
(수)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수)	100.0(284)	100.0(213)	

주: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육아공동체 활동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그림 V-4-2〉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전망 (1+2순위)

단위: %



주: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육아공동체 활동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현재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예상되는 어려움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86점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공동체 참여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자조모임보다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6〉 정부/단체 지원 종료 후의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명), 점

구분	⑤	④	③	②	①	계(수)	평균
	매우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별 차이 없을 것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체	27.5	44.4	17.3	8.1	2.8	100.0(284)	3.86
참여형태							
자조모임	19.1	50.6	19.1	7.9	3.4	100.0(178)	3.74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	41.5	34.0	14.2	8.5	1.9	100.0(106)	4.05
t							-2.505*

주: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육아공동체 활동자에 대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현재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부나 단체의 지원은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지원이 종료된 이후 활동 양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체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공모사업을 찾아 보고 있다' 22.1%,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 17.6%, '다른 자생적 방법 찾아 운영' 1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7〉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경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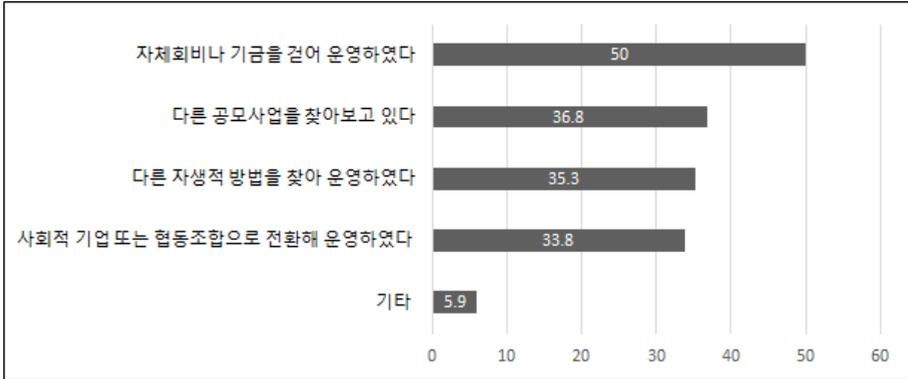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자체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하였다	38.2(26)	19.0( 8)	50.0(34)
다른 공모사업을 찾아보고 있다	22.1(15)	23.8(10)	36.8(25)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운영하였다	17.6(12)	26.2(11)	33.8(23)
다른 자생적 방법을 찾아 운영하였다	16.2(11)	31.0(13)	35.3(24)
기타	5.9( 4)	0.0( 0)	5.9( 4)
(수) (정부지원 유경험자 중 정부지원이 종료된 사례수)	100.0(68)	100.0(42)	

주: 정부지원 종료 경험자에 대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그림 V-4-3]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경험 (1+2순위)

단위: %



주: 정부지원 종료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현재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부나 단체의 지원은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지원이 종료된 이후 지원전과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비교한 결과 평균 3.41점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동체 참여 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4-8> 정부지원 종료 후의 어려움

단위: %(명), 점

구분	⑤	④	③	②	①	계(수)	평균
	매우 어려웠다	어려웠다	별 차이가 없었다	어렵지 않았다	전혀 어렵지 않았다		
전체	8.8	39.7	39.7	7.4	4.4	100.0(68)	3.41
참여형태							
자조모임	11.6	32.6	46.5	7.0	2.3	100.0(43)	3.44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	4.0	52.0	28.0	8.0	8.0	100.0(25)	3.36
t							0.352

주: 정부지원 종료 경험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5. 육아공동체 참여의향

### 가. 육아공동체 참여를 안(못)한 이유

영유아 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로 ‘육아공동체를 잘 몰라서’ 60.9%, ‘참여 가능한 육아공동체의 정보가 없어서’의 응답비중이 54.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육아공동체를 알지만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응답비중은 11.2%로 적은 비중을 보였다.

〈표 V-5-1〉 육아공동체 참여를 못한 이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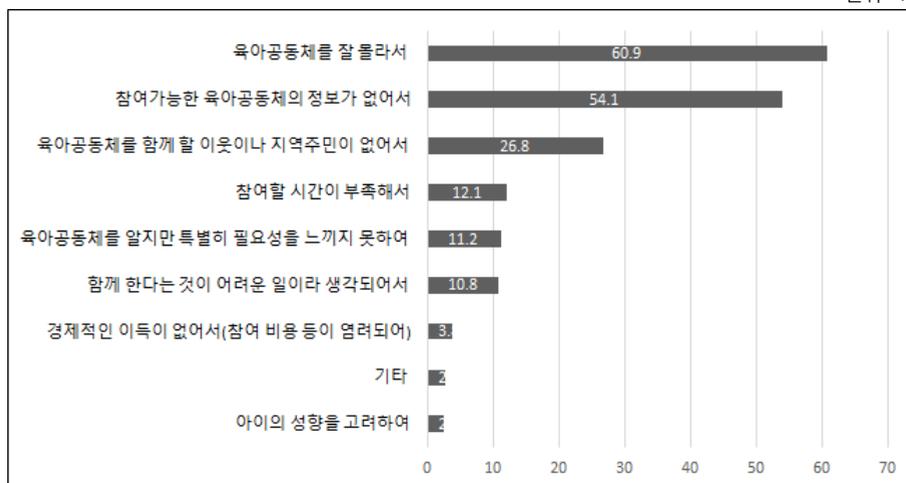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육아공동체를 잘 몰라서	54.1(256)	7.2( 32)	60.9(288)
참여 가능한 육아공동체의 정보가 없어서	16.1( 76)	40.4(180)	54.1(25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9.3( 44)	12.6( 56)	21.1(100)
육아공동체를 함께 할 이웃이나 지역주민이 없어서	9.1( 43)	18.9( 84)	26.8(127)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어서	3.2( 15)	8.1( 36)	10.8( 51)
아이의 성향을 고려하여	0.4( 2)	2.2( 10)	2.5( 12)
육아공동체를 알지만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5.9( 28)	5.6( 25)	11.2( 53)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참여 비용 등이 염려되어)	0.0( 0)	4.0( 18)	3.8( 18)
기타	1.9( 9)	0.9( 4)	2.7( 13)
(수)	100.0(473)	100.0(445)	

주: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그림 V-5-1〕 육아공동체 참여를 못한 이유

단위: %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영유아 시기 육아공동체 참여를 못한 이유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유사하나 세 번째 이유로 0~1세 부모의 경우는 '시간부족'보다는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세 부모의 경우 '육아공동체를 알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 비중은 2.3%로 적게 나타났다.

〈표 V-5-2〉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순위

단위: %(명)

분	육아공동체를 잘 몰라서	참여 가능한 육아공동체의 정보가 없어서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할 이웃이나 지역주민이 없어서	육아공동체를 알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아이의 성향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	기타	계(수)
전체	54.1	16.1	9.3	9.1	5.9	3.2	0.4	0.0	1.9	100.0(473)
자녀연령1										
0세	61.4	18.2	0.0	9.1	2.3	2.3	0.0	0.0	6.8	100.0( 44)
1세	57.5	11.0	5.5	11.0	9.6	2.7	0.0	0.0	2.7	100.0( 73)
2세	54.0	13.8	12.6	8.0	5.7	3.4	1.1	0.0	1.1	100.0( 87)
3세	52.9	15.7	12.9	5.7	8.6	0.0	0.0	0.0	4.3	100.0( 70)
4세	55.6	18.5	5.6	13.0	5.6	1.9	0.0	0.0	0.0	100.0( 54)
5세	49.3	18.8	14.5	5.8	4.3	5.8	1.4	0.0	0.0	100.0( 69)
6세	51.3	18.4	9.2	11.8	3.9	5.3	0.0	0.0	0.0	100.0( 76)
자녀연령2										
영아(0-2세)	56.9	13.7	7.4	9.3	6.4	2.9	0.5	0.0	2.9	100.0(204)
유아(3-6세)	52.0	17.8	10.8	8.9	5.6	3.3	0.4	0.0	11.1	100.0(269)

주: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1순위 응답에 한해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나. 희망하는 참여유형 및 활동

### 1) 영유아 돌봄 활동

영유아 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육아공동체 참여유형에 대해 향후 참여 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조모임형 활동보다는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형 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3〉 영유아 돌봄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참여희망 정도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참여 하고 싶지 않다	참여 하고 싶지 않다	보통 이다	참여 하고 싶다	매우 참여 하고 싶다	
자조모임형						
이웃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봐줌	2.7	11.6	33.0	45.2	7.4	3.43
이웃 부모들과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봐줌(푼앗이 돌봄)	6.3	17.8	32.1	37.2	6.6	3.20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형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3.6	9.1	31.9	44.2	11.2	3.50
공동 돌봄공간에서 아이가 돌봄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음	3.2	10.4	30.2	44.8	11.4	3.51
(수)	100.0(473)					

주: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육아공동체 참여유형에 대한 향후 참여 의사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형에 대해 영아 자녀인 경우가 유아 자녀인 경우보다 참여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5-4〉 영유아 돌봄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연령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자녀연령2		t
		영아	유아	
자조모임형				
이웃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봐줌	3.43	3.47	3.40	0.777
이웃 부모들과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봐줌(푼앗이 돌봄)	3.20	3.20	3.20	0.042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형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3.50	3.59	3.43	1.828 <sup>†</sup>
공동 돌봄공간에서 아이가 돌봄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음	3.51	3.60	3.44	1.794 <sup>†</sup>
(수)	(473)	(204)	(269)	

주: 1)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2)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점~매우 참여하고 싶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 .1.

육아공동체 참여유형별로 향후 참여 의사를 현재 자녀의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거나, 기관과 서비스 모두 이용 안하고 있는 부모보다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향후 참여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5-5〉 영유아 돌봄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의 기관이용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자녀의 기관이용			F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돌보미 등	이용 안함	
자조모임형					
이웃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봐줌	3.43	3.45	3.57	3.30	1.114
이웃 부모들과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봐줌(품앗이 돌봄)	3.20	3.23	3.29	3.03	1.357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형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3.50	3.47	4.07	3.57	2668 <sup>†</sup>
공동 돌봄공간에서 아이가 돌봄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음	3.51	3.52	4.00	3.34	2904 <sup>†</sup>
(수)	(473)	(382)	(14)	(77)	

주: 1)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2)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점~매우 참여하고 싶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 .1.

## 2) 육아관련 활동

영유아 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육아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향후 참여 희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에 대한 참여의사가 약 4점(5점 척도)으로 참여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등하원 등을 위한 이동을 해줌', '육아 관련 교육 참여, 상담활동', '이유식 등을 만들어 교환'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참여의사를 보였다.

〈표 V-5-6〉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단위: %, 점, (명)

구분	참여희망 정도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2.3	5.5	22.4	54.5	15.2	3.75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	2.7	7.0	27.1	51.8	11.4	3.62
등하원 및 기타 육아활동을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 가며 함께 함	3.2	12.5	28.1	44.8	11.4	3.49
육아 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2.3	9.3	34.9	45.5	8.0	3.48
자녀의 이유식 혹은 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교환해 나눔	4.9	15.9	33.6	36.4	9.3	3.29
(수)	(473)					

주: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육아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향후 참여 희망 정도를 자녀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활동에 대해 영아 부모의 경우 유아 부모보다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 '등하원 등을 위한 이동을 해줌' 활동에서 나타났다.

〈표 V-5-7〉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연령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자녀연령2		t
		영아	유아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3.75	3.82	3.69	1.653 <sup>†</sup>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	3.62	3.68	3.58	1.186
등하원 및 기타 육아활동을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 가며 함께 함	3.49	3.60	3.41	2.174 <sup>*</sup>
육아 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3.48	3.52	3.44	0.969
자녀의 이유식 혹은 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교환해 나눔	3.29	3.37	3.23	1.489
(수)	(473)	(204)	(269)	

주: 1)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2)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점-매우 참여하고 싶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sup>†</sup> < .1, \* p < 0.05.

육아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향후 참여 희망 정도를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적으로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경우의 참여희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V-5-8〉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의 기관이용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자녀의 기관이용			F
		어린이집/유치원	학원, 돌보미 등	이용안함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3.75	3.73	3.71	3.84	0.568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	3.62	3.61	3.93	3.61	0.883
등하원 및 기타 육아활동을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 가며 함께 함	3.49	3.46	3.79	3.56	1.008
육아 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3.48	3.47	3.57	3.48	0.130
자녀의 이유식 혹은 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교환해 나눔	3.29	3.29	3.43	3.31	0.152
(수)	(473)	(382)	(14)	(77)	

주: 1)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2)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점-매우 참여하고 싶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3) 돌봄공간 운영

영유아 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공동 돌봄공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향후 참여 희망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필요한 책이나 물품 기증'에 대해서는 참여의사가 높았고, '청소, 정리정돈, 급간식 지원', '운영진으로 참여'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표 V-5-9〉 돌봄공간 운영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단위: %, 점, (명)

구분	참여희망 정도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공동 돌봄공간의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기증함	1.3	3.2	26.4	57.3	11.8	3.75
공동 돌봄공간의 청소, 정리정돈, 급간식을 지원함	3.4	9.5	31.5	46.7	8.9	3.48
공동 돌봄공간의 운영진으로 참여함	8.5	25.4	39.3	21.6	5.3	2.90
(수)	(473)					

주: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4) 기타 활동

영유아 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밖의 기타 공동체 활동에 대한 향후 참여 희망을 조사한 결과 '취미활동을 함께 함', '교육훈련, 자기개발 등 활동을 함께 함'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내 유사 타 모임과의 교류',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표 V-5-10〉 기타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단위: %, 점, (명)

구분	참여희망 정도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독서모임, 글쓰기, 운동 등 취미 활동을 함께 함	2.7	5.9	31.5	48.4	11.4	3.60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준비 등의 활동을 함께 함	2.7	7.2	31.1	46.5	12.5	3.59
지역 내 비슷한 활동을 하는 모임(조직, 기관 등)과 교류함(장터 등 행사 공동개최 포함)	4.4	11.2	36.6	40.2	7.6	3.35
상품제작 판매, 동네장터 참여 등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함	5.1	14.6	34.9	35.3	10.1	3.31
(수)	(473)					

주: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그 밖의 기타 공동체 활동에 대한 향후 참여 희망을 자녀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아 부모의 경우 영아 부모보다 참여의사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활동은 '지역 내 유사 타 모임과의 교류' 뿐이었다.

〈표 V-5-11〉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연령 2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자녀연령2		t
		영아	유아	
독서모임, 글쓰기, 운동 등 취미 활동을 함께 함	3.60	3.58	3.61	-0.433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준비 등의 활동을 함께 함	3.59	3.56	3.61	-0.507
지역 내 비슷한 활동을 하는 모임(조직, 기관 등)과 교류함(장터 등 행사 공동개최 포함)	3.35	3.32	3.38	-2.237*
상품제작 판매, 동네장터 참여 등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함	3.31	3.25	3.35	-1.103
(수)	(473)	(204)	(269)	

주: 1)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2)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점~매우 참여하고 싶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p < 0.05$ .

## 다. 육아공동체를 통한 돌봄 공백 해결의향

하루 일과와 상황별로 돌봄 공백 여부와 공백이 있는 경우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공백 해소 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돌봄 공백은 '경조사,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가 39.7%, '어린이집, 유치원 방학 등 기관 미이용 시'가 35.3%, '평일 늦은 오후(오후 4시 이후)'가 26.0%로 높았다. 돌봄 공백 발생 시 육아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향도 방학 등 기관 미이용시가 79.6%, 평일 늦은 오후(오후 4시 이후)가 72.4%, 긴급상황 발생 시가 70.7%로 높았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영아 부모의 경우 유아 부모보다 특히 평일 아침(오전 9시경), 평일 저녁(오후 7시 이후), 주말,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공백 발생 시 육아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향은 모든 상황에서 영아 부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5-12〉 돌봄공백 발생 여부 및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해결의향: 전체, 자녀연령 2

단위: %(명)

내용	전체			영아			유아					
	없다	돌봄공백 여부		없다	돌봄공백 여부		없다	돌봄공백 여부				
		있다	육아공동체를 통한 해결의향		있다	육아공동체를 통한 해결의향		있다	육아공동체를 통한 해결의향			
평일아침(오전9시경)	77.4 (366)	22.6 (107)	42.1 (45)	57.9 (62)	75.0 (153)	25.0 (51)	41.2 (21)	58.8 (30)	79.2 (213)	20.8 (56)	42.9 (24)	57.1 (32)
평일오전(정오전)	83.3 (394)	16.7 (79)	38.0 (30)	62.0 (49)	83.8 (171)	16.2 (33)	30.3 (10)	69.7 (23)	82.9 (223)	17.1 (46)	43.5 (20)	56.5 (26)
평일늦(오후4시전)	81.6 (386)	18.4 (87)	40.2 (35)	59.8 (52)	80.9 (165)	19.1 (39)	38.5 (15)	61.5 (24)	82.2 (221)	17.8 (48)	41.7 (20)	56.3 (27)
평일늦은오후(오후4시후)	74.0 (350)	26.0 (123)	27.6 (34)	72.4 (89)	74.5 (152)	25.5 (52)	23.1 (12)	76.9 (40)	73.6 (198)	26.4 (71)	31.0 (22)	69.0 (49)
평일 저녁(오후7시후)	80.1 (379)	19.9 (94)	42.6 (40)	57.4 (54)	78.9 (161)	21.1 (43)	39.5 (17)	60.5 (26)	81.0 (218)	19.0 (51)	45.1 (23)	54.9 (28)
주말	81.2 (384)	18.8 (89)	39.3 (35)	60.7 (54)	78.4 (160)	21.6 (44)	38.6 (17)	61.4 (27)	83.3 (224)	16.7 (45)	40.0 (18)	60.0 (27)
방학 등 기간 미이용시	64.7 (306)	35.3 (167)	20.4 (34)	79.6 (133)	64.7 (132)	35.3 (72)	15.3 (11)	84.7 (61)	64.7 (174)	35.3 (95)	24.2 (23)	75.8 (72)
긴급상황 발생시	60.3 (285)	39.7 (188)	29.3 (55)	70.7 (133)	55.4 (113)	44.6 (91)	25.3 (23)	74.7 (68)	63.9 (172)	36.1 (97)	33.0 (32)	67.0 (65)
계	100.0(473)				100.0(204)				100.0(269)			

주: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대해 조사함 /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낮 시간 동안 이용하는 육아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하루 일과와 상황별로 돌봄 공백 여부와 공백이 있는 경우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공백 해소 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평일 하루 일과 중의 돌봄 공백 발생 비율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경우 더 높았다. 한편 방학 등 기관 미이용 시와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 비율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더 높았다.

돌봄 공백 발생 시 육아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향은 모든 육아 형태에서 평일 늦은 오후(오후 4시 이후)에 대해 육아공동체 활용 의향이 높은 편이었다. 그 외에 육아 형태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인 경우 방학 중 육아공동체 활용 의향이 높은 편이었고, 반일제 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이용인 경우는 평일 저녁(7시 이후)과 주말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았고, 미이용인 경우는 평일 오전(정오 전)과 평일 낮(오후 4시 이전),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V-5-13〉 돌봄공백 발생 여부 및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해결의향: 자녀의 기관이용

단위: %(명)

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공백 여부			학원, 돌보미, 시터 등 돌봄공백 여부			이용안함 돌봄공백 여부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육아공동체를 통한 해결의향	해결의향		육아공동체를 통한 해결의향	해결의향						
평일아침(오전9시경)	75.9 (290)	24.1 (92)	39.1 (36)	60.9 (56)	64.3 (9)	35.7 (5)	40.0 (2)	60.0 (3)	87.0 (67)	13.0 (10)	70.0 (7)	30.0 (3)
평일오전(정오 전)	83.0 (317)	17.0 (65)	40.0 (26)	60.0 (39)	64.3 (9)	35.7 (5)	40.0 (2)	60.0 (3)	88.3 (68)	11.7 (9)	22.2 (2)	77.8 (7)
평일낮(오후4시 전)	81.2 (310)	18.8 (72)	41.7 (30)	58.3 (42)	64.3 (9)	35.7 (5)	60.0 (3)	40.0 (2)	87.0 (67)	13.0 (10)	20.0 (2)	80.0 (8)
평일 늦은오후(오후4 후)	71.7 (274)	28.3 (108)	27.8 (30)	72.2 (78)	71.4 (10)	28.6 (4)	25.0 (1)	75.0 (3)	85.7 (66)	14.3 (11)	27.3 (3)	72.7 (8)
평일 저녁(오후7시 후)	79.6 (304)	20.4 (78)	43.6 (34)	56.4 (44)	64.3 (9)	35.7 (5)	20.0 (1)	80.0 (4)	85.7 (66)	14.3 (11)	45.5 (5)	54.5 (6)
주말	80.6 (308)	19.4 (74)	40.5 (30)	59.5 (44)	78.6 (11)	21.4 (3)	0.0 (0)	100.0 (3)	84.4 (65)	15.6 (12)	41.7 (5)	58.3 (7)
방학 등 기관 미이용 시	60.7 (232)	39.3 (150)	20.0 (30)	80.0 (120)	64.3 (9)	35.7 (5)	40.0 (2)	60.0 (3)	84.4 (65)	15.6 (12)	16.7 (2)	83.3 (10)
긴급상황 발생시	58.4 (223)	41.6 (159)	30.2 (48)	69.8 (111)	64.3 (9)	35.7 (5)	40.0 (2)	60.0 (3)	68.8 (53)	31.2 (24)	20.8 (5)	79.2 (19)
계	100.(382)			100.0(14)			100.0(77)			100.0(77)		

주: 육아공동체 미참여자에 한해 조사함 / 자료: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 6.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주민조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육아공동체 경험이 없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공동체를 통한 영유아 돌봄 활동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대상 정책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웃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봐줌'의 참여하고 싶다(참여하고 싶다+매우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비중은 52.6%, '이웃부모들과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봐줌(푼맛이 돌봄)'의 응답비중은 43.8%로 나타났으며,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와 함께 아이를 돌봄'에는 55.4%, '공동 돌봄공간에서 아이가 돌봄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음'의 비중은 56.2%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영유아의 연령과 기관이용여부, 부모의 근로형태에 따라 참여계기나 참여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지원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우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구에게 육아공동체는 효과적인 육아자원이 될 수 있다. 육아공동체 참여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기관 미이용 가구의 경우 공동체 참여만족도가 높고 육아공동체에 대한 추천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육아공동체 참여계기 분석결과에서도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영아 부모의 경우 '혼자 육아하는 것이 힘들어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해 독박육아로 일컬어지는 양육자의 소외와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육아공동체가 가정양육을 하는 영아부모의 양육자원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2023년부터 0~1세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 가구에 대한 육아공동체 지원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함이 강조된다.

셋째, 기관 이용 가구에게 육아공동체는 돌봄공백을 메꿔주는 등 보완체로 기능할 수 있다. 영유아의 기관이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육아공동체 참여자의 72.1%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 이용가구로 나타났으며, 육아공동체에 참여하는 경

우 주요활동의 이용횟수 등을 분석해보면 기관이용가구의 참여정도가 기관 미이용 가구보다 낮지 않게 분석된다. 또한 반일제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도 주목할 만하다. 이 집단의 경우 기관 이용 부모나 이용하거나 기관 미이용 부모보다 영유아 돌봄 활동의 횟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소 학원, 돌보미 등 짧고 유동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육아공동체를 통한 돌봄과 연계해 돌봄공백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부모의 취업상태에 시간제나 농어민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 조직에서의 영유아 돌봄 경험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도 연계해 논의해 볼만하다. 이는 영유아 자녀의 기관이용과 부모의 근로형태에서 유연한 생활패턴을 지닌 집단에게 융통성 있고 반응적인 공동체적 방식의 돌봄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육아공동체 활동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영유아돌봄 활동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육아관련 활동의 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육아공동체가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 이외에도 등하원 도움, 이유식 나누기 등의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육아공동체를 통한 기타활동 조사 결과, 독서모임,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함께 한다는 비중이 48.5%로 절반가량에 달했으며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활동의 비중은 확연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들의 취미활동은 물론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취업활동을 함께 하고 이를 토대로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동체 참여효과 점수는 참여기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참여는 자발성에 기초하기에 경험자들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육아공동체를 통해 얻는 것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야야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참여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연적으로 효과성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공동체 참여기간과 효과성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공동체의 지속성 높이고 참여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가 초등대상 공동체로 이어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육아공동체 만족도 분석 결과 영유아와 초등을 포괄하는 경우가 만족도나 추천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육아공동체 해체 이후

의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성장에 따라 초등돌봄 활동으로 이어지거나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진다고 응답한 비중의 경우가 각각 27.1%, 29.2%로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거나 지역사회 참여로 확장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육아공동체의 특성상 자녀성장에 따른 중단과 해체가 빈번할 수 밖에 없으나 초등돌봄 공동체로 이어지거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확장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영유아기 육아공동체 이후의 활동에도 주목하고 영유아 돌봄 중심의 육아공동체가 초등돌봄으로 이어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육아공동체에 대한 공간 및 인력지원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공동체 참여의 어려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이를 돌보고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와 ‘바빠서 충분히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장시간 근로시간의 문제와 더불어 공간확보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 자조모임에 비해 돌봄공간이 있는 공동체조직인 경우 구성원들 참여가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는 정도가 커 돌봄공간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지원방안을 조사한 결과 ‘관공서나 유희공간을 공동 돌봄 공간으로 개방’에 33.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공동의 돌봄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도 12.7%의 응답률을 보여 공간에 대한 지원 요구가 큰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공동 돌봄공간에 상주하는 돌봄인력 조사 결과 부모와 자원봉사자의 비중이 각각 22.9%, 26.5% 전체의 절반이상이 되어 부모당사자와 자원봉사자 등 자원활동가 그룹이 상시인력으로 활동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확인된 한편, 육아공동체 무경험자 부모에게 돌봄공간 운영진으로의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참여의향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즉, 운영진으로의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어 운영인력 지원이나 운영활동시의 보상강화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VI

## 육아공동체 운영의 실제: 사례분석

- 01 중앙정부 지원사업 사례
- 02 지방정부 지원사업 사례
- 03 소결



## VI. 육아공동체 운영의 실제: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공동체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사업을 고르게 배분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총 4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각 사례별로 운영자(또는 참여부모 대표) 1인, 참여부모 2~3인, 지원사업 담당자 1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인터뷰 결과와 각 공동체의 내부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 1. 중앙정부 지원사업 사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사례로는 서울 구로구의 ‘새싹차일드’와 충남 홍성군의 ‘숲 친구들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사례는 2022년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육아공동체로 공동육아나눔터 및 품앗이 사업을 경험하였다.

#### 가. 서울 구로구: 새싹차일드

##### 1) 추진 배경 및 경과

서울 구로구에서는 2018년에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 개소하여 같은 해에 8개 품앗이를 시작으로 2019년 13개소, 2020년 15개소, 2020년 15개소, 2021년 18개소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019년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20~2021년에는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총 6개의 공동체를 발굴하였고, 같은 기간에 구로구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 지역에서 공적 부문에서 다양한 돌봄이 지원되나 수요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를 통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지역 내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하고, 돌봄공동체의 확장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지역은 동서로 생활권이 나뉘고, 지역간의 연계 체계가 미흡하며, 2019년에 공공주택지구에 약 5,000 세대가 이주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영유아를 양육하는 신혼부부들이 주로 입주하고 있으나, 돌봄시설 및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2020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작은도서관이 개관하여 돌봄 및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이다.

동 지역의 지원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아이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과 동시에 공동육아와 품앗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서로 친해지고 싶으나 쉽사리 친해지기 어렵고 같이 놀고 있지만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자녀돌봄 품앗이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보호자와 아동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 2) 참여 동기 및 기관 특성

새싹차일드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자녀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놀이 활동을 확장하는 등 사회성 발달이 주요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부모들이 자녀의 개별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즉 부모 역량의 강화를 위한 목적도 언급되었다.

참여부모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녀의 기질 등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퀄리티 높은 교육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좋아하는지 엄마들은 잘 모릅니다. 집에서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프로그램 아이디어 등) 공동체 방식의 육아를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의 기질을 파악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구로구\_참여부모 1)

참여부모2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부모가 양육의 주체로서 참여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래 아이들의 발달과 아이별/성별/형제 관계별 성향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부모의 육아방식을 통해 자신의 자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양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위 부모들의 관심도는 높은 편이나 참여(형성) 방법, 참여 시 의무사항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향이 없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하였다.

참여부모3은 자녀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기관 이외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공동체 방식의 육아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되, 자녀들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며, 엄마가 몰랐던 아이들의 특성과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만 형성된 관계 외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확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놀이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_참여부모3)

### 3) 운영방식과 정부지원

서울 구로구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에 의하면, 활동조건으로 일상돌봄, 틈새돌봄, 긴급돌봄을 진행하고, 정기적인 운영회의와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싹차일드는 평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2~6세아 총 8명(2세 1명, 4세 2명, 6세 5명)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틈새돌봄이나 긴급돌봄 시 각 가정의 순번을 정하여 돌봄에 동참하고 있다. 돌봄 장소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서 지역 내 도서관이나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돌봄활동 시에 도서관을 대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구로구 지역에서는 공동체별로 300만원 내외를 지원하되, 이는 공동체 구성, 활동 내용, 돌봄 아동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책정하고 해당 비용은 재료비, 간식비, 외부강사비, 체험료 및 입장료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비용은 단, 만 0세~만 12세 아동의 돌봄이 가능한 단체(주민모임) 4개소, 돌봄주체자 5인, 돌봄아동 8인 이상을 모두 충족할 시에 지원된다.

다음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구로구 가족센터는 소속 공동체에서는 새싹차일드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한 지원과 공동체별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하고, 월 1회 이상의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계획이나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 주고 있다. 지역 내 자원으로는 돌봄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의 섭외나 강사 소개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계획서 작성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받고, 돌봄공동체 선정 후에는 사업설명회와 예산 집행정산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여 공동체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연간 2회에 걸쳐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하여 돌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을 행사를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돌봄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돌봄공동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유관 기관을 방문하고, 방문 시 유희공간 등을 확인하여 공동체에 연계하며, 네트워크 활동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공동체 구성원의 탈락 시에 충원이 가능하도록 홍보 및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 4) 주요활동 및 참여 효과

새싹차일드에서는 주 2회 3시간(오후 4시 반~7시 반) 정도 부모모임을 하고, 주로 다양한 오감활동, 자연체험(수목원, 단지 내 텃밭), 견학(뮤지컬, 어린이박물관)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긴급돌봄과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이들은 긴급돌봄 시에는 색칠공부, 클레이, 색종이 접기 등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어린이집 하원 후에는 주로 수목원 걷기, 텃밭 관찰, 놀이터에서 놀기 등 틈새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부모1은 틈새보육과 긴급보육 시 다양한 활동 이외에도 집담감염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게 키트나 간식 등을 제공하였던 점도 언급하였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기 키트나 간식 등을 서로 집에 가져다주었습니다. 대면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프로그램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급한 개인적인 일로 품앗이 돌봄으로 육아공동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 2회는 만나다 보니 아이들도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익숙하여 별 탈 없이 돌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구로구\_참여부모3)

참여부모2는 자녀가 유치원 하원 후에 평균 3시간을 활동하고, 주 2회, 월 8회의 정기적 모임과 추가적 비정기적 모임을 진행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지역 내 수목원이나 공원 등 지역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 텃밭 활동, 신체놀이, 미술놀이, 오감놀이 등 2~6세아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평소에 교육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성향은 아니었으나 공동체 활동 후 정보와 참여 기회 및 만족을 통해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이들 활동을 통해 참여부모1과 3은 틈새보육뿐만 아니라, 아동과 부모가 동시에 성장하고 지역주민과도 원활하게 소통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부모들의 육아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육아에는 정답은 없지만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자세도 배울 수 있었고, 때로는 육아가 힘들어 할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어린이집에만 보냈더라면 다른 육아방식과 아이들이 성향 등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웃과의 소통, 교류도 활발해져 아이들 역시도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서울 구로구\_참여부모1)

아이들은 놀면서 가장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모여서 노는 동안 아이들도 배우며 성장하고 돌봄 주체자 또한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같이 놀며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것이 돌봄공동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구로구\_참여부모3)

구로구에서는 돌봄공동체 활동을 통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힘이 되고 맞벌이 가정도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돌봄이 빈번해지는 상황이므로 함께 돌봄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5) 향후 계획 및 지원요구

우선 새싹차일드 운영의 어려움으로 참여부모2는 돌봄 장소의 지원과 활동 횟수가 제한되어 다양한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곳은 날씨가거나 돌봄 프로그램 특성상 실내 활동이 필요할 때 총 인원(돌봄주체자 5인, 자녀 8명)이 개별 가정에서 활동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가정의 부담이 크고, 2~6세아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의 선정에도 어려움

이 있으며, 특히 외부 체험활동 시에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데 지원조건으로 활동횟수가 제한되어 자녀연령별로 충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의 지원자는 획일적인 모임 횟수가 부담스럽다고 언급하고, 해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하며, 돌봄 인프라가 별도로 없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_e나라도움)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정해져 있는 주 2회 이상이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과 부모의 상황에 따라 모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관심사와 성향이 달라서 의견을 한분 한분 물어보기도 하고 소통을 위해 힘쓰다 보니 제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서울 구로구\_지원자)

다음으로 지원요구로는 돌봄 공간에 대한 지원이 참여부모와 지원자 모두에서 강조되었으며, 지역 내 자원 연계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참여부모는 돌봄 공간의 확보와 견학, 체험 등 어린이 관련 정부 및 지자체 기관/시설 이용 시 지원 공동체의 우선지원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돌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시설(체험이나 과학관 등) 등 예약 서비스, 우선 이용제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지원자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며,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관하여 운영자는 맞벌이 가구에서 긴급보육이나 일시보육 수요가 발생한 경우 품앗이 방식의 육아는 지속적인 수요를 지니고 있고, 소규모의 특성상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부모 및 아동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부모 대상의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의 돌봄공동체 사업담당자는 해당 지역에 숲, 텃밭, 수목원 등이 잘 조성되어 이들 자원을 활용하여 숲놀이 자연체험과 신체활동 오감 놀이 등의 활동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나. 충남 홍성군: 숲친구들 협동조합

### 1) 추진 배경 및 경과

충남 홍성군의 숲친구들 협동조합은 2019년 1월 당시 3세아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품앗이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품앗이 모임의 부모들은 생태 및 자연놀이에 공동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9월 산림청 산하 산림일자리발전소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하게 된다<sup>50)</sup>. 이 사업의 결과로 2020년 11월에 숲친구들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21년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선정되어 2022년 현재까지 돌봄공동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운영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홍성군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체로 선정되는 등 지역 사회 내 돌봄 및 문화 공동체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2) 참여 동기 및 참여자 특성

숲친구들 협동조합 참여자들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홍성군으로 이주한 이들이며, 다문화 가정 및 장애가족도 포함되어 있다. 참여부모1은 15세, 11세, 6세, 2세의 네 명의 자녀를 두었다. 육아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된 돌봄대상은 2세인 막내와 6세 자녀이지만 때때로 11세 자녀도 함께 하고 있다.

참여부모1은 셋째 자녀가 3세 되던 때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공동육아 모집글을 보고 신청했다. 자연에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터라 이전에 살던 지역의 생협에서 주관하는 생태 모임을 6년간 해왔다고 한다. 동 지역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자연친화적인 육아관을 지닌 부모들과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싶어서 공동육아 품앗이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참여부모2는 현재 6세, 3세 두 아이를 둔 엄마로 첫째 자녀가 3살 되던 해인

50)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2018년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영체의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라는 현장지원조직을 설립하였으며, 산림일자리발전소는 5인 이상이 모인 산림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그루경영체'라 명명하고 이들을 지원한다. 그루경영체로 선정된 공동체에게는 3년간 교육참여, 법인화,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다(출처: 산림일자리발전소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forest\\_job\\_platform/222107229314](https://blog.naver.com/forest_job_platform/222107229314), [https://blog.naver.com/forest\\_job\\_platform/222854768276](https://blog.naver.com/forest_job_platform/222854768276), 2022.9.26. 인출)

22개월 때부터 공동체에 참여하였다. 자녀가 어릴 때는 기관에 보내지 않고 뜻이 맞는 이들과 같이 육아를 하고 싶던 차에 포털사이트 내 지역카페 검색을 통해 품앗이 사업을 알게 되었다. 아이가 3세가 되었던 때부터 3년간 숲친구들 활동으로 아이를 키웠고 6세에 유치원에 보냈다. 또래에 비해 기관 이용 시기가 늦었으나 현재도 이른 하원 이후에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아이와 부모가 직접 교감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고, 육아공동체에서 아이가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육아공동체는 “노는 게 더 재미 있다면 마음껏 뛰어놀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좋아하는 활동이라면 쉬지 않고 하고 싶은 만큼 시간의 제약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점”이 크다고 인식하여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육아공동체를 통한 돌봄을 지속하고 있다.

### 3) 운영방식 및 정부지원

숲친구들 협동조합은 8명의 돌봄주체자, 미취학 및 취학아동 20명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주체자들의 역할을 서류, 보고, 회계, 홍보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류 담당 외의 역할들은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고 있다.

숲친구들 협동조합은 2019년에 당시 3세이던 2017년생들의 돌봄 품앗이에서 시작되었기에 현재 6세가 된 2017년생 아이들이 주된 돌봄 대상이며 형제자매인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이 참여한다. 2020년, 2021년에는 주 1회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하원 하는 오후 3시경부터 1~3시간씩 정기모임을 가졌고 2022년에는 주2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공동체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모임일의 활동 내용과 준비물 등을 공지해 준비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편이다. 4년차가 되다보니 아이와 어른 모두 친숙해져서 아이만 보내어 돌보기도 한다.

돌봄장소는 별도로 있지 않고, 홍성군 내 공원, 이응노 생가, 애향공원, 용봉산 등 활동내용에 따라 주로 야외 공간을 선택하고 있다. 실내활동이 필요한 때에는 홍성군 가족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내포 공동육아나눔터를 주로 이용한다.

한편 숲친구들 협동조합은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개별공동체에게는 500~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인력 인건비, 사업운영비, 공동체 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며, 이중 운영비는 재료비, 간식비, 강사비, 교육비 등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숲친구들 협동조합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2021년에는 600만원을 지원 받았고, 2022년에는 우수 공동체로 선발되어 7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홍성군 가족센터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펴고 숲친구들 협동조합을 지원해왔다. 교재교구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공동체 이해교육 및 공동체 사례교육을 2021년 8회, 2022년 4회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돌봄공동체를 소개하고 돌봄활동을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친구초대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공동체의 돌봄자원을 다른 공동체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추후 가족센터나 지역사회 내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동체 돌봄 콘텐츠의 지역 자원화와 활동 영역의 확장을 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홍성 내 농업기술센터, 도농교류센터와 협업하여 사회적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홍성군 가족센터의 돌봄공동체 사업담당자는 2021년 돌봄공동체 사업지원을 담당하며 돌봄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주제별 거버넌스 활동인 ‘홍성통’, ‘문화통’, ‘관광통’, ‘교육통’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홍성군농업기술센터, 홍성도농교류센터,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 홍성DMO사업단 등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지역 내 네트워크 기관과의 사업 연계로 지역네트워크 연계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들과 함께 지역돌봄에 대한 가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홍성군 돌봄거버넌스인 ‘돌봄통’을 구축하는 성과를 내었다. 홍성군의 돌봄통은 2022년 3월에 논의된 이래 여러 차례의 사전 모임을 거쳐 2022년 7월 정기회의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매월 정기회의 통해 돌봄에 대한 과제를 협의하고 있다. 홍성군 돌봄네트워크 ‘돌봄통’에는 군 행정기관 4개 팀과 교육청, 중간지원조직 4개소, 문화재단 1개소, 돌봄공동체 4개소, 지역공동체 9개소, 특화사업단 2개소 등 25개 기관과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 VI-1-1〉 홍성군 돌봄 및 지역 거버넌스

구분	내용
돌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거버넌스</li> <li>- 돌봄의 사회적가치확산 및 지역 내 실천방안 모색</li> <li>- 참여주체별 활동 및 추진계획 공유, 돌봄 공통논의 및 과제 협의</li> <li>- 민관 25개 기관 및 공동체 참여</li> </ul>

구분	내용			
	구분	참여기관	구분	참여기관
	행정	홍성군 가정행복과 여성복지팀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친화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홍성군농업기술센터 홍성교육청지원청	돌봄 공동체	숲친구들 협동조합 책놀이수색대 이음작은도서관 천수만행복마을학교
	중간 지원 조직	홍성군가족센터 홍성군마을만들기센터 홍성군도시재생센터 홍성도농교류센터	지역 공동체	홍성군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홍화문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여행나눔 청년잇슈 아가새농장 홍성 햇살배움터 사회적협동조합 특화사업단 결성마을학교 초록만세 장곡마을사회적협동조합
	문화 재단	홍주문화관광재단		
	특화 사업단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 홍성DMO사업단		
문화통	- 문화 거버넌스/ 군내 문화활동 및 예술, 축제 등 문화콘텐츠 공유 및 협의 - 민관 29개 기관 및 단체 참여			
관광통	- 관광 거버넌스/ 군내 체험, 관광 관련 정보 공유 및 협의 - 민관 17개 기관 및 단체 참여			
교육통	- 교육 거버넌스/ 군내 교육, 돌봄, 마을학교 등 활동공유 및 협의 - 민관 15개 기관 및 단체			

자료: 홍성군가족센터(2022)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돌봄공동체 사업(내부자료), 연구진 재구성

이에 대해 홍성군 가족센터의 돌봄공동체 지원담당자는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역과의 네트워크 및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가족센터의 역할과 가치 전달에 큰 성과를 내었으며, 가족센터의 운영 역량 향상 및 공동체 영역 전문인력 양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4) 주요활동 및 참여 효과

숲친구들 협동조합은 6세이를 주축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바깥에서의 자연놀이를 주로 한다. 참여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을 생태미술, 산책, 플로깅(지구 지키기), 놀이터에서 놀기, 역사유적 돌아보기, 계절별 놀이(물놀이, 눈놀이), 유아숲놀이, 휴양림 여행 등 평소 하고 싶었던 자연활동들을 계절별, 테마별로 기획하여 돌아가며 진행하고 있다. 주2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지만 지정된 일시 외에도

군 행사 및 아이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 참여자들은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돌봄 활동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공동체들과의 교류 시에도 활용하고 있다. 숲친구들 협동조합의 밭출프로그램은 2022년 군내 초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으로 12회 수업을 진행하였고, 숲친구들 협동조합은 지역 내 숲프로그램 운영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육아공동체에서 출발한 돌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으며, 사회참여가 제한되었던 참여자들의 사회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통한 정서적 지지 뿐 아니라 품앗이 육아를 통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된 활동으로 생태 및 밭출놀이이지만 오리엔티어링 등 여러 분야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려 합니다. 엄마들 또한 밭출지도사와 생태, 오리엔티어링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엄마가 육아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일이 없는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는 식으로 돌봄을 진행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로만 연결된 것이 아닌 가족이 연결된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숲친구들입니다. (홍성군\_운영자)

육아공동체 활동의 효과에 대해 참여부모1은 기관 보육 및 교육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반면, 공동체 방식의 육아는 자유롭고, 탄력적이므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운영자(참여부모 대표)는 육아공동체가 지속되면서 이웃에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부모 1, 2는 활동 중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무엇보다 육아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내 아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주위에도 추천하고 싶다고 하였다.

육아공동체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혼자서 힘들게 육아하다가 육아공동체를 접했는데 양육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 좋은 면은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육아하거나 기관만 보낼 땐 우리 아이의 문제만 보이는데, 같이 육아하면 우리 아이만의 빛나는 장점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 (홍성군\_참여부모2)

## 5) 향후 계획 및 지원요구

숲친구들 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동육아나눔터를 기반으로 품앗이 활동을 하여 육아정보의 제공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하였고 2021년 돌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이들과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외벌이 상황에서 비용이 부담이 되었는데 재료비 및 간식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2022년도에는 역량강화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아 공동체 참여자들이 돌봄과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수익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정부지원은 숲친구들 협동조합이 자녀돌봄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웃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까지 활동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육아로 경력이 중단된 참여부모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숲친구들 협동조합 운영자는 육아공동체는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조건과 구성원들의 욕구가 변화하는데, 이때의 적절한 사회적 지원은 공동체의 자원을 이끌어 내고 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동체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아공동체의 경우 영아기 때에는 같이 활동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을 다니기 시작하면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데다가 기관에 갔다가 돌봄을 하기엔 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기관에 가지 않고 돌봄을 하면 온종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이 또한 어렵습니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동체 안에서의 가치관이 서로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만들어가는 것을 뒷받침 해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동력을 충전시켜줄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만남 횟수 등으로 인한 인센티브(프로그램 신청 우선순위, 간식 등) 제공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성군\_운영자)

이외에도 현재의 정부지원사업의 한계점을 질문한 결과,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시 서류처리에 대한 부담과 돌봄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참여부모1, 2). 관련 개선방안으로 참여부모1은 아동급식지원 카드처럼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아이와 함께 카페 등 외부 돌봄장소 방문시 할인해 주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서류 작업이 많은 육아공동체 방식이라면 권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품앗이 형태의 서류 작업이 적은 방식이라면 이미 권유하고 있습니다. (중략)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끼니 한번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사진도 찍고, 각종 서류에 서명도 하고, 카드영수증도 제공하고 이러한 서류 작업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군\_참여부모2)

(중략) 활동지원금(서울시에 결식아동카드 같은 특정한 곳-문방구 등-에서 일정한 금액 사용), 폭넓은 장소 제공(아이와 함께 카페 방문 시 할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지역 간의 격차 없는), 일정기간 운영 시 보너스 포인트 지급 등 (후략) (홍성군\_참여부모1)

현재 지역카페 등에 가족센터의 품앗이 및 돌봄공동체 사업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다. 공동체 육아는 부지런하고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부모2는 활동사례 홍보를 통해 더 쉽게 문의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등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숲친구들 운영자는 공동체의 활동영역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동의 발달 단계별 특성들이 있기에 프로그램 개발에 고충이 있다는 의견도 주었다. 육아공동체의 성장과 영역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 지원 영역의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

홍성군 숲친구들의 지원담당자는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돌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실적 위주의 사업 진행보다는 기존의 시설과 인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 지자체, 운영기관, 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정부, 지자체는 사업비 지원 뿐만 아니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운영기관 및 공동체들이 지역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언급하였다.

## 2. 지방정부 지원사업 사례

지방정부 지원사업의 사례로는 경기 화성시의 ‘모아사랑터’와 제주시의 ‘수눔음 육아나눔터 20호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모아사랑터’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수눔음육아나눔터 20호점’은 제주시의 수눔음돌봄사업의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다.

## 가. 경기 화성시: 모아사랑터

### 1) 배경 및 추진 경과

모아사랑터는 2021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2019년부터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2년 8월 기준으로 69개의 아동돌봄공동체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 2019년에 선정된 7개소 중 2개소만 아동돌봄공동체가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는 작은도서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화성시\_지원자).

사업 담당자에 의하면 모아사랑터의 추진은 경기 지역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요가 다르고, 특히 도농지역의 경우는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공동체 기반의 돌봄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는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조손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결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하였다. 반면에 영유아가 많은 신도시의 경우는 지역 내 인적 역량에 따라 부모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여 공동체 방식의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운영자1은 모아사랑터가 당초부터 아파트 전반의 의사결정 기구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원활하였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초등방과후 돌봄에 비해 지역 내 영유아 돌봄 인프라의 공급이 미흡하고 특히 유치원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유치원을 보내는 실정여서 공동육아와 품앗이 돌봄을 통해 자녀를 함께 양육하려는 부모들의 참여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다.

제가 공동체 이사로서 주축이 되어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처음에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을 예전처럼 동네친구, 마을친구, 마을 엄마들, 품앗이 육아라는 것처럼 함께 키우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동에서 함께 아이들이 어우러져 아파트 내 아이들이 다함께 모아사랑터에서 모여 수업도 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성시\_운영자)

### 2) 참여 동기와 참여자 특성

참여부모들은 기관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려는 점

이 주된 동기로서 언급되고, 특히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서 저렴한 이용비용도 강조되었으며, 기관이용을 기피하는 아동의 돌봄 수요에도 부응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참여부모1은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자녀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이유에서 육아공동체에 참여하였으며, 참여부모2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집에서 근거리의 공동체 방식의 육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부모3은 유치원을 이용 중인 자녀에게 보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 이외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저렴한 비용으로 희망하는 활동을 기획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겪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 등/하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나 아이의 성향상 주 양육자가 옆에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예민한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공동육아 참여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중략)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프로그램 추가에 대한 건의도 쉽게 전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화성시\_참여부모3)

### 3) 운영방식과 정부지원

모아사랑터는 평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8시 까지 운영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오전 시간에 이용할 시에는 양육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화성시, 2022). 돌봄 연령은 만 2세~8세이고, 이용요금은 무료이나 상시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에는 각 프로그램별로 요금이 상이하다.

주요활동은 모아사랑터에서 이루어지며, 부수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티하우스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인근의 공원이 활용하기가 좋아 야외활동 시에는 산책과 숲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기도 지역에서 해당 사업은 공동체 지원과에 속한 1인이 담당하고, 역량 강화 지원사업단을 두고 있으며<sup>51)</sup> 사업담당자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 단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아동돌봄공동체를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51) 역량강화 지원사업단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사업단 팀장 및 실무자 2인, 현장컨설팅단 4인으로 구성됨(화성시\_자원자)

공동체 운영인력은 보통 영아들이 방문했을 시에는 상시로 영아와 부모가 동행하게 하여 공동육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유아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돌봄전문인력이 전무하다. 공동체 운영인력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돌봄에 참여하는 인원은 통상적으로 4명이고, 자원봉사자가 미비한 편이어서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선정된 아동돌봄공동체에 3년간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며,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 단체들과 협업, 지원을 받으며 운영 중인 공동체도 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아동돌봄에 필요한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 조성비로 5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 원을 3년간 분할(20%, 40%, 40%)하여 지원하고, 구성원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단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4) 주요활동 및 참여 효과

오전 시간에는 양육자를 동반하므로 품앗이 육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종이접기, 미술활동, 책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매주 수요일에는 줌 수업과 동화 연계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표 VI-2-1〉 경기 화성시 모아사랑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연령	정원	운영시간
창의코딩교실	초등	15	17:00~17:50
뮤지컬 잉글리쉬	유아	15	
향기가 있는 교실	초등	15	
생각이 쑥쑥 커지는 ART	유아	15	
오감 Play	영아	7명(2타임)	10:10 ~ 11:25
동화 프로그램	통합	15	오전 또는 오후
산책 프로그램	통합	15	오전 또는 오후

자료: 화성시(2022) 모아사랑터 개관안내 공지문(내부자료), 연구진 재구성

7세아를 둔 참여부모1은 기관의 돌봄서비스와 비교하여 육아공동체에서는 각 활동마다 전문적인 교사가 따로 있는 등으로 돌봄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짜임새 있게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부모2는 5세와 7세 자녀의 돌봄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주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전 시간은 자유롭게 색칠 공부 및 종이접기, 만들기 활동을 하고 저녁 시간 때는 매일 연령에 따라 영어 뮤지컬, 코딩, 비누나 향초 만들기 같은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취미나 자기 개발보다는 양육자로서의 자세나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공동 케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줌 수업을 통해 다양한 책 읽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들기 수업도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성시\_참여 부모3)

화성시 운영자는 모아사랑터의 활동이 영유아 돌봄의 경우는 상시로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거나 공동체 놀이로 종이접기, 책 읽고 연계하는 동화 프로그램과 N.I.E, 미술 활동 등을 진행한다고 보고하였다. 요일별로 화요일 오후 5시에는 뮤지컬 영어, 목요일 5시에는 창의 ART 프로그램이 신청자를 받아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월 수요일에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줌 수업 아바동화구연 프로그램과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영유아 돌봄 등 아동돌봄공동체 운영 이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활동 등에 참여하여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들 활동에 대해 참여부모1은 특히 집단감염 시 자녀 돌봄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코로나19로 오랜 시간을 움츠려 있어 결핍이 걱정되었는데 (공동체 활동) 덕분에 이웃과의 교류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진 점을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참여부모2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은 거의 없던 상황에서 두 달 전부터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만족감이 높다고 한다. 또한 참여부모3은 집에서만 머물 수 있는 놀이나 교육에는 한계가 있지만 공동체 활동에서는 집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아이가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참여3은 대면수업이 저녁 시간에 이루어져서 참여인원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오후 시간에도 강사에 의한 다양한 수업이 늘어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사업담당자는 아동돌봄공동체 주된 이용자녀가 초등학생으로 방과후에 주로 이용하고, 일부 공동체의 경우에는 육아플랫폼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간을 제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데, 이처럼 화성시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오전 시간대는 영유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양육자

간에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점으로 들었다. 또한 영유아 부모의 경우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을 공동체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유아자녀를 둔 가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화성시 사업운영자는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특히 요즘에는 개별 아동의 성향과 기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중요한 데, 이에 부응하려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공동육아나 품앗이 육아를 통해서라면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는데, 하루 몇 시간만이라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함께 소통하면서 털어놓는 곳이 생긴다면 양육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5) 향후 계획 및 지원요구

화성시 지원담당자는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화성시 지원자는 지역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수요가 존재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의 특색이 있어(도농, 신도시, 다문화 밀집 등) 육아공동체에 대한 수요 등을 세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경우는 공동육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공동체 방식의 육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육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연대감이 중요한 데, 자녀의 성장에 따라 공동체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마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우려하면서 현재 많은 공동체가 대표 등 1~2인이 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 밖에도 돌봄강사의 처우 문제도 우려하였다.

화성시 지원담당자는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공동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특히 아동학대, 성범죄 조회 등도 불가능한 실정임을 우려하였다. 또한 아동돌봄 관련 각종 정책이 중앙 및 광역, 시·군에서 매년 확대되고 중복 추진되다 보니 부모 등 수요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중앙에서 아동 돌봄 체계를 우선으로

구축하여 조직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사업담당자는 인력 부족을 주된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 특히 큰 행사에만 부모 참여가 이루어져서 일상돌봄 시에는 인력이 부족하며,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모아사랑터는 화성시의 외곽에 위치하여 강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있는 편이어서 강사로 책정에도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한다.

참여부모3은 오전에는 영아 기준의 프로그램(베이비마사지, 오감 활동 등)을 진행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나. 제주도: 수놓음육아나눔터 20호점

### 1) 배경 및 추진 경과

제주시에서 조성한 수놓음육아나눔터는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돌봄 문화의 확산, 자발적 돌봄 나눔지원 기반의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돌봄 공간을 조성해왔다(제주시, 2021: 12).

함덕 수놓음육아나눔터는 2017년 12월에 개소하였는데, 방치되어 있던 주민자치회실을 활용하였다. 당초 같은 생각을 지닌 이들이 모여 자조적인 모임의 형태로 다양한 돌봄공동체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창기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홍보에 공을 들였다. 즉, 초창기에 홍보를 목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중기에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발굴되어 자조적인 모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역적으로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입 회원수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마을을 중심으로 매일 함께 육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계속해서 부모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표 VI-2-2〉 제주 함덕 수놓음육아나눔터 주요 연혁

시기	주요 경과
2017년 7월	함덕 수놓음육아나눔터 개설 신청. 서류 접수
2017년 10월~12월	개설지원금 수령, 공간 리모델링, 물품 및 비품 구입
2017년 12월	개소식
2018년 9월	독서모임, 캘리그라피, 미술놀이, 요리교실, 기타교실, 클레이놀이, 등 자조 소모임 운영

자료: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재구성

한편 제주시 운영자에 의하면, 해당 지역이 공동육아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는 데, 그 이유로는 지역내에 교육서비스가 낙후되어 있고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없다보니 부모들이 스스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제주시로 이주한 가구의 경우 공동체의 참여가 새로운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크다는 점도 지역적 특성으로 지목하였다.

도시에서 살아가던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새로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데 육아나눔터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육아정보, 교육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있어서 관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_운영자)

지원담당자의 경우에도 공동체 방식의 육아에 대한 지역 내 수요의 측면에서 앞서 운영자와 유사하게 타 지역으로 부터 이주한 가구의 비율이 높아서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2) 참여 동기와 참여자 특성

참여부모1은 인천에서 육아 관련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있었고, 제주시로 이주한 이후로도 공동체 방식의 육아를 계속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았다고 한다. 육아 공동체의 경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되기 어려운 데, 제주시에는 관련 오프라인 홍보가 많으나 온라인 정보의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유아기부터 공동체의 활동에 노출 될 수 있어야 학령기의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 3) 운영 방식과 정부지원

수놓음육아나눔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제주시의 여성가족청소년과가 담당하며, 공동육아나눔터와는 달리 주민자치형으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돌봄을 위한 활동을 운영한다.), 즉 공동체 활동공간으로서 공간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육자간의 정보 공유 등 양육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눔터별 운영시간과 이용방법 등이 다르다. 제20호점은 운영위원이 3명으로 모두 자원봉사자이고, 실버 복지프로그램에 연계한 1인이 청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수놓음육아나눔터는 제주도청과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물품을 구입하고, 공간 조성 완료 후에는 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 민간경상보조 연간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지원자에 의하면, 비 장애아동 월 활동비 2만원, 장애아동 월 활동비 3만원 기준으로 각 공동체별 최대 150만원 지원하나, 매해 예산과 지자체의 성과목표량에 따라 최대 활동비가 결정되고 있다. 전담인력은 1명으로 공동체 공모, 관리, 교육 등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활동가를 양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육아공동체에게 활동비만 지원, 육아공동체에게 개별적으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며, 공동체가 활동공간을 직접 발굴하여 활동한다. 연간 보조금 형식을 띤 사업으로서 사후관리의 개념은 없으며, 담당자와 참여 공동체의 관계를 통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지원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과 단체활동(프로그램운영)에 익숙해졌던 방식에서 벗어나 2가족간의 양육지원, 맞벌이 가족의 자녀돌봄 지원 등 직접적인 도움의 역할이 컸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집단감염 시의 공동체 지원사업의 역할은 비혈연관계의 가족의 확대 및 확산이며, 이 비혈연가족들은 지역사회 또는 마을 안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4) 주요활동 및 참여 효과

수놓음육아나눔터는 1)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소통공

간을 제공하고, 2) 자녀양육을 위한 품앗이 그룹을 연계하여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3) 양육 관련 정보를 나누고 장난감도서관, 육아물품 나눔, 봉사 나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또는 휴교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초등학교의 학교 내 돌봄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내 수놓음육아나눔터가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참여부모1은 5세아가 토요일이나 하원 이후에 프로그램에 2시간 정도 참여하며, 정기적으로 월 4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아이들과 베이커리 체험도가고 동물 구경도 가고 활동일이 아닌 때에도 필요하다면 다른 집 아이를 잠시 돌봐주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자녀가 어려서 돌봄 활동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수놓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 운영자에 의하면, 영유아 돌봄은 오후 4시 이후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귀가한 동네 친구들이 나눔터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를 돌봐주고,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필요하여 컴퓨터, 미술, 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이들 활동의 참여효과에 대해 참여부모2는 공동체 육아로 인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외동아이는 주로 혼자 내꺼 인데 공동체 육아를 하면서 언니 오빠 동생을 알게 되며 부딪힐 때도 있지만 서로 양보하며 나누는 것을 배웁니다. 요즘은 이웃들과 소통하며 지내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수놓음이나 공동체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_참여부모 2)

제주시 사업담당자는 영유아 대상 공동체의 주된 효과를 양육자의 스트레스 감소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단순히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는 문화센터 및 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는 관계 형성이 되어 육아 정보를 나누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한계가 있으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특히 첫째 자녀와 다자녀 양육자로 구성된 공동체는 양육정보는 물론 지역사회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 5) 향후 계획 및 지원요구

제주시 운영자는 향후 계획으로 다차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위한 사업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육아공동체를 종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제주시 운영자는 운영위원들의 자녀의 연령이 어쩔지기에 따라 영유아 육아공동체의 운영계획은 변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유아 공동체의 운영이 나눔터의 운영과 같은 의미라면 앞으로도 공동체를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다만, 새로운 운영위원들을 발굴해내고, 다양한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나눔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향후로는 생태,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강화하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구를 보전하고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나눔터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한편 제주시 지원담당자는 지역 내 육아공동체로서 수놓음돌봄나눔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단순히 사업 참여자간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카페 북톡)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손쉽게 육아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주무부서의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이 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반면에 주무부서의 성과 목표는 상향되어 사업의 내용 및 방향성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사업이 다차년이 되면서 사업 참여자도 다차년 참여자가 발생하고 다차년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단순한 돌봄 위주의 활동에서 나아가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다른 한편 제주시 운영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 부족을 지목하였다. 특히 운영위원들의 자녀가 커가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불투명하고 새로운 운영위원을 발굴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그동안 구축해 온 기반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시니어 클럽을 통해 나눔터 청소를 도와주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이들 지원인력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운영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육아공동체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시민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공동체를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적당한 보수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마을에서 300명 이상의 아이들과 연계되어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일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_운영자)

또한 육아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과 법적 근거의 마련이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제주시 지원자는 지역 내에서 활동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공간은 야간, 주말 사용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육아공동체나 돌봄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일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제주시\_지원자). 그 밖에도 본 사업이 성과지향적인 목표를 세우지 말고, 공동체문화 확산 사업으로 인식해야 하며, 육아공동체를 저출산 대응이나, 보육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보완적 돌봄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3. 소결

이상에서 다룬 4개 사례를 토대로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돌봄 공간의 부족은 주된 어려움으로 제시되었으므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을 포괄하여 지역 내 자원을 원활하게 연계하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이때 해당 돌봄 인프라의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다룬 경기 화성시 사례와 같이 오전 시간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자녀의 품앗이 육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기관 하원 이후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 가구가 많은 지역이나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육아공동체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규모에 비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등의 인프라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제주시의 경우 이주민들 중심으로 공동체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에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돌봄 공동체의 형성이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확충은 보편적인 권리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므로 해당 인프라의 공급이 간과된 채로 육아공동체에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이는 곧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시급한 확충이 요구되며, 그 방식은 서비스 다양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육아공동체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로서 상시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단의 설치와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또는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앞서 다른 경기 화성시와 같이 육아공동체의 성숙 단계에 맞추어 상시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원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개별성에 부합하는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 기관의 공간이나 프로그램의 연계 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전담부서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육아공동체는 지역을 단위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적 논거가 미흡한 경우는 앞서 운영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사업규모와 예산, 그리고 지원내용도 달라서 사업의 안정성이 낮고, 발전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해당 규정의 제정 목적은 앞서 제주시의 운영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출산율의 제고가 아니라, 현행 공적 돌봄을 보완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VII

##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 방안

- 01 육아공동체 활성화의 접근방향
- 02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개선 방안
- 03 영역별 세부과제



## VII.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 장에서는 앞서의 논의에 기반하여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육아공동체 활성화의 접근방향을 설정하고 여건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영역별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 1. 육아공동체 활성화의 접근방향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향으로 우선,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둘째, 자녀성장과 구성원들의 욕구 다변화로 인한 육아공동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아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참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가.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 강화

영유아를 위한 육아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육아공동체 경험이 없는 영유아 부모에게 육아공동체를 통한 영유아 돌봄 활동의 참여의사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바, 육아공동체 활동이 보육·교육의 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부모의 절반가량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사례조사를 통한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의견에 의하면, 자녀의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유의 효과를 얻는 것도 확인된다.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에서 영유아가 원하는 활동에 주목하고 부모가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점은 아동과 부모 모두 기관 위주의 활동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차별화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체 참여 부모들은 공동체의 참여적 돌봄으로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고 이에 맞는 활동

을 추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는 양육역량이 강화되고 자녀양육의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사례조사에 참여한 부모 중 영유아 자녀가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육아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립 육아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경험을 가지며 공동체 활동을 통한 양육비용 완화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관 미이용 부모들의 경우 육아공동체 참여만족도나 추천의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육아공동체 참여로 인한 효과 중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도움 효과’가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또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육아공동체가 중요한 육아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2023년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부모의 가정양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집단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육아공동체 참여를 제시하고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육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반일제 학원,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우 활동의 참여횟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서비스와 육아공동체를 통한 돌봄을 병행해 자녀를 돌보는 양상을 보였다. 근로형태에 시간제, 농어민으로 응답한 부모들의 경우도 ‘본인의 부재시에 공용 돌봄공간에서 아이가 돌봄을 받음’ 등의 횟수가 높게 나타나 유동적이고 비정형적인 취업 패턴을 지닌 집단이 상황별 돌봄공백 해결을 위해 돌봄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비정형적 근로형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모의 근로나 자녀의 기관이용에 있어 유동적인 생활패턴을 가진 집단은 확대되고 이들의 육아공동체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이 집단에도 주목하고 융통성 있고 반응적인 공동체적 방식의 돌봄을 제안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나. 육아공동체의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의 제고

정부는 자녀가 성장하고 구성원들의 참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육아공동체 참여자들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공동체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육아공동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공동체의 해체나 활동 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능 확대와

성장의 기회로 삼고 정부의 지원방식 역시 심화되고 다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육아부담이 줄어드는 부모들이 취미나 자기개발, 교육훈련 및 취업준비를 영유아 자녀 돌봄을 함께 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도모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홍성군의 사례에서 참여 부모들은 숲에서의 돌봄활동을 생태놀이사라는 직업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동체 참여활동이 길어질수록 기타 활동의 비중은 크게 높아져 5년 이상 참여자의 경우 독서모임, 운동 등 부모들의 취미활동의 경험 비중이 1년 미만은 24.2%인데 비해 5년 이상 참여자는 70.7%이고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활동도 1년 미만이 16.89%인데 비해 5년 이상 참여자는 51.5%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제작 판매 등 수익창출 활동을 함께 했다는 비중도 1년 미만이 10.4%인데 비해 5년 이상 참여자는 37.4%로 높게 나타났다. 이때 참여자들의 생애주기와 육구 변화에 따른 공동체 활동의 변화를 사업종료나 이탈이 아닌 육아공동체 사업의 성과로 인식하고 오히려 사회참여와 지역 활력 증진의 기회로 보고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육아공동체는 육아에 목적을 두는 한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구성원들의 이탈과 해체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육아공동체 활동 종료시의 자녀연령을 분석한 결과 만 6세 초등 입학을 앞둔 시기에 종료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공동체 해체를 경험한 집단에게 해체의 이유를 질문한 결과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해체’ 25.0% 다음으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의 응답비중이 20.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성장으로 인한 육아공동체의 경로가 구성원의 이탈과 공동체의 해체만 있는 것은 아니며, 초등생이 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초등돌봄 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로 이어지는 경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사례 수가 많지 않아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육아공동체 해체 경험자에게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 해체 후의 교류 및 활동을 질문한 결과 27.1%가 ‘자녀성장에 따라 초등방과후 돌봄 등 아동돌봄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17년 이후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에 있어 초등돌봄에 주목하고 자원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를 위한 공간조성사업이라 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또한 초등돌봄을 적극적으로 포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가해져 2016년 160개소에서 2018년 260개소로 확대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2년 8월말 기준 357개소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에 있어 자녀성장에 따라 혹은 형제자매 돌봄의 필요가 요구되는 경우 초등돌봄과 연계·결합하고 초등돌봄 공동체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다. 육아공동체의 자발성과 참여성의 강조

육아공동체는 공동체의 자발성과 참여성을 존속시키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는 정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참여성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육아공동체 참여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9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정부지원을 경험한 부모들의 80~90%가 정부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는 육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전망에 대해 질문했을 때 ‘활동을 일시중단하거나 해체한다’의 응답률이 27.8%인데 비해 ‘자체 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한다’는 30.6%, ‘다른 자생적 방법을 찾는다’는 21.1%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종료된 경우 이후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도 ‘자체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하였다’는 비중이 38.2%로 가장 높고,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자생적 방법을 찾아 운영하였다’는 비중도 30%를 상회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무용함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활동의 장(場)을 만들어 주었을 때 공동체가 이를 바탕으로 자생성을 가지고 지속해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육아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거나 정부는 공간과 예산의 장(場)을 제공하고 내용은 참여부모들이 구성해나가는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sup>52)</sup>. 자발성과 참여성은 공동체의 핵심원리로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사업은 정부 일방

52) 공동체는 정부의 지원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 애초에 정부가 사업의 틀이나 장(場)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필요와 욕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 밖 모델은 정책연구인 본 보고서에서 제외한다.

의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동체지원사업은 발굴과 선정과정, 지원방식에 있어서 대상과 내용을 규정·분리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유연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 2.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개선 방안

여기서는 육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우선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사업 등 기존 사업들의 확대 및 체계화와 필요하며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의 강화 및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현재 영유아 중심의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이 부재한 가운데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가정양육 확대와 함께 육아공동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가. 중앙부처의 육아공동체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 1) 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영유아 지원 강화

부모 자조모임은 육아를 중심에 둔 부모들의 모임으로 운영할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공동체의 설립과 해산이 용이하고 장소 운영 및 관리 부담이 없어 양육자의 진입장벽이 낮은 모델이다. 중앙부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성 높은 사업을 규모 있게 지원하는 데에 용이하므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온 품앗이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확대하여 영유아 부모의 육아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앗이 부모들의 주된 육아장소로 이용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0세부터 12세 이하 영유아 및 취학아동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영유아에 대한 지원내용 및 방식을 점검하고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11년 60개소에 불과했으나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해 2022년 8월말 기준 현재 35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된 배경에는 초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에 있어 영유

아와 초등생이 균형 있게 이용가능한지, 영유아에 대한 위험요인이나 장애는 없는지, 프로그램은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춰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영유아 이용 편이 증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돌봄공동체 사업의 체계화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사업은 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직형의 3개 유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하며 2020년부터 시작해 3년 차를 맞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공동체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 전남 광주(여성친화도시 사업 기반)나 충남 홍성군(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기반)과 같은 선도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사업으로서 아직 사업규모가 미미하고 지원내용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상 육아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정책 환경 및 정치지형의 변화로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또한 부침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육아공동체에 대한 수요와 기대효과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돌봄공동체 사업을 체계화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나. 연계강화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및 정비

### 1)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사업 간의 연계

육아공동체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의 부처 간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연계를 활발히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담당부처와 기관의 경계를 넘어 육아공동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유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연계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한 영역으로 보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2010년 초반부터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자체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해 온 결과 공동체 지원의 상당한 노하우를 갖춘 지역이 많다. 실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례는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제정하였으며 기초지자체의 조례도 2021년 10월 기준 205개 시·군·구에 제정된 상태이다(이다현, 2021: 7). 조례에 근거해 많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으므로, 육아공동체 발굴 및 참여자 교육, 컨설팅, 지역사회 참여 및 일자리 연계 등을 목적으로 각 지역 마을공동체사업의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 지원센터)과 연계·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경우 여성활동의 확산 및 여성모임의 활성화,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확대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어 육아공동체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sup>53)</sup>.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사업 지역의 선정기준에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이 평가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육아공동체의 돌봄 장소 확보에 기여가능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큰 규모의 장기사업으로 지원조직이 전국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공동체 참여자들의 돌봄공간에 대한 요구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한다. 지역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한 사업의 연계와 활용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재원을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25% 배분하는데 배분 지역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이른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8.16.).<sup>54)</sup>

## 2) 육아를 넘어선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 모색

육아공동체 지원에 있어 육아와 영유아 돌봄 영역을 넘어 다양한 영역 간의 사업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한 대로 공동체의 변화 욕구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다양한 기관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과 연계강화로 가능할 것이기

53)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육아는 여성으로부터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조건과 양육자로서의 전통적인 기대역할로 관련성이 높을 수 밖에 없으나, 여성이라는 특정 성(性)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2019년도부터 2021년의 3개년도 연구로 육아에 초점을 둔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김나영 외, 2021; 강은진 외, 2020; 권미경 외, 2019).

5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8.16.), 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우수사례 발굴·확산도 추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800>, 2022.11.8. 인출)

때문이다.

영유아 육아공동체의 초등이상의 돌봄 공동체로의 성장을 위해 초등방과후 온종일돌봄사업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교육부의 평생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영유아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평생교육사업은 영유아의 성장에 따라 육아부담이 완화된 부모들의 자기개발 및 취업활동을 위해서도 연계할 수 있다. 또한 돌봄 인력 및 공간 관리 등을 위한 인력 활용을 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sup>55)</sup> 등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 3) 조정을 위한 지역 협의체의 작동

본 연구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체 관련 정책 조사 결과 다양한 공동체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영유아 대상의 육아공동체를 표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와 마을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범위 규정에 있어 조정하고 협의하는 조정하는 장(場)이 필요하다. 물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공동체 사업의 특성상 중복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현장에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조정하고 협의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때 지역사회의 협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할 경우 중복지원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각 부처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조건과 상황에 맞게 조정 및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실질적인 작동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5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201&PAGE=1&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201&PAGE=1&topTitle), (2022.11.8. 인출).

## 다.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신설

현재 영유아를 돌봄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은 없으므로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양육자)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더욱이 2023년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 부모의 가정양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고립육아로 인한 소외와 육아스트레스도 예상되는 바, 또래 자녀를 둔 부모와의 공동육아와 품앗이 돌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때 운영부담이 적어 영유아 부모의 접근성이 높고 중앙정부의 일괄 지원이 용이한 자조모임형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설사업은 부모급여 시행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능할 것이 기대되므로 부모급여와 연계된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기관으로 두는 것을 제안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지원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1에 따라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에 1개, 시·도에 18개(경기 2개소 설치) 설치되어 있으며 107개 시·군·구에 총126개소 설치되어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2).<sup>56)</sup>

### 〈표 VII-2-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1)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教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설립목적과 연혁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10000/d1\\_10002.jsp](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10000/d1_10002.jsp) (2022.11.8. 인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1)**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제7조 하위법령).

지원대상은 0세~만6세 영유아를 둔 5가구 이상의 모임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공간을 활용한 돌봄공간, 영유아 1인당 월2~3만원 상당의 활동비, 컨설팅 및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운영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되, 공동체 및 공동체 방식의 육아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또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을 교육 및 지원기관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신설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며 중앙정부는 운영기관에 상주 돌봄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부모 자조모임의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그리고 필요시 돌봄공간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I-2-2〉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신설)의 개요 안**

구분	내용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1
지원대상	0세~만6세 영유아를 둔 5가구 이상의 모임
지원내용	- 돌봄공간 지원 (돌봄인력 상주) - 활동비 지원 (영유아 1인당 월2~3만원 지원) - 컨설팅 및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지원기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원	중앙정부

**〈표 VII-2-3〉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

구분	내용
인건비	돌봄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자조모임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설개보수비	돌봄공간 시설개보수비 (지역별 필요시 지원)

### 3. 영역별 세부과제

이상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제안에 이어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서 접근성, 지원조직, 공간, 주민 참여, 수요자특성의 다섯 가지 영역별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가. 접근성

##### 1) 육아공동체에 대한 홍보 강화

육아공동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육아공동체를 잘 몰라서’의 응답비중은 60.1%, ‘참여 가능한 육아공동체의 정보가 없어서’의 응답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1순위 및 2순위 응답비중의 합). 이는 공동체적 돌봄방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영유아 부모가 많으며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정작 육아공동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 거점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 맘카페 등 영유아 부모가 자주 가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육아공동체의 사례를 알리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친환경 매장이거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홍보도 고려할 만하다. 지역 내 친환경 매장의 경우 로컬푸드 사업과 결부해 지역 공동체 유관기관 및 주민자치조직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육아공동체 관심 집단의 방문이 빈번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클 수 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의 다수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산후조리 기관 및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공동체 육아에 대해 알려주고 영유아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육아공동체를 안내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집단은 이제 막 부모가 된 이들로 육아정보 및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2) 온라인 모임의 활성화 지원

육아공동체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모임의 활성화를 고려할 것도 제안한다. 팬데믹 시기에 일부 육아공동체 참여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모임으로 교류를 지속했으며 이를 통해서도 정보공유와 교류가 가능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육아공동체의 주된 효과 중 하나가 양육자의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지지에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와 지원방식으로 교류의 범위와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 나. 지원조직

#### 1) 육아공동체에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의 활용

기본모델로서의 품앗이 사업을 넘어서는 단계의 공동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특히, 정부조직이 공동체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 정부조직의 특성상 경직화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지원조직 단위에서는 공동체 참여와 조직의 경험이 있는 민간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공동체지원조직과 연계하거나 지원조직을 다각화하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의 연계나 이들 조직의 지원조직화를 모색할 수 있다. 육아와 공동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민간조직으로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공동육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도 제안한다.

#### 2) 중간지원조직 간 교류 및 협의 기능 활성화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육아공동체의 지원조직은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체사업의 경우에도 중간지원조직의 자격과 요건이 다양하며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의 시기와 특성에 따라 지원조직이 다르다. 조례 등 법적근거가 지역마다 상이하고 별도의 지원기관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위수탁의 경우 모법인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육아공동체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대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조직들 간 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개별 지원조직들의 지원기능 강화와 별개로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여 각 기관의 지원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우수 지원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할 수 있다.

### 3) 거점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육아공동체의 성장과 기능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도 다양해질 수 있다. 앞서 제안한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과 같은 활동비 지원사업의 경우 적절한 부모모임을 모집·지원·관리하는 역할이 우선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영유아 육아공동체가 초등돌봄 공동체로 이어지고 욕구가 다변화되는 경로로 이어질 경우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후술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지원 역할을 하는 조직을 ‘거점형 중간지원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일반 중간지원조직이 부모와 부모모임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면 거점형 중간지원조직은 부모모임에서 발전된 공동체 조직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다. 공간

### 1) 지역차원의 공동체 공간 조성 강구

적절한 활동공간의 확보는 공동체 활동에서 난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의 주민조사 결과에서도 육아공동체 참여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간 확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지원방안으로도 적절한 활동공간 지원을 언급하였다. 적절한 활동공간을 발굴하는 데에는 지역의 사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중앙보다는 지역에서 찾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제주시가 지방정부에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조성사업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예가 된다.

## 2)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육아공동체 공간의 마련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 전국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개선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재생을 포괄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며 공동체 사업과도 접합점을 갖게 되었다. 이 사업으로 확보된 주민 공용공간의 활용을 모색할 만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7개 부처의 중점 연계사업 72개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장소’로서의 부처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 14~15). 지자체들의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 계획 여건에 따라 중앙부처 사업 중 필요 사업을 계획에 연계시키는 경우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평가를 통해 사업을 승인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가능하다. 또한 지자체의 뉴딜사업 선정 기준에도 지자체에서 연계사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준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제시하는 연계사업 72개 중에는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과 ‘육아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육아공동체 지원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국토교통부, 2021: 15, 28).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간’이용에 대해 주민자치와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잘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주민참여 비율 기준을 높이고 주민자치기구의 구성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3) 주민 공용공간의 활용 및 관리

본 연구의 주민조사와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육아공동체는 자녀돌봄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은 관계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의 장소 또한 돌봄전용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공용장소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육아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여러 세대를 포괄하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인력 및 공간 등의 자원 활용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때 주민 공용공간은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전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간의 설치와 영유아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육아공동체가 영유아 돌봄과 초등 돌봄, 성인양육자의 자기돌봄까지 광의의 돌봄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영역 간 세대 간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라. 주민참여

### 1)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인력풀의 활용 및 관리

앞서 다. 3)의 제안과 관련하여 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영유아의 돌봄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일자리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노인 및 청년사업과 연계해 영유아돌봄 및 급간식, 공간운영지원 인력, 체험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공용 돌봄공간에서의 주민참여 비중은 돌봄공간에서 육아공동체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전체사례의 48.5%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는 육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므로 자원봉사자 인력풀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육아공동체는 특성상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므로 이에 맞는 교육 가능한 인력이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하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 등에서는 해당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광역 단위에서 강사풀을 구축하여 제공하거나 지역 내 유관 기관의 강사풀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때 인력활용 및 동원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 성범죄 조회 등 조치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 2) 예산지원시 가용범위 확대 등 참여자 권한 강화 및 편이성 증대

육아공동체 지원은 참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예산지원시 가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공동체가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회계관리시스템이 요구되는 데, 이때의 시스템은 참여자들이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공동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돌봄공동체 지

원사업의 회계관리시스템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므로 이를 시급하게 개선하고,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도 요구된다.

### 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육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참여부모의 성장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신의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해당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 인적자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부모의 교육을 강화하고, 강사 등으로 운영자 또는 지원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 마. 수요자 특성

### 1) 공동체의 성숙과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차별화된 컨설팅의 제공

육아공동체에는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성숙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내실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 육아공동체를 위한 컨설팅은 크게 공모 또는 추진 단계와 선정 또는 설치가 완료된 이후 단계로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회계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어려움이 제기되므로 관련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발달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연령별로 차별화된 경험과 활동이 요구되므로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돌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제기된다.

### 2) 기관이용 가구를 위한 보완모델의 마련

기관이용이 보편화 되었기에 육아공동체 참여집단 중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72.1%로 조사되었으며, 기관이용부모들의 육아공동체 참여의향도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소사용과 관련해서는 기관이용자들의 평일 공용 돌봄공간 이용시간은 하원 이후 이므로 오전과 낮 시간을 주로 이용하는 기관 미이용 부모와 시간대를 조정해 돌봄공간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말이나 기관

방학시의 참여율 또한 높으므로 이 시기에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 3) 유연한 생활패턴을 지닌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본 연구의 육아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은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 반일제 학원, 아이 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등의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공용 돌봄공간에서의 공동체 방식의 육아에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양육자의 근로형태가 시간제 또는 농어민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돌봄공간에서의 공동체돌봄의 참여횟수가 높은 것과 연관 지어 볼 때 기관이용과 근로에 있어 유연한 생활패턴을 지닌 집단에서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참여에 요구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종일제 유보육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자주 바뀌는 근무시간이나 형태를 지닌 가구에서 유연한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는 유용한 육아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이나 직업군을 타겟으로 육아공동체의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모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대표적으로 예술가 집성촌이나 농산어촌의 마을 회관 등을 이용해 이들의 직업적 생활패턴에 맞는 공동체 지원 방식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I-3-1]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b>접근 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 강화</li> <li>▶ 육아공동체의 변화대응과 지속가능성의 제고</li> <li>▶ 육아공동체의 자발성과 참여성의 강조</li> </ul>												
<b>사업 개선 방안</b>	<b>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b>	<b>연계를 통한 지원체계의 강화 및 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의 영유아 지원강화</li> <li>• 돌봄공동체 사업의 체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사업 간의 연계</li> <li>• 육아를 넘어선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 모색</li> <li>• 조정을 위한 지역 협의체의 작동</li> </ul>											
<b>사업 개선 방안</b>	<b>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신설 제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중심의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이 부재하며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가정 양육 확대 및 육아공동체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아래 내용의 사업 신설을 제안</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적근거</td> <td>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원대상</td> <td>0세~만6세 영유아를 둔 5가구 이상의 모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원내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간 지원 (돌봄인력 상주)</li> <li>- 활동비 지원 (영유아 1인당 월2~3만원 지원)</li> <li>- 컨설팅 및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 운영기관</td> <td>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육 및 지원기관</td> <td>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원</td> <td>중앙정부</td> </tr> </table>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1	지원대상	0세~만6세 영유아를 둔 5가구 이상의 모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간 지원 (돌봄인력 상주)</li> <li>- 활동비 지원 (영유아 1인당 월2~3만원 지원)</li> <li>- 컨설팅 및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li> </ul>	사업 운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지원기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원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의 1												
지원대상	0세~만6세 영유아를 둔 5가구 이상의 모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공간 지원 (돌봄인력 상주)</li> <li>- 활동비 지원 (영유아 1인당 월2~3만원 지원)</li> <li>- 컨설팅 및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li> </ul>												
사업 운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지원기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원	중앙정부												
<b>영역별 세부 과제</b>	<b>접근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공동체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온라인 모임의 활성화 지원</li> </ul>											
	<b>지원조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공동체에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의 활용</li> <li>• 거점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li> <li>• 중간지원조직 간 협의기능 강화</li> </ul>											
	<b>공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차원의 공동체 공간 조성 강구</li> <li>•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육아공동체 공간의 마련</li> <li>• 주민 공용공간의 활용 및 관리</li> </ul>											
	<b>주민참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인력풀의 활용 및 관리</li> <li>• 예산지원시 가용범위 확대 등 참여자 권한 강화 및 편이성 증대</li> <li>•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li> </ul>											
	<b>수요자 특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의 성숙과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차별화된 컨설팅의 제공</li> <li>• 기관이용 가구를 위한 보완모델의 마련</li> <li>• 유연한 생활패턴을 지닌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li> </ul>											



## 참고문헌

- 강은진, 권미경, 김보미, 황명화, 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강현주(2017). 돌봄 및 방과후 학교 마을협력 연계방안. 희망이슈, 제32호. 희망제작소.
- 경기도(2019a). 2019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https://www.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8&boardNo=2561&page=15&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6> (2022.10.4. 인출)
- 경기도(2019b). 2019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고  
<https://www.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7&boardNo=2391&menuLevel=2&menuNo=49> (2022.10.4. 인출)
- 경기도(2020a). 2020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https://www.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3366&menuLevel=2&menuNo=78> (2022.10.4. 인출)
- 경기도(2020b). 2020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고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1570334&menuId=1547> (2022.10.4. 인출)
- 경기도(2021a). 2021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https://www.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3918&menuLevel=2&menuNo=78> (2022.10.4. 인출)
- 경기도(2021b). 2021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고.  
<https://www.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3745&menuLevel=2&menuNo=78> (2022.10.4. 인출)
- 경기도(2022a). 202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https://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8822&menuLevel=2&menuNo=78> (2022.10.4. 인출)

- 경기도(2022b). 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고  
<https://www.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8754&menuLevel=2&menuNo=78> (2022.10.4. 인출)
- 경기도(2022c). 202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추가 공모사업 선정결과.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51366948&menuId=1547>(2022.10.4. 인출)
- 경기도(2022d). 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추가 공고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45948598&menuId=1547> (2022.10.4. 인출)
- 경기도 뉴스포털 기사(2021.1.29.). 마을 주민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경기도가 지원합니다!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101291442164477C048&s\\_code=C048](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101291442164477C048&s_code=C048) (2022.10.4 인출)
- 관계부처합동(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보완판) 함께 가는 가족 2010.
- 관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 관계부처합동(2017).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 협력 강화 방안(2017. 9. 22).
- 관계부처합동(2018).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
- 관계부처합동(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 교육부(2019). 보도자료: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2019.12.12.)
- 교육부(2022). 보도자료: 온마을이 배움터가 된 지역교육협력 생태계 확산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12개 신구지역 선정 발표. (2022.11.3.)
- 국토교통부(2021).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2021.2.22.).
- 권미경, 황선영, 이혜민, Morita Akemi, 박지윤 외(2019). 초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권현지(2021). COVID-19 시기 원주시 돌봄공동체 사례: 동네책방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COVID-19 시기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의 한계와 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 인천학연구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제6회 정책포럼 자료집, 41-46.
- 김나영, 권미경, 오동석, 정유나(2021).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I):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김민희, 박소영, 이지혜, 이희현(2020). 지자체-학교 간 협업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 및 확산. 대구대 산학협력단.
- 김송이, 황선영(2021).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의 역할과 과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8(2), 225-258.
- 김승보, 김민석, 김형만, 이혜숙(2020).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연정(2021). COVID-19 시기 마을도서관의 돌봄 기능과 역할. COVID-19 시기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의 한계와 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 인천학연구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제6회 정책포럼 자료집, 31-40.
- 김영종(201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41-76.
- 김은남(2014). 서민도 이용 가능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꿈꾸다, 생협평론, 17(겨울), 133-143.
-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153-176.
- 김은정, 홍진주, 정세미, 김현진(2019). 지역사회 초등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정원, 황덕순(2016).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현실, 한국사회적경제의 역사. 경기: 한울.
- 김창휘(2022).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97, 47-79.

- 김홍주, 한상헌, 안용준, 윤설민, 남영식, 이재민, 박치형, 김강현(2021). 세종 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종특별자치시·대전 세종연구원.
- 남승연, 최윤선, 김미정, 조은별(2015). 경기도형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09).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보완판).
-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8.16.), 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우수사례 발굴·확산도 추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800>. (2022.11.8. 인출)
- 류경희, 김순옥(2001). 공동육아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조합형 어린이집 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한가정학회, 39(3), 107-133.
- 마유미, 정선아(2021). 공동육아 조합 어린이집의 '부모 되어가기'. 학부모연구, 8(1), 119-141.
- 문효근(2022). 주민자치회 식민지 만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월간 주민자치, 125, 23-25.
- 서울특별시(2012). 2012년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 주민제안 공고문.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418&bbsNo=6&nttNo=57170&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2&integrDeptCode=>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2013). 2013년 하반기 공동육아 활성화지원 사업계획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5809?tr\\_code=snews](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5809?tr_code=snews)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2014). 2014년 공동육아 활성화지원 사업계획(수정).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23342>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2015). 2015년 공동육아 활성화지원 사업계획.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5809?tr\\_code=snews](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5809?tr_code=snews)(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2016). 2016년 공동육아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https://iseoul.seoul.go.kr/portal/guide/noticeView.do?idx=6061&pageIndex=1&gubun=1>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2017). 2017년 공동육아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46687>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2018). 2018년 공동육아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1717/view.do?mid=ID05\\_040101&pgno=60&keyfield=bdm\\_main\\_title&deptField=BDM\\_DEPT\\_ID](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1717/view.do?mid=ID05_040101&pgno=60&keyfield=bdm_main_title&deptField=BDM_DEPT_ID)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2019). 2019년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1221&category=&searchVal=%C0%B0%BE%C6%B0%F8%B5%BF%C3%BC&pageno=1&listsize=10&fromDt=&toDt=>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2020). 2020년 육아공동체 활성 지원사업 공고문-최종본.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support/read.asp?sigungu=&idx=701&tabgbn=4>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20), 2020 마을공동체사업 통합설명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data/read.asp?idx=440&category=&searchVal=&pageno=1&listsize=10&fromDt=&toDt>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2021). 2021년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문(3.27.수정).  
[https://gurosen.or.kr/bbs/board.php?bo\\_table=B31&wr\\_id=1470&page=23](https://gurosen.or.kr/bbs/board.php?bo_table=B31&wr_id=1470&page=23)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21), 2021 마을공동체사업 통합설명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1356&category=&searchVal=&pageno=&listsize=&fromDt=&toDt=> (2022.10.2. 인출)
- 서울특별시(2022). 2019-2021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기관 정보공개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2022.10.17. 통보)

- 여성가족부(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 여성가족부(2018a). 보도자료: 공동육아나눔터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공동체 기반 될 것(2018. 4. 3).
- 여성가족부(2018b). 보도자료: 여성일자리와 맞벌이가정 초등돌봄 강화에 240억 원 규모의 민관협력(2018. 1. 25).
- 여성가족부(2019). 보도자료: 마을 주민이 함께 돌보는 “공동체 돌봄” 확대된다 (2019. 11. 13).
- 여성가족부(2020a). 보도자료: 여가부, 돌봄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이 함께 자녀를 돌봐요!(2020. 2. 21).
- 여성가족부(2020b). 보도자료: 여가부, 주민돌봄공동체 만들기 본격 추진. (2020. 4. 2).
- 여성가족부(2020c). 보도자료: 우리 마을 아이들, 주민 공동체가 책임지고 돌봐요 (2020. 8. 13).
- 여성가족부(2020d). 보도자료: 이정옥 장관, ‘품앗이형’ 돌봄공동체 현장에 가다. (2020. 6. 16).
- 여성가족부(2021a). 2021년 가족사업안내(I).
- 여성가족부(2021b). 2021년 가족사업안내(II).
- 여성가족부(2021c). 2022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총괄 관리기관 공모
- 여성가족부(2021d). 보도자료: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한다. (2021. 6. 29).
- 여성가족부(2021e). 보도자료: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 신규 지정. (2021. 12. 23).
- 여성가족부(2021f).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여성가족부(2022a). 2022년 가족사업안내(I).
-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가족사업안내(II).
- 여성가족부(2022c).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여성가족부(2022d).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올해 방과후 초등돌봄시설 30개소 추가설치 (2022. 5. 10).
- 여성가족부(2022e). 보도자료: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2022. 5. 6).

- 여성가족부(2022f). 보도자료: 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소 지정. (2022. 1. 25).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2020).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 위라겸(2020). 전남 농어촌 지역 공동돌봄 모델 개발 보고서. 전남여성가족재단.
- 이다현(202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마을공동체 및 주민참여형 정책을 중심으로. 희망이슈, 제62호. 희망제작소.
- 이소영(2014). 근린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8(2), 5-33.
- 이주연, 조경옥, 최지훈(2021). 전북 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전북연구원.
- 이주연, 황미진(2021).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저해 및 활성화 요인 탐색: 전북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3), 69-85.
- 이현옥, 박주희(2019). 일상의 통제력을 담보한 돌봄 사회화 :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5(3), 79-112.
- 이희현, 권택환(2021).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유형별 주요 의제 분석-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돌봄지원체계 확립.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황준성, 임소현, 김효정, 도재우, 김성기(2021). 돌봄 추진체계 중장기 개편 방안 연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장명림, 황준성, 유경훈, 김성기, 김위정, 이덕난, 김보미(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익산 열린신문 기사(2020.7.22.) “익산형 돌봄서비스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https://www.iksanop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766>. (2022.10.7. 인출)
- 익산시 (2021). 2021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기관 공모.  
[https://www.iksan.go.kr/budget/board/view.iksan?boardId=BBS\\_BUDG\\_PUBL&menuCd=DOM\\_000000904001000000&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2021%EB%85%84%20%EC%9A%B0%EB%A6%AC%EB%A7%88%EC%9D%84%20%EB%8F%8C%EB%B4%84%EA%B3%B5%EB%8F%99%EC%B2%B4&dataSid=736041](https://www.iksan.go.kr/budget/board/view.iksan?boardId=BBS_BUDG_PUBL&menuCd=DOM_000000904001000000&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2021%EB%85%84%20%EC%9A%B0%EB%A6%AC%EB%A7%88%EC%9D%84%20%EB%8F%8C%EB%B4%84%EA%B3%B5%EB%8F%99%EC%B2%B4&dataSid=736041)  
(2022.10.7. 인출).

- 익산신문기사(2022.4.1.). “익산시-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신규 2개소 위·수탁협약”  
[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80&idx=57110](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80&idx=57110). (2022.10.9. 인출)
- 전북일보기사(2022.4.2.).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확대 운영”  
<https://www.jjan.kr/article/20220402580023> (2022.10.4. 인출)
- 장수정(2012). 과천시 지역 공동체에 관한 연구 : 돌봄 공동체 가능성과 여성주의적 함의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2(2), 31-68.
- 장수정, 류선정(2018).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구: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전환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0, 301-341.
- 전대욱(202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 쟁점과 의의.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1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지훈(2020).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방향. 도시연구, 18, 297-339.
- 정성훈(2021). COVID-19 시기의 돌봄 공백과 어린이집 대응지침의 한계. COVID-19 시기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의 한계와 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 인천학연구원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제6회 정책포럼 자료집.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0a). 2020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수놓음돌봄 사례집. 제주특별자치도  
[https://jffsc.kr/m/bbs/board.php?bo\\_table=5\\_5\\_2\\_1&wr\\_id=47](https://jffsc.kr/m/bbs/board.php?bo_table=5_5_2_1&wr_id=47)  
(2022.10.2. 인출)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0b). 2020 제주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계획서.  
<https://www.jeju.go.kr/group/part7/refer.htm?page=16&act=view&seq=1237800> (2022.10.2. 인출)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2). 2022 수놓음돌봄공동체 발굴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https://jffsc.kr/m/bbs/board.php?bo\\_table=5\\_1\\_1\\_1&wr\\_id=305](https://jffsc.kr/m/bbs/board.php?bo_table=5_1_1_1&wr_id=305)  
(2022.10.2. 인출)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1). 수놓음돌봄\_탐나는 공동육아: 2021 제주가족친화센터 수놓음돌봄사업 홍보 미니북.  
[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5\\_5\\_2\\_1&wr\\_id=55](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5_5_2_1&wr_id=55)  
(2022.10.2. 인출)

- 조막래, 김한별(2015).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조미라(2020). 성찰적 공동체형 복지실천과 여건에 대한 질적연구: 인천 계산동의 공동육아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1(2), 35-71.
- 조유성, 한창근 (2019).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7, 61-90.
- 조윤경(2011).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 재구성. 가족과 문화, 23, 169-205.
- 진미정, 노신애, 심아영(2018).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모델 비교와 가족정책적 시사점.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11-212.
- 채종현, 최호진 (2019).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행정안전부(2017).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 행정안전부(2021). 2021년 업무추진계획.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plan2021/sub\\_01.html](https://www.mois.go.kr/plan2021/sub_01.html) (2022.6.7. 인출)
- 홍성군가족센터(2022).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돌봄공동체 사업. 내부자료.
- 화성시(2022). 모아사랑터 개관안내. 내부자료.

### **【참고 사이트】**

-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20399&gubun=ELIS> (2022.10.4. 인출)
-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06762>  
(2022.10.4. 인출)
- 경기도 민선 7기 공약실천 계획서\_2019.6.30. 기준일  
<https://governor.gg.go.kr/policy/manage/> (2022.10.4. 인출)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2022.10.4. 인출)

국민참여입법센터\_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입법정보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4140/detailR> (2022.6.7. 인출)

국민참여입법센터\_마을공동체 관련 입법진행현황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1&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cPpsUsr=&stDtFmt=&edDtFmt=&scBlNm=scBlNm\\_blnm&scBlNmScst=%EB%A7%88%EC%9D%84%EA%B3%B5%EB%8F%99%EC%B2%B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1&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cPpsUsr=&stDtFmt=&edDtFmt=&scBlNm=scBlNm_blnm&scBlNmScst=%EB%A7%88%EC%9D%84%EA%B3%B5%EB%8F%99%EC%B2%B4) (2022.6.7. 인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_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2/link.do> (2022.7.3. 인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_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https://www.city.go.kr/portal/notice/notice/view.do?nttId=5615> (2022.7.3. 인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_도시재생 뉴딜사업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2022.7.3.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지원센터\_영유아보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제7조 하위법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 (2022.11.8.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_아이돌봄 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 (2022.6.7.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_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5%84%EC%9D%B4%EB%8F%8C%EB%B4%84%EC%A7%80%EC%9B%90%EB%B2%95#undefined> (2022. 6. 7. 인출)

보건복지부\_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201&PAGE=1&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201&PAGE=1&topTitle) (2022.11.8. 인출)

산림일자리발전소

[https://blog.naver.com/forest\\_job\\_platform/222107229314](https://blog.naver.com/forest_job_platform/222107229314),  
[https://blog.naver.com/forest\\_job\\_platform/222854768276](https://blog.naver.com/forest_job_platform/222854768276)  
(2022.9.26. 인출)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2020.01.08.)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2022.10.8. 인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_설립목적과 연혁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10000/d1\\_10002.jsp](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10000/d1_10002.jsp)  
(2022.11.8. 인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8.4.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687>  
(2022.3.16. 인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200411/d2-200412.jsp](https://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200411/d2-200412.jsp) (2022.10.4. 인출)

서울시 정보공개자료: 2015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및 재지원 사업지  
지급자료 신규\_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4508071>,  
기존/재지원\_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4232640>.  
(2022.10.7. 인출)

공공데이터포털\_ 제주특별자치도 수놓음육아나눔터 현황 자료

<https://www.data.go.kr/data/15045346/fileData.do>(2022.10.7. 인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jffsc.kr/index.php> (2022.10.7. 인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_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안내.

[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https://jffsc.kr:12443/pages.php?p=3_1_1_1) (2022.10.5 인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_수놓음육아나눔터 소개,

[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3\\_6\\_1\\_1&page=2](https://jffsc.kr/bbs/board.php?bo_table=3_6_1_1&page=2),  
(2022.10.2. 인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_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  
(2022.7.3. 인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_4대 사회적경제기업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 (2022.7.3. 인출).

### **【참고 영상】**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2.2.24.), 2022년 제주수눔음돌봄공동체 사업 설명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8yW18cN75k>  
(2022.10.08. 검색)



## Abstract

# A Study on the Childcare Communitie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Mira Cho, Haemi Yoo, Moonjeong Ki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communal parenting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to find the policy strategy for activating them.

Recently, as the social demand for elementary care has grown, research and investigations on elementary care communities have been actively accumulated, but interest in parenting communitie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has been less.

Accordingly, the following was conducted to examine and support the parenting community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First, the current state of support for childcare communities was identified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support for childcare communities.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on paren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and demands of parents participating in parenting communities as well as the demands of parents who did not experience childcare communities. Third, through an in-depth case study of childcare communitie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e analyzed the reality of how childcare communities are actually oper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n approach to promote the childcare communities was presented,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and detailed tasks were proposed to create conditions.

The approach direction to activate childcare community is presented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hildcare community suppor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2) As children grow and members' needs

diversify,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childcare communities to actively respond to them. 3) Childcare community support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emphasizes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as follows. 1) Governmental support for childcare communities should be expanded and systematized, and 2)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an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trengthened. 3)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hildcare community support project for infants and toddlers. In addition, spaces for childcare communities, support for management, and support for empowerment of members were suggested.

Keyword: Childcare community, Community care, Communal parenting, Community, Child care



부록

- 부록 1. 주민조사 설문지
- 부록 2. 사례조사 질문지(운영자용)
- 부록 3. 사례조사 질문지(참여부모용)
- 부록 4. 사례조사 질문지(지원담당자용)

## 부록 1. 주민조사 설문지

###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의향에 대한 주민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년 기본과제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방식의 육아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실태와 참여의향 및 정책지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본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적 사항은 『통계법』 제 33조(익명성 및 비밀보호 등)에 따라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조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수행기관 :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수행기관 :

#### ▶ 조사대상자 선별 문항

SQ1) 귀하에게 초등2학년 이하(2014년~2022년생)의 자녀가 있으신가요?

1. 네  SQ2 로 이동

2. 아니오  설문 종료

SQ2)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명

## SQ3) 귀하 자녀의 출생년도는 어떠합니까?

자녀연령	첫째 자녀 _____년생
	둘째 자녀 _____년생
	셋째 자녀 _____년생
	넷째 자녀 _____년생
	다섯째 자녀 _____년생

## SQ4)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 \_\_\_\_\_ ) 시·군·구 ( \_\_\_\_\_ ) 읍면동 ( \_\_\_\_\_ )

## SQ5) 귀하의 성별과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자 성별	1.남성 2.여성
응답자 연령	만 ( _____ )세

- 본 조사는 취학 전의 영유아를 위한 부모들의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동에 대한 조사입니다. 여기서의 육아공동체는 공동육아 모임, 조직 뿐 아니라 부모들의 품앗이 돌봄, 두 집 이상이 함께 하는 나들이, 스포츠 등의 체험활동, 작은도서관과 같은 동네 공용공간에서의 함께 돌봄 등 거주하는 지역, 동네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거나 자녀돌봄을 위해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 다음은 제외됩니다.

- 대면활동이 없는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경우
- 부모교육, 강의참여만으로도 이루어진 모임 (부모모임으로 아이를 돌보며 부모교육을 함께 하는 것은 육아공동체에 해당)
- 영유아보육법상의 협동어린이집, 협동조합형 유치원에서의 활동 (협동어린이집, 협동조합 유치원 조합원이 조합활동 외 부모모임을 갖는 것은 육아공동체에 해당)

다음이 예가 됩니다.

- 예1. 또래 자녀를 둔 부모 몇 명이 모여 함께 육아함
- 예2. 아이를 둔 몇 집이 모여 체험학습 등 나들이를 함께 감
- 예3. 몇 명의 부모들이 아이들과의 체험활동을 기획해 지역 내 지원사업에 공모하고 지원을 받음
- 예4. 마을기업 사업의 하나로 지역커뮤니티센터에서 아이를 함께 돌봄
- 예5. 방과후 혹은 주말, 방학시기에 자녀가 동네의 작은도서관에 다니고, 본인도 때때로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함

[참여여부 및 형태]

SQ6) 귀하는 거주하는 지역, 동네에서 이웃 및 지인들과 영유아자녀(취학전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1. 네  SQ7로 이동                      2. 아니요  PART2(비경험자)로 이동

SQ7) 귀하가 참여한 모임(또는 활동)은 다음 중 어떤 형태에 가깝나요?

※ 여러 형태의 육아공동체 활동을 경험한 경우, 주된 활동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거나 오랜 기간 참여하신 활동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자조 모임  A1로 이동  
2. 일정한 돌봄장소가 있고 조직(단체, 기관, 센터 등)을 통해 운영되는 모임  B1로 이동

※ 자조모임 :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인 모임

## ▶ PART1. 육아공동체 유경험자

### A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 I - 지소 모임 (SQ7=1 응답자)

A1) 귀하는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음 중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모두 골라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언제,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활동 형태	A1-1. 경험 여부		(경험 있는 경우) A1-2. 평균 활동 횟수		(경험 있는 경우) A1-3. 주된 활동시간		(경험 있는 경우) A1-4. 주로 이용하는 장소	
	1. 있음	2. 없음	1. 거의 매일 2. 주3회정도 3. 주1회정도 4. 월2회정도 5. 월1회정도 6. 월1회미만		1. 평일 아침 (~오전9시경) 2. 평일 오전 (오전9시~정오경) 3. 평일 낮 (정오~오후4시경) 4. 평일 늦은 오후(오후4시 이후) 5. 평일 저녁 6. 주말 7. 어린이집, 유치원 방학 등 기관 미용시 8. 경조사, 감염병 등 긴급상황시 9. 기타( )		1. 모임원의 집 2. 놀이터, 동네 공원 등 3. 육아나눔터, 커뮤니티센터 등 돌봄전용공용공간 4. 지역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기타 공용공간 5. 키즈카페 등 시설 놀이공간 6. 식당, 카페 등 7. 기타 어린이집 8. 기타( )	
1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봄								
2 내가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퐁앗이 돌봄)								
3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음(퐁앗이 돌봄)								
4 나들이, 운동모임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돌봄(부모의 재능기부 포함)								
5 육아 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6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7 자녀의 이유식 혹은 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교환해 나눔								
8 등하원 및 기타 육아활동을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 가며 함께 함								
9 독서모임, 글쓰기, 운동 등 취미 활동을 함께 함								
10 교육출연, 자기개발, 취업준비 등의 활동을 함께 함								
11 상품제작 판매, 동네장터 참여 등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함								
12 지역 내 비슷한 활동을 하는 모임(조직, 기관 등)과 교류함(정터 등 행사 공동 개최 포함)								

[참여계기]

A2) 귀하가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1,2,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_\_\_ 2순위 \_\_\_ 3순위 \_\_\_)

1.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 돌봄에 필요한 정보습득을 위해
3. 아이의 돌봄공백(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을 해결하기 위해
4.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5. 양육자의 개인 시간 확보를 위해
6. 부모의 즐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7. 부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 평소 함께 하는 활동,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9. 기타 (\_\_\_\_\_)

[돌봄대상]

A3)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는 어느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1. 영아 (24개월 이하)
2. 유아 (24개월 초과~취학전)
3. 영유아
4. 영유아 및 초등아동 모두
5. 기타 (\_\_\_\_\_)

[운영주체/ 운영방식]

A4)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나요? 가까운 순서대로 1,2 순위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 2순위 \_\_\_)

1. 맘카페 등 인터넷 활동을 통한 사적 모임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기반으로 한 모임
3. 부모의 사적 친분이 기반이 된 모임
4.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등의 육아커뮤니티 모임
5.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
6. 주민자치회,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회의 등의 주민자치조직
7. 비영리단체
8. 기타 (\_\_\_\_\_)

## [참여의 효과]

A5) 아래는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동으로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내용	효과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2	아이의 돌봄공백(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3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되었다	1	2	3	4	5
4	품앗이 등으로 부모의 개인 시간이 확보되었다	1	2	3	4	5
5	부부의 평등한 돌봄 참여에 기여하였다	1	2	3	4	5
6.	이웃, 마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	2	3	4	5
7	기타1 ( _____ )	1	2	3	4	5
8	기타2 ( _____ )	1	2	3	4	5

☞ 응답 후 C1로 이동

**B 육아공동체 참여 경험 II - 공동체 조직 (SQ7=2 응답자)**

B1) 귀하는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다음 중 어떤 활동을 경험하셨나요? 모두 골라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어느 시간대에 활동(이용)하시나요?

	활동 형태	B1-1. 경험여부		(경험 있는 경우)	
		1. 있음	2. 없음	B1-2. 평균 활동(이용) 횟수	(경험 있는 경우) B1-3. 주된 활동(이용)시간 ※ 1, 2, 3순위 응답
1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공동 돌봄공간에서 돌봄을 받음				
2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3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4	나들이, 스포츠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돌봄(부모의 재능기부 포함)				
5	공동 돌봄공간의 청소, 정리정돈, 급간식을 지원함				
6	공동 돌봄공간에 필요한 채이나 물품을 기증함				
7	공동 돌봄공간의 운영진으로 참여함				
8	육아 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9	육아교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10	자녀의 이유식 혹은 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교환해 나눔				
11	등하원 및 기타 육아활동을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 가며 함께 함				
12	독서모임, 글쓰기, 운동 등 취미 활동을 함께 함				
13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준비 등의 활동을 함께 함				
14	상품제작 판매, 동네장터 참여 등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함				
15	지역 내 비슷한 활동을 하는 모임(초지, 기관 등)과 교류(장터 등 행사 공동개최 포함)				

**[돌봄공간]**

B4)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의 돌봄 공간의 건물은 어떠한가요?

- |                 |                 |
|-----------------|-----------------|
| 1. 단독건물         | 2. 복합           |
| 3. 아파트(공동주택) 공간 | 4. 상가           |
| 5. 공공건물         | 6. 기타 ( _____ ) |

B5)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의 돌봄 공간의 소유는 어떠한가요?

- |           |                 |
|-----------|-----------------|
| 1. 자가     | 2. 유상임대         |
| 3. 무상임대   | 4. 기타 ( _____ ) |
| 5. 잘 모르겠음 |                 |

**[돌봄대상 아동 연령대]**

B6)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는 어느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 |                 |                     |
|-----------------|---------------------|
| 1. 영아 (24개월 이하) | 2. 유아 (24개월 초과~취학전) |
| 3. 영유아          | 4. 영유아 및 초등아동 모두    |
| 5. 기타 ( _____ ) |                     |

**[돌봄대상 아동수]**

B7)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의 돌봄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몇 명인가요?  
귀하가 주로 활동(이용)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몇 명인지 적어주세요. (        )명

**[운영주체]**

B8)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나요? 가까운 순서대로 1,2 순위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

1.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등의 육아커뮤니티 모임
2.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
3. 주민자치회,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회의 등의 주민자치조직
4. 비영리단체
5. 기타 ( \_\_\_\_\_ )

[운영시간]

B9)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 돌봄 공간의 운영시간은 어떠한가요?

구분	운영여부	운영시 시작시간	운영시 종료시간
평일	1.운영 2.미운영	오전/오후 ( )시	오전/오후 ( )시
주말	1.운영 2.미운영	오전/오후 ( )시	오전/오후 ( )시

[상시 돌봄인력]

B10) 귀하가 참여하는 육아공동체 조직의 돌봄 공간에 상시 돌봄인력이 있습니까?

- 1. 예  B10-1 로 이동
- 2. 아니오  B11 로 이동

B10-1) 상시 돌봄인력은 몇 명인가요? 귀하가 주로 활동(이용)하는 시간대에 있는 평균 인력수를 적어주세요.

( )명

B10-2) 상시 돌봄인력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1. 부모
- 2. 교사
- 3. 자원봉사자
- 4. 기타행정 및 운영인력

[지역주민의 참여]

B11)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 활동의 대상인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나 가족 외에 동네 아이들이나 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기도 합니까?

- 1. 네  B11-1로 이동
- 2. 아니오  B12 로 이동
- 3. 모름  B12 로 이동

B11-1) 동네 아이들이나 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면 다음 중 어떤 활동에 참여했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참여했습니까?

활동	참여여부			참여시 참여 횟수						
	참여함	참여안함	모름	거의 매일	주 3회 정도	주 1회 정도	월 2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1회 미만	모름
1 아이돌봄 및 부모교육 등 재능기부	1	2	3	1	2	3	4	5	6	7
2 공간의 청소 또는 정리정돈	1	2	3	1	2	3	4	5	6	7
3 급간식 준비 등의 지원	1	2	3	1	2	3	4	5	6	7
4 행사 준비 및 진행 등의 지원	1	2	3	1	2	3	4	5	6	7
5 행사 참여	1	2	3	1	2	3	4	5	6	7
6 기타 1( )	1	2	3	1	2	3	4	5	6	7
7 기타 2 ( )	1	2	3	1	2	3	4	5	6	7

## [재정]

B12)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 조직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                 |                        |
|-----------------|------------------------|
| 1. 회비           | 2. 이용료                 |
| 3. 관련 단체에 대한 후원 | 4.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
| 5. 수익사업         | 6. 기타 (_____)          |

## [참여계기]

B13) 귀하가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1,2,3 순위까지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_\_\_ 2순위 \_\_\_ 3순위 \_\_\_)

1.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 돌봄에 필요한 정보습득을 위해
3. 아이의 돌봄공백(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을 해결하기 위해
4.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5. 양육자의 개인 시간 확보를 위해
6. 부모의 즐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7. 부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 평소 함께 하는 활동,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9. 기타 (\_\_\_\_\_)

## [참여효과]

B14) 아래는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동으로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내용	효과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2. 아이의 돌봄공백(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3.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되었다	1	2	3	4	5
4. 품앗이 등으로 부모의 개인 시간이 확보되었다	1	2	3	4	5
5. 부부의 평등한 돌봄 참여에 기여하였다	1	2	3	4	5
6. 이웃, 마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	2	3	4	5
7. 기타1 (_____)	1	2	3	4	5
8. 기타2 (_____)	1	2	3	4	5

## C 육아공동체 참여의 어려움 및 만족도

**[참여 중 어려움]**

C1)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참여 중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는 어떠한가요?

내용		어려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구성원들과의 의견 차이 갈등	1	2	3	4	5
2	바빠서 충분히 시간을 내기 어려움	1	2	3	4	5
3	구성원들의 참여 부족	1	2	3	4	5
4	적절한 돌봄 및 활동공간을 찾기 어려움	1	2	3	4	5
5	지원금 관리나 처리 등 사무 및 운영의 어려움	1	2	3	4	5
6	양육지식, 노하우의 부족 등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	1	2	3	4	5
7	돌봄을 위한 활동비(식간식비,교구비 등) 지출의 부담	1	2	3	4	5
8	기타1 ( _____ )	1	2	3	4	5
9	기타2 ( _____ )	1	2	3	4	5

**[참여 종료여부(참여기간)]**

C2) 귀하는 현재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나요?

1. 네, 활동중입니다 ☞ C2-1로 이동
2. 아니오 활동하지 않습니다 ☞ C2-2로 이동

C2-1) 귀하는 언제부터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셨나요?

시작한 때 : (        )년 (        )월 ☞ 응답 후 C6으로 이동

C2-2) 귀하가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때와 그만둔 때는 언제인가요?

시작한 때 : (        )년 (        )월

그만둔 때 : (        )년 (        )월

☞ 응답 후 C3으로 이동

## [참여 중단 이유]

C3) 현재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귀하가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1,2순위를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

- |                                |                                  |
|--------------------------------|----------------------------------|
| 1. 모임이 아예 해체되어                 | <input type="checkbox"/> C4로 이동  |
| 2. 거주지 이전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져서         | <input type="checkbox"/> C6으로 이동 |
| 3. 구성원 간 불화 등으로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져서 | <input type="checkbox"/> C6으로 이동 |
| 4. 직장 등 다른 일로 바빠져서             | <input type="checkbox"/> C6으로 이동 |
| 5. 돌봐줄 사람(친인척 등)이 생겨서          | <input type="checkbox"/> C6으로 이동 |
| 6. 아이가 보육 및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 <input type="checkbox"/> C6으로 이동 |
| 7. 아이의 성장으로 돌봄이 불필요해져서         | <input type="checkbox"/> C6으로 이동 |
| 8. 코로나 감염병 등으로 참여가 꺼려져서        | <input type="checkbox"/> C6으로 이동 |
| 9. 기타 (_____)                  | <input type="checkbox"/> C6으로 이동 |

## [육아공동체 해체 이유]

C4) 영유아 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 모임이 해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1,2순위를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

1.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2. 아이들이 보육 및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3. 구성원들의 거주지 이전으로 모이기 힘들어서
4. 구성원들 간 불화로
5. 구성원들의 활동이 저조해져서
6. 운영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7. 사업비 등 운영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8. 공간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9. 코로나 감염병으로 모임이 어려워져서
10. 기타 (\_\_\_\_\_)

[육아공동체 해체 후 교류 및 활동]

C5) 육아공동체 해체 이후의 모임과 구성원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내용	경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류하며 친목 모임을 가짐	1	2	3	4	5
2 자녀가 구성원들의 아이들과 어울려 지냄	1	2	3	4	5
3 자녀성장에 따라 초등방과후 돌봄 등 아동돌봄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졌음	1	2	3	4	5
4 취미,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을 함	1	2	3	4	5
5 마을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함께 함	1	2	3	4	5
6 기타1 ( )	1	2	3	4	5
7 기타2 ( )	1	2	3	4	5

[팬데믹 시 육아공동체 참여]

C6)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영유아대상 육아공동체 참여가 육아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 귀하가 육아공동체 참여했던 시기에 코로나19 전염병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5. 해당없음' 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C8로 이동
2. 도움이 되지 않았다  C8로 이동
3. 도움이 되었다  C7로 이동
4. 매우 도움이 되었다  C7로 이동
5. 해당없음(팬데믹 이전에 육아공동체에 참여한 경우)  C8로 이동

C7) 코로나19의 감염병 상황에서 영유아대상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해 어떠한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도움받으신 내용을 모두 골라주세요.

1. 소규모였기에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2. 기존처럼 활동하진 못했지만 일부 구성원들과 육아품앗이를 하였다
3. 긴급한 돌봄 필요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4. 비대면으로 교류하면서 정보교환 등 도움을 주고받았다
5. 기타 1( )
6. 기타 2( )

**[참여 만족도]**

C8) 전반적으로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 활동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추천 의향]**

C9) 다른 이들에게 이와 유사한 활동을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D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지원

**[정부지원 필요]**

D1) 귀하는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D1-1로 이동
2. 필요하지 않다  D2로 이동

D1-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면, 다음 중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주시오. (1순위 \_\_\_ 2순위 \_\_\_)

1. 관공서나 유희공간을 공동 돌봄 공간으로 개방
2. 공동의 돌봄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3. 육아공동체 참여를 위한 홍보지원
4. 육아공동체 참여자 대상 공동체 관련 기초교육 지원
5. 육아공동체 운영 및 의사소통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지원



D4-1) 이외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명을 써 주십시오

기타 1 ( \_\_\_\_\_ )

기타 2 ( \_\_\_\_\_ )

기타 3 ( \_\_\_\_\_ )

[정부지원의 종료 경험여부] (C2=2, 현재 활동하지 않음 응답자는 E1로 이동)

D5) (C2=1, 활동 중 응답자만) 귀하가 참여하는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가 현재 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1.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D6으로 이동
- 2. 아니요,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D8로 이동

[정부지원의 종료 후의 활동전망]

D6) (C2=1 & D5=1 지원받고 있음 응답자만) 현재 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지원이 종료된다면 이후 공동체 활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운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

- 1. 활동을 일시중단 하거나 해체한다
- 2. 자체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한다
- 3.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
- 4. 타 공모사업을 찾아 본다
- 5. 다른 자생적 방법을 찾는다
- 6. 기타 1( \_\_\_\_\_ )
- 7. 기타 2( \_\_\_\_\_ )

[정부지원의 종료 후의 예상되는 어려움]

D7) (C2=1 & D5=1 지원받고 있음 응답자만) 육아공동체에 대한 정부나 단체의 지원종료 후 지원이 있을 때와 비교해 공동체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 1. 매우 어려울 것이다
- 2. 어려울 것이다
- 3. 별 차이 없을 것이다

- 4. 어렵지 않을 것이다
- 5.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 **응답 후 E1로 이동**

**[정부지원의 종료 후의 활동경험]**

D8) (C2=1 & D5=2 지원받고 있지 않음 응답자만) 현재 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게 된 이후 지원을 받았던 때와 비교하여 공동체 활동은 어떠했습니까? 가까운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

- 1. 자체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하였다
- 2.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운영하였다
- 3. 다른 공모사업을 찾아보고 있다
- 4. 다른 자생적 방법을 찾아 운영하였다
- 5. 기타 1(\_\_\_\_\_)
- 6. 기타 2(\_\_\_\_\_)

**[정부지원의 종료 후의 어려움]**

D9) (C2=1 & D5=2 지원받고 있지 않음 응답자만) 육아공동체에 대한 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게 된 이후 지원이 있을 때와 비교하여 운영이 어려웠습니까?

- 1. 매우 어려웠다
- 2. 어려웠다
- 3. 별 차이가 없었다
- 4. 어렵지 않았다
- 5. 전혀 어렵지 않았다

**E 자녀 및 가구 특성**

**[자녀특성]**

E1) 귀하가 참여한 육아공동체 활동의 주된 대상이 된 자녀는 몇째 자녀인가요?

※ 다자녀인 경우, 여러 자녀와 함께 육아공동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된 대상이 된 자녀, 즉 해당 공동체 활동에 가장 적절한 연령대였던 자녀 혹은 가장 자주, 오래 함께 한 자녀를 선정해 응답해 주세요.

- 첫째 자녀 (SQ3 응답값)년생
- 둘째 자녀 (SQ3 응답값)년생
- 셋째 자녀 (SQ3 응답값)년생
- 넷째 자녀 (SQ3 응답값)년생
- 다섯째 자녀 (SQ3 응답값)년생

E2) **육아공동체 활동의 주된 대상이 된 자녀가 육아공동체에 참여(이용)하며 평일 낮 시간에 주되게 이용한(하는) 기관/서비스 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1. 어린이집(국공립,민간,가정)     | ☞ E3으로 이동 |
| 2. 유치원(공립,사립)          | ☞ E3으로 이동 |
| 3. 협동어린이집, 협동조합유치원     | ☞ E3으로 이동 |
| 4. 놀이학원, 영어학원 등 반일제 학원 | ☞ E3으로 이동 |
| 5. 정부지원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 ☞ E3으로 이동 |
| 6. 기관이나 서비스이용 안함       | ☞ E4로 이동  |

E3) (E2=1~5인 경우) 기관/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주로 어떠한가요?

시작시간 (오전/오후 \_\_\_\_ 시) ~ 마치는 시간 (오전/오후 \_\_\_\_ 시)

[가구특성]

E4) 귀하의 육아공동체 활동 중의 다음의 가구 특성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E4-1) 배우자유무	1.유배우자	2.무배우자	
E4-2) 본인 취업상태	1.전일제근무 4.휴직중	2.시간제근무 5.무직(전업주부포함)	3.농어민
E4-3) 배우자 취업상태 (E4-1=1, 유배우자만)	1.전일제근무 4.휴직중	2.시간제근무 5.무직(전업주부포함)	3.농어민
E4-4) 가구소득	1.100만원미만 4.400-500만원미만 7.700-800만원미만	2.200-300만원미만 5.500-600만원미만 8.800-900만원미만	3.300-400만원미만 6.600-700만원미만 9.1000만원이상 ☞세전소득으로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하여 기재

[지역사회 인식]

E5)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내용	평소의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아플 때 나는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1	2	3	4	5
2 내가 아플 때 이웃은 나의 아이들을 몇 시간 정도 돌봐줄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평소 아이를 키울 때 이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내가 사는 지역(동네, 마을)은 사람들이 살기 좋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지역(동네, 마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 SQ6=1, 육아공동체 경험자 조사 종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PART2. 육아공동체 무경험자

### 1 육아공동체 참여를 못한 이유

[육아공동체 참여를 안(못)한 이유]

Q1) 그간 거주하는 지역, 동네에서 이웃 및 지인들과 영유아자녀(취학전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1,2 순위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_\_\_ 2순위 \_\_\_)

1. 육아공동체를 잘 몰라서
2. 육아공동체를 알지만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3. 참여가능한 육아공동체의 정보가 없어서
4. 육아공동체를 함께 할 이웃이나 지역주민이 없어서
5.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참여 비용 등이 염려되어)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7.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어서
8. 아이의 성향을 고려하여
9. 기타 (\_\_\_\_\_)

### 2 희망하는 참여유형 및 활동

[희망하는 참여유형-돌봄활동]

Q2) 앞으로 영유아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다음의 돌봄활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내용	참여희망 정도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 이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1 이웃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봐줌	1	2	3	4	5
2 이웃 부모들과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봐줌(푼앗이 돌봄)	1	2	3	4	5
3 나들이, 운동모임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돌봄(부모의 재능기부 포함)	1	2	3	4	5
4 공동 돌봄 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1	2	3	4	5
5 공동 돌봄 공간에서 아이가 돌봄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음	1	2	3	4	5
6 공동 돌봄공간의 청소, 정리정돈, 급간식을 지원함	1	2	3	4	5
7 공동 돌봄공간의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기증함	1	2	3	4	5
8 공동 돌봄공간의 운영진으로 참여함	1	2	3	4	5

**[육아 외 희망하는 활동]**

Q3) 영유아자녀를 위한 육아공동체 활동 참여시 육아 외에도 아래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내용	참여희망 정도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 이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1 육아 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1	2	3	4	5
2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1	2	3	4	5
3 자녀의 이유식 혹은 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교환해 나눔	1	2	3	4	5
4 등하원 및 기타 육아활동을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 가며 함께 함	1	2	3	4	5
5 독서모임, 글쓰기, 운동 등 취미 활동을 함께 함	1	2	3	4	5
6 교육훈련, 자기개발, 취업준비 등의 활동을 함께 함	1	2	3	4	5
7 상품제작 판매, 동네장터 참여 등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함	1	2	3	4	5
8 지역 내 비슷한 활동을 하는 모임(조직, 기관 등)과 교류함(장터 등 행사 공동개최 포함)	1	2	3	4	5

**[정부지원 필요]**

Q4) 귀하는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Q4-1 로 이동      2. 필요하지 않다  Q5로 이동

Q4-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대상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면, 다음 중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해주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

1. 관공서나 유희공간을 공동 돌봄 공간으로 개방
2. 공동의 돌봄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3. 육아공동체 참여를 위한 홍보지원
4. 육아공동체 참여자 대상 공동체 관련 기초교육 지원
5. 육아공동체 운영 및 의사소통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육아공동체의 운영비 지원
7. 공동체 우수사례 견학 및 네트워크 지원
8. 기타 1(\_\_\_\_\_)
9. 기타 2(\_\_\_\_\_)

### 3 자녀 및 가구특성

☑ Q5~Q7은 영유아자녀(2016년부터 2022년생)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응답해 주십시오.

[영유아자녀 돌봄 -기관 및 서비스이용/ 돌봄공백]

Q5) (SQ3에서 자녀 연령이 2016~2022인 경우만) 귀하의 영유아자녀가 낮 시간에 주되게 이용하는 기관/서비스 형태는 무엇입니까?

※ 귀하의 영유아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           |
|------------------------|-----------|
| 1.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   | ☑ Q6으로 이동 |
| 2. 유치원(공립, 사립)         | ☑ Q6으로 이동 |
| 3. 협동어린이집, 협동조합유치원     | ☑ Q6으로 이동 |
| 4. 놀이학원, 영어학원 등 반일제 학원 | ☑ Q6으로 이동 |
| 5. 정부지원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 ☑ Q6으로 이동 |
| 6. 기관이나 서비스이용 안함       | ☑ Q7로 이동  |

Q6) (Q6=1~5인 경우) 기관/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주로 어떠한가요?

시작시간 (오전/오후 \_\_\_\_ 시) ~ 마치는 시간 (오전/오후 \_\_\_\_ 시)

Q7) (SQ3에서 자녀 연령이 2016~2022인 경우만) 귀하의 영유아자녀에게 돌봐줄 사람(또는 기관, 서비스)이 없는 돌봄공백이 있습니까? 돌봄공백이 있다면 이를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해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래의 시간대 또는 시기 중에 선택해 주세요.

내용	돌봄공백 여부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돌봄의향 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평일 아침(~오전9시경)				
2 평일 오전 (오전9시~정오경)				
3 평일 낮 (정오~오후4시경)				
4 평일 늦은 오후(오후4시~오후7시경)				
5 평일 저녁(오후7시경 이후)				
6 주말				
7 어린이집,유치원 방학 등 기관 미용시				
8 경조사,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시				
9 기타1 (_____)				
10 기타2 (_____)				

[지역사회 인식]

Q8)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내용	평소의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아플 때 나는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1	2	3	4	5
2 내가 아플 때 이웃은 나의 아이들을 몇 시간 정도 돌봐줄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평소 아이를 키울 때 이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내가 사는 지역(동네, 마을)은 사람들이 살기 좋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지역(동네, 마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가구특성]

Q9) 귀하의 가구 특성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Q9-1) 배우자유무	1.유배우자	2.무배우자	
Q9-2) 본인 취업상태	1.전일제근무 4.휴직중	2.시간제근무 5.무직(전업주부포함)	3.농어민
Q9-3) 배우자 취업상태 (Q9-1=1, 유배우자만)	1.전일제근무 4.휴직중	2.시간제근무 5.무직(전업주부포함)	3.농어민
Q9-4) 가구소득	1.100만원미만 4.400-500만원미만 7.700-800만원미만	2.200-300만원미만 5.500-600만원미만 8.800-900만원미만	3.300-400만원미만 6.600-700만원미만 9.1000만원이상 ※ 세전소득으로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하여 기재

☞ SQ6=2, 육아공동체 무경험자 조사 종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사례조사 질문지(운영자용)

### 육아공동체 사례조사 서면조사지 - 운영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2년 기본과제의 하나로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책임: 조미라 부연구위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육아공동체가 사례조사 대상 공동체로 선정되어 귀하에게 서면조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적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익명성 및 비밀보호 등)에 따라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연락처 \_\_\_\_\_

## I. 공동체의 추진 배경 및 연혁

1. 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공동체를 처음 결성하게 된 계기
- 구성원들의 시간활용(취업상태 등) 및 아동특성
- 기존의 보육서비스와 비교할 때의 차별적인 목적

2. 본 공동체의 연혁과 추진경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활동의 방향 및 주요한 운영상의 변화

3. 지역 내 영유아 부모들의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 품앗이 돌봄 등 육아공동체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인식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육아공동체 사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인식

4. 향후 공동체의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은 어떠한가요?

- 영유아 육아공동체의 운영 의향과 계획
- 영유아의 성장에 따른 공동체 운영 의향 및 계획

- 육아 외 다른 활동(구성원들의 취미활동, 자기개발, 수익사업,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II. 공동체의 운영 현황 및 효과

1. 현재 공동체의 주된 활동은 무엇입니까?

- 영유아 돌봄의 내용 및 프로그램, 기간 및 시간대
- 영유아 돌봄 외 공동체 활동(구성원들의 취미, 자기개발, 수익사업, 지역사회 참여 등)

2. 공동체의 운영인력은 어떠한가요?

- 공동체 운영인력의 구성과 규모(명수)
- 구성: 부모 / 교사(돌봄전문인력) / 자원봉사자 / 기타행정 및 운영인력

3. 공동체 활동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 주된 활동 공간 및 장소

4. 공동체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 참여자 모집, 참여부족 또는 구성원 간의 갈등
- 활동공간 확보, 인력 부족 등 운영의 어려움
- 지원금 관리 및 처리의 어려움

5. 코로나19로 인해 육아공동체 운영이 어떠하셨나요?

- 운영상의 어려움 여부와 내용
- 감염병 상황에서의 활동 방식: 비대면 참여 등
- 긴급돌봄 필요시의 품앗이돌봄 등 감염병 상황에 대처하는 활동 여부

6.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어린 이집, 유치원 등 기존의 돌봄서비스와 비교할 때 다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동의 발달과 성장
- 고립육아에 대한 어려움의 완화, 양육자 시간의 확보
- 이웃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 참여 등

7. 공동체 방식의 육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되시나요?

### Ⅲ. 공동체 참여와 만족도

1.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떠한가요?

- 주된 참여대상 및 참여기간 및 시간대
- 주된 참여경로/ 홍보 및 모집경로

2. 참여자들의 거주지역이나 구성원에 따른 특이점이 있나요?

- 공동주택, 산업단지, 농산어촌 등
- 영아자녀, 다문화가구 등

3.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하다고 생각되시나요?

- 참여부모의 특성별 만족도
- 만족 및 불만족의 이유

#### IV. 정부 지원의 개선 및 요구사항

1. 귀하가 운영 중에 있는 육아공동체가 정부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 받고 있는 정부사업명 (알고 있는 경우 응답해주시오)
- 지원의 내용과 도움되는 정도, 아쉬운 점, 개선요구 사항

2. 육아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지원의 필요성 여부
- 정부지원 필요시의 내용과 지원방식

3. 육아공동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명		
공동체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공동체 운영	직급 (역할)	
	수행 기간	_____년 _____개월
	보상 여부	유급 <input type="checkbox"/> 무급 <input type="checkbox"/> ※ 유급시 급여 정도 _____ ※ 유급인 경우 보상수준을 기재해주시시오. (월단위, 활동건별, 사업기간내 등 조건별 기재)
	수행 시간 및 빈도	※ 공동체 운영을 위해 할애하는 활동에 대해 빈도와 시간을 중심으로 기재해주시시오. (예: 주1회 운영회의 주관, 주5일 평일 3시간씩 돌봄관리 등)
공동체 참여기간	현 공동체 참여기간 _____년 _____개월 ※ 전체공동체 참여기간 _____년 _____개월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육아공동체 외에 다른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으신 경우 기재해 주세요	
성별	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연령	만 _____세	
교육수준	고졸미만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전공	<input type="checkbox"/> 아동학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학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육학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양성과정 <input type="checkbox"/> 교육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양성과정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 면담자: 운영자 ( \_\_\_\_\_ ) ※ 연구진 기입용입니다. 빈칸으로 남겨주시시오.

서면조사에 응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사례조사 질문지(참여부모용)

#### 육아공동체 사례조사 서면조사지 - 참여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2년 기본과제의 하나로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책임: 조미라 부연구위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육아공동체가 사례조사 대상 공동체로 선정되어 귀하에게 서면조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적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익명성 및 비밀보호 등)에 따라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연락처 \_\_\_\_\_

## I. 아동 및 가구특성, 자녀양육의 전반

1. 귀 닥의 자녀 및 가구특성은 어떠한가요?

- 총 가구원수, 자녀수 및 연령, 성인가구원수

- 배우자유무,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상태(휴직 유무 포함) & 취업시의 근로 시간

2. 자녀양육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주 양육자는 누구입니까? 자녀양육을 함께 하는 성인가구원, 친인척이 있습니까?

-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정부지원아이돌보미 또는 민간베이비시터, 학원 및 기타 사설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

## II. 육아공동체 참여 동기 및 필요성

1. 육아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떠한가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세요.

-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이용 및 기타 육아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동기
- 양육자의 취업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동기
- 자녀의 연령 및 특성과 관련된 동기
- 육아 및 교육관, 마을활동,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동기

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육아공동체를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셨나요?

- 참여경로

- 본인의 참여경로를 고려할 때 육아공동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정부의 돌봄서비스(무상보육, 기관이용에 대한 비용지원 등)가 크게 확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방식의 육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관서비스와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경험 있는 경우: 프로그램과 만족도 전반의 차별성
- 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경험 없는 경우: 기관 미이용 사유와 연계

-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육아 방식에 대해 주위 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이 같은 공동체 방식의 육아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어떠한다고 생각되시나요?

### Ⅲ. 육아공동체 참여활동의 내용

1. 육아공동체의 참여대상 및 시간, 빈도는 어떠한가요?
  - 참여대상: 주된 돌봄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등
  - 참여시간: 1회의 참여시간, 주된 참여시간대
  - 참여빈도: 정기적/비정기적. 주/월 평균 참여횟수

2. 육아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 자녀돌봄과 관련된 주된 활동의 내용

- 육아공동체 활동 중 자녀돌봄 외에도 부모교육, 부모들의 취미·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마을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육아공동체의 활동이 기존의 육아지원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등)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코로나19로 인해 육아공동체 활동이 어떠하셨나요?

- 감염병 상황에서의 어려움 및 교류 방식
- 긴급돌봄 필요시의 품앗이돌봄 등 육아공동체의 도움 여부

#### IV. 육아공동체의 참여의 어려움 및 만족도

1. 육아공동체의 참여에 만족하시나요? 불만족하시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참여시간 및 빈도, 돌봄의 내용

2. 활동시의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개인적인 시간 및 자원의 부족
- 구성원들간의 갈등
- 돌봄장소나 운영비, 인력 등의 운영상의 문제 등

3.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어린 이집, 유치원 등 기존의 돌봄서비스와 비교할 때 다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동의 발달과 성장
- 고립육아에 대한 어려움의 완화, 양육자 시간의 확보
- 이웃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 참여 등

4.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지속참여 여부 및 그 이유
- 주변에 대한 권유 여부 및 그 이유

## V. 개선 및 요구사항

1. 귀하가 참여하시는 육아공동체 활동에 정부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받고 있는 정부사업명 (알고 있는 경우 응답해주세요)
- 지원의 내용과 도움되는 정도, 아쉬운 점

2. 육아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지원의 필요성 여부
- 정부지원 필요시의 내용과 지원방식

3. 육아공동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명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성별	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연령	만 _____세		
교육수준	고졸미만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취업상태	전일제근무 <input type="checkbox"/> 시간제근무 <input type="checkbox"/> 농어민 <input type="checkbox"/> 휴직중 <input type="checkbox"/> 무직(전업주부포함) <input type="checkbox"/>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input type="checkbox"/> 200-300만원미만 <input type="checkbox"/> 300-400만원미만 <input type="checkbox"/> 400-500만원미만 <input type="checkbox"/> 500-600만원미만 <input type="checkbox"/> 600-700만원미만 <input type="checkbox"/> 700-800만원미만 <input type="checkbox"/> 800-900만원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만원이상 <input type="checkbox"/> <small>※ 세전소득으로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을 합하여 기재</small>		
혼인상태	유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무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취업상태	전일제근무 <input type="checkbox"/> 시간제근무 <input type="checkbox"/> 농어민 <input type="checkbox"/> 휴직중 <input type="checkbox"/> 무직(전업주부포함) <input type="checkbox"/> <small>※ 유배우자인 경우 응답</small>		
자녀연령 주된돌봄방식	자녀	만 연령	주된 이용기관 (학교/어린이집/유치원/도우미 등)
	첫째자녀	만 _____세	
	둘째자녀	만 _____세	
	셋째자녀	만 _____세	
	넷째자녀	만 _____세	
육아공동체 참여기간	육아공동체 참여기간 _____년 _____개월 <small>※ 전제공동체 참여기간 _____년 _____개월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육아공동체 외에 다른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으신 경우 기재해 주세요</small>		
육아공동체 평균참여빈도	주( )회 또는 월( )회 또는 기타 ( )		
육아공동체 주된참여시간	시작 시각 ( 시 분 ) ~ 종료 시각 ( 시 분 )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 면담자: 참여부모 ( ) ※ 연구진 기입용입니다. 빈칸으로 남겨주세요.

서면조사에 응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 부록 4. 사례조사 질문지(지원담당자용)

### 육아공동체 사례조사 서면조사지 - 지원담당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2년 기본과제의 하나로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책임: 조미라 부연구위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귀하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공동체가 사례조사 대상 공동체로 선정되어 귀하에게 서면조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적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익명성 및 비밀보호 등)에 따라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연락처 \_\_\_\_\_

## I. 지원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본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 사업의 추진 배경
- 주요정책 대상 및 대상별 사업의 방향
- 기존 보육서비스와의 비교 /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의 차별성

2. 본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적 방식의 육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 품앗이 돌봄 등 육아공동체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인식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육아공동체 사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인식

## II. 지원사업의 내용

1. 지원사업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 예산, 인력, 공간, 시설보수, 교육·관리·컨설팅, 사후관리 등

2. 지원사업을 통해 개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개별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 사례조사로 선정된 공동체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기술

3. 귀 기관(센터 / 조직의 담당부서 등)의 지원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전체 지원사업 담당인력: 인력의 규모(명수) 및 역할

4. 귀 기관(센터 / 조직의 담당부서 등)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협력·연계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협력·연계 하시나요?

- 기관명, 협력·연계 방식

5.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사업의 추진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감염병 하의 공동체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업의 어려움 여부와 내용
- 감염병 상황에서의 지원 방식의 변화
- 감염병 하 공동체 지원사업의 역할과 전망

### Ⅲ. 지원사업의 경과 및 효과

1. 지원사업의 경과는 어떠합니까? 귀 기관(센터 / 조직의 담당부서 등) 내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지역에서의 사업의 변화도 포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의 사업규모, 지원의 내용, 방향성의 변화 등

2. 지원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특히 영유아대상 육아공동체의 주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의 발달과 성장
- 고립육아에 대한 어려움의 완화, 양육자 시간의 확보
- 이웃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 참여 등

3.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합니까? 확정된 계획을 비롯해 고려중인 계획, 사업 전망에 대해 주십시오.

- 향후 지원사업의 확대 또는 변화에 대한 계획, 필요성 전망

#### IV. 육아공동체의 참여와 만족도

1. 육아공동체의 주된 참여자들은 어떠한가요? 이들의 주된 참여경로는 어떠한가요?

- 주 참여대상
- 지역별 참여자 특이성 여부 및 내용(농산어촌, 산업단지, 공동주택, 다문화 가구 등)
- 주된 참여경로/ 홍보 및 모집경로

2. 육아공동체의 주요 유형은 어떠합니까? 유형별 공동체 활동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3. 육아공동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하다고 생각되시나요?

- 참여부모의 특성별 만족도
- 만족 및 불만족의 이유

## V. 개선 및 요구사항

1. 영유아(미취학아동) 대상 육아공동체에 대한 수요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원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3. 육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4. 기타 육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68 650329  
ISBN 979-11-6865-032-9